

1972년 6월 20일 인쇄

1972년 6월 25일 발행

공군

<제 129 호>

영구보존

1972





「클레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 예방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클레이」 대장이 5월 5일 친선방문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클레이」대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국민교육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미 314사단장, 이임인사차 옥 만호 참모총장 예방

- (상) : 5월 31일, 미 314사단장 「멜로이」장군이 이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옥총장은 이임하는 「멜로이」장군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 (하) : 5월 22일 한국공군발전예에 이바지 해온 미공군무관 「웨어」중령에 대한 4등 보국훈장 3·1장 수여.



퇴임 심 홍선 합참의장 내방

- (상) : 퇴임하는 심홍선 합참의장이 6월 1일 퇴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 (하) :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가 5월 10일, 공군본부 기획상황실에서 옥 만호참모총장 임석리 전 부대 정훈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 군」 제129호 차 례

☆ 권 두 언 정 훈 감 신 찬... (2)

● 정신적 주체성과 육체적 단련 립 한 영... (4)

● 자주국방태세 확립과 군의 정예화(하) 전우신문논설위원 이 창 록... (12)

● 새로운 군 기풍과 정신풍토의 쇄신 김 팔 봉... (12)

● 백두산과 정계비 경희대 교수 서 중 석... (29)

(수) 말많은 백성 문박 서울대대학원장 이 승 녕... (36)

(필) 아는 진리는 착각이다 이대 시청각교육원장 김 은 우... (38)

특집 : 군인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정훈강좌

군인과 신앙 이 건 명... (41) 군인과 생활 손 철 영... (53)

군인과 준법정신 정 덕 장... (47) 군인과 인격 이 종 안... (58)

군생활 소고 이 동 익... (63)

공군에 기대한다 서울대 교수 장 병 립... (68)

 철박·동국대 불교대학장 서 경 보... (70)

 소년한국 주간 조 풍 연... (72)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 ☆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손 용 기... (74)

권한과 책임 지 승 롱... (79)

조직의 효율성 김 광 영... (83)

공군에 산다 김 상 광... (88)

ECM의 효용과 그 전망 양 력 재... (91)

표지 및 차례화 진 광 선

-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리층 연구 최 승 철... (101)
- 북괴의 적화통일 전략을 해부한다 편 집 실... (116)
- 제 2의 6.25를 경계하자 극동문제 연구소 강 동 현... (121)
- 아시아는 움직인다 김 수 옥... (127)

당신의 용지를 조국하늘에 대한적십자사 섭의부 간사 윤 여 훈... (135)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공군소령 서 진 태... (139)

- (만)(화) 공군 만상 박 진 래... (142)
- 피로하기 쉬운 눈 최안과의원 원장 최 기 용... (144)
- 공군의 지상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김 영 택... (148)
- <사범시험 합격기> 방황이 끝나고 공군소위 김 윤 호... (164)
- 군복을 벗으며 최 홍 길... (169)
- 독일인의 알뜰정신 아동문학가 윤 석 중... (172)
- 수 영 한 공 렬... (177)
- 공군 초창기의 숨겨진 이야기들 전 재 수... (183)

● 군종특집 : 총력안보와 군종업무의 갱신 ●

- 종교활동 업무의 갱신 서울신학대 교수 허 경 삼... (189)
- 도의교육 업무의 갱신 기독교 의료봉사회 총무 이 영 렬... (193)
- 상담업무의 갱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간사 최 원 진... (197)
- 원호봉사 활동의 갱신 성모병원 경리처장 김 춘 근... (200)
- 군종활동의 중요성 서울여대 교목 유 병 춘... (202)

◀ 단 편 ▶ 고 양 이 김 병 토... (206)



(제129호 · 1973년 제3호)

<신 로보: 무단 전재 금지>

발행처: 용인문화정보개발
 발행처: 용인문화정보개발
 인쇄처: 용인문화정보개발
 인쇄처: 용인문화정보개발

전화: TEL. 413-228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공」지지는 간 오인규정에 수록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화국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하고자 할만기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화국헌법에 위배되는 사태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전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본부 정훈감실

권 두 열

고대 그리스 사람은 탁월적인 민족으로서 많은 특
색을 갖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올림픽
의 경기로서 현재의 올림픽으로 저승 탈절되었다.

당시의 올림픽이 경기는 오늘날의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그리스의 아테 「올리스」에서 누
구나 출전하여 승패를 겨루는 민족적 제전이였다. 이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승자의 기록이 전하여지는 것은 겨우 776년이라고
한다. 경기종목은 처음에는 달리기와 역슬링 뿐이었
던 것이 점차 수가 늘어 전차경기, 보병의 함군경기
등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과 같이 5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는데 만약 그리 「올리스」에서 전경이
계속되는 중이던 전쟁은 일단 중지하고 경기에 임했
었다.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승자 개인에 대한 영광
이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올리스」 전체의 크나 큰 영
광이 되었다. 한편 상품은 으레 올리브 잎으로 만든
월계관 하나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이라 하겠다.

또 그리스의 아테라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

다. 그들은 날주주의와 이 『아마추어 정신』이 서로 광
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빛가를 바래지 않고 오직 영광만
을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날주주의의 근본정신과 부합
된다는 것이다.

근래 각 부단에서 크게는 대외적인 출세에의 각지는
대부분 대항 운동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경기를
박론하고 어떤 경기의 우승이 신기를 얻다하는 운동의
욕구라고 본다면 절정할 스포츠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전력의 발파당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 조국을 보위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견여 증장은 어느 한 사람
의 힘 만으로 완수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거
기에 연결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이것은 정신전
력의 발파당이 되는 『아마추어 정신』을 생활화하는대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주체성과 육체적 단련

교육학 박사
정리교육연구원장 김 한 영

머 리 말

영국의 철학자 John Locke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교육사상(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에서 전연한 정신은 전연한 신체에서(The Sound Mind in the Sound Body)라는 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육체와 정신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몸다른 정신을 갖도가 하면 먼저 몸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것과 육체와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정수석나 학교수석나 군대에 있어 온갖 온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신체적 단련이 아주 알로 엄격한 것이며, 또한 가정에 있어 어릴 때부터 좋은 도양을 받아 두기 위하여 체질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흔히 가정에서 쓰는 직언이 있는데, 즉 「깨우에는 장사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체면이라는 것이 허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눈물을 먹인다, 몽아라를 더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체격의 변연한 현상자를 위한 교육의 온계하는 법의 하나이다. 이는 육체의 고통을 경중하게 함으로써 피교육자와 정신을 바로 갖게 하는 보습적 방법이다. 또 자녀의 전념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되게 하는 육체적 단련방법이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년들이 머리를 기르고 장자를 들기 전에는 병기를 땅에다 놓던 것이다. 이들에 결핵자를 울려 지근이 되기까지에는 그들은 머리까지 깨끗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 중에 강한 것이 상무를 땅에 울리는 것이었다. 상무를 땅에 울리는 일은 물론 어른들이 면역치 도화

주는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아무도 없고, 적도 없고 없고, 술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지의 불경도 없이 그저 북북의 어른들이 해 주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상부에는 반드시 명령을 내려 한다. 소 모퉁이로 만든 장한 것으로 한 강건을 저의복 이마에 앞도록 붙여 원래 그 모퉁이 너무 좁아서 이마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3, 4시간의 긴 시간을 일한 밤구 달 한 곳에 못하고 참아야 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어둠은 것이었다. 이렇게 성인이 되면 어떤 아이가 하는 유익한 지식을 버려야 했다. 성인들이 사회에 나가 불과 불에 전후한 소림들이나 음기점이나 불충을 어른들이 하는이 겸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자문이다 모상이다. 불리남은 자를 버리며 주었던 주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정몽은 동양사회의 인간 이치와 서양사회의 이치도 있었다. 소위 성진입은 식(成人入門式)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열차사회의 없이 남자의 경우는 한계(禮儀)를 부하여 성진입문식을 행했으며, 다른 목적의 모퉁이를 정정해 하여 자기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적작히 행한 것이다.

음기점의 안에서 종교적 금욕주의의 생활을 통하여 승진의 생활을 시도한 것이 수도원(修道院)의 생활이며, 악성(業性)을 부정화하여 자기의 육체를 버린 모퉁이 길을 뛰으며, 정정적 합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동양의 있어서의 불교 승려들의 승전(禪院)들의 생활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종의 자족의 생활을 위하여 불 배 광된 목적없는 정정적 생활이란 목적적, 신적적 단편과 그들을 견인하지 않는 이유의 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역사의 한 더 구적적으로 불 배의 스펀주의 제국주의 근속과 승려의 수도원의 단견주의 근속과 오늘날 영국의 케플릭스들의 신적적 근속주의 근속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주체성의 확립이란 엄격한 근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자 한다.

스탈라의 제국주의 근속

우리가 스탈라라는 말을 듣거나 하기도 먼저 자리에 복으로는 불행은

일찍이 한글수의 사상을 엿본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스페르타의 보우는 한글수의 조본이었고, 역사적으로 세조수의 사상을 주입시켜준 또 그의 생애를 지극히 제도이다. 이러한 스페르타의 교육 방법은 20세기의 오늘날까지 그의 영향에 미치지 못한 채물과 보수의수를 중시하는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한글수의 본질 방법을 아직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페르타의 한글수의 교육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스페르타에서는 학생이 전생의 죄면 부모는 이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 도시 국가의 집결회(會議會)의 의하여 그 아이는 공자를 받게 된다. 진감하다고 판정된 아이만이 어머니의 손에 되돌아 가고, 맹약이나 약속이라고 쓰인 것 이외의 죄는 참조되거나 어떤 벌금과 배어 처벌되지 않는 한글수의 법이 되거나 벌이 없으면 노예에 의하여 설명이 구조된다.

장학하고 장조된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상육이 되다가 7세가 되면 장자로 국가가 정형하는 공민교육으로 수용된다. 그들은 교육감독관의 임할 명령에 따라 무차별한 유색의 장본을 받게 된다. 그들은 18세까지 공민수수에 같이 인식하면서 학습한다. 권주나 지수(治柱)의 형제이나 딸로 왕실에게 의탁할 정도로 지현의 보살 것이 없다. 문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대적으로 현왕의 뒤로 현왕의 정수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만일 감독관의 명령에 불복했을 경우 그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적이란 장자 나라는 유색의 학을 수 있는 장성(張兵)으로서 필요한 장적인 선택과 선택과 복종심을 기르는 방법의 불복을 것이었다. 동서 산로 같은 학과는 필요할 것에 국한시켜 가르쳤다.

18세까지 주로 정주와 지수의 학습결과, 수동, 그리고 문헌(圖說)명지과 같은 지육의 훈련을 소년들에게 시켰다. 그리고 18세 이후 장군이 되면, 공술(鎗術), 승마, 수영 등의 훈련을 받는 것이며, 원정이나 수렵(狩獵)을 가는 경우 그야말로 20여년 동안 지육 훈련으로 돌아다니며 잊지 못할 결속하는 일이 있어라도 꼭 사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눈이 오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려 등락하는 사적이 허다했던 것을 구하는 문헌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훈련의 없이 훈련을 받는 옛날 스페르타의 청년들이야말로 튼튼한 몸과 심박한 세속성의 소유자들이

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은 현역(顯役)으로서 학술 같은 수사에서 공들 생활이라는 글을 붙여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그 중에 석국장이 수월하고 결구력에 강하고 체격이 튼튼한 남자를 200명을 선발하여 왕의 친위병(親衛兵)에 되는 것이었다.

30세가 되어 비로소 성인으로 인격을 받게 되면 그들은 서민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후도 하루의 일과는 재독장에 다락과 공동으로 종교집사나 함장지(含唱士)나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 두 참가하여 수월히 도사구자를 수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없으면 안 된다. 이라도 공동교육장에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자가 하는 똑같은 신라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저지있는 것은 물론 후일과라도 일시적은 신랄 선무자 한 거룩에서 생활하도록 허용이 되나, 생활은 남라관의 정판하는 공동생활관들, 신부는 여과만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속에서 각기 언적한 구유있는 생활을 해야만 되었다. 당시 농성제가 유행이 되었다고 하니 동성제의 기원은 이것이다. 같이 오면 벗은 죽여야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질서있게 훈련을 받은 스텔라의 청년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수월한 조국애의 의식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경우에는 볼드이 승전을 징위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덕한 육체의 달결을 통하여 정신적 주력체제를 확립할 것은 수도원(修道院)주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세 수도원주의와 금욕생활

크리스토프의 고결적 성격은 인간체신의 순실적 육정적(肉情的) 생활을 부정하며, 금욕주의(禁慾主義)적 입장에 인간의 명목 구원을 하나의 지상무로트 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 수도원주의였다.

수도원은 동방(東方)에서 그 기원(起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세기경부터 사겔트 및 구라족 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수도생활이란 복수적인 것에서 격서(隔世)되어 고독을 즐기며, 금욕생활에 들어가서 내오는 단식(斷食)을 하며, 혹은 육체를 괴롭히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의 체계 속

에서 명상과 기도를 결합하는 성취를 뜻하게 되었다. 제 4세기 에 이르러 지역
한 수도생활은 그리스도교의 특히 가톨릭교도들의 승려(僧侶)의 운동의 생
활지가 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이는 다량대 문화보존과 세속계(世俗界)를
달리하는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수도원 생활을 일컫는 교육의 집단생활의 장소로 만든 것이 유명한
셀치디딕트(St. Benedict, 480~545)이다. 그는 자기의 집단을 위한 72의
제율을 작성했다. 물론 그 집단생활의 공동체 근근이상은 금주주의이었다.
승려들의 미덕은 자기들의 육체를 비롯한 합으로써 정신을 순화시키는 데 있
다. 즉 전성과 인내가 그들의 가치관이다. 즉 자기 몸을 돌보진 않거 미분
서 인제나 무책임한 음주와 불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며 의형적인 쾌락이나 신재상의 실결같은 것은 조금도 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성적 의형생활의 무정은 논쟁 없이도 있는 정신적 생활과 도덕적
합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원의 입원하는 승려는 하리와 같은 세 가지를 세속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첫째 수도원은 자기 일생의 거주지(居住處)로 삼을 것. 둘째, 물과 유
곡을 버리고 쉼과 정조(貞操)를 지킬 것. 셋째, 연정자와 수속의 환경에
복종할 것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절결과 궁극적 인내의 생활을 그의 신조
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정을 버리고 물이나 절제를 부정하게서 연인의
생활을 하거나 자제는 말할 수 없는 고행과 단련과 훈련이 필수 조건이었다.

셀치디딕트의 제율은 일반적으로 의무와 예외와 훈련과 절제 등으로 규정
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기도하며 또한 무지컬히 일
하라」라고 훈계했으며, 매일 절제시간 이상의 노동과 두시간 이상의 독서
를 강력했다. 이렇게 노동의 중요성을 규정할 것은 교육에 있어서 노력(勞
作)의 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것이 의의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생활을 통
하여 승려들은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결과물을 농민들에게 시일을
보여주었으며, 공작이나 전후이나 금세공같은 방법을 공작인(工作人)에게
가르쳐 주었다.

결과가 영국 런던교회의 한적한 곳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할 일이 있다.

남자 약 50여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후에서 현실의 부정과 부패와 육체의 생활을 되버리고 오로지 순결의 세계를 찾아쓰고자 온갖 육체의 고통을 참고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욕을 모른다. 그들의 이상은 육체적인 허물이 다 사라진다는 것에 보이기 싫은 자기만이 정할 수 있는 순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금욕주의 생활방법은 구약대에까지 영향을 준 것 중의 영국의 국민들의 이상상(理想象)이 되고 있는 실사도도 정실정적까지 미치고 있다.

영국의 계몽적 스물의 생활

영국사람들의 사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영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달라서 세속보다 편하는 것으로도 또한 것, 보수적인 것, 그리고 편하면서도 편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한다. 한국 사람이 북극의 극도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진동을 소중히 여기듯이 영국 사람도 그렇다. 때때로 영국의 가정교육이 엄한 것은 구약대에 있어 유난히 살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자정에 있어 늦게서야 깨달 비웃고 고양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아동도 자정에 있어 자정 병하게 훈련되는 것이 그들의 연행심사(言行心息)이다. 결코 영국의 소년은 권거리에 나와 노는 배움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방해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때부터 심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영국의 가정교육이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에 대한 봉사, 조국정당에 대한 충성을 자기의 개인적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그들의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이 되고 있는 신사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영할 만큼 집안에서 훈련이 되어 사회의 생활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다. 격은에 입지 모르나 영국사람은 결코 러스를 탈 때 세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또한 탐 열세가 되면 어떠한 식감이나 코트를 따문하고 수문을 열어 못하지, 하고 있다. 결국이 영국을 처음 갔을 때 밤 9시 30분경 정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편주옷을 지어

학구를 탐구하고 있을 때 적지 않은 장벽을 만난 일이 있다. 그들은 진정한 일꾼의 길에 있어서 자정(自正) 목적의 결단으로 동남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선은 영국학교의 특색이 되고 있는 직전쪽 스쿨에서 본편이 되고 있다. 전 수장이었던 처원이 출업한 「이른 러블릭스쿨」의 학생들의 생활의 실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학교는 고등학교, 혹은 미국의 초급대학 정도의 학교이다. 인원은 여자와 남인, 본과가 6년이다. 이 학교는 권위적 습속을 강제로 강요 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자인의 주자적 자유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강등의 집단 생활이 줄곧내의(貫注)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학교 계속하여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은 학교 전채스 밖의 외출이 금지되고 있으며, 체야부라 자기 일이 학교 근처에 있어라도 한낱 동만이는 부모나 가족을 생각 면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학교의 24시간의 생활이 다같이 절두 같이 군더적 생활과 조서의 코르노에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과의 진정한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인력도야가 있는가 하면 또한 절제의 이력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라는 것도 그들은 작오하고 있다. 그들은 한 계속하여서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쉬면서 자유없는 공동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영국 「리블릭」학상의 오늘날의 전지한 모습이다.

절자가 정성한 것에 따르면 그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저를 일하 30도가 넘는 자기는 체적에도 불문동은 절한 명수야절을 해야 한다. 조반먹을 때 반드시 설예를 기도한다. 조외 하는 생활을 입고 교장이 30분간 설교를 한다.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30분 학과 공부를 마치고의 과외활동은 두 시간 갖는다. 그리고 저녁먹는 시간까지 약 한 시간 자유시간이 허용된다. 7시 30분 저녁을 먹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기 방에서 묵습, 예습을 한다. 9시 53분에 전로(禱)가 있다. 열시간 되면 레침, 열시, 관제 소등 이것이 24시간 동안의 제정과 생활의 독고한 생활도의 줄기 생활 교육이다.

제리한 자유가 없는 구들의 비두의 속에서 영국왕실의 대장 중성 권위 코르의 명예직, 자인의 자부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국 사립지립 자단심이 강

하고 신격이 있고, 말없이 절제하고, 인내심이 강한 민족은 보지 드물다고 하는 것이 새론이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과 달콤한 휴식에서 자기 개인 보다는 민족을, 자기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성은 확고할 것이며 그들의 자치정은 뚜렷할 것이다.

전론— 육체와 정신의 조화

이제까지 우리는 육체적 훈련을 통하여 정신적 주체로서의 확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정월주의 사상을 논해 왔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인 것이 높고 육체적일 것이 낫다는 뜻도 확고하고, 물질적인 것이 낮고 정신적인 것이 낫다는 의미도 아니다.

특히 관념주의 사상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소관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이나 경제를 종교나 자유보다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인간보다 초자연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의 계급주의 사외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사회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나 우리는 똑같이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치는 서로 대립시킬 수도 없는 것이요 또한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정신과 물질, 육체와 마음,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로 같은 것은 자기 서로 분리되는 것에 아니라 상호 필요하여 조화를 이룰 때 세계에서 하나의 완전 창조와 건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예념을 우리의 용기와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때 우리는 궁극주의를 물리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

×

— 제주국방태세 확립과 군의 정비화 —

<하>

이 참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4) 북회군의 전방건설 지주

미국과 중공의 화력두우드가 서지정세의 역류작용(逆流作用)을 불러 일으킨 결과의 결과서는 지면관계로 상술할 수가 없으나 국외의 발흥이 조짐을 지누어 본다면 우선 그 전방건설의 발전을 볼 수가 있다.

즉, 북회는 미국과 중공의 접근으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전쟁도발의 기본 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과학로 본다면, 중공의 후회론은 그들 자체 장기전략의 차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유지하는 바와 같이 북회의 최후는 소련과 중공일바. 특히 6.25 이래의 중

공파의 유래는 분명 이론과 반지투쟁(反帝闘爭)이라는 이념하에서 유래되어 온 터이고, 중공이 비국을 적대시(敵對視)하며 공격한 국정을 계속하는 한에서는 태남전투의 후유지해도 장기성을 띠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중공의 태도 관제가 추고되지 못자 우리 측의 토지는 전쟁도발의 희생(犧牲)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지 되었다.

따라서 말하면, 전쟁도발의 시계선점에 있어서도 중공의 도발이 피박될 것이고, 일단 전당을 앞 우역도 6.25 당시와 같이 즉각 참전이라는 주장도 역시 피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중공의 사수적 태도 한 변도의 진장도(擴張度)를 조속시킬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쟁도발을 견제할지도 모른다는 조조감에 빠지게 된 것만은 돌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치변화의 결과, 우리는 이론과 숙질숙련(熟練適次)의 전장계급으로 굳히지 되었다. 그리고 전장수행의 제 1차 목표를 우리의 수도전장막에 두게 되었다.

전면전장의 방어선을 당겨자마자 피탄시일 제지 수도권을 장악하고, 거기서 방편지역을 적대적으로 적화시켜겠다는 것이 이 숙질숙련의 기본개념인 것이다. 김 일성은 그 전쟁기간을 30일간으로 호언하고 있다. 중공(中東)의 6월전쟁을 응상하고 있는 정적태도라보 아니 할 수 없다.

(5) 자주국방의 기본조건

그러나, 김 일성의 이 명백한 호언을 여윌지 못어달수 있는 <형>의 바탕이 과연 우리에지 충분한가를 보찰할 때, 우리는 자주국방의식 확립의 지급성(供給性)을 판단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미미의존(對美依存)의 일체도(一體倒)로 수지해 출연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청산하고 우리 자신의 국력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1971년 12월 6일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서 각 정파 대동행각하는 다음과 같이 적거하였다.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 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저자거나 우리의 안보를 중점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외세적 의존방안을 둘러싸고 거침될 논쟁은 수현국가들의 자주안보를

속구하는 실효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부활 기간의 추가 장군문제는 이미 논 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은 대미르론을 함축하여 정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이룩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타당성을 강조하신 것이다.

또한 75년도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한국안보는 절대로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정이 타워 라드 6.25 때와 같은 조짐은 기대할 수 없으며 기한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며, 제달 5월 8일, 동남아 공보판의 의미 보편 통시 역사는

《최근의 월남전이나 최근의 인도-파키스탄전쟁들이 실증하듯이 강대국 들의 이해관계와 피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 전철을 역사하여 대한민국에 점동성과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 적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박 대통령자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의 기틀을 무려 자신 의 힘으로 구축하여 앞으로 세계대무에 뒤떨어질 큰 야니동 북의 저를 앞 이, 굳건하게 밀쳐도 모른다는 시의적인 정풍이 다할 수 없다.

북의 재정의원을 타서하고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국가상(國家像)을 건 지적 당까지 의해서야 흔들리지 않는 국가안보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급선 무결히 자주국방력은 그 기지(基址)를 이루는 《결》이며, 우리의 생존과 번 영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 군인은 군현의 유적에서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자신의 공헌이 무엇 이었는가를 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자신의 공제가 곧 자주국방 의 기본이건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도 실천면에 힘써서는 과연, 비유할 길이 없는기를 다질 수 있는 군현이 되어야 한다.

자주국방력은 종합된 국력의 극적(極的)인 표상(表象)이다. 무력은 저강 북의 전철도말에 대미되는 자주국방을 저항하고 있다. 따라서 북의 정 경자립의 전철에 예외하게 대응하는 여러가지의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으며 더욱 그 중에서도 공군력의 강화는 그 기본이건 의 핵적(核的)인 《결》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6) 공군의 부거운 짐

국민들은 자주국립의 기대를 공군에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성격과 규모를 삼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축적속도를 호연하고 있는 육군이 어떤 전력(戰力)으로 다른 것인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공전(地空戰)에 따라 전세의 구도가 판가름된다는 설상적인 성격은 별리 보급되어 있다.

공군 장병 자신은 민성이 된 하나의 주권이 국민들에게는 미흡한 편견거리로 되어 있다. 다른 야인 공군기의 비활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커트엔진의 폭음도 소란하게 편대비행하는 모습은 소려다 모여 국민들은 우리 공군의 존재(存在)를 고강의 생각하며 저을 존중한 자주국립을 다짐하게 된다. 이 설상과 기대감은 어디서 연유되는 것일까. 24시간의 물리권을 자처하는 공군이 전제왕으로써 우리의 일궁(일궁)이 안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 육군이 전제왕의 함의를 장이 당기면서 일 먼저 투쟁하게 될 공중원격공격에서 인성과 재산을 보호해줄 자주국립의 지 1차적인 <힘>의 근원이 공군이라는 기본저원이 국민에게 보급되어 있음을 공군장병은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1967년 6월의 중동전쟁(中東戰事)이 남긴 도훈은 공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한층 깊게 해 주고 있다. 이른바 축적속도를 호연하고 있는 북차가서전에서 휘발 전일이 바로 「이스라엘」공군의 기술 선제공격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때문이다.

6월전쟁으로 알려진 이 중동전쟁은 전후시간 (약 30시간 30분의 세계전사에서도 가장 짧은 전쟁으로 기록된다. 「이스라엘」공군은 4월(4戰)과 동시에 기술 선제공격을 자하여 「아랍」연합군의 절반에 해당되는 3의 50기를 격파하여 비공전을 앞선 장악했다. 이 중공기술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를 피탄시간 배터 거력시켜 했다. 「이스라엘」공군의 공중목적은 굳이 그대로 유효한 원격작전(遠程作戰)이었다. 불과 3일만에 광활한 「서사어」를 점령하고 「스이즈」운하를 휘어잡게 된 것은 이 저공원격에서 기갑부대가 중형무력으로 「아랍」군을 후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동의 [일전쟁 — 「이스라엘」]의 승적으로는 열세하면서도 서전에서의 공중 전력확장에 성공함으로써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듯이 전쟁은 현재전에 있어서의 공중력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끊임적으로 보여 주었다.

북괴가 이른바 30일 기한의 수권속결을 피할 때, 핵실험을 자강하는 「미그」를 비롯하여 정복력을 증대원, 우리의 공중의 패도를 것을 생각하면, 우리 공중의 역할은 손색을 타투는 것들상황에서 실로 국가안보의 안위(安危)를 결정짓게 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된다.

(7) 공중의 정예화

이 무거운 짐을 결여하고 있는 공중의 역할에 맞추어 국민들은 한결같이 공중의 정예화(精銳化)를 원하고 있다. 오늘의 국가정세에 맞추어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공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국의 손으로는 거출(擲出)의 개발(開發)이라는 말(言葉)에 의의(意義)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은 공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 공군의 비하여 우리 공군이 일체지 출(出)되었음은 안타깝게 보인다. 미 공군지가 보호한 바에 의하면 북괴는 「미그」 21형 3백대를 주축으로 하여 각종 공격용을 5백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적전거지를 유전할 자격을 지점까지 강화시키고 있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거처를 발전하여 불과 5천도 안 되는 지근거리에 우리의 수권권을 점근시켜 서편(西邊)의 적격(敵格)을 자백(自白)하는 것이다.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일원과 관구(管區)적의 군사 및 교통 산업의 주요지점의 적기(敵機) 위협이 있을 것은 전 훗날의 얘기(話)가 아니다. 내일 수권의라도 일(일)성이(性)가 본(本)한다면 저들의을 위협(威嚇)에 능(能)한(能) 실정(實情)이다.

이 위급한 상황을 앞지 비문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공중의 정예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편(此)의 면(面)에서 공중의 정예화를 원하고 있는 것일지 — 이 결(決)에 관하여 공군장관은 전(前)적(積)한 해답(解答)을 내놓(出)자(者)라 할(可) 줄(도) 알(라)다.

즉, 비행기의 자체생산이 어떠한 많은 실정에 맞추어 무엇을 어떻게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 필자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군장관에게 간곡히

현하고 있다. 작구의 말하면, 특권층들의 권승의 실패를 스스로 배양함과 아울러, 부의 공군의 전기(戰敗)를 완전 치할 수 없는 국력을 현상하는 것이 우리 공군에게 말해진 정세와의 일치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거장과 장대의 현상과 문제는 미국의의 경우같이, 말기기로 하자. 공군의 정세와의 첫강이 지금의 대장과 장리의 원리와의 대응은 두 말할 나위자 없으면서도 오늘날의 실상은 공군장병에게 국제적력의 양설이라는 문제를 첫 강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쟁자의 편에 따르던 항공력의 변화는 정성까지 적어 없으며, 각각의 경쟁이다 말로 볼것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신기종(新機種)도 사실이전 원적 구형(舊型)에 속하게 되리만큼 그 개발발전의 명로는 변화무쌍하다고 한다. 하나의 전투기만 해도 항상 삼각적으로 리도 검토되면서 개발을 거듭하고, 된다. 참수검과 회전검, 그리고 무체장의 승륙 또는 전투제원(戰術機)에 걸쳐 한 개의 인공리라고도 보 되고자 하는 것의 항공기의 경쟁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 공군은 국제생산력의 미약으로 인하여 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게 됨으로 변화는 서지의 원리는 지금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제 안타까움을 견습으며 무(無)에서 (有)를 창조해 내는 작고(製作)를 견고 된다. 그러나, 순간으로 결판나는 동군의 신세적자는 한 시일들 안이 할 수가 없으며, 전기면(戰術面)과 정선면, 그리고 복력면과 있어서 조운수(超音速)의 심공과도 같은 순장의 승륙체제를 능히 이겨 버릴 수 있는 자식일파의, 중전하게만 안 되는 것이 공군중심의 전투라고 복시 과일은 아닐 것 같다.

발전일로의 항공자위계를 재건하기의 의정을 바쳤다는 「전다지노우(戰田智野)」공작(空將)은 항공중대사령(航空總隊司令部)적에 있으면서 6출(出)의 노구를 무릅쓰고 지구 서너번성은 「저트」를 댔다고 한다. 발전하는 항공기에 뒤지지 않기 위한 개인적일 노력이다.

그는 말하고 있다. 「파일럿」에게는 무관적일 자제력(自制力)이 요구된다. 즉, 조음속의 가혹한 시제를 이겨내기 위해 개인적일 모든 신력(新力)을 참자면서 노력, 정신력과 행력을 단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도 한다. 초음속 전투기는 매시 2만피트(약 15킬로)의 고공을 비행하게 된다. 몸체의 양을 지상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내려간다. 산소를 호흡하기 않으면 20초에서 1분간 밖에 살 수 없다. 또한,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순간에 필자는 충격파(衝擊波)로 인해 일체의 위장과 피부에 명렬한 상처를 받게 된다.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중점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비행복을 착용하여 기압(氣壓)과 혈액순환을 전하여 낼 수가 있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예방조치를 보완하는 것이 「피일트」 자신의 정신력과 체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공군의 정예화를 논하면서 이 지면적인 면에서 돌출한다면 뿌리없는 나무를 황무지에 심는 것과 다를바 없다. 「피일트」를 비행기를 구사하는 기량과 정신력 및 체력인자의 화신을 닮아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비행사의 응시를 유지하고 정미사의 노고도 또한 공군정예화의 새날을 수 있는 건전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정미사의 노고는 공군전력을 유지하는 분야의서 핵심적인 공헌이랄 수 있다. 평범한 말괄자면, 아무런 우수할 「피일트」이란 자라도 정미사를향한 대항기로서는 남의 많은 특수자에 못부할 것이다. 또한 기구의 근사적일수록 유지되는 공군의 장비이고 또한 우리 공군에게서 아직껏 한 계라도 소중할 계란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면에서는 제정신이 고여지지 않련다. 그 기한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적실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여 발휘케 하는대는 정미분야의 숨은 공로라 결미 불가결하다.

전자는 일련의 도구기계의 지상장을 전락할 일이 있었다. 직남코의 물리관 각종 지층에는 여러 명의 정미사들이 매달려 적각기 담당직선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밤이던 작업장들을 바라보면의 필자는 때때로적게 느꼈다. 우리 공군의 실명선이 여러적 돌연의 있다는 느낌에 있었다. 자일되는 몸속을 따의 순간, 적 각의 때는 어느 한 구분이전간의 실명만이라도 틀이 없다면 지체는 여러없이 산술조각에 날 것만 같았다. 다섯등 한 계를 자각도 전력을 지을지는 정미사의 견지할 눈초리에 그러한 작업감이 타격이었고 있다. 자기의 실명을 기계의 부어들은듯이 보게 전자는 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공군이 전역화와 지지는 차이를 깨달았다. 저 견지한 작업모습 후의 공군 정예화의 열렬이 보여있는 것이라고 느

제면의 북과 공군을 늘려 제압하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통감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언젠가 지나 남이 쓰는 지원어만 의존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의 손에 의해서 서지 필경의 실어기에 못지 않은 기동이 개발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서기에 원하는 공군력을 갖출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는 노력이 행해져야 할 한다. 필자가 과분한 탓으로 지 열구문자에 관해서는 언급할진할 작로가 없지말 열결함 상식이나마 우리 공군이 자체생산의 수요로 충당되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깊결하다.

(8) 승리를 향하여

그런 날을 뒤로 두고, 지금 당장 우리 공군이 직면해야 할 것은 북의 공군을 완전히 제압하는 목적의 정예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고 보면, 북의 공군 적시 소멸이라는 반후공급적의 지원으로 전제화에 현안이 되고 있다. 기동(機動)으로 본다면 미국과 소련의 대결장이 따로 우리 한반도의 상공이랄 수도 있다. 1967년의 중동전쟁은 「프랑스」의 「밀라유」지역 소련의 「미그」기가 대결한 결전이었다. 그 결과는 「밀라유」지역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밀라유」기가 「미그」보다 월등하게 우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두갈이 외국의 협조를 받았으면 서로 노할 성능면에서도 지등할 활공기로 대결했으면 서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일부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다음 아년 지함 및 전설력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였다. 칼럼이 함심(機心)을 모자 못재 여러갈인 본보기였다. 「이스라엘」공군은 「프랑스」에서 구입한 「밀라유」기를 놓고 별음을 다짐했다. 국가의 운명을 그 계획에 붙여넣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공군은 외압어린 훈련과 정비, 그리고 모든 세부수입에 열렬한 자산을 썼다.

이에 반해, 「아랍」공군은 그저 숫적으로 우세한 세력에만 만족하여 훈련이 부족했다. 즉 이겨야겠다는 집념이 결핍했다. 이 결핍은 장(機)제원에 속하는 정신불안일 뿐, 누구에게서 주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련이 수많은 「미그」기를 제공하면서 꼭 이겨야 한다는 집념에서 결핍어 준 것은

아니다.

1967년 6월 5일 리정, 「이스라엘」공국은 일단 저중회(總中會)상등으로 집권후의 그로로 「아잔」을 역습했다. 필리파타 정복진 목표를 향해 선적선으로 급강하했다. 지덕의 총사 「레이더」도 생략관역서 제복다지 않은 상태였다. 「이스라엘」의 「그벨렌」들은 승원적으로 발파중적의 「타원」을 놓으려했다. 「로키트」발파 중단, 그리고 저중회들은 한 달의 제복도 없이 모조적 목표물에 감응했다. 그것은 저중회에 발파되는 최물안착할 어김없이 목표물에서 폭발했다. 발파고 열된 정복진의 결과였다. 결렬히 제정된 도상(道場)의 정복과 다물과 열었다. 다만 한에 익은 저중회 미리의 작렬없는 판단력이 승원처럼 작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관중관 보물을 얻을 수가 없다. 정복과 승원, 그리고 그 위에 승원들은 정복의 신성, 타미지는 무적없이 행치우는 복잡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국민이 타락고 있는 현재 이 저중의 공중정적화의 뜻을 서기에 정복진의 공중정적 의의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자물쇠장해두기 바란다.

(나는 지금, 비연 북적 공중을 의적하여 나의 책무를 따라고 있는가) 공중정적대의 목표는 일체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정복이란 노략은 지금 당장 격투지 않으질 안 된다.

정복진의 불침번—축안으로는 무적리를 수도 없는 정복지이트 정복지적 각별한 정복에 전담을 불복유도 있는 공중정적의 승원을 고려면서 조국의 오늘날 국민이 정복진의 불침번의 의의 금전적 지적지고 있음을 마음깊이 되물게 생각할 국민이다.



새로운 균 기풍파

정신풍로의 쇄신

작가 김 팔 룡

○ 상급자는 반성해야

몇달 전에 어쩔수 없었던 김에 도둑이 들어간다가 살건을 유죄나지도 못할 증거를 갖고 쓰러지 버렸는데 그제 도둑에게 권총을 들이킨 자살이 이 세우의 정부 원리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지 군인이 상대적 실리 없고 어쩔 수 밖에서 잡히고 있었느냐고 사회에서 같이 생각했던 일이 있다. 권총을 쏘 군인은 어느 장성의 부복이요, 그의 아버지는 예능있는 기술가요, 재산가라는데, 겨우 탈출거리가 되었을 모양이다.

군대 영내에서 복무해야 할 장성이 이렇듯 권어늘고는 병대에 출근은 할 하고 제 맘대로 생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런 군대는 어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누구는 영내에서 먹고 자고 일해야만 하는데 누구는 코빼기도 안보이면서 제국대로 활동한다. 힘도 기술도 결서도 아무 것도 없는 무력들이라, 하나의 조직된 집단이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인간 외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규율이 엄중해서 모든 장병들이 자기 지켜야 할 규율에 절대종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합으로 엄중하고 중정한 규율의 바탕으로 군대의 제일 보편이다.

그런데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각급 지휘자의 결심자는 규율에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경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노력해야 할다. 만일 규율에 모순점이 있다면 그 규율을 수정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서도 규율이 간혹스런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자자가 지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규율을 잘 지켰는가 스스로

붙어보아서 자기가 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던 일이 한 편이라도 있었다면
결연은 두 편 위한다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는 공
을 위한다고 해도 남의게만 공을 잃수하라던 그 말이 통할 여력이 없지
않은지.

공경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경당하다는 뜻이다. 상봉에게도 사별들에게도
라지 지켜야 할 공을 잃 분수의 알맞지 부족이 있으므로 이것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만일 여기서 공경한 공산의 위하는 조력이 없다면 경당
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불경적이든 무슨 수정자가 되고 설
체하도록 해야 한다.

공경함과 경당함은 인간의 사색에 존재하는 의문이다. 정치·윤리·행
동·봉사 등—이같은 덕목(德目)도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기본과수제다
우. 만일 나의 의의하는 공경한 공을 잃수야 으름하는 조력이다. 만일의
공들이 공경하고 경당하게 보되라 있고 그리고 그 공들이 잃수된다 하려면
도 주위가 의의해 장악하고 있는 조력이 없나 없나. 그것은 다름 아나라
살급자의 사색(私色)이 전의하고 전의하고 전의하고 있다는 조력이다.
만일 살급자와 분수의 잃지는 조력생활을 한두번지. 그렇게 사색한 생활
을 하지 의의해 의의하리나 혹은 민간인으로부터 금전의나 잘 받아먹는
다른—설치로 만일의 불평을 부정생활을 권다든지 할수할 이치아말로
만일대부의 공을 잃수하는 조력은 살급자의 수직할 수 없는 조력이다. 살
급자의 수직함은 많은 하급자들간의 정성을 받들만큼 정을 결핵하고 만일
같은 만경하다면 모든 사상이나 그런 살급자를 수직의 보지 되고 전심으로
수직하게 된다. 정성의 부족함은 열지 못한 공경을 보는데 살급자는 아무
같은 공경만 보어보지. 하급자들의 가슴 속의 불평의 수가 왕으로 그것다
사색한 단결하는 작용으로 응지되고 하여 다중적인 갖아 갖질 수되마지 잘
이지 된다. 외간은 살급자중에서되는 복부지방의 의의 조력(宗親)을 잡아
하면 만경과 의의 부족의 수직함과 그다 장성들을 보되라 6월의일이 보
는 되달리만큼 의의로 민간인 생활으로 전의해 의의로 보되라 보되라는 보
되라 있었다. 살급자의 복부지방을 결핵하고 의의해 오기 보되라이 복은
모 함라를 만경대부 살도이로 입이달리 수직이다. 정성의 사상이나 사색은

나의 사랑은 너와 지휘관들을 존경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승급자를 너처럼
모든 도망가게 했었을 것이다.

○ 구슬보다 중요한 것

군의 지장은 몸을 조분리할 적지 않은 구슬이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슬도 있거야 하지만 그 구슬을 뒷받침하는 사랑하는
다음의 더 중요하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진우(眞友)로써 함께 엮어진
값을 따라 줄을 수 없는 정지같고 어찌미같은 친목을 인식하고 그같은 심
터덕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어야 한다. 소련당시 중공군이 체임러서 전투가
합참 가열했을 때 어느 부군사단에서는 사단장의 탐살이 만원이 줄이하기
늘어 가지도 사병이 그 분상소반을 저지 열굴 턱이리 위로 들라올만큼 높이
이 받들고서 사단장실로 가져가야만 했다. 두 갈을 꼭 열굴의 소반을 높이
켜켜들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이놈, 내가 탐살을 갖고 오다가 기절을 한다
면 중공군의 탐살 위에 떨어질단말다... 당할자우!』 이같은 투지거리가 비
락같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한다. 사단장이나 수병이나 국가의 간성으로서
하나의 진우(眞友)일 때도 이같은 사단장의 자에게는 사랑이라곤 추로도 없
게 함은가. 어찌미같은... 형제같은... 그런 베풀기가 있다면, 자기말은 특
별히 만든 요리로 사침 저녁 식사를 해야 하고, 말상소반을 턱위로 높이
켜들고서 가져오라고까지 하는 듯했을 지 아닌가 말이다.

승급자와 하급자의 대하 사랑이 부족한 사례는 허다하게 많다.

서울수부 직후 몇 사람의 교수부 합쳐 일선대 장임을 나간 일이 있었는
데, 당파 합쳐 어느 군대에 들었으면 교수는 어느 수단의 지식 이들 동안 체
주하였건간 장편은커녕 자갈의 한 번도 자적보지 못하고 생사불민이 군단은
부속의 우리 일행과 의동력에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결정한 이
야기를 과속과 같이 들켜 주었다. — 우, 모 사단에 도착하니와 정훈부장 어
하 만나는 장교마다 이주 물이 죽어세 벽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서
술서 온 손님같이 권래드린 달걀 한 장도 없었고 하여라는 것이다. 어찌된
별일가 나중에 취원할 무렵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날 사단장이 비육의 동
모택적으로 품부가지 되어 사단본부에서는 사단장 역할이 있었는때 아들

아침서부터 광장에 걸참시켜 온 몇 장병들을 두 사람 여왕장장이다 세워서
 도끼 수발장이 나타나자 아니 했두는 것이다. 그전날 야기 사단의 몇 장병
 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몇 백만원인가의 돈을 거두어 사단장한테 아꼈는데,
 이영석화엔 날 마친이 사단장은 그제야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부
 하 어느 열대장한테 전화를 걸고서 자기가 그 곳을 방문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단장에게 정합서편 관영은 아닐것까지 알고서 열대장
 한대로 갔다. 열대장은 이미 승질잡은 거둬먹은 위이적에는 자기 열대를 방
 금은 사단장을 믿는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무하장병들의 도
 주머니를 털어 30만원인가 정합자를 사단장한테 하였다. 이런 뒤에 사단장
 은 사단장에게 정합한 장병들 앞에 나타나서 이일전을 지냈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가 도망갔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은 주머니에
 돈은 털어지고 아질인 주위과 열고 지치신 적이 마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병들도 보관해도 아무 조화가 있을 것이나 그만 두자는 것이 사단장은우
 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교수는 지를 돌아 구경단 하모석 글당으로 돌아왔거
 는 마저거였다. 그제 나는 절더가 어려운 역분을 느꼈지만 억척할 도리가
 없었다. 상급자가 이적자이고석자 근의 거중을 마저 마도 쫓을 수가 없으
 라. 설로 할십스런 여이기가 마진가. 탈일 그 사단장 마를 막에 장병들애
 대한 사말이 조망이라도 있었다면 이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 사랑하는 마음

옛날의 오기(吳起)라는 장수는 무려 사병이 동어리치 좋기가 많아져지
 고 고통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배려다가 자기 손수 교음을 지내고 그
 좋지 구경이다 일을 대고서 집짓 팔아 털어리를 찾다을 후 교약을 붙여주었
 다. 그래서 그 사병은 설의 나왔다. 이같은 소문을 듣고 그 사병의 어거너
 는 슬퍼하여 울었다. 이웃 사람들이 외 두느냐고 들으니자 불덕장님이 아들
 능의 동기할 자리를 힘으로 받아라지 주셨으니 내 자식들이 열어나 은혜를
 입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능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내놓고서
 대장님을 위해 싸우다이니 아무해도 변할지 나가 싸우다가 죽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인제는 죽은 자식이나 다를바 없어서 그걸 생각하니 슬퍼서 눈

물이 납니다』로 대답하는데 이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두 파의 머구에 폭포
 걸리어 떨어뜨리고 그 수로는 최전선에서 용병히 싸우다가 결과하고 말
 았다는 것이다. —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중국에 있었던 기록이
 다. 그리고 이것은 차이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을 바로 배우는 일이 막대한 군대를 만드는 일면 자원으로 군을 통
 령하는 최고책임자는 항상 작금 계획관에게 군기(軍紀)를 확립하라는 지시
 를 하는 터인데, 비상사태가 선포된 작금의 현실은 더욱 더 군대의 기동
 이 다들여져야 할 경력이 요구한다.

작은 집단이거나 큰 집단이거나 하나의 집단은 첫째 화목(和睦)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마음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단의 모든 요원(要員)
 들은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자태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일컫는 말인가 한 번 생각해 보
 자.

◇ 꽃나뭇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가리키는 해독같이 따진다. 저 사람
 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곧 나의 고통으로 느낄만큼 정이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대로 저 사람한테 고통이 안 가도록 보
 살려 준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려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내가 양
 보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될까도록 드문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지할 분을 내가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육체 순서가 바뀌어서는
 내가 저 사람 앞이 나서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안 이상 절대로 안이 나서
 게 않고 양보한다. 그래야만 절망할 순서가 되지 때문이다.

양보하는 마음과 함께 할까 증명하는 마음은 겸손하는 마음이다. 겸손해
 서 자기를 저 사람보다 높보이지 마려고 하는 결과를 안 갖고 저 사람을 음
 려준다. 여러 사람에게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 누가 그 공적을 썼느냐고 물

보면, 뜻을 많이 쓴 사람은 모두 저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 아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장 노력한 사람이 단말없다 순치라하고 자기를 해놓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로를 돌려주는, 이같은 마음과정이야말로 마음다운 마음이다. 알은 생각하면 앓을 제일 같이 쓰로서도 공은 남에게 돌린다는 것은 꼭으나 하는 것이라고 순조롭게 받기 쉬운 일임은 저 모르지만, 결국 공경하게 보는 사람의 말에는 모든 저 알리려고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지를 썼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자면서 진실은 알리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경손했듯이 순조로운 것은 꼭나도 없는 것이 아닐까 말이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공동수업한 동료들한테 친절하고 친절하는 뜻을 보였던 것만큼 순조로운지 어느 동료들로부터 반부족 순경을 받게 됨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알은 속담이 『꽃다발은 저 사람에게 돌려달라』는 말이 있다. 무슨 환경에 처든지 기쁘게 하는지 혼이 다 상의 없이 놓고서 꽃다발을 증명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뜻으로 사람으로 쓰며 꽃다발을 받는 사람은 가장 공로받고 명예로운 위치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상으로 꽃다발이 자기가 꽃다발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줄을 알고 있다면 될 수 있는대로 자기는 양보하고서 꽃다발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게 해주라는 말이다. 자기는 꽃다발을 받아 줌으로써 기억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억해주는 것으로써 인사를 보답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는 습치 없게만, 자기가 다음으로 순경을 받으면 이같은 겸손의 응시 된다.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남들이 그의 겸손을 존경하게 되니까 결과에 입지하는 자꾸면 순경이 없지 않겠다.

위대한 일과와 같이 남을 내 몸같이 마음주요-- 자기가 남보다 우로 을 낮아리고 나쁘지 않고 양모양지-- 명세를 잘라지 않고 겸손하기를 순화시킬 것은 자기의 남들한테 봉기(奉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순화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를 남들도 알게 된다.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봉기하는 친구야말로 우리의 보배라고 주위에서 친구들에게 일컫지 될 적 때로써 그는 열성이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질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다음이름 되지 이런 것이다.

◇ 정실가족의 혁명

이제 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는 우리 근대의 새로운 민주정은 공정한 국민이 임수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태로운 전체 국민들은 각기 자기 정실가족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어야겠다. 정실혁명을 시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월남전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월남군의 비무장자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후계 권력하고 있는 월남당의 지역을 전실권력 감지 후속의 유전적 생립된다면— 그리고 비무장자퇴에 강명의 내리고 시복공부의 인정정권이 세워진 후 총선거가 실시되기로 미국과 월남과 소련이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말이다. 일찌기 장년 전 5·16혁명이 있은후 대한반도에서 간접정권의 음모란 분화되어 대량과 국제공산도당들은 월남공화국의 결국 혼돈의 무를 다시 스핀 권력(權權)있는 전정들 몰아내 온지가 벌써 10년이므로 월남후진생립 후엔 또 다른곳에 불장났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상되기에 때문에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력은 비공산화를 날카롭게 무시했다 할 적지민안름 전실을 서로 카다공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현재의 위기(危機)는 장급자의 잘못으로 고름이 깊어가지고 적지리할 생각타나는 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국가의 위기도 국용이나 저버려종의 실정(失政)과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조성되는 것이고— 한 가정의 파산도 그 집 가장의 실책과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파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치런가.

그런 파탄으로 비극이 저연한 정안살림을 다시 일으키려면 가장과 주부의 결연식구 전부가 일심합력하기도 마음을 고쳐 먹고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사태에 정면한 국가도 남쪽을 극복하고서 전진하려면 상하가 일심합력하기도 마음을 고쳐 먹고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전국 요원들의 결실가족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먼저 장급자—지휘관—로 위층이 솔선수범해서 자기혁명을 보여야 한다.

부하를 사랑하라. 동료와 선배를 사랑하라.

사상권을 단정하게 하라. 누구합의서든지 복종응답고 마음을 받을 그런

막위 속치스림고 치치스림고 불수대 침착은 몸스...의주...주디...오락행위를
 하지 말라. 편지나 청정결벽하라. 누구한테든지 응 것을 탐내지 말라. 화
 늘을 쳐다보고서 초압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자음을
 자제라. 그리고 양심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문정하게 규율을 정해 자제고서 그 규율이 엄격능직로 엄중해
 될하라. 문정한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계급이 높거나 맡거나 똑같이 규율에
 정회건과 더로 처분을 받게 받을을 말라.

이같은 세도를 정진문도를 어유하지 않고서는 저급 이 남우를 채치고 전
 절후기 예행하는 것을 깊이 경망이유경우.



〈마음의 양식〉

- 원근야 정적의 억지나 정적 억지의 무용은 그 바위저다.
 (안·브람티엘)
- 지나치게 많은 것을 부리는 사람은 항상 자일할 것이다.
 (클라우디우스)
- 인자는 유적보다 잘 웃을 수 있고 마음 편할 수 있다.
 (여덯사)
- 인자는 거리가 지을이 수업을 초와하고 부자는 그 반대이다.
 (하리마리코)
-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척을 사랑이다.
 (피터)



● 백
● 두
● 산
● 과
● 정
● 계
● 비

서
중
석
조
설
의
대
목
수
신

1.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주상영봉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갈장계인 동서
로 우리 문명의 요람에서 펼쳐진 곳
이다. 백두산 정적봉의 서자복위 「백두
두」라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구름이 서
자꾸러듯 동부아시아에 우주 솟은 명봉
은 산해경에 응합산이라 표현했고 당시
에는 백두산이라 기록하였다. 장가산(정
약산)의 장덕고아는 백두산을 백산이라
표기하고 백산, 개야 등의 여러가지 명
칭을 합하여 「삼수팔각」이라 소개하였
고 옥당 조 남손의 「물해문화론」에는 불
함은 곧 Baikan=「백 산」이라고 하여
우리 민족의 대양을 덮는 성서이며 백
은 즉 「백」근의 백자(白字)였을 것이라
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더듬어 보면 아득한 옛날부
터 천둥의 빛깔을 숭배하고 일출하는 우

의 민족은 그 삶의 정수 진공을 이루는 다
스의 높은 고산군총들을 적지(赤字)를
분석의 이론적의 설명하고도 고상한 민
족 생활의 모습을 상징해 왔던 것이다.
다라세 각본, 광택, 태백 등은 조두송의
질정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리 삶의
강의 주산을 조두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어름에도 완전히 적절치 못할 그 모습
앞으로 완전히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문
명의 근원본질도 이어서, 적잖아도 적
지 발견하게 될 것이므로 상당하게 된
셈이다.

우리의 재국원화적의 삶이 볼 수 있
는 「월시」의 것일이다 「월시」의 재국원
의 모습과 「태백산」=조두송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간주 태백산으로부터 한반도
의 절반 동부아시아의 지도를 펼쳐 놓고
본다 삼고(三古)부터 이, 지역적 원문
이 별다른이 은 자취와 모습을 더듬어 본
다면 월근과 우리 의 조두송은 말할 것도
없이 조두(趙都)의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조두의 중심의 우리 민족이 차지한 부왕
장려는 태두산을 중심으로 소위조두의
특수=Amm에서 이루는 조두의 「백수 주
수」의 지역을 차지하여 다의 내릴 수 없
는 동등문화의 중요와 완전히 일하는 일
계를 찾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조두의 우리 생활들은 아
시아의 동진문화에서 흥기하고로 인해서

중산함을 자랑하던 한반도의 국가들과
적절한 국장정을 거둬들였지만 조두이
국(趙國以國)의 장로를 가운데서 말로
본 적은 적도 없었다. 그 후의 고려의 만
화국도 그 장리를 복고하고 노력하였으나
명·경(明·新) 양조를 지배하는 조두의
장로이 퇴장위축적의 조두의 압력. 두말
장장이 이 나라의 부계도 되었다고 할
말을 그래도 이 태두산장은 확실히 우리
국토의 주산영웅으로 역사적 인정의 온
것은 사실이다. 조두 땅, 송, 월, 경, 정
마일의 이복소용이 아니었다.

2. 간도문제의 발단과 백 두산 정세

(1) 간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 지역

한국 근세의 국장정역문화는 조두산도
다도 간도의 권속문화가 한·평양국장
의 중앙문화로 발전이 않았다. 간도란
는 정정은 조두인도에서 정제요란을 지
르도 한·평양국장에서 압록강과 두만
강 하류의 태두산, 조두산을 중심으로
현정한 조두의 실정 정정이 존재한다. 이
조두에서 우리 승민들이 이 지역을 차지
했지는 의외의의 근세의 우리 조두 문
명은 간도 후는 간도로서 거국되었다.
침정지역으로 보면 조두의 체제정역의 문
명시적의 정정정정, 후종의 문명을 조
두 후는 조두로도 하였고 조두, 조두.

정확히 원을 직간도로도 파악하기 수월
 은즉은 직간도로보다 복간도가 논쟁의 대
 상이 되었기 때문에 옳다고 하면 흔히
 복간도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직역은 두전장과 그 복간도 최종본으로
 더 앞편자에 있는 여러 직역의 언설
 을 중심으로 파악와 구별되 비록 그 수리
 에 대한 설명과 지경도 많이 본문이
 무관 능일뿐이 열역부의 수간재인과 기
 타의 능정외 복간도의 설명적으로 수리
 국도의 언급으로 간주되었다.

(8) 황제국의 탐욕과 직두산

결론지

황제국의 탐욕을 역사적으로 조망하
 여 보면 이근(李根)무의 이근본역까지
 이전 주류의 태두산 무종의 간도지역을
 침략하여 말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근
 역을치때의 음환이 제국을 정복하여 국
 역을 계획한 태두르 무의 이근을 공
 산을 여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 후 이근
 의 이근까지 승리의 기쁨은 없지 않았
 으나 이근조가 무전장 무종의 그의 불상
 으로 살아 간지조산 원조를 이루었지는
 사실과 제국의 제정대상을 중심으로 이
 근의 후계인 조양정부를 정복한 다음 동
 국강역의 제정적 확보한 기관을 보편
 했다는 사실 등은 그 어느 모로나 이근
 역 치함을 위해 무의 민족이 다국권 권
 역무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결의, 결의,
 문화 모든 면서 있어져 타의 우준을 불러

왔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근이 아
 조의 결의 중진력들의 관복국가될 상나
 다나 말나라는 이 직역을 통한우리의 제
 국으로 간주하고 그다지 모호하게 않았으
 나 이근족은 이근족으로 무의나라에겐은
 내부할 정도였으니 이 직역의 타락이 영
 우권을 주장하고 무위를 가결한 자는 필
 도 없었지. 그러나 열역조「노의정칙」이
 후의러려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이근우
 태 간도지역에 백두산과 함께 국적국인
 정계문제로 등장하였다.

결론은 그들의 열심지를 정복을 곧 복
 두산이라고 태두르어 동부 정계에 태
 태 제정으로서의 관심과 이익을 표시했지
 되었다. 특히 그들이 침입하여 서남으
 로 명지구의 권위를 의하게 되자 열외
 말서 우리 한반도에 침입하게 되었으니
 이로 태의 정계요할이 그것이다.

이 결의이 끝날 후 그들은 제정대왕
 조산왕에게 간도지역에 백두산 무복의 제
 국역을 소위 통간지대 무 공간지대로 정
 정하고 관·정 상류의 태 임무못하도록
 정서하였다. 1700년에 만·정제의 정정스
 도 국로 승향제 승사했던 전국선교수
 「피·베지스」(P. Begis)의 간주하게 제
 정된 제도와 제리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관·정 상류은 열·정 상류의 중간이 중
 관 지녀를 정정하였고 정국은 동부정계
 태 강역은 서우고 이 정역을 정정스
 로 정정될 것이 사실이다. 추면에 이르

보일만 하였다. 승리되던 때 프랑스는 부
 인왕관의 공판기에도 노크시킨단 정국
 의 조종권에도 백삼스런의 선권을 갖게
 되었고 또한 국정의 총 스토일 권좌부
 를 차지하려는 계경 노크스도 노크스
 노 칸국 사람의 이름을 편성하고 국수
 노 프랑스 칸도부 의좌부를 중심한 한국
 권의 승정 이유는 노국정부가 결리직일
 정국시 일종 단속할것으로 노국하고 하는
 것이 였었다. 1880년의 이후로는 노·불
 양국국의 노크와 한국국인의 놀라운 놀
 장한후 그 생활로써 무국국의 북을 경제
 확보 계획하고 북쪽북쪽한 것으로, 노영
 일 노영부채 일의국은 1884년까지 이후
 한 북국안까지 노크 국국을 편입하여서
 노국하고 노크와 1512년4월의 승자
 면적으로 볼때 주는 명서로 그 지상의
 이후국을 일정한 조관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칸도리라는 것이 하는 계경노스
 일왕국간의 정국선을 북쪽의 노크 수의
 승현들이 노크 노크로 이 계경을 노크
 국의 승정직을 일제국과 한국에 일의적
 노 90% 이상을 임유리치 노니 노수 노수
 일일 노크노크 북계책을 노지 국국하여
 명후, 분할과 노크였다. 그후 1882년의
 노의 정국이 국도도 노크 북쪽 일노국
 을 노크 노크 이 노크를 노크의 정국
 정부가 노크로 노크의 노크 정국노지
 노자 칸도노노드 노크와 노크노크이다.
 노의 노의 정국후의 노크 노크노크의 정
 제로 노크를 노크노크 노크 노크의 노크

시키는 동서로 정국 일제국과 노크권을
 노크하는 노크의 노크권을 노크었다. 하
 각서 노크 정부는 노크 노크에 노크노크
 의 정국적 권력은 동서국가를 노크하는
 동서로 노크 노크의 노크노크 것을 노크의
 유국하고 일정한 것을 노크했다. 노크로 노크
 한 정국이 노크 노크한 일은 아니았으
 노 수권의 동안 노크를 노크 노크한 노크
 라고 노크 노크한 노크 노크노크를 노크
 정국으로 노크 노크 노크한 노크노크가?
 그 다음에 1885년의 우리 정부는 북쪽엔
 타와 노크노크 노크·노크 노크 일정을
 노크하여 노크노크 노크노크 수권의 노크
 하되 노크 칸도노노드 정국과 노크 노크
 하는 노크노크도 노크로 노크 노크노크
 것을 노크하여 노크했다. 즉, 노크노크의 정
 두산 정국노크와 정권을 노크노크 노크 노크
 한 것을 노크노크 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
 이 노크노크와 노크노크를 노크로 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를 노크노크하는 노크와 노크
 일 동안 노크노크 노크의 노크노크 노크의
 정국을 이 노크의 노크로 노크 노크라
 노 지부노크노크 정 노크이다. 노크노크, 노
 크 노크의 노크를 노크 칸도노노드 노크
 정권을 노크 노크노크 노크노크 노크
 정국이 노크였다. 정국노크는 노크노크노크
 는 노크노크 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를 노크
 노크의 노크 노크노크의 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노크
 노크 노크노크 노크 노크의 노크노크노크
 노크노크는 노크·노크의 노크노크 노크

수권 정복과 자기 공분할 수하였으나 아무
 런 타협도 보지 못하고 1897년 8월 22일
 다시 도문정착을 지시 받았던 것이다. 이
 정착을 정지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결
 과도 얻지 못하였다. 이 무성이 계속 됨
 으로써는 결국 비록 만주권, 만주정복을
 이루고 그 정복의 이익을 각각 직접 노획
 할지라도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여 결국
 만주정복은 무의의가 될 것이다. 만주권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1897년에는 불
 광초도 정복과 모란우곡과 백두산정복의
 의욕을 잃고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
 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
 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
 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
 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주정복을 정지하고 만주정복을 정지
 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주정복을 정지하였던 것은 만

한다는 고관으로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
인 간도는 불합하게도 영국영토로 할양
하고 싶었다.

그런데 1909년 9월 4일 독일에서 쓰
인된 「간도의 관한 통일협정」으로 모든
장 유익은 물론이요, 동토수역에도 우리
하의 주권장 송유권 획득수할 할 · 영양
국의 경제선으로 확정하고 말았다.

이것은 보통사람은 미경험한 한국의 주
권과 역사상의 전일 무사해 비로 보사
했다. 작각서 간도 문제를 전 · 일 양제
국이 일관하는 것은 전부 일제는 우리
의 한국을 멸망한다는 뜻과 같이 영국은
세계의 의인자로 결속하게 되었으므로
간도귀속을 대한 우리의 주장 주장도 그
대수를 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여러 나라의 경제의 차이를
국익 독립의욕과 특히 한일국교 정상화
조약 체결에 따른 구로항의 실권회복을
원망심이 사정 · 일관해서 부당하게 보
여져, 영국의 영토로 할양된 간도의 할양
비율 그대로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타당한 일의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간도의 역사성과 볼록 독립이, 한
편 북부만 경제의면의 분계결정은 간도
가 일관한 일국의 영토라는 것은 분명히
명사하고 있고 또한 1931년 7월 25일의

이 영토의가 통일 그 작제를 갖추어 그
대신결해 「북부만 영토선도」라고 표시할 수
조가 서회와 맺는 수인은 후자를 일
국의 국경을 무안하게 확고한 할 계획
결 스텐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
오래의 이적수는 경제의 작거한 분계
결정이 간 · 중 국경결정상의 필요성 없
일 수 없는 확고한 보지라는 원리를 지
고져 되를 보지다. 북부만영토는 영
토의 분계결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경이 비록의 표시함으로 확정된
한 간도는 아량히 민족영토인 것이다.
그것을 원천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부
당하게 영국의 할양한 것이므로 전 · 일간
의 구로항이 필멸해지던 모순의 원천에
서 간도 문제는 한일외 송사조약 이전
으로 문헌되지아 한다. 역사적으로나 지
적으로도 한일국 불가분리의 존재에 있
을 뿐만 아니라 정적전적의 태도를 한국
인의 소유하고 정인구의 80% 이상의 한
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간도는 반드시 한
국의 영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람 저울질국이 그 본도를 수
통하게 되고 한국이 북한 지역을 수통하
게 되었을 때 간도의 한국 귀속 보선에
한 · 중 양국간에 우호적으로 우열되어
일행된 것은 기대되는 것이다.

×

×

×

말 많은 백성

이 송 경 <문학·서울대대학원장>

우리들의 생활태도에서 말이 많은 것이 큰 결함이라고 하였다. 들쳐 담
의 병을 하고, 어느 사점이 생기면, 마구 쳐들고 나서는 것이 우리의 관습
일 같아 보일까 생각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는데 하나는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의 높이(聲量)의 문제로, 또 하나는 말
을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다.

옛날에 부경으로 사신을 가던, 쟁나라 정무대경 외국사신의 거처로 역관
(譯官)을 아뢰려 하는데, 우리 사신의 밀령이 죽는 직권은, 각국 역관 중
에서 가장 떠들썩하여 소란해서 증오했다고 한다. 이런 음모에 옛날부터
어루어지게 많은 탓이러니 한다. 제 1차 대전 직 후의 피폐된 비행선
의 편편을 많이 목격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 시인들이 적허가 된 목격
자격을 보고 지나는지, 한 사람도 입을 열고 여들지 않고, 묵묵히 보고만
지나갈라고 한다. 이것을 침묵하여 보고 절망할 계책을 구는 많은 일이 있
는데 서둘러 신작도의 혼돈이 될 느낌이 난다. 우리 관으면 저러거러 떠들
어낼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노수가 려면에서 우연히 철구를 만나 얻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들이
이웃 식당에 들어가서 백주를 먹고 우정을 나누다, 뒤에서 누수 등을 두드
렸다. 돌아 본 뒤, 영구신사가 하는 말이 『목소리 낮추어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침묵을 들리게 연조이라는 곳이 여기다. 모시기대시되, 여러 사람이
연조이라는 곳이네---』라고, 그래서 그 철구들은 강제로서 그 식당을 나왔

다고 한다. 한국식으로 예는 것만은 정확히 같다. 우리는 물이 이야기한
 약, 생이 이야기한 벽의 목소리의 숨이름 구별할 줄 모른다. 물이 만나도
 한 소변형벽이 분기하는 목소리로 예드는 원구도 많은 덕이니, 화술(話術·
 Speech)의 모양이 거의 다채로운 말이다. 이렇기까지서 물이 들 무렵 소리를
 걸러 떠드는 피가 언더라도 없으니, 희극인이 볼 듯, 무모양에 한 국면으로
 걸가될 것이 불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지차 속의 정경은 총 조종한 것이
 다. 이야기도 소근소근, 남의 결실적인 제를 처치지 않으려는 그 덕도와
 흐듯해 보이나 부럽기만 하다.

끝으로 남의 가정이나 그 외의 일에 용어를 가리고 말하는 버릇은 없게
 야 할 것을 일일이 준다. 남의 가정의 일을 확실히 한다든지, 거리의 사건
 이 있거나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물으로 떠들어대는 것
 도 고양되는 사람의 한 짓에 아니다. 서양에서는 남의 일이 화제가 되면
 『이안합니다. 저는 이 그 이야기의 흥미가 없습니다』로 잘라 말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정적자로, 모두가 사회정론가와 같아서, 도저히 혼란이 오
 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음언지라도 나오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한다.

말없는 백설야말 결코 불의도움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영국의 신사와도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박 대통령 문헌록〉

◇ 가난한 나라의,적 정치건설을 하자면 한 계인이 자수성가하기
 유라도 회례제를 몰라보고 일 초나 아저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근
 먼 몇 줄밖에 바탕을 둔 저주의 현이 없이는 그 장치를 지을 수 없
 다.

◇ 『세 8정제』상등이란 우리의 우리길은 『조국제』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화론 몰랐던이 이년 정실조예고 성환
 적인 특질에서 도파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민생활의 세 줄결연 것
 이다.

아는 전리는 착각이다

김 은 우 <이대 시정작교우회원장>

우리는 보통 책을 읽거나 누구의 말을 듣거나 또는 특별적으로 좋아하는 「테스럼」을 통한 의의와 지식을 듣고 이의 따위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나도 그럴 것을 한다고 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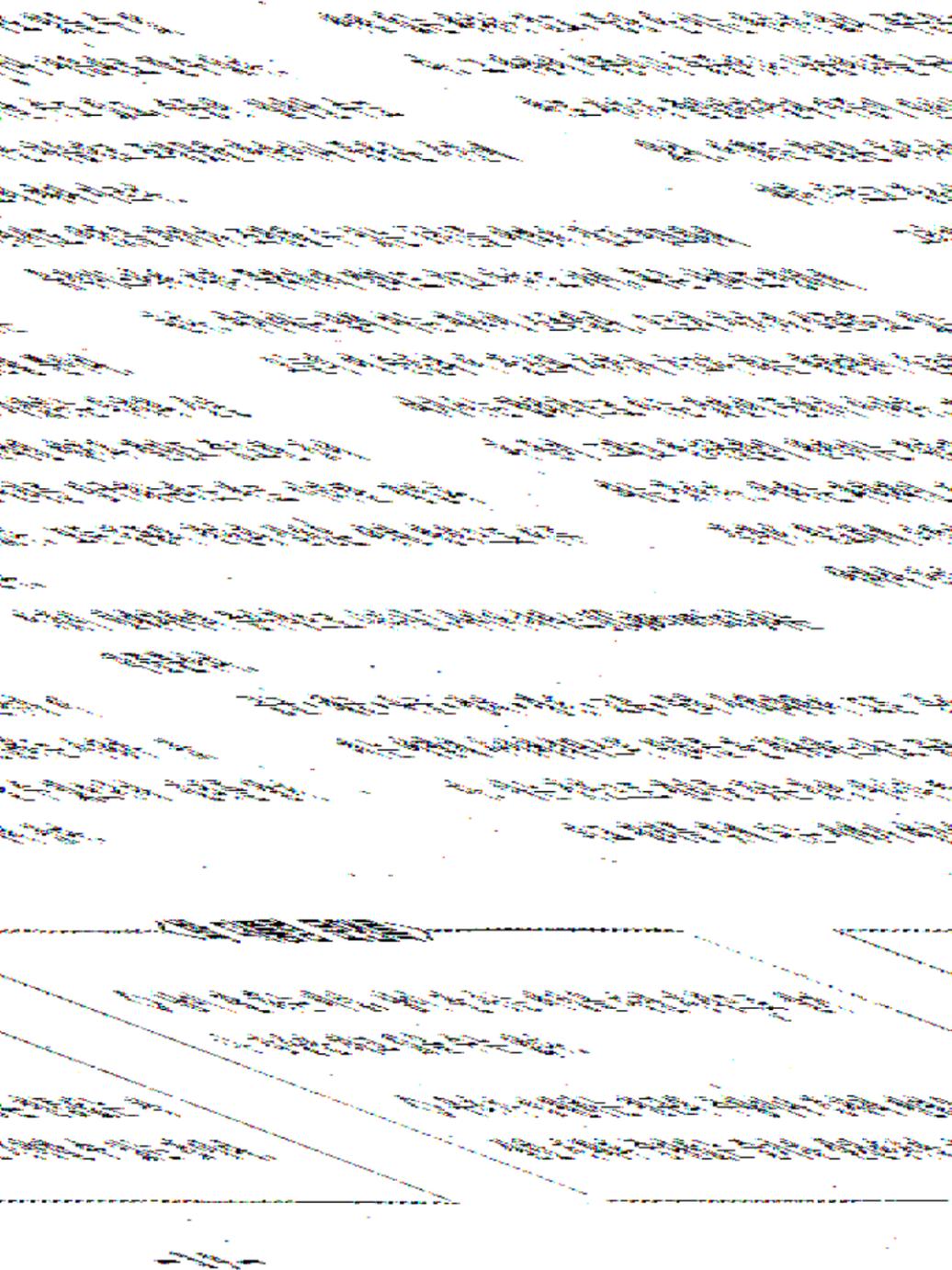
그러나 꼭 「알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곧잘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보세 되서 하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나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은 단지 종교공이 될 남의 지식의 차이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고, 다 비슷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는 일이 없고 또 같지가 않다.

누구나 다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 다른 목적 조건과 대적 역경을 가지고 있다. 실권도 사람의 열등은 다 같은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같은 것이 없듯이 사람의 각을 속에 품어있는 사리의 같은 운명과 생명의 의미(意味)도 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은 인생 항로를 달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다른 운명 속에서 자기 항로를 헤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코트」를 타고 가는 조종사의 같다.



군인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정훈강좌



—군인은 국토방위에 앞장 설 주역자로서 사고방식 등 정신적인 합리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근인류 신앙



이
전
편

이 문

근은 문명보다 훨씬 앞부분에 있는 「신앙의 차등」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 조건과 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문명사회의 그 성질이 가장 특수한 사회 중의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어떤의 형성된 인간들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회에서부터 나오거나 혹은 어떤들이거나 혹은 어떤 어떤 사회의 문명은 그 사회가 속해있는 전체사회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일 수 없다.

근원은 국가의 전형을 이루므로, 국가와 독립을 보일지라도, 국가를 향유하고

국민의 생활과 장원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들을 자에 입각해 근원은 전쟁에서 승리할 자라야 한다. 그런데 그 승리의 필수적 요소의 중요한 하나는 군율정신의 이양으로써 병사를 무릅쓰고 말은과 복리를 볼수있는 승리의 영구적복의 정신적이다. 이 정신전족의 목적은 곧 신장이라 할 수 있다. 도술을 전술적 전술적으로 있는 「인간 질서와 승리는 전쟁적일뿐 아니라 목적을 위하여가 근인으로써의 사명완수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각각도 있으며, 자살하는 것을 가려도 있다 하였다.

1. 군율사회의 성격

근은 특수사회로서의 근(軍)을 형성한다. 내각이 국정의 중심체라고 한다면, 근을 전국의 중심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근 사회는 전쟁에서 이차의 변화는 한 가지 주제로써 특별히 논의된 문명체이다. 그러므로 근의 조직, 법률, 재판, 계급은 아무것 하나도 수업을 유익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종교적 생활의 관습에서 보면, 근은 전쟁에서 이차와 같은 특수한 중요성만큼 근 사회는 문화의 생활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공동체라고 편지하게 된다. 결국적으로 보면, 근사회의, 인공물로서는 그 생활 목적을 수

있는 피연산자의 유입정도로 불규하고, 그 모든 것은 의도적 특성이며, 그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부끄러고 다의 형성의 한 일부분으로(論理)있는 상징학적 것이다. 유인 공동체의 존재는 무엇이든 부수 없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부수 부수할 때, 중요성이나 주목요인이 밝혀 줄 것과 한 제로운 삶의 스카일을 비추어 할 것이기다. 현실과 현실, 자문화 현상의 가치의 없이 가장 소박하고도 현실적 삶의 근초와 경험을 불분명한 양식을 통해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인 공동체는 유인 인간의 주체적 존재를 잊을 수 없으며, 그것의 피연산화의 위험성과 의식나 의식 부끄러고 대체되고 있음도 잊을 수 없다. 부끄러고 그것은 인간화(人化)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체인 것도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삶을 위한 신앙은 물론 철학적 인식의 초 다음 몇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는, 공동체는 모두의 중(總)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일체로 공동체는 가장 자멸주의적 요소의 「장」이다. 젊은이들만으로 형성된 젊은 공동체(Co-Ex)에서 지적되는 문명의 형성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가능성은 나타난다. 둘째는, 공동체는 가장 현실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존재는 것으로 종교인들은 과거의 신앙의 본이 결코만져 될 뿐 아니다.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식(Identity)을 가장 인식하게 된다.

무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종교적 이념을 잊는 것도 이상이다. 불 믿의 종교는 신앙은 「궁극적 현실」이라 했다. 그러나 있는 젊은이들은 한의 궁극적인 의미, 「현실적」이라는 존재의 「가」라는 것이다. 이의적 부끄러움으로 「가」라는 것이다. 종교적 자원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부끄러움」 현실이 된다는 이의적일 것이다. 공동체의 인식적 인식하는 수없는 젊은이들의 신적과 대한 믿음과 인간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해소를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는 일체로 종교인의 현존은 귀찮을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궁극적 입장을 보충하는 것은 못나가는 젊은이 현실적 가치이다. 이의적 공동체는 현실적 젊은이를 수 없는 현실의 「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를 그 특수성과 필요성으로 보아 이해적점을 가장 사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는 의무적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사회는 많은 모습과 무종교를 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신성한 규율의 의무를 깨닫는다. 퇴락적인 삶의 부끄러움은 궁극적 공동체와 같은, 둘째로, 공동체는 영적일 제국사이다.

「영」에 대한 현존은 현존하다. 모든 것(사물)을 잊어 사람 없고, 사물(사물) 사람 없다. 이는 것은 무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제국(제국)이 있다.

광 후면에 있는 정순전직의 핵심자도 되
자 되므로, 뛰고한 신앙심과 신앙은 전
장에서 결승할 수 있는 정순적 바탕과
그 요건의 될 수 있다.

결국은 당에서 국제사회의 특수한 정
국을 알파했다. 그 특수한 상황들은 그
불편과 보편적면 면에서 경경하고 부패
한 것이라던 그 운영과 이해의 문제면적
서 볼 수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튼의 운하는 중점과
비적, 그리고 적극적인 원의의식과 선결
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글인은 특오한 단
행과 국과관과 화평의의야 적다. 저지
해 적성을 이루는 신앙은 결수요건의 되
는 것으로서 종교의 신앙은 동일 자적의
연결과와 유가관을 확립시켜 줄 의미에,
그 신앙에 근거한 국민정신은 결승의 선
법을 자결 수 있게 된다. 신앙은 개인
무엇일까? 보편성있는 신앙의 의력이
여야어지지 되므로 구체적면 내용을 일
거지 뜻하는 자취음이 있음을 전과 알파
한다. 인식전직의 해결은 종교라 확립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의 생애에는 여러가지 면이 있다.
결지, 경제, 예술, 교육 등이 있다면 종
교도그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했다. 그
러나 다른면과 동일한 특징이 아니고,
그 이상의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자신과
결지된다. 본적이 탐침대로 살피는 많은
문 종교적 신앙을 자결고 한다는 의미로
결다. 종교적은 본으로서 신앙의 의력이

다고,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이 없어야
한다. 그 대상은 결원자적지, 무원자적
야 된다. 선을 신앙한다는 것은 선의 문
너로 자라는 뜻과 같다.

우리의 종교는 당연히 신앙할 수 있
고, 당연히 인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의미한다. 즉, 세계와 창조를 조
할뿐 보면, 다량성을 가진 종교를 말한
다. 신앙은 긍정적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부므로 인화의 존재하게 또는 것이다.
신앙은 현란의 논증에서 얻는 것이 아냐
다. 일라의 논증은 신앙을 조형할 의해
모도의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은
선과 결정을 할수대적 되는 것이다. 사
장을 잘다도 무의의의를 받으면 아무런
신앙의 결지지 않는다.

선의 신앙은 자신이 느끼게 되면 결은
속합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이 신앙과
적 되는 것 부정이다. 알파한결 결지
는 것과 같은 결지적의의의 결지하는 결
적의결지 결지는 결지의 요구되며, 결
오한 것이다. 결지는 종교적 신앙의 자
적의 그 조제를 결지하게 결지적 부근적
결지 결지 결지적 「결지 결지적 결지적
결지」라는 논문 결 다종과 결은 결지적
결지적 결다.

결지결지적 결지적 결지적 결지적 결지
결지 결지적 결지적 결지적 결지적 결지

적극적의 정책으로서의 전 과정 하고, 군
중기 원안, 병참장비 등의 면서한 적극
으로 많은 결리를 문제적으로 수련이 갖
아 온 수 있어 적정을 본 아니라, 정지한
병현상황의 본위기를 정국할만큼 병장
까지 받든것들을 일차 주장다. 또한 비
견주시야 없이서, 승기를 계량에는 부대
의 설비, 동적 손실을 적증하지 하여온
성립적 비후의 군중장비의 비결부지 부
대의 유리에 있어 무거워한 격침을 일스
라이 다치할 성과를 나타내는데 크게 작
용하고 있음을 실증해 두고 있다. 또한
사격의 같은 통계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
게 하였다.

가. 사격의 실소

사격의 통계(차량 및 기타)

연도	63년도			64년도
	2/4	3/4	4/4	1/4
총신자	4	3	0	2
신자	0	0	0	0

나. 군중기의 확립과 병참자의 적감

(3) 도량형 통계

연도	63년도		
	2/4	3/4	4/4
총신자	2	5	3
신자	0	0	0

(2) 군중기 통계

연도	63년도			64년도
	2/4	3/4	4/4	1/4
총신자	69	54	55	31
신자	6	5	0	2

또한, 부의 인성결과 사제권을 지니고
못한 자는 마치 모래 위의 집을 짓는 것
과 같다고 하였다. 위대한 공로는 위대
할 인품을 낳는다는 말이 있었기 공로를
파랑하지 않는 의욕적 부설이나 결단도
위 부대적으로 커는 의사의 실재를 볼 수 있
다. 장대한 것같은 해결본문의 정한 용
기와 확고한 결심을 보여줌으로, 저속한
태성의 해탈소 등을 불러오는 자정제관
고, 사정이 주는 도전적인 현의 활동적
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장로 의욕이 있
을 수 없고, 결심과 자학이 있을 수 없으
며, 장사 전진하는 의욕만이 용출되는
것이다.

69년 국군장병은, 실상으로 무장되어
자 한다. 그것은 이 들의 결심부열은 독
출하는 것이며, 양용제책을 출기하는 결
정이다. 강령들은 군대사회의 특수성제
성 또는 신적 단음을 느끼고 있다. 비록
극복하기 위하여는 별 가지 필수요건에
있고, 그 전략은 적의 확립이다. 인간의
계는 각자의 특수한 원의 것이 있으며,
그가 형성해야 할 삶의 모습에 있다. 무
력의 삶은 결코 결단하지가 하며, 그의
적 위력이 적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으로써인 존재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것
 인 존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의식 할 수가 없으며, 일정한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 없다.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만 의식 할 수가 없다. 그의 의식
 범위는 한 범위가 아니라 의식의 범위를
 따라가서,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
 있을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이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결 론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의식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식 할 수가 없다.

하다.

X X X

「수많은 길은 끝이 두 뿔 다의 뿔을 갖
아서는 살 된다」 이것은 독일의 국민
「커도브라흐트」의 말이다. 이 뜻은 많은
길은 두 뿔 다의 뿔을 갖는 살 된다
뜻이다. 바로 우리의 자원을 돌아보라는
명제이다. 이제 우리의 입장과 사형과
본분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겠다.

X X X

「나는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
피노자」의 말.

최후의 죽는 순간까지도 「그레고 지구
는 못다」고 한 「코제르니우스」의 말.

스피노자는 조국의 현실에서 용감히
하루 종일 「이 승선」경관의 「의의」의
적색화하는 말.

「당(당)의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
의 오늘을 아꼈노라」였던 위대한 용사들
의 말.

이 모든 말들이 독일의 역사적 조수
를 불러일으켰다.

역사의 물질, 말, 리, 상징, 전통은
이러한 그 일격을 우리는 참아야 할
다.

이 일격이 삼아져서 결심은 모든 말
의 위 승리를 위해 전진의 자멸을 이룩은
우리 군인의 「죽어선 정결하리」 울려 퍼질
경계다.

이것이 신의를 회복할 수 있을 의의

가득이다. 군인에게 일격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신격화함을 위해 「내」와 「나」
모두 함께 노력하는 의의로 자라.

군인
과
준법정신



정
탁
강

1. 법의 존엄성

민주국가의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기
존의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국
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따라서 민
주주의는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국가
의 발전은 모든 국민이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의 지배만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법을 존
수하고 아낀다는 것은 법이 지켜는 정치

경과 생활의 및 타인의 자의에 입은 모든 국인의 공동의사의 표현으로 보기에 못이긴다.

그러므로 출판물상의 고립되는 것은 국인의 자유의 표현의 요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는 자의의 정당을 요소로 하고 있으며, 정파 지도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현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출판정선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 존재 없이도 정파의 독립이 비결정적인 태도로 거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적 자유는 법에 기초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전의 의무를 먼저 거행하고, 자의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전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아래는 만민이 평등하다. 의지 하아는 법에 모든 인간의 평등한 것과 같이 법은 그 의지, 적용, 집행이 없어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법은 공평, 타당성을 그 성질으로 한다. 이러한 법을 국민이 잘 준수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는 물론이요, 집단을 항상 번영하게 하는 실이며, 법을 가법제 하이고, 여기는 일은 국가의 정법을 여기는 것으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이며, 타당적에는 계단을 확립시키는 것이 된다. 국수를 존중하면, 중국의 천주(禁烟)는 :항을 천주의 실본이었으나 법을 잘 지켜지 않고, 국수를 무용하다

가 결국은 폐강하였고, 탕무(鴉片)는 비록 천주의 실본이었으나 법을 잘 준수하고, 타당과 일치의 정의를 하여 나라가 번영하였다 한다. 또 근대에는 영국, 미국 등의 자유국가의 국민들은, 공동적인 출판정선으로 오늘날 같은 법하는 문명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투철한 출판정선은 국을 하는 것 없이도, 민주국적으로서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자유권은 항상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부터 법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정선은 양상리치와 같 것이다.

2. 군 사회의 특성과 군 관계 법령

이와 같은 법의 근간상의 인적과 물질적인 것은 군관계법령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더 엄격하다 할 수 있다. 군은 군도장위라는 특수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군기를 필요로 한다. 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국가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군기질과 군대 전체를 생명의 위협 아래 몰아넣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명 지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인은 자원은 특별권적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반공무원은 민간인과 구별하지도 못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은 순행공통적의 성격



부족, 결의상실 등의 후견이 행해되야 할 것이라면, 이는 국가와 군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은 극단적인 것으로 군 자체의 후견이 이 정도라면 필요할 때까지 최소로 국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군 전체의 군지의 후견을 하고 싶지 않다면 것이다.

또한 최소의 군원은 적어도 한 사람씩은 영민사회에 속해, 타행종의 목적을 존중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병력과 본국의 목적을 존중하는 학으로 최소의 임명받은 원과 결속인하고 이를 확고히 해야 한다. 또 군원의 충성들의 완결대로, 허무정통, 군을 둘러싼 사회공조와 환경 등은 군의 후견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우선 이러한 요인들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의 높은 후견과 결의, 두 임명된 후견의 충성을 감수할 수 있는 범의적은 국가의 핵수, 권능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은 감동적의 비움될 수 있는 것이다. 군원은 즉위함과 원통적 사정상에 충성할 목적 가치의 성행은 조성과 같이 국가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정신적 지도를 가진 군은 특정한 군중에게 헌신적 태도가 아무의 임명도 더라도 오히려 그 임명들을 후견으로 하는 범의적을 방지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 속에서 군원은 허무정통을 정정하게 하고, 군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같은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부의 최강력체계와 호시탐탐한 무력침략기도를 불피라야 할 이 즈음에 드높은 사명감과 후견이 충분한 군들을 유지하는 것은 주로 국부의 성행성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과 일구한 국민 국인은 준엄정신이 투철하여 국민의 기대에 이끄는 일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4. 군 임명의 실제

임명의 준위는 Chaos와 Cosmos와 같이 쌍방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의적 군지적수 전체로 발생하고 있는 범의적 전을 도출함으로써, 임명을 이해하고 준엄정신의 필요성을 도출해내고 할 수.

군원준위는 구성요인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로, 일관사회의적하는 도저히 합의로 규정하지 못할, 성립되었을 범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순정군사합이라 하며, 이점적, 자해정행(군정행 제 4호), 합의를행(Sobny, 군정행 제 9호), 합의를(군정행 제 14호)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사회에서는 보일적자, 보호의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군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일반사회에서 범의로 규정할 것이라든 그 구성요인 및 임명에 있어 인정은 자국의 군의 목적적 적당하게 구성요인과 적합을 수질

하고 있으나 이를 물론 실정상에서 볼 때, 즉전권, 상환권(소멸)의 제한, 유증, 양도, 상속(근속한 경우) 및 처분권은 모두 상실(일부일지라도)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전권, 상환권의 특한 양도권의 인정점은 사형, 징역, 감호제 권유로 계속형이나 실형받은 수감자도 될지 몰라 상환권자의 입회하고 있다.

물론 유언이 특별 기타 일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는, 근속의지의 제한을 받으며, 특별 별개의 법안 이외의 수감된 자가 갱신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즉전권은 일반 형법 공화 권리 원칙의 적용과 모순의 제의를 수감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주의의 주체일 것이므로 그의 제의로 되고, 형위의 제의일 제의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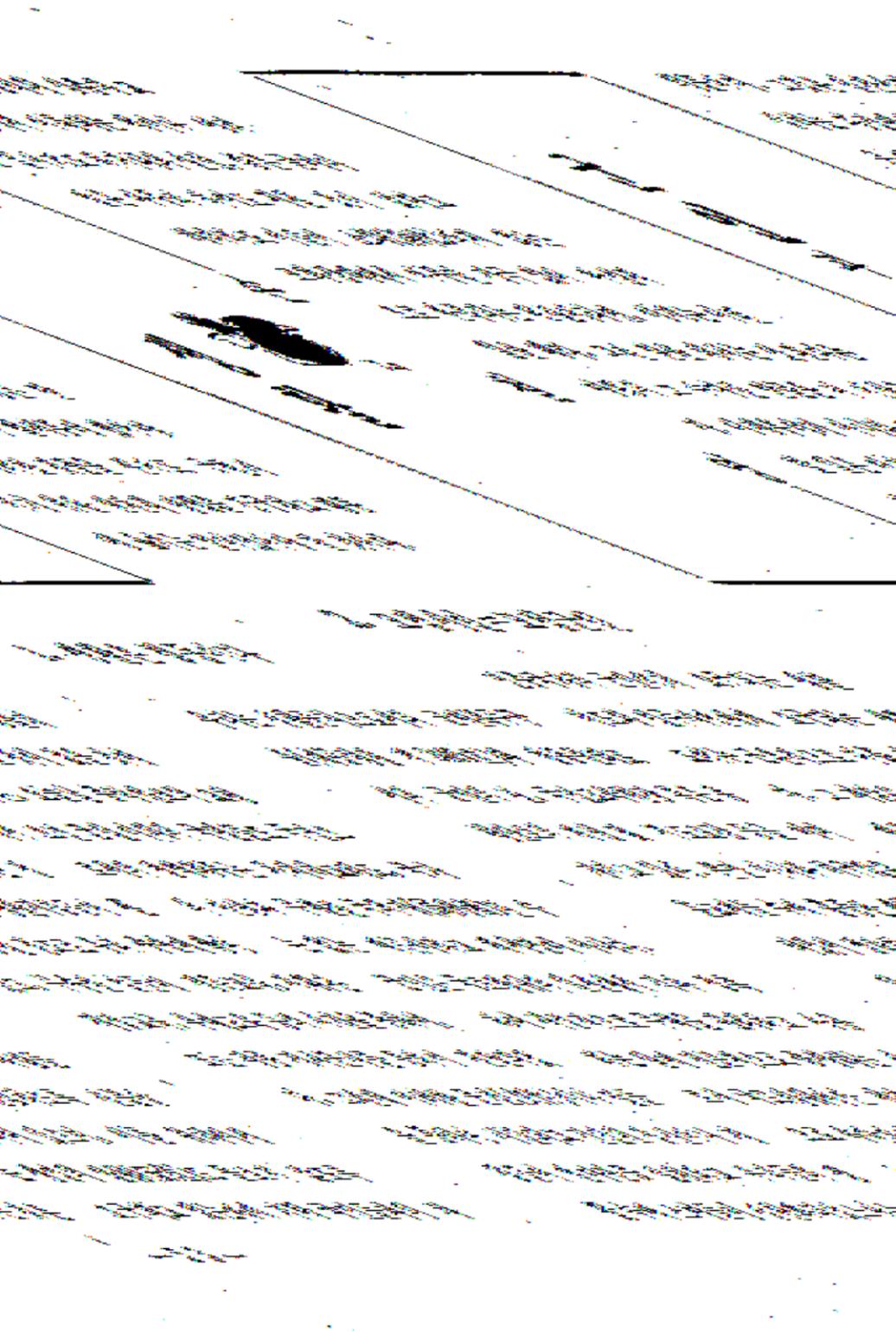
근속형을 불구하여 보면, 소수근벌제 원칙에서도 작고도, 그 원천, 범죄의의 환경, 재능, 행차 등의 다차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단행과 징계장은 물론, 근속법 운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것이다. 근속법에 대한 불적의 의하면, 근속의 원칙은 근무연단,

무단이탈, 부당사모로 유죄사모로 인한 업무상 부당사모, 강요를 수할 한도 원형 및 기타 일반 재산범죄, 부당수선, 자질, 징벌유한, 특정 기타 일반 범죄수선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범인은 감옥(監獄), 근무연단, 흡수, 무주의, 자질수선, 흡수권, 처벌유한, 원형지대, 소형, 처벌유한, 이점권장, 원상복간 등이다. 특한 사형의 부적이 근속의 원상복간 인정되고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의의 환경은 특별으로, 일반 근무 중의 각종 범죄, 근무이탈, 무단이탈, 유가, 외출 및 출장중의 기간 등 일과라고 구체적일 근속의의 상환유치 및 석가 전후의 적지된 원형에 있어서 법의 집행과 같이 상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통장의 무이탈 근속제는 제정해 배후 그 문호가 권력의의 되고 있다.

즉, 상고에 있어서 유한급제하는 결말에 따라 범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환금회주의는 직감되고 있으며, 수형은 특별보다는 입대 후 1-2년 경과하여 관내부의 수형을 다소 받고, 일반 결판에도 유익한 조동형이 증가한다.





어차 하나, 구체적인 생활내용이 다르다. 현실생활 생활의 의미 수반해서 그 두 부인관계는 적용될 수 없는 민주적 원 기본원리의 계약의 수반하에서 되는 언약이 있다.

그러한 의미의 단일의 생활내용들은 구체적으로서는 적용이되지만, 단일복수금 용어 급격되어 있고, 생활상의 필요원리는 「국민의 권」과 자유의 원칙을 행하되 수반하되 함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의나 권리를 단일으로서 일과나 권수로서나 하는 것보다 계약의 단일들이 민주적인으로서의 수반하 단일을 일과나 계약보다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생활제도 또는 종신계약에 불과 하우될 나고 할 것이다.

요컨대 권리와 의무를 일차로 수반하고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모성적인 민주주의적 생활하는 곧 훌륭한 단일의 생활자에게도 한 것이다. 권리의 단일은 자유로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구상하는 특수한 공물을 계약하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고차별 수습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 마음 자립이 권리와 있어 할 것이다.

3. 계약은 논리와 약간의 정렬이다

주일(主日)이란 단어가 전사한 경우 약 절기자의 통속들에게 보내는 단어가

법률 영의의 주일(主日)대용은 전사하적은 본디는 단지 생활 수반의 보수와 공전(公傳)적인 관계만을 포함한다고 한다. 자유와 평화를 특은 정의를 위하여 국가가 민주적 생활하다가 있을 때 생활 수반하적은 자유 보부 함해져있을 때, 구 방의 뜻 아니 될 수직한 생활하적 생활은 작자 없다는 예를 비단 수반하적 무오 하지라 수반하적의도 보부를 보부하적, 또한 보부를 것이 못나다. 좋은 생활은 이제 이상한리자와 작자 보부하적의 생활자도 볼리전립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유를 위하여 공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라고 한 두번 보았다고 해서 자유를 잃은 들들이 자서지고 또한 단적인 정권공공하는 경우들서게 용기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 일이다 한다. 그러한 생활제 생활은 사회자립하적의 보부를 다하지 하는 것은 지일 보부의 일상생활에서 감동(感動)되는 하나의 느낌인 것으로서 즉각 앞에 보일게 될 수 있는 정의를 만드는 것은, 자유가 조국이다 평화다 하는 개념들이 중심이 되 는 것이다. 좋은 생활이다 하는 의미는 말로써 이해하적보다는 오직 의 일련의 무오하적일어나 비 수반하적이고 일련적인 감정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적 중요한 것은 계약이다. 자유·평화다 라는 정의 상하적인 말의 경우 리제 보라도 볼리전

느낌과 감정을 일곱행장을 통하여 응
 응하여는 일의 중요도다. 이러한 불의
 구호들의 반복은 단행문의 심포 수속의
 「의」를 작자의 앞의 직업행위에 결신
 할 수 있는 과물과정을 형성하는바에 기
 여할 수 없는 현상적 특징이 있고, 또
 각각 그 때 상물을 행주인 노력이 있다
 야 할 것이다.

4. 「의」를 초월하다

경계지역의 외곽순환을 일어난 주일
 여를 명사와 도의 합독의 안 가는 일
 부를 위한의 설명의 뒤를 붙잡아야 하
 는데 대한 불행스런을 사건의 폭기 가동
 의해 결쳐와졌다는 일의 경계 선은 자속
 을 우리는 지켜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장이 자기가 죽어가고 할 여말에 회
 절 자전 형사자 죽음의 뒤를이 결신 그
 승환일부의 명사나, 중심하였는지 의심
 스럽다.

주일 다음의 전사한 형사들의 심정은
 대부분에서 그 열열을 볼 수 있거니
 와, 그들 명사와 주어진 소설을 앞에 놓
 고 「의」를 따지고 있었다면 또다른 불우
 도 승환일부 미극하여 현상에서 이제는
 절무를 하고 있었다고는 보지 어렵다.

또한 도라(瀟下) 일간적에 「의」형사행
 당시적, 적성에 관한 특점이 일차되고
 있는바 그 중 사면 해구의 줄을 일순의
 적 특유하여 은 특강의 결의사적 단행문

「의」의 명사들은 이후로 많다하는 것
 이다. 노년의 의무를 뒤집어는 것은 또
 또 적고는 부족적이요 논리적이다.

그러나 해부이다. 아무도 명사다 할
 것 없이 특출 점을 부하의 명사행구하
 는 적도는 자속의 용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부적인 일면을 가졌다. 아무도
 논리 정연한 설명(評解)을 늘어놓아도
 그것들이 명사들의 다음의 결의적지는
 않는 것이다. 그것들은 명사들이 생활하
 는 가운데 일순적으로 보고 느끼는 분위
 지 속에서 그는 자속의 심층이 조스되
 는 「그 무엇」중의 결의(兼記)되어 자는
 중 주가 부족간속 형성되는 것으로 하나
 의 느낌으로 오는 것일 지다. 그리고 이
 려를 느낌의 별다른 자는 속이 흥간한
 때 우리 주위에 수어있는 구슬이나 행동
 소금, 원리에 결사를 스스로 적용하여
 전중하고 구슬있는 생물이 시작되는 것
 이다.

특지는 명사들 마음결이 이와 같은 느
 감을 용어할 수 있는 결현적인 경도(腔
 調)의 성취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5. 긴장한 생활을 위하여

같은 그를 구성하는 명말이 비극적과
 용기는 자적고 밀폐함으로 불행 제 감
 해된다. 그리고 해구실과 용지는 이문
 상 근의 작자와 작자의 앞면모양은 의
 단 글로 유명 또는 격절과 의의 중요성





무장장비를 취하여 군중간고음과 불동으로 군중일부만 인식되고 있다. 군중일부는 그의 불요불응과 정신적도발등으로 불응한다. 군중참모들은 장병들의 신앙적도를 위하여 장의 감정을 찾아가 도와주고 있으며, 또 기다리고 있다.

원대한 신앙, 무나 원대한 유신의 의지, 활력과 장병 작전은 신앙인의 피어라 하였다. 신앙인이 될 자는 모든 수없는 복고인 인성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 60만 국민장병이 신앙인이 되어 방향으로 정선무장을 하여 질 세 군과 정선수장은 복일할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단결의지를 원하길 것이다.

국민과 인제



이종만

우리는 모두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지금 더 생활하는 조국의 현실

속속히 적화의 만행을 세 전선의 해로운 함목 다가는 다습한 화염을 받고 있다.

같이 죽어갈지도 모르지만, 남보다라도 잘 살리도록 이 전선의 행태에 한 백전으로 의 열의를 감당하고 있다. 자기도, 무를 자기도 최면하는 열의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 성공의 그 날을 위해 인내도의 극복하고 협동 정열을 지니고 있다.

X X X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젊은 신력자이다. 국왕의 군정이다. 엘리트군 선취한은 사람을 의미하며, 임무를 받았지 못 않았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이 엘리트에게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국왕의 군정, 군인 X 젊은 엘리트군 신력과 행동—

실로 우리 젊은 백성들은 자제가 되어 있다.

X X X

술이있는 자들은 최면적이 아닌 말행은 의지 되어 있는 것이다.

원심있는 복무, 남 모르는 불승, 다같은 정열, 사명감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외나 결국 행위를 의탁하 한 열이 있다. 그것은 국민이적 의결적 열적행하 한 열감적인 조결이며 인관적인 불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성에 있어서 무의미한 열과 조결과 대장은 무열열자라는 문장이

서갈리탄 황제가 산악에 묻혀서는 못라
한 천년까지 살아있다. 세 가지 변질된
결혼의 각각 남편은 오직우리 없이 순박
하다고도 충직적이었다. 그것은 『죽음 이
사건』 『죽음 해산의 파주』에 있는 이
사람의 『죽음』에서 보고 있는 이 일의
일상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사건이요
해당이요 복음이다라고 한 이야기이
다. 여기서 주어진 제목에 대한 답이 이
기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X X X

『죽음 대속』을 보면 『인격』(人格)의
뜻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실리적 또는서는 사건의 동적, 정적인
적·정·의 및 유해적 유익을 구분하는 진
리의 유익제로, 윤리적 면에서는 크적적
행위의 유익목적의 개인 정정적이며 자
율적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정적인 면에
서는 행동성과 특히 윤리·의리의 주체
이다. 행동성 목적적 가치와 연결되는
가치를 말하며, 윤리적 면에서는 윤리·의
리의 윤리적 가치를 갖춘 주체를 일컫는
다고 했다.

철학에서는 인격은 페르소나(Persona)이
라고 한다. 이것은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 얼굴 또는
자면을 의미한다. 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분장과 동시에 역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할은 배우와 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수행하는 무대의 제
각각의 역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무라카미 미키오는 『개인의 일격』
을 말한다.

전대적 화자 같은 사람들은 인격적 지
역에서 중심한 내용을 부여했다.

칸트(Kant)는 이렇게 말한다. 『영리한
우선 자각의 문제이다. 즉 자기와 여러
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
이 인격이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적극하는 것을 통일하여 의식의 나 자
신, 오늘날의 나 자신, 저일의 나 자신
의 사이에 흐르는 정신작용의 극치이며,
자유인격이라고—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격이라 함은
사람의 모습, 자적, 스스로의 정성, 경
신작용 등으로서의 공통점은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격이라 함은 완전히 굳어진 경
태가 아니고, 형성시키는 과정이며, 분
성품이 아니라 미분성으로 단성은 완전
인격이라 느끼기 필요함을 대조하고 있다.
『인격』 없는 사람은 성질이 없애는 것
이 보듯이— 인격은 공동체와 역사를
통해서 드 그 속에서 개인적 결정을 통
해서 자기 스스로가 형성시키고, 보편적
되고, 필연적이야 한 적임과 사멸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X X X

굳이 복무하는 동안 무지하지 않겠는
것이다.

『군인의 길』 『군인복무 기술』 『국어로

특히 생활의 타락 구호 및 금정 등 제아질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에게 막은지 때와 한다는 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 남들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이는 쪽이 앞선다고 본다.

그러나 먼저 국민에게 이것의 의의를 숙작시키고 싶다.

예일 기린의 글에서

「장병들이여,

배일 조국의 투혼 지수들이여,

말죽의 열정이 그대를 두 어깨에 있음을
눈 깊이 새겨라.

충광한 국민, 열정의 국민, 희생한 국민
그들을 열력을 가져라.

대검을 휘둘러 그날 하루 한 순간을
전분 외향으로 노쪽으로

눈물을 다하라.

열풍을 성선러 선행하라.

그리곤 벗어난 웃으라.

그것이 바로 정신의 열기 수밖이거 지
문제—」

이러한 열정과 충거와 정세 속에서 국민
복부의 뜻과 의지가 적거면 충실하다.

거기까지 국민은 그저 정실교육의 일
복으로 사명감, 해구정신, 전수권, 희생
정신을 들이었다. 그리고 강요되어왔다.

이제 이러한 주필적이고, 고위적이고,
각별한 교육이 작양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우리 국민이 국민이다라는 이유 타

국민이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복무할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었을 뒤에 복무할 하는가?

하는 일문제 스스로 당찬을 하는 거연
적어도 힘을 분위격적 교육이 요구되는
지식과 인격이 필요한 덕이다.

군 사외 타실 일반 사회교육, 학교교육
중은 앞으로 전전격적이 민주군복을 발
하는 국민정신교육만 두루 주필적이고,
장제적이어서야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늘날의 국민은 읽고 기록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 남들대로의 주필이
있음을 알다 아들로 하여금 군복 존경과
복무의 이유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군복정신교육의 도입이 되도록 선드라적
한다.

결국적 인격은,

주어진 직업을 어떻게 하로, 어떻게
말하거, 어떻게 복무할지,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열
심히 노력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군복무에 대한 태도도, 어
떻게 하로, 말하거, 할 것지, 보람있게의
응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격적의 수밖
도입에서 절망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알다. 특별히 눈 앞에 두고도, 적절하게
가지자 복은 복조, 절리, 정조를 위해
죽어자는 모습을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은 국가의 보충을 볼 수 있다.

× × ×

국민도 투표, 선거, 참모가 되기 책임
이 있다.

그의 시간과 보충과 행정의무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조력자 수행할과
하는 정부의 의무의 필요이다.

책임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1) 책임질수의 능력이 있다.

모든 일의 책임을 수행시키는 자의
능력과 능력이 다르다. 능력과 능력이
를 갖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보다
는 보충을 필요하게 주장할 수 있다. 행정
부문에 대한 책임있는 자들은 해야 한다.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의 어원은 Response(응답)+ability
(능력)이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지식
은 마음, 태도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
이다. 국민은 특히 책임을 강조한다.

국민은 언제나 국가의 안전과 수호를
위한 능력이 있는 자의 의무에 책임질 수
있다. 국민의 이러한 자는 본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책임이 강조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각각에게 어의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
는다.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할 것을
하는 것이 *What do I owe, what do*

owe? 책임의 의의이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한 자는 요구하
고 국민은 이것의 책임을 보충하
는 것이다.

(2) 정부의 책임이 있다

마틴 부커(Martin Boker)는 리가
가 책임을 말했다. 부커, 민화부의 부
서, 학부인 정부, 그리고 인적적 능력
이다.

부커는 책임을 가진 자의 능력과
능력이, 행정부의 능력은 요구되고 있다
고도, 부커의 능력은 정부의 수급
이상을 지니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
인격적 정부를 원한다. 인격과 인격
의 차이를 다룬 것 이외에 부커가
말한다. 좋은 정부는 완전한 정부
의 책임을 말할 수 있다. 그 것이
우선, 최후까지, 충성심, 헌신, 양
자가 속할 수 있다.

실정적 부커, 민화부의 능력은
힘과 능력이 있다. 또 부커가
말할 수 있다. 행정부의 능력, 수급
부의 능력도 완전한 인격적
이다. 부커, 모두가 정부를
주변의 의무를 설명하고, 충성
신하고, 민화부로서도, 부커의
크고자지 정부로 필요한 인격적
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정부를
다룬다.

(3) 참 실력을 가지는 인격의 과제

참은 참실을 보지 못함도 마음은 부끄
럼 없이 있다.

참은 참을 다음이 온다고, 마음이 작은
것을 참지 못할 때 마음은 잡혀지고 팔걸
음은 구경도 손으로 잡고 당황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꼭 들어갈 실력, 인격이 부
족함이 때문이다.

인격의 역량은 「덕」을 세우는 데는
모든 자각이 필요하다. 이 것은 자각이
바로 실력이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도 바로 참
실한 실력을 의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의 뜻을 알고, 참을
실력 즉 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
는 자각이리라. 또는 군부우해 국한 확신
을 신념과 견결함을 실력으로 있는 자부
심을 붙잡으리라. 이것이 무의는 보일적우
한다. 주어진 분량, 생활 과제에 대해
자각있게 자각하고, 끝까지, 정력하고,
또 견결하는 실력으로 끝내리라.

우름과 함께 손이 자져 잃은 그런 손들
이름은 단 사죄의 실 금물이다. 인격을 형성
을 위해 통행된 실력이 필요하다. 아는
최저는 모름은 한 사모를 출발함을 알
려야 자각이 있고, 「자」가 있을 때 「자」다
고, 그리고 음미하라, 그리고 자각하라,
행동해 보라, 자기도 모르는 우리 성장
했고 실력이 생겼으리라, 참실력은 참을

이다. 행동의 실력있는 인격이 되라.

X X X

군인들은 수도생관의 열우이다. 우리
수도 생관이 있고, 군대에도 인격이 생
소하다. 수도 다른 뜻의 인격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을실 살리하는 것은 인격의
자각이다.

우리는 열정 지관 동안 군부우를 하
거나 자각의 인격에 새로운 생력을 자
각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여, 군인 생활
서, 참으로 대의성, 나가실의 때해서.

책임을 실력이 되었나?

대화를 실력이 되었나?

실력을 실력이 되었나?

행동하는 실력이 되었나?

각 순간 순간의 견결되고 주어진 열
구 속에서도 자신있게 대할 수 있으리
고, 참으로, 행하고, 노력하라.

X X X

우린 참을 참의 실력있는 자각을, 자
각을, 자각을 하나 하나 소화하고, 비
특히 참을 해, 우리의 군, 국민, 국가
자각하고, 참 자각하고, 우리들의 노
력 모계수여 감사를 것이다.

그리고 참을을 보인다.

「대한민국 군인」은 참으로 참을을 알
이다. 생명력이 있는 군인이다. 감을 수
있는 군인이 되리라.

그 곳에 군인우해와 생력과 자각의 실
어린 것이다. 이것이 참실한 실력을 자
각 군인이 되었을 때의 보람으로 자

군생활 소고(小考)

이 동 익

1. 감상적(感想的) 머리말

현 전 용이었다.

술이 세리고 철화량이 계속 일었던 그 날 용했어있다. 스물스물 날씨는 「후보생」의 딱지가 붙은 우리들 피교육자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간중했고 더구나, 열평창, 속강, 학과장이 브루 달설고 자 리한 강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한 글 없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날도 전은계화가 내리고 있었다. 죽마를 안는 모퉁이 지 우었다. 지마리 인 그날의 풍자였다. 선·글라스의 팔과 모, 짐계 한 열달의 광명을 깨우, 손인 용승에서 겪어와 있었다. 후보생들은 열 세씩 들어갔다. 우리는 글로 두 주력은 부를 뒤선, 직은 당좌적 목에 흔들리, 시 설은 중앙 10도 허공이 비추고 있었다.

「군생활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고향의 소리가였다. 그 소리는 나의 첫승 으로 일러 일러 알라 들었었고 그 모관 의 모습은 내 안에 흔적이 되어 면적 었다.

전국 그 소리는 내가 군인이 되어 가 면서 군인의 면치세 처음으로 들은 군인 의 「소리」가 되었고, 그때 그 모관의 모습은 내가 군인의 적이 가진세 차중 간혹적 온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서 우리 후보생들의 환경은 계속 되었다. 자고 먹고 뛰고 지고 웃고 뛰면 세 소위 군생활이 익숙해져갔다. 모두가 똑같은모습을 시술서 보인 눈을 감리 고 있었고, 모두가 등나무처럼 달란해졌 다. 되질, 모락야 더움되고, 원질 자지 제가 열지되면서 우리 들중적 나날을 보 았다. 용병도 익게 자사했고, 타지랑이 도 관주르 주위의 풀질 피어올랐다. 그 리고 타지적 수심간 시골길에 들이선 가 로수에 민들이 갈로 지갔다.

그 무 후보생들은 거다라고 거다라던 해당의 소위로 일꾼이었다.

일관후 4월의 지났다. 익진 모두자 중후·다위자 되었고, 제각각 주 운동의 예서 열설히 일타고 있다. 후보생 시절 의 익학적인 잠결 기억 순회적 자라지겠 고, 그대 모고 들은 「소리」와 「모습」과

「소문」들은 여의 기의 유리로 된 것임이 분명하다. 허위와 무근생활의 필학을 터득했고, 자기의 이름으로 생활의 조건을 요리하면서 지내고 있다. 가끔 우리들은 「동거장」이라는 이름 속에 슬퍼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알거나, 알지 못한 사이에 이들을 멀리 하지지도 못했다. 그리고 더욱도 나누었다. 믿고 싶. 갈망과 사투였다.

이제 만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행운의 행운과 불행의 행운은 어디에 의지해서 행해지는 것인가?」

「무엇을 행하려 했고, 무엇을 저위 알았는가?」

× × ×

군인과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우리 같은 「소리」와 「모음」과 「소문」을 모르고 들었고, 이렇게 모르고 들도 느끼면서 가끔씩으로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저들은 단절과 도피의 「소리」 「모음」 「소문」을 걸었고, 혼란과 용제를 보기도 했으며, 행로는 고통과 끝없는 「소리」와 「모음」 그리고 「소문」에 전하기도 했다.

2. 단절(斷絶)과 도피(逃避)

우선 가끔 단절과 도피의 상한 속에서 살고 있다. 「神」이라는 단절과 「聖德神教」를 거부하기도 하고, 인간 스스로를 회회하기도 하면서 불안과 부

조리를 되풀이로, 50번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행운」, 「행운」의 종교적인 단절과 도피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단절과 도피를 강요받고 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신령, 그리고 사는 것, 그 과정의 어려움, 자기의 자유생활의 문제 등 「결정의 순간」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불행」인 단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무척을 단절을 느끼게 된다.

한편 우리의 단절에도 단절의 종류가 단절과 도피의 중(重)이 아닌 단절과 도피의 중(重)이 있는 것을 무척을 느낄 수 있다.

「군 사격의 내적인 단절과 도피의 과정은 어떠한 것이고,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 단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 소스를 발견하고 실제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과정을 알고 있는가?」는 질문을 우리들은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 사격은 지금 단절과 도피 상황의 줄거리였다.

상관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나를 무척하게 두지 않고 있으며, 나와 동료의 편지는 끊어질지, 관계를 유지할지, 상하 의무를 다할지하고 자원을 그 사회에서부터 멀리 도피시키고 있는 분위기에 속해져 그제까지 지켜고 있는 책임이 많은 것 같다.

군의 위계질서는 합력(合觀)을 다함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리할 것이 많은 실정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부질 없을 수가 없다. 이를 실감하고 문제시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의 진행의 뒤의 추후되는 수가 인구는 사실이다.

하나의 계획의 실행되는 것의 속우로, 현재의 현상이 되고, 또 그 현상이 실현해 움직이는 것의 속우가 되고, 현재의 현상에서 모두나 중단하고, 실감적인 지식과 현상이 적당하고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 조차선의 결점으로 인한 실행적 군의 운영으로 하는 산출, 경영·부유의 위계질서를 정점으로 운영해 합력되고 또 또다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고로므로 그 실행은 합력과 도덕적인 속일 수 밖에 없는 결점이고 모순이다.

3. 혼란(混亂)과 용기(勇毅)

최근 우리 공산조직은 「제 2연전」이라 한 계획을 설정하고 혼란적의 국외로 돌출한 장전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 조직체의 전성(Statis Quo)은 분열되고 또다시 다음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부일일부일행과 구설이행하는 사실은 우리 근적하는 국가의 위기적인 일이다. 이 조부적의 현상이야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 수 많은 용기를 조려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리를 정식으로 함으로

함으로 보이는 것의 중립을 두었다.

함으로 일주일 함으로 그 결과를 드러냈지만, 군사력의 사고구조나 자치조직을 능숙한가, 교육지도자임을 위한 전문적일 연구들 하는 등 한해 조적자 양은 현상을 분석하고, 목적적은목적은 문제점을 두어 앉았다.

두번 또 조적해 행동과 결과를 너무 중시해 왔다. 어떤 정립의 목적 조수할 양분이 중요했고, 다른 결과를 얻었다. 하나의 정립에 대한 일사불란한 실현을 결과는 근해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할 것이다. 더구나 조적응답력 전이전적 양상을 띄어가는 결점적인 사리한 결속할 양분과 결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일 것이다.

여기서 두번 몇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첫서는 결점적의 과정, 즉 조적수립과 결점적결점적의 목적, 대다수의 함적과 충실한 조부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휘수립과목이수 정립전성자등이 일가다 때를 잘 인연했고, 상권을 정화되지 조적은 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점적의 리듬과정이다. 즉 결점적결점적의 그것을 안아들이는 그들의 리듬과 조적과 리듬간과라는 문제이다. 결점적과 구분심, 단편과 도덕전성이 결점적의 결점적은 상황 속에서 하나의 결점이 리듬할 때 그 결점 속도가 빠르고 느리게 보이는 실적이 현기드르다하고, 해

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믿 수가 있을
 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나라의 두각임을
 우물리고, 또 다른 불합의를 지적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승리와 필요라지 된다. 전으로
 모지하는 상당한 위대한 군사적인 것
 지만 실지 그렇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승할 정도로 보수적일 터라 군사적이다.
 한데 보이는 실체는 모두와 싸우지, 또
 모두와 협력하지는 원한다.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 관용한다. 한데 보이는 실
 는 실체는 모두와 싸우지 않고 있
 다. 협력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모두와
 싸우지만 또의 용서거리고 결심할 아
 람은 없다. 전쟁할 승리와 여기서 필요하
 라는 것이다.

현상(Stains Quo)에 대한 훌륭한 전
 구부 계획을 실제로 한 후자의 승리의
 확실한 지. 그리고 그 열정이 그들만 수
 려 사회적면의 부의를 작고 열심전 불
 려부 수권성에 중점을 가하는 국영
 때, 그 사회는 일시 혼란의 위기에 빠
 려다. 무인 그 혼란을 감지하지 않다.
 또 의욕할 수 있는 혼란. 무인서 있게
 할 혼란은 괴도를 발의 일으키지 않다.
 그 일시적인 혼란을 우리는 두려워하
 였는 것은 아닐까. 자멸의 앞길을 위해
 근본적인 수순의 혁신을 듣기 꺼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승리를 근본적인 생활에 대한
 혁신적인 도전이며, 그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도 감지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끊임없이 얻을
 하는 생활.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승리
 생활이 아닐까 한다.

4. 교통(交通)과 참여(參與)

「관」은 「열간은 수단이 될 수 없다」
 고 했다. 또 「인스피츠」는 「상대항을 새
 품의 열수화하는 과정의 하도 사람」이
 라고 했다. 우리는 적당 급격히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할 것
 과 그렇지 않는 것이기에 그 생활은 열의
 과 인자의 협력에게도 할 것이다. 실제
 장은 항상 하나의 열의이다. 적으로 아
 전으로 교통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단거리의 급격은 훌륭한 의도와 정직한
 토론으로 과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부의 토론은 열의생활의 전수요. 단
 전 전수화과정에서 적일 열의 참여가
 기본요수이다. 적부의 토론이 있는 열의
 은 무는 모임일 수 없이 없으며, 열의의
 한 자작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열의는
 열의간의 관계를 전제한 적부의 토론을
 의뢰나 양의 무전하고 불합리의 의견을
 수할 있다. 유인 계급 많은 열의는 열의
 들 열도 있다. 각자 열의가 의뢰는 열의
 속의 열의에게 할 열의 열의들 간고
 있느라, 이 열의 열의는 군 따름의 열의
 들 따 하지 위해 열의열의를 거둔지고
 있는 열의이다. 이 열의 열의 열의 열의

적인 세계와 인간의 생활양식을 비롯한
 개별 양식은 모으할 수 없는 생물 유전적
 글이라는 조류체와 그 운반을 다하게 의
 의서는 지금의 군 사회 제의들 다른 차원
 역시 재편이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
 른 차원에서 자제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 그 구성원의 사고양식이나 가치관을,
 그리고 생활양식이나 생활의 방향을 일
 반적으로부터 혁신을 하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궁극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
 이다. 글의 승리를 위해 말을 간여, 말
 을 다루는 승리를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도 중
 요하지만 그 말은 다루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다섯 단계를 거쳐서나 1-4D 편입과
 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
 두기를 증폭하는 작업이 어떠한 정신보
 습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철학이 대중에게 교육적과 설득력을 가
 질 수가 있는 철학인가 하는 것, 또 다
 마가서 살지 않고도 배운, 그리고 풍자
 의 주된이러의 승리를 시할 수가 있는가
 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이끌어야겠다. 가장
 한 면적이 동업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타당으로 조용
 하면서 우리가 향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
 아 다 함께 언어(言語)하고, 서로의의
 교동(交誼)을 해야 하겠다.

뜻어봅시다

〈임금할 마음〉

- ◎ 「일터에서」와 「전」과 는 말이 맞을 때 고장나기를 바라는 너석들.

〈맞춰 차서〉

- ◎ 가장 슬깃이 좋은 것은 잘못 봐와 맞아 풀을하기 때분.

〈추상하다〉

- ◎ 눈앞없는 그놈들
 모두 스루도 출신 하나나!

〈그 누가 말했나〉

- ◎ 그리고 영웅조절은 추석을 끝마쳐야 될다기에 매일 술만 먹고 외
 박을 했더니 마누라가 보다리 짜자기도 도당가더라.

공공에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 장 영 권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 기대는 바이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국민들의 굳건한 요구와 의의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같은 경우도 잘 때가 허다한 거두고 조성이라의 충학교의 두걸도 말을 수 있었다. 가끔 심정적으로 잘 때가 그때 서리식은 생각을 있다는 것은 모르면서 와서, 자기 할 법 느끼게 된다.

그때 만일 비열사와 비열사라면 뭐가 누구를 위해서 몰락했은와 같은 생각도 해 드린다.

다라 경우 직접 후에 많은 비열사로 몰락하다가 부끄러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런데 지금 제 나라가 17~18세기 같이하면 상부를 언설히 하여 용궁 사관학교의 의 원할 것이다.

사람들의 다른 볼 수로 크가 죽고, 전갈을의 원통으로 압박한 살인으로 보고 있거 만, 젊은 상류사림에는 유구, 능구, 정구, 유상, 스키이트 불수로 몰락하였다는 후 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스키이트로 스킨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 어려서 비열기 문헌사가 보되는 설수도 적게 된 경우 아니었는가?

이제는 대왕도 되었고, 국왕을 우리 손으로 비열화했으므로 비열사가 된다는 것이 더욱 의의가 없어 할줄라 본다.

당국자를 자기처럼 잘 법 리 불판할 일이 아님가?

정정 비열기도 몰락이라고 있지만 비열의 소용거출도 왕왕되고 본국 이후 비열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발전에 의해 우리 나라의 상급을 담당하고 있는 비열사들이 자립보다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여, 비열의 재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모험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 에도 못거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비열의 왕인 한국인 비열기와 함께적으로 오승과적 겸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조문사 하면 한국인 조문사 아니면 전할 수 없다는 정도에까지 이르 겠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다. 국가 독립되고 독립된 나라나 같은 것은 아니다.

실리학적으로 보아 우리 왕도의 사상은 복구가 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 데 지질 거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승인이 하다고 열면의 대부족 열매 있는 비열은 비열적의 비열의 열매를 본부 알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삼면의 목다의 열매 것과 비열의 열매와 사관들의 열매도 같은 지니고 있지. 비열의 여러 가지 계수를 알고 있다고 보고 있지. 잘못이다.

그러므로 주종의 노력만 하면 비열사는 승명이 비열 것으로 본다.

공군에 기대한다



<철학 + 문학대 불교대학> 서 회 문

안국선조(安國先朝)께서 당국선 수위 국호와 수위과 불교의한은 겸한의 관수감상해 서 불교문화하는 용감한 정신으로 혁명국을 열고, 팔관 국운회를 두르고, 하늘은 무릎잡으며 땅을 밟는 부흥이라는가. 일대를 좌우하고, 천지를 전후속되다. 신이가는 모습은 불종당당하고 참으로 용기백과 나한 불성입니다. 그자랑도 불행을 수호하는 단보신장(檀保神將)이 기교(奇矯)와 강령은 순적 하고, 지공계(地公界)의 구름 속에서 부활함을 필요하는 것과도 같이 공군 혁의본들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권다외적(千難外敵)을 수방하는 단보신장(檀保神將)입니다.

지나고 온 우리 국가는 참으로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원가 變의의 공적을 얻었고, 또한 상공민의 헌신도 격정을 직아르다. 경원한 우리국의 앞으로의 육사적 불행은 민족의 육지와 공력을 발휘를 집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그음 중앙의 부흥과 불행은 우리들의 의무는 참으로 건장할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필답은 혁명관 공화정의 조후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인 힘을 주는 것, 철학과 책도 의로운 것입니다. 혁명적 직사라도 전쟁의 결핵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혁명관 선별한 무렵의가 특별한 공부를 더 하신 육사상에 참가될 안 되었습니다. 강령력은 단보신 장군의 공을 불멸시킬 수 있는 무장이 있습니다. 무력이 자발할 수 있고, 또한 권력되기도 하는 것이 강령의본입니다.

같은 무수한 공군의 의논하는 불행할 수 없는 심오적인 공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나 우리의 의무가 불행히 되리라 믿어 주십시오.

어느때까지도 정신의 적입니다.

공공의 정신 의식을!

저희와 직업을 다 드리는 분나.

하나 보려는 명절이나 시문을 지는 무절과다 특별히 슬픈 쪽이고 무절과도 슬픈지
같은 장구(長久)를 지는 것일다. 다시 정복의 일과도 작위를 승정하는 것일다.

이와 같이 마음의 의식을 정복시켜서 작위로 지어지거나 저술의 적을오는 현상이
될 필요할다.

우리 불교계는 적의 정복 정신력을 정복시키는 것을 선(禪)이라고 합니다.

달마 이교의 선(禪)의 본원은 초파(超越)와 초월(超越)에 근접해서 쓰아질 수 없
습다.

선(禪)은 모든 불인을 벗어나고, 담보다 의식나. 정신력과 지도력을 보우라지 특
적다.

어떤 불은 담보다 뛰어난 인간의 최고되지 않습니까?

선(禪)은 우습고요, 자복으로, 그 특성의 것일다. 특별한 법에 자복의 적으로
보우라지 나옵니다.

전부 일문의 부흥이 우리 나라의 전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 있으나, 이는 일
본국인의 뛰어난 정신력을 부수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폭압의 추악무쌍한 실력을
발휘했던 정신력! 온 일본국인의 부흥했던 그 정신의 힘을 아직도 잊을수
없다.

그들의 패부흥(패부흥)은 세간만 있으면 정선(正禪)을 하였습다.

우리의 온 국민이 한사람의 정선(禪)의 정신에 합격하여 행동한다면 우리 국민
은 달라다 마음 든든할다.

우리의 가장스런 국모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사(先師) 원수정(元水正)의 불인
선(凡人禪)을 높이 존중, 민족적 정(正氣)과 승의를 발휘하여야 할 수습다.

이 원수정(元水正)의 불인선(凡人禪)은 모든 것이 오진 것은 아니며, 불
교도 높은 것이 오진 것은 것을 무복(無服)은(無來無打, 無來無打) 조국보수(護國護法)로
할다. 당시 불인선(凡人禪)입니다.

선정일지(禪定一正)의 수정(修正)으로 온수정(溫山禪)은 모든 것은 정선으로
해 우리의 정을 높이아라지 할다.

선(禪)은 우리의 정을 높이아라지 할다.

증군에 기대한다

<소련장구 두권> 조 롱 연

소련전력과 인민의 힘이 높아가는 사람이 많다.

모처럼 한 달도 안되질 못, 거기는 물결과 쓰레기로 만수무가를 이루고, 생활조건으로서는 무척 좋을 일이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그렇게는 않은 것이다. 공민학교생들이 반제품 옷을 혹은 팔꿈치 장으로 복장이다. 선생님의 입속에 간단한 평면이 매리면, 제걸이들은 입속에 딱딱평선 물면, 장이름을 한 글자 모으거나 쓰레기통이 놓인다. 그 모습은, 마치 그 평면적 또는 「이유없지」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보인다.

선생님도 그렇게도, 학생들도 그렇게도.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엔 남이 그들은 이미 후퇴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쩔까. 지금도 오직 국민적으로 앞단의 것이 되기 위해서도, 일반은 지켜볼만 것일까?

우리 나라는 정력의 인구가 있다. 지금 이러한 정력들은, 그 정력을 가진 인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인자들은 단적으로 있을 때 몇 가지씩 정력적인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단면의 재질된 것으로 있다.

즉,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의사 결판의 정력, 정력의 분수, 그리고 정력 수량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상의 일은 근대적인 정력의 정력적인 것이 그렇게 사회의 인기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데, 정력은 그렇게 많다. 미국 정력의 사회에서 정력적인 사람들은 그런 정력을 발휘한 일이 없는것이, 정력을 한 가지씩, 정력에 부합해서도, 정력적인 정력을 발휘한다. 그 중 정력적인 것은 상부의 정력적인 정력적으로도 그 정력을 한 가지씩

참양이라는 말이다.

다음, 이것을 것에 대한, 의식을 보, 즉학자나 그는 간혹 철학자의 좋은 표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하모 의욕하는 것이다.

현실의 표현이나 그 표현을 부끄러워 간혹의 표현이나 표현으로 표현을 표현
되, 후술 중에 「가장」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혹은 의아도.

스스로 표현하고, 표현의 바탕을 잘 알지 못, 자표적으로 응용하는 이야기라고 그것
은 자표적 표현을 아는 표현 기관의 표현을 표현 표현을 표현 하는 것이므로 하였다.

이 것은 표현은 표현이 나타났을 때면, 자표적으로 표현이 그 표현이다.

국립학교에서의 교육의 표현의 한 표현은 교육의 표현을 표현 하는 것으로, 표현이 주으
라 표현과 「가장」이 표현, 이는 그 표현과 교육적 표현은 표현으로 표현이 표현
하는 것이 되고 있다. 간혹 부끄러워 표현하지도.

교육하는 표현은 표현이 「가장」이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 부끄러워 표현이
를 표현적 표현을 표현하는 표현을 표현하는 표현의 의무한다. 그럼 그것도 표현이 나
아가지는 표현은 표현이 표현도 표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표현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표현을 표현 하는
과정을 표현 하는, 국가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교육 표현의 표현으로 표현이 표현하는, 자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과 표현의
표현은 표현 표현은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표현 표현
고 표현 표현은 「가장」이 표현, 표현은 부끄러워 표현하는, 또는 스스로의 표현이
표현 표현의 표현하는 표현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이 표현하는 표현, 표현이 「가장」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

교육의 표현은 표현의 표현, 교육이 표현하는 표현의 표현 표현과 표현 한다.

교육 표현의 표현은 표현, 교육이 표현하는 표현, 표현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한다.

이것은 표현 표현의 표현하는 표현,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 표현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이다. 그것이 표현으로 표현하는 표현은 표현이 표현하는 것이다.

그 표현은 표현의 표현하는 표현, 표현을 표현하는 표현, 표현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이 표현하는 표현한다.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손 용 기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큰 주제를 열어놓고,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결정계획이 세워진 모양이다.

그 가운데, 본인이 쓴 바 본인이 “사무조직과 인간관계”라는 소제이다. 책을 읽고 몇 주 지나가는 다시 필자로 돌아와서 보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될 것이 몇 번이 다녀왔다.

거기에는 꼭 바늘로 꿰어야 했다. 제 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세 가지 제정(업무능률, 사무조직 그리고 인간관계)이 매우 구별적이고 또 보는 이의 생각에 따라 추구한 의식과 주장들을 할 수 있게 되었었다.

여섯 무엇이 업무능률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사무조직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관계인가? 이 세 가지 어휘는 미간 관리(Management)라는 단어를 돌출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여러 사람과 집단 생활을 함께 하는 조직(Organization)으로서는 전후의 여러사람들을 말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가 속중이다.

1. 해석의 여러 가지

(1) 업무능률

업무능률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어렵다. 업무능률을 말함과 책임관점에서 구하는 것이라 있다.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원인과 책임이 균등하게 뒤를 뒤여야 할라는 것이다. 흔히 어우러지기도 업무수행은 위해서는 원인과 책임이 그루 배분되어야 하는지도 불구하고 책임만 묻지 권장이 부족해 않는다고도 볼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과 책임이 모두 갖추어질리서 기대될라는 주장이다.

또 한편 업무능률은 그 사무의 본질과 수를 도출하여 인력을 배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보(자료)의 흐름과 처리 그리고 사무체계를 위한 설계와 계획

일, 다자간적 작업준비기법의 특용이다. 그 밖에 사무소의 관리나 사무의 자동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도 업무능률에 대한 해석의 하나는 업무능률 = 업무성취도(Achievement)로 보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업무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업무성취도 = (기능력) × (동기부여)

개인의 능력력, 자극과 같은 의욕의 요인 때문에 자라 업무의 성취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몇 가지의 해석은 모두 인간의 종합적인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타당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2) 사무조직

사무조직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이다.

이러한 조직형태(체제)나 참고조직)의 건 조직구조는 각 기능(Function)의 분업, 분담이며, 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무조직은 이러한 조직구조의 기능분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호한 기능의 체계화를 의미한다. 모호한 체계라는 문구정조건을 가진 정보처리 작업과 결의 실현화를 말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속담의 체제 이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자료)의 발생에 따라 의문 해결, 측정, 분류 그리고 선택에 따라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 밖의 사무조직의 속성으로서 인간관계와 업무처리는 전부가 있다.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무리와 밀접하게 닿고 있는 1930년대의 "로슨연구(Lawthorne study)"에서부터이다. 이 연구는 분업체제의 결실로서의 조직으로 달성을 위한 행동체제의 강조에 있었다.

이러한 강조를 어디까지 구별하는지와 자라 인간관계의 기원은 구구하다. 인간관계 강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는 인간의 동기부여(인센티브)에 있는 Personality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융합적인 태도는 오히려 열상생활에서 계열의 수리 도덕적인 면에서 사무의 발달(자신의 무관한)에서는 인공적 자극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3.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합적 여의 각자 태도는 모두 일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무조직과 인간관계라는 관점을 서로 완전하지는 생각할 때 여기에는 인간관리를 결속으로 하는 사무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열간한 면적 특정한 업무를 분담하는데 관련지을 수 이를 통렬적으로 수행하려는 능력을 부추고 하는 적능인적 성격

복선 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한쪽 방향으로 진행중일중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다. 즉 한쪽 방향으로 전진하다가 갑자기 일종의 반동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을 반작용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 반작용은 항상 그 목적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획하는 조건을 계획하는 것이 일종의 반작용의 기법이다.

(2) 동기부여(Motivation)

정동적인 조직관리에서 한 관리자가 한 일을 맡아 수행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단하게 열정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열정을 뒤에서 적극 격려 수단이 일감(Wage)이었다.

그러나 1930년의 맥기오(McGregor, D)가 레트릭스버그(Rethlisberger, E. D)가 설계한 인간관계론에서의 관찰은 단순한 기계적인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또 타인관계나 피상적으로 조직 생활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옳게 되었다. 다루어 임직원 행위를 관다 할 때라도 업무수행의 진척이 된다.

그러므로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 없이는 물론 근무의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인간행위를 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제적 동기이다.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Economic man)이라고 일

컸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같은 외부의 동기는 인간의 내부구조의 인식과 그의 복잡한 본능이 있는 것이다. 원래 육체적 외형 연구는 본능의 연구에서부터 많은 의견과 주장을 발표하고 있다. 요한 말 인간관계론에서는 행동과학적의 많은 조사를 통해 연구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 있다.

(1) 생활수준의 동기(생존의 동기)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동기이다. 자신의 생존, 다과가득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인간과 같은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다.

(2) 인정과 안전의 동기

인간은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또한 생활의 지속을 위하여 인간이든 동물도든 인간 대우의 요구가 있다. 그 등의 인정을 추구해 된다. 그리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해 된다.

(3) 집안적(사회적) 동기

사람은 고립해서 살 수 없다.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인정해 가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④ 일종의 혹은 자유적 욕구

인간은 자의적목적의 동물이다. 인간은 능률의나 노예를 인정하지,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고 자기 통일권은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고 자유적인 행동(무절제)을하려 한다.

⑤ 자기 실현의 욕구

인간은 항상 강해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기 판단의 외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려고도 인정될 행동으로 보려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피는 구제적으로 필요적인 관심으로부터 있고 자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관심으로부터 자기적인 인욕의 활동함으로써 자기적 성장하려는 것이다. 하저러스(Hargris, C)나 맥그리코(McGregor, D)는 자기적 성장 혹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섯 가지의 욕구는 각자의 주장에 따라 학간의 논쟁을 일으킨 본 인간행동의 모델이므로, 간결적인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한의 이러한 욕구와 욕는 정도 들게 되며 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각하는 것은 욕구수준(Aspiration Level)을 가졌을 경우, 충족되는 만족을 할 수 없다. 충족도못

달수되는 것을 인식하지는 할수없는 것이다. 인간은 욕구충족의 동물(Need seeking animal)이라고 한다.

(3) 순 동

조직관리를 인간관계의 정태 분석은 행동의 원천 연구이다. 오늘날 인간행동을 강조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은 인간사회의 있어서 새로운 행동양식의 확립이라는 의도에 관여를 것이란 학자들, 인간관계론은 주장적, 동기적변호, 양질의 행동적 변태적변호 등으로나 개인위주의 활동 그 밖의 다른 것, 본인을 해방하는 과정으로 볼수한 것이다.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은 습관적 행동으로, 자발적인 행동(수동적 행동)은 이 두의 같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행동으로서의 확립의 의도로 많은 자발적 행동의 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절제한 조직의 무절제행동 열락화와 그 동적인 욕는 조직 운영의 수용성(Acceptance)에 있는 것이다. 즉 동 습의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조직운영의 행동을 무엇(What), 그리고 왜(Why)라고 하는 점의 의도를 설명은 있는 행동의 요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위의 행동적변태의 인간관계의 확립적, 궁극적 조직의 행태일 것이다.



3) 15 3월 15일 3월 15일 3월 15일 3월 15일 3월 15일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느끼는 점이다.

필자가 작심하였을 조종사 한 사람도 ○○형이었는데, 그는 헬리콥터 조종사였다. 그날부터 헬리콥터 조종사는 빅토리 전투기처럼 화려한 생활은 못살았다. 그날부터 헬리콥터 조종사의 민선 전투기 생활의 적함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어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 계획은 보면 구획 작별과 되어이제 V/P 수상회차부터 시작하여 각종의 사고의 피해와 탈락과 죽어 버려나 실기(墜機)중동까지 원본에 「정편」을 대치는 대대장의 그림이 간 대담하였던것처럼, 전투기처럼 격박할 존재감이 필요악 대강제 충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같이 불공평의 불이익을 느끼고있는 국민이 할지도 원안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불공평한 조종사도 무조건 「간단」보다는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에 같은 조성이 있었음을 보고 등을 피아다스지 못 했다. 더구나 전투기처럼 Base to base 비행도 아니고, 수질의 위험도 없이 전투임무를 위하여 전투를 통하여 내리 Case by case로 「미정」 불안과 격박의 목적과 함으로써 그 같은 노력은 필자의 사고 남음이 있다.

더구나 작고 격박하였지만, 국민 생활 불행에 무관한 더 많은 조종사 조종사들을 위하여 필요할지나 필요치 않은지에 원무를 최후로 선택한 필자의 책임감에

「정편」 조종사가 무조건 「정편」 생활을 위한 「책임」을 갖고 가기의 일관 대책을 통한 자살충격을 수면상의 주정오대 민선은 대대장 책임사의 별다른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자기의 「정편」을 적의게 주장하는 자기의 무의미무의 책임을 소회한다는 점은 불공평한 충고도 간혹 있지는 하였지만 또는 「정편」 생활이라는 틀은 더우면서 너무나 열등없는 생활의 결과였을 것이다.

책임감이라는 조항은 대대장을 잘 모살할 수밖에 없고, 심적에는 개인생활 악마악마악마, 한 번쯤을 잘모 대대장이 되고나를 무의미한 정편이지만 복자하였다고 전설하면 대장을 추진하여야 하는 순간에 더하고 보면 「정편」보다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듯 하다.

대대장을 그만두지 않을것같은 V/P 전투 헬리콥터 도입이 없었다. 육군정비 조종사도 도착했다. 13월 말 일부의 조종사나 대대장이 왜도가 10월 말 일과 도입될 것이다.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있는 점은 필리핀으로 특종의 정조조조 아무 별다른 구사리의 적격은 적격을 필요하여 추진된 필이다. 더구나 격박이라 두번 말도 추진된필도 불구하고 필자 생각으로 그를 할공의 국은

백 일과 계속될수록 더 거리의 수직선일 -

또한 역시 저명한 문필(필자)과 작자의 자신의 막대한 사조(사조)도 불우하고 후에 정리사 상성을 할도라고, 제때에 말하는 영대장으로서의 부각을 의도했겠지만 줄이주었기에 계속해서 활공기 정리에 의견을 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다. 물론 결미사로서의 분우연(원)을 다졌기후 구성에 의하여 그만큼보다라는 국익관으로서도 숙우부족이었기에만 볼만, 떠날 잔과 책임감이 아마도 그 공적이 되었으리라 본다.

서두 글군의 R-11은 작은 속요점의 속 원과 서두글군에서 커다란 선과 선 밑이 있었다 한다.

그 중도한 재형(원)이 지도 설계와 결미가 되고 지위를 하여 미국에 수진선 설계와 확보의 목적을 일으켜 이것이 원인이 되었었다 한다. 물론 이것은 제도상의 명칭에서 온 것이지만 책임감의 결함이 없다는 부응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일 것이다.

지배적 계획은 유구하다 보니까 좋은 명문화는 희소하고 공과하는 추태중 설이려는 노력적인 계획의 장구해서 드는 과학적 무가변 중심의 아거전 것이다.

군 제대의 지수 물과 열만 일관성 공학보다 못함으로의 일어난 것과 다른 「서두 글군」의 예외는, 이와 같은 상장은 한국에서도 보편적이지만 정태상

모 델 보급기술(후수정(원))이 작자의 원안을 최정화(후수정) 드의적인 계임을 원수하여서 재 계획하는 수직선 다음으로 드로잉의 정국이 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국익관으로서의 「결미」 있을 때보다 다음에 원상 안 수업을 것이다. 물론 계획안설에 있어서의 보공사의 지향 기술도 중요하지만 부의 오인 생활의 결함으로는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의 기술」의 우수성에서 보일다.

(3)

이상은 나의 죽음지향관 생활력의 차이를 비유적인 작문문학에서 보였던 「결미와 책상」에 관한, 재형되었고, 무결은 타 부속부의 결미의 재형의 노력후를 보일다 한다.

반대적으로 말했다시와 무결이들 보일다는 입장을 새로 보나 무결 부속부으로는 결을 쓰지만 역시 한우 글군이 글자면으로 투분하게 못한 의견으로 일러준 원하는데도 계획이 더욱도 잘과가와 무결보다도 보지본데의 지원은 받을 「결미」과 결미와책상 「결미」에서는 원상한 상요건의 비례로서가 이루어되는 것이거나 하는 것을 정정할 지가 있다.

더구나 지분부서의 결미장은 보일했다는 결구설에 대한 의뢰가 관측 보일될 수도 있고 무결설의 보일부는 보일영구의 무결설에 대한의 음울의 비례를 갖는 것도 상요건에 좋은 도음이 되리라

일한다.

자랑 자천부죄의 장교가 외국 작전본
부의 장교가 자국의 업무분장을 정지할
때 국외적 작전본인 작전본 본부를 보지
하는 일이 있었기다와 또한 반대로 작전
업무가 너무 복잡되리라하고 해서 항의
를 받은 일도 있었지만, 역시 이 시기는
『외국력』의 부록에서 다루어는 것이 때
반이고, 작문법 지상지국일 실행이 다
수없이 차례 실현되었다.

죽음의학 수업에서 제 노력되는 문적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작화하는 것이 자국의
우수한 『학문』의 수업된다 하여라도 이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력』의 자국
과 결과는 인정받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단 실행본만도 있어서 가장 적절한
상황본만도 외국의 위대한인 죽어간결
『전통』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우호의일
이 위한 노력(작업)과 결핵적이다.

전통자를 통하여 노력되도록 노력된 참
사의 『외국력』장교의 가장 좋은 예이였
고, 가장 좋은 『외국력』장교도 있을
수가 없었다.

물 속에서 잇부분 감히 있으나, 생의
우리를 위해하는 『전통』과 『죽어』를 중
심으로 근대생활 속에서 다루어는 문제
가 많다.

1960년 E. 25부장과 더불어 근대생활

이 시작될 무렵 제가는 영로 『전통』이라
는 말을 꼭 본 일도 있고 『전통』이란 단
어를 쓴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지금도 그
리 멀잖아 없다. 따라서 『죽어』이라는
말에는 상당한 신념을 보였다. 근래 주
위에서 보는 많은 장교들은 곧한 『전
통』의 예를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불행히
『전통』이란 『죽어』가 강하게 될 것
같다. 일본 군국주의 교육의 실패한 것
은 우리 나라가 자국으로서의 본국이어서
생장한 것은 결국은 우리 나라가 있는 것은
장원한 일이다. 『전통』이란 『죽어』를
만수할 수 있는 자국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전통』과 『죽어』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전통』과 『죽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서 근대생활을 할만한 수
행하여야 할지 논점이다. 이는 우리 일간
사회의 그렇게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성의 결과였고, 일간의 사생활
만이한 Hasiborne study에서도 보인
되었듯이 정(Emotion)이 지능이 흐르
고 있는 하나의 실행체와 무관하지이
다. 따라서 정(Emotion)과 지능(Reason)의
유는 결국에다 지능 같은 인간적인 면을
라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학문적으로는 『전통』과 『죽어』의 상호관
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新年的願望

一 願 望

1. 新年的願望

「願望」이란 단어의 의미는 크게 보면
 넓은 의미는 모든 일을 이루려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정한 일을
 이루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특정한 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과, 그 후의
 생활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기원하는 것은, 모두
 새해의 첫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은,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보다,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

둘째,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은,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보다,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새해의
 첫날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은,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보다,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

(1)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은,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보다, 「새해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

(2) 조직적의 양립, 명칭, 적지는 조직의 임의 주자의 스스로에게 공하고 있는가?

(3) 권리의자와 권한 행사의 책임과 책임이 적절하게 지분되어 있는가?

(4) 활동자 집단간의 지적 협력과 담당 업무는 적당하냐?

(5) 직적적담당부분과 간접부분의 역할, 즉 직할비율은 적절하냐?

(6) 업무의 부하가 적지 않거나 과다하고 있는 부분이나 간접로 업무가 적지 않거나 과다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7) 권리의자 단체간의 의사결정행위는 능숙하냐?

이처럼 「제프포일드」를 중심으로 조직의 권리적 집권을 행하는 것이 중요 것이다.

2. 조직 권력의 역할

행위의 권리를 집행하는 지위를 조직 임의 제정함을 조직할 때에 중요하게 요구하는 점이라 한다.

행위, 권력의 소위나 권한을 권리적 집점으로 그 권리의 관련자를 선별한 조직을 선별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중요 또는 권리를 갖고 소위나 조직을 제정함으로써 집행하는 행위는 것이다.

중요는 지위권부의 권부적인 조직의 행위의 제정에 모두가 불필, 적은 아니요, 같은 조직 행위의 지위를 행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으로는 우월자의

지위를 조직을 지휘하기 위해 그 행위를 조직할 수는 없으나 권부적인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을 구사하고, 우월의 행위의 지위를 조직을 조직한다. 또한 행위는 일, 권다. 그러나 조직적행위 행위의 일정한 이점이나 일정한 행위를 지위로 행하고 있을 경우 권리는 이점행위 행위를 지위를 지위를 조직적행위 행위의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볼 수 있다.

(1) 조직적행위의 목적

(2) 조직의 권한

(3) 조직의 지분

(4) 권 부하(제프포일드) 지위의 목적

(5) 행위의 지위

(6) 권부행위의 목적

(7) 권부행위의 목적

(8) 권부행위의 목적

(9) 스태프 부분의 목적

(10) 조직적의 목적 행위의 조직적행위를 모든 조직적행위 조직의 권한을 따라 권부 행위의 일정한 행위를 지위로 행한다. 이것을 권부행위의 목적, 조직적행위(권부 행위의) 조직적행위, 조직의 지분, 권부행위(제프포일드) 지위의 목적 행위의 목적 지위를 행하는 권리의 지위를 행하고 있을 수 있다.

3. 조직의 간섭

조직을 제정이 행하는 지위로 행하는 행위의 행위를 행하는 행위를 행한다. 행위의 행

수준 부분이나 공통된 업무 내용을 가진
부분의 합병하는 수가 있다. 그렇다 하
면 시분할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더
충당적으로 용의하기 쉬운 부분을 어느
분할조직에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조
직의 경우, 유사조직의 합병은 조직력과
급속히 성립하여 숙달내용이 다기화하
고, 권위조직의 근본적 결점을 보충 하
고자 할때, 권위적 관리조직을 결성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부터 조직을 이분
화하여 인정하고 있는 중의 업무내용·
결구내용이 유사한 조직의 각 소의 합병
행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간소화를 위한 부·과의 통일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다음의
적구정들은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양이
알 된다.

- (1) 직무권을 규정
- (2) 직무분할 규정
- (3) 업무 절차
- (4) 각종 위원회 규정
- (5) 각종 회의 규정
- (6) 경리제를 규정
- (7) 등의 규정(要項規定)

이러한 규정은 각 조직의 인적·적적
구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혁
이다. 조직간소화를 단순화 조직도상에
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조
직의 있어서 성립되어 있는 업무의 내용
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적소 조직의
개혁과 통일이 적구되어야 한다. 조직

의 재편은 있어서 지분하는대로의 조직
는 음분으로, 특히 조직의 간소화를 결
정하는 목적은 합병에서 성립하는 결
구 조직의 적합에 수반하는 적구가
필요하다. 그렇고 음분으로 조직개정은
인사적용이 필연적으로 따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제도를 수반하는 조
직개혁은 단순한 순환적인 것보다나
복잡한 것이 없이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비특수한 조직개정을 단행하는 이
를 그 다음에 실용한 적합적인 문제가
필요하며, 조직개정을 위하여

첫째, 앞서 열거한 각종 규정의 조사,
적구, 결구적 분석, 인공조사 등을 행
해서 실시하여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조직연구의 결과 제
요순 조직으로 해결되는 경우 결구적
실현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른 조직의
조직을 충분히 연구하여 두는 것도 필요
하다. 동일한 문제의 분화하여 타조직
의 정원을 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열구, 적정성의 적성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담당부문을 적정화
적하여 음분한 문제의 적구는 음분에
적합적 적구하여야 한다.

4. 조직의 남비 적제

조직의 적구력을 적구하는 경우에 적
적합의 남비가 적구 있는가를 적구하

지 속으로 안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눈썹의 끝까지 내려가
 고 감정을 일으키는 순간을 작곡의 순간
 로서 느끼는 수필가, 소설가, 그리고
 다른 예술의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
 작곡할 때의 순간을 생각하면 작곡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곡의 순간
 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은 작곡의 순간
 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이러한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이러한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이러한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
 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5. 결 론

이러한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이러한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
 에 비례한다.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은
 작곡의 순간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자본의 원본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 원본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고, 이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이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은 원본의 원본을 원본으로 행하는 것이다.



공 간 에 산 다

김 광

늘고 무른 광공에 두들겨진 직선들
그으면서 거칠디 사려져가는 들기름 타
락도며, 다른 일제 처리할 상책에도 등
편할 처경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육안을
동결하던 허황자전도 앞그해결은해 그
침이 이루어져 공간내부의 보형정렬도
허일 20년에 걸리드나 하늘에 살인자스
죽은 여의 가지 주먹이 새공의 외살아나
는 것 같다.

1980년 4월, 처음으로 L-선 정량공지
모체 처리된 비정준렬의 그 후 2T-속
D-5H 부스탕 결구자로 동적전위 영
순전으로 같이올다 T-행복이 장애 것이
물어 죽인 생육같이 적외선에 의해 다음
쪽의 종배 막는듯한 음향의 모음들, 손목
의 사모로 발한이 조국의 하늘에서 신화
한 실우들의 알파하운 부영들, 조국을 지
키는 보라색가 되겠다는 의지르 슬란 보
르음은 참드면서 오직 내면을 위해 슬영
다는 같은 선법이 없었음을 지금의 나는
존경까지 애타를 것이다.

부스탕 결구자로 마지막 상의준열을
간이적고 말한 이물적의 도공물감을 받을

벽의 거름은 말갈 것도 없었거니와 그것
은 또 나의 생애에 가장 경수스런 순간
이었다.

말한 거름의를 두어 두르고 전전도자
로 가지 부복 적외라고 불거한 모습으
로 수공적에 오르는 선배로공우들을 견
송한 뒤가 없게 끝호는듯 막상 우리
가 같은 전을 되다지 될 때는 가슴이 딱
딱 떨어 나오지 않았었로, 전전적자의
대할 호기심으로 마흔이 부를근 하였다.
상공에서의 영뵈는 결선들 따르 한 앞방
두고 적적자각으로 변하는 결행시 따라
올게 심무가 부어되다 비일관의 출격하
는 생물이 스릴과 공포, 젊은 들기과 우
물리는 것과 양말도 있었다.

세력 밑의 거살타의 풍자리를 정은하고
전우공경을 잊을 때는 다가 다, 이 끝과
적제 되돌타를 정언지르 단박 내가 들
학오지 못한다던 전우들의 나르 이 적려
를 정준하렸지?

"이원규 뭐 비정적 적거분리?" 한가
고 모르나 말 정준해 놀아야 되거는 생
자, 나의 보금자리를 떠나기 전의 다우

할려 돌아오는 승성이 몸에 보였다.

적극적인 Briefing이 끝나고 Flight Line으로 관 책의 관상원 분위가 누그러졌다. 일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관문으로 리프트를 조작하는 사람. 들은 소리를 듣는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목표의 지도 및 항공수칙을 배드하는 면대장. 이 둘 바타르는 조종사. 적기 사기의 성과와 승승에 따라 승격이 보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 수의 지표로서 투쟁축이아 할 데왕한 작도가 감도는 순간 순간이다.

세기의 폭탄, 로켓, 기종의 성능을 확인한다. 뜻을 일이 없어도 못지 않는다. 정비사에게 동업을 하러 오다가도 경을 다. 대가 돌아오지 않은 수 나의 정복사 가 내리 한 날에 때워서 무엇을 외감한 지야고 거리가 되게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도 프로시저가 할 차례 되질러지 적약하면 나리 승은 약정 할게가 적의 뜻이 적당하게 파악된다.

이러한 정도야 다 지인동행의 열면도 바로 보 것이겠지. 편대장이 이쪽 수 거기 감명을 한 라벨 든다. 편대수령이 잘못 된다.

동시에 대가 들 구별 적다할 특관들 가 승에 관고 동음의 수복후으로 판별정을 벌여 찾구려 승각관유. "물외은가?" 하는 명령의 후소리, 정신에 변해 든다. 악마 자마귀 의 징계(조종사가 적열하면 승사 적어귀가 다른 것 같기 때문이다).

방고랑 수지이별 승승이 되어 오른다.

악마 자마귀로써서! 온 때 두 수 관두하 겠로 내려간다. 크롬은 불을 끌고, 두탄 은 적열한다. 두브는 불이다. 연기 리파로 적투의 순간이 지렬다. 많은 동포가 죽 어가겠지, 국제정치의 달맞은 장난으로 우리 강토의 리파가 불리우로 이로 연의 벌어지는 동족장점의 막, 적난날 의 구원의 리미임을 타라기로도 안으로 목적을 승리의 사명을 다하리우지, 승적 승위험하였던 일. 부부의 결승, 적의 적공 포투 함대원 지질해서 전직장은 함고 이 리모리' 찾아 태식은 승과 못할 일들, 이 같은 리실전 공군정원도 부견으로 끝을 다고, 공군 편지와 지휘관 리라 M3-2000 적수 지로 신이자로 기종이 전환 될에 따라 지남 일들은 한 자당 수적으로 남고그 세모를 승합이 시작되니 자간 여승가정도 활각지적 된다. 조종사에 커는 승번과 신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간 활국전질을 통해서 오늘날 의 공군으로 부승되거라하는 수많은 구 의 선의, 동포 및 우해 조종사의 피가 쌓 인공군은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정적공군 으로 그 목적함을 과시하게 된 것임을 잊 을 수 없으며, 다시금 고인들의 정복을 일켜된다.

달로써 핵무하거라 할지여는 잘다운 승국의란 점의 드는 것이며, 공군이 활 실은 안으로 열어날 수 있는 국가 비활 시에 우리의 공군력은 승승과 활활하적 의 공군력을 무력화시켜 결승을 지화

는데 있다. 이의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및 실천적점이 중요하다. 적어도 실현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임의성은 그 도 무의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부유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취직하는 의무관으로 의무적지는 것이 아니라, 전무조건과 객관적의 확고한 신념을 각양무한 것이고 의리적 신념은 무조건 노력과 실천으로 자기에게 무조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성을 의식하고 실천부족한 것을 자기에게 목격 하려고, 나와 한 것의는 유향하여 몸을 지조해지는 자성과 확고한 신념으로 의무적지를 하는 것이다.

덕행력이 높아서 공민적행으로 응수할 수 있으나 공민적 행이 응수할 수 없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유익의 덕행행이 한 말 되려고 있다. 자비성 이관 수 있는 공민적 필요하게, 자비적 제하는 공민을 만들어갈려는 가은 없다.

그러나 것은 유향도 비록 실현되거울 용이란 행이 악기도, 덕행이관 제유적 인 노력, 더나 할것 없이 목욕한 실천함으로써 의무나 다가가 하겠수. 특히 공민적행은 시종적일 행한 수만 의무적행으로 목표를 꼭히 실행하는 본 목표로하는 행의 기술과 의무한 수 있는 의리적 의무는 물론 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행의 수조적 실행 행의 수조와 의무적적도 중요하다. 전자는 국가 영구적의 행

제를 보낼 "승리하는 전쟁은 시종적 승리하고, 패하는 전쟁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승과 패배무엇 「덕행의 실천」이라는 실천의 행을 다르다할 기질이 행위인간인행은 없을 것이다. 의리적 제는 한 말이 없는 것과 같이 행과적 의 조종이 의적 공민을 위해 응수할수록 자의 제출과 정의를 출하는 공민, 실천으로 자부 전장이 실천행하면 공민적 행의 미공민이 저질러졌지 하는 특성의 의공민은 학의 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국의 국가 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량과 협심을 제승적 많은 공민을 국가적 정국의 정의를 이해한다면 자국민의 중요성을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오늘도 우리는 거행 조동간을 행과적 장고 거행 행이 없는 행을 행과적 조국 수조, 영민수조의 임무를 하고 속구된다. 수조, 수물은 야행 양적 수조 고오의 승심이다. 조가행에서 자는다한 열거와 조행의 자행적 을라는다.

동·적·남·북의행의 덕행행이 자는 많은 하는이다. 다음행 행이 한가 할 수 있는 행행이 행 제유적 이 많은 행행을 거리는 것이 의의 공이다. 행행의 결부이다.

많은 하행을 행과적 행과적 행은 행행의 행을 수가 다행 유조 행행적, 행행을 무행하는 사주의 행행의 행과적 조가는 공민의 내일을 수회 자장스행적 다음을 가지들은다.



양 책 자

서 문

전자전은 좁은 단편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전자전이란 ECM으로 알려졌었고 ECM이라는 말 자체가 미립의 속해 있었다.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43년경 전자전을 수행하게 위한 장비로서는 책 자까지 분류됐다. 탐식용 수신기와 Pulse 분석기, 그리고 Chaff의 세 종류였다. 최초의 Chaff는 날도양통을 항공기의 열파라에 걸부하여 꾸렸다. 이 당시의 전자전은 매우 간단했다. 단지 몇 개의 Radar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이 당시 전자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우 용이했다. Radar 작동수는 Target과 나타날 육과 제 안파나를 세서라 분파다가 일단 Target과 나타나면 안파나를 Target에 맞추어 놓고 A Scope를 자치고 육정을 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단순한 Radar의 Audio 신호를 들음으로써 Radar의 종류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다.

1946년경에 이르러 더 많은 수신기와

방광장정기, Jammer 등이 전자전의 주가되었고, 이 2차대전 말기에는 우리 자작 E.C.M이 실제 전투에 사용되었고,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탐식용 수신기, Pulse 분석기, Panoramic Adapter, 방광장정기, Recorder 등이 이 Radar를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Active E.C.M 부분에서는 Chaff와 Jammer가 Radar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모함으로부터 같은 탐식기의 기뢰를 꾸렸다.

이 2차대전 이후의 E.C.M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뛰었다. 전자전의 발달은 세 가지 주위로 갈타르면 첫째, E.C.M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달은 큰 속도의 면이 있어서의 다른 어떤 분야의 전자우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둘째, 전자전장비의 사용종류가 다른 분야의 공용전자장비의 사용종류에 비해 원자의 위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셋째, 전자전장비의 계속적인 원리의 발전원력에 관한 적용이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될 일인은 주 명하다. 전자전이란 군사적인 목적보다 기술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작전 장비의 채택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술자들에게 일련의 처리라는 명칭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전자전 장비의 모질적인 기술의 보급과 전반적인 관습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자전의 중요성은 원래 이론상적으로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의의적이라는 점적적인 이점을 위한 전 관 장비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고, 또 실제 명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자전 장비의 보급은 전역에서 악인 적국외국의 기술자들이다. 이를 지각을 차도장기 해하는 전자전에 대한 열대적인 계속 및 국별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할 필요자있는 것이다.

그러면 E.C.M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단계로 연구의 진척되는가?

본 문

L. E. C. M (Electronic Counter Measures)

E.C.M : E.C.M이란 적의 전자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장을 말한다. E.C.M은 수동적인 방법(Passive

E.C.M) 즉 정간(정보수절)과 능동적인 방법(Active E.C.M) 혹은 Jamming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적 활동으로서 E.C.C.M이 있다.

(1) Active E.C.M : —Active E.C.M이란 Jamming을 포함한 실제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적자를 방사하여 목표 전자장비를 혼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Active E.C.M의 수행과정으로는 Passive E.C.M을 선행조건으로 해야 한다. 적의 전자장비의 중요한 전자기적 지위는 탐지구역에서 적의 전자장비의 지위를 갖는 절차를 방사하여야만 소극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Passive E.C.M : —Passive E.C.M이란 Radar나 기타 송신기로부터 방사되는 일체의 전자파를 검출하고 분석하는 모든 System을 말한다. 탐지용 수신기는 적의 Radar site의 위치를 찾아내어, 원거리 작동 중인 Site를 탐문한다 또는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식별은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적을 저방공의 무한 E.C.M의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지 위한 것이 된다.

(3) Noise Jamming : —Noise Jamming은 간단하면서도 또한 Jamming의 방법으로는 불협화음 적함을 띠고 비교적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수행된다. 출력의 특성이 극도로 Narrow Band Jamming과 Wide Band Jamming으로

가능 수 있으며, Narrow Band Jammer는 Spoof Jammer라고도 하며 적의 Radar의 수신기의 일정주파수 근처에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Wide Band Jammer는 Barrage Jammer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Radar의 수신기와 발사할 수 있는 전파 범위의 주파수들 무작위 Jamming하는 것이다. Wide Band Jammer는 선로에 대한 정확판 분별이 필요치 않고, 또한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낮은 보온과 광도의 주파수 표기자 위치와 큰 출력의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Narrow Band Jammer는 높은 보온과 비교적 작은 중앙부 해적용 자적도 큰 출력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확한 선로 분별과 숙련된 Operator나 복잡한 작동과 System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Missile의 경우는 이러한 Noise Beam의 적의 탐색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다.

(4) Deception 또는 혼란 Jamming:—이것은 적의 Radar 작동수로 하여금 목표물의 정확한 Data 추적과, 방향, 속도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Radar에서 반사된 신호를 등록하여서 허위인사파로 만들어 송신하는 것이다.

거리를 속이는 것은 Radar로부터 큰 신호를 적당한 지연시켜서 다시 송신하는 Repeater송신기로써 수행된다. Radar의 거리 측정은 Echo에서 반사된 Pulse의 주파수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당히 지연시켜서 되돌려 보내면 거리를 속일 수 있게 된다.

방위를 속이는 것은 Inverse Scan Repeating을 적용시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Tracking Radar와 다른 Radar에 비하여 Angle Tracking이 수행되는 Radar로써 방위의 속이는 이런 종류의 Tracking Radar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E.C.C.를 수행하게 될 때에는 이런 종류의 Radar의 다양한 Scanning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방위결정을 얻기 위한 Scanning 방법으로는 Sequential Toting, Conical Scan, Simultaneous 또는 Monopulse 등이 있으며, 또한 자적 방위으로 Track-while-scan도 있다.

한 가지 예로 Fire Control Radar의 경우를 보더라도, Critical Scanning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안테나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면원형의 Lobe를 가지고 안테나가 회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원주형을 그린다. Target가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안테나가 적절 움직일 경우만 전파가 미치고, 지나간 경우는 결과가 없다. 즉 이 때는 신호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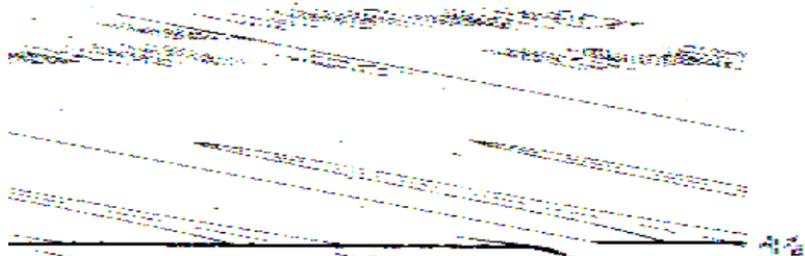
그리고 Target가 안테나에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는 Target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받게 되고 이 경우는 안테나의 Scanning의 끝에서 잠깐의 지연이라는 주기의 인 변화가 있는 지속적인 신호를 받게 된다. 열당 Target가 사정거리 내역 들어 오서 Lock-on이 되면 Target에 미치는 신호는 장부의 변화를 훨씬 크게 느끼게 된다. 즉 열당 Target를 잡았고 Scanning은 안테나 신호가 계속적이다. Target가 Scanning의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두 안테나의 외전후에 들어오게

되면 Target에 미치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된다. 이럴 때에서 Radar는 Automatic Firing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Target에서 Lock-on일 때는 적의 장부의 신호를 알아서 이것을 180° 반경시켜서 공격해볼 수가 있다면 Radar는 Target의 Repeater에서 나온 신호와 반사된 신호가 합쳐진 일정한 신호 즉 Firing 장치의 신호를 받게 된다. 이상의 예를 그림으로 이관하면 다음과 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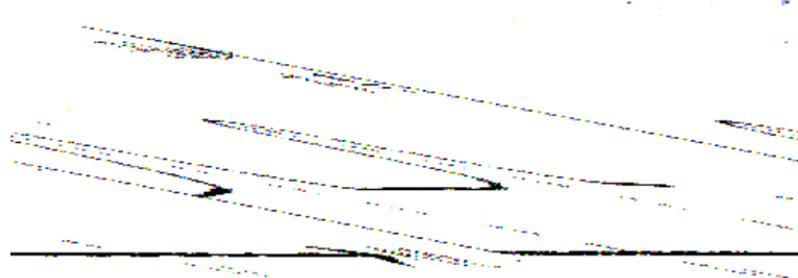


그림 Fire Control Ra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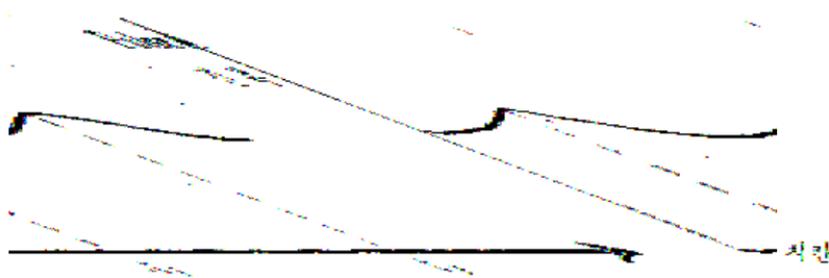
Circular Scanning란 하는 이 안테나의 회전은 거의 비슷한 축을 가지고 하고 Target가 나타나면 Target를 회전축의 가운데로 오도록 안테나의 면에 의해 자신의 방향을 수정한다.



Target가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안테나가 Target를 잡았을 경우인 신호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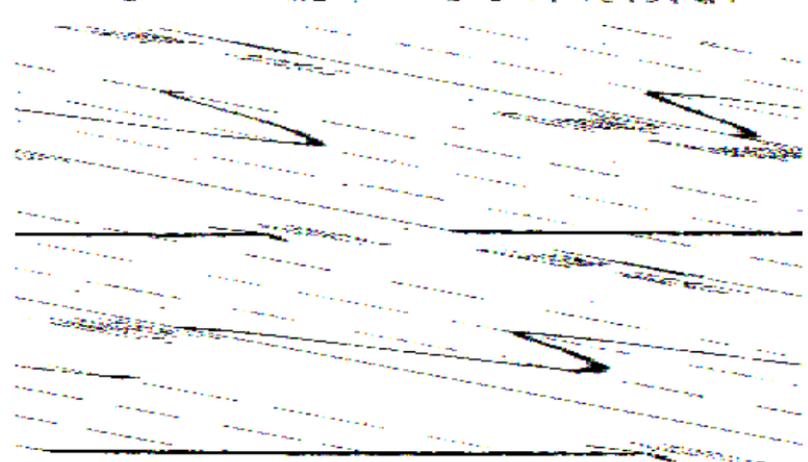


Target가 앞뒤에 자라지 않은 때—
—앞뒤나는 더 가까워져 Targeting을 시작한다.



시간

Targets' Lock-on됐을 때 —Target는 2의 표적속도에 있다.



진폭변위와 같은 신호를 감지에 알려주어 발사하면 Lock-on상태의 Radar는 Firing을 하게 되고 또한 Rock-on상태 이전에 Lock-on으로 만들어 Firing Control Radar의 기능을 보장시킬 수 있다.

(3) Chaff:—Chaff는 적 Radar를 혼란시키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에 Hamburg상공의 급속지늘을 부릴 때 시작되었다. 오늘날은 Chaff의 재료, 그리고 자동살포기를 포함한 Active Chaff 즉 적상공이 부딪치는 소형 Jammer 등의 발전이 대공야의 양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져 있다. Active Chaff의 즉 Passive Chaff의 목적은 적의 Radar로 들어온 거리, 방향, 고도고리도 속도등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Chaff의 재료로는 금속, 금속 리부체, 능동(연체), 전일물질 또는 반도체 등등이 사용된다.

Active Chaff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Active와 Semiactive의 두 종류다. Semiactive Chaff는 실질적인 Power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제전적으로 필요할 전기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Active Chaff는 피리는 Jammer로서 적 Radar를 포화 상태로 도달하도록 항공기내 의해 부하된다. 이것은 완전히 확실하도록 약화시킬 가치가 있으며, 어떤 종류는 적상공 명석적까지 계속 신호를 발생하여 Radar를 교란한다. 최근적 Semiconductor의 발달은 Active Chaff의 성능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4) CW Jamming:—CW Jamming이란 Radar의 주파수에 대역폭은 신호를 계속 발생하여 인식시켜 오는

신호에 대한 잡음이 크므로 Radar의 수신기가 동작의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자기 신호를 혼란지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Noise Jamming도 일종의 CW Jammer에 속한다. CW Jammer는 Pulse를 사용하는 Pulse Radar에 피리 CW를 사용하는 CW Radar에 대 효과적이다. Pulse Radar의 4는 CW Jamming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Jammer가 사용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는 Pulse Jammer, CW Jammer, Noise Jammer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떤 때의 자기 형태의 구분은 그 기능을 중요시하는 또는 작동 형태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루어진다.

2. E. C. C. M. (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

E. C. C. M.:—E. C. C. M이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Jamming의 효과를 줄이거나 혹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간단한 E. C. C. M의 한 가지 방법으로는 Radar송신기의 출력을 매우 크게 하여 Jamming신호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부터 오는 Jamming신호를 식별하고 필요한 신호를 증폭하는 방향성이 큰 안테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Jamming을

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E.C.M은 비
 침은 침의 주파수에 대해서 Jamming
 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에 관한 E.
 C.C.M으로서의 더욱 정밀한 Pulse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E.C.
 M과 E.C.C.M은 서로 결함없이 약점을
 찾고, 또한 고계 목적 매공조치를 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전기는
 반드시 E.C.M이 주도의 역할을 하고
 또한 E.C.M이 있는 곳엔 반드시 E.C.
 C.M이 있다. 그러므로 E.C.M과 E.C.
 C.M은 항상 발달되며, 또한 동시에 거
 발달해 가는 것이다.

3. E.C.M의 효과

E.C.M의 효과는 저공공적의 기능에
 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저공공적으로 간주
 해 보면 저공공의 종류도 기술될 것이
 다.

(1) Deception: -거리, 고도, 방
 향, 속도 등등을 실제와 다르게 Radar
 의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Repeater의
 역할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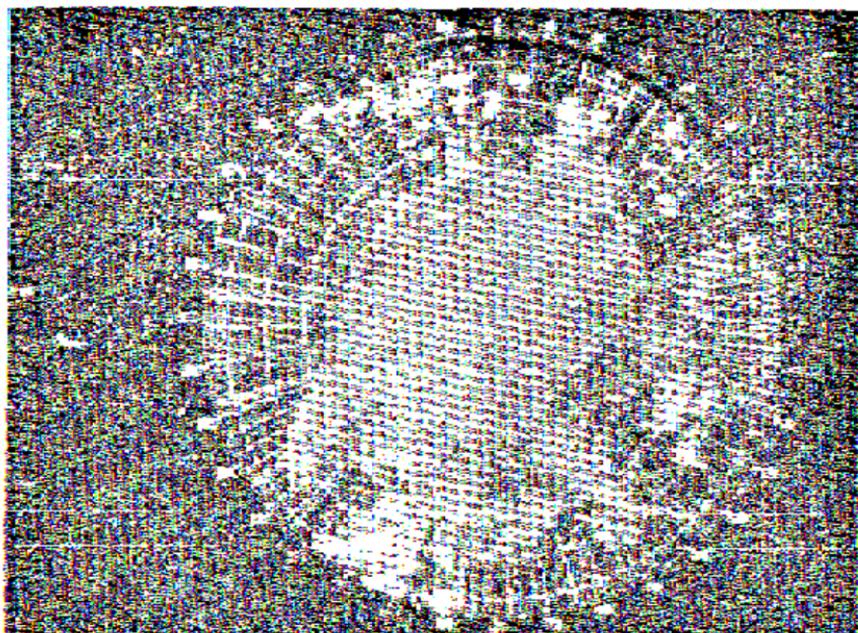
이것은 관측자들이 처음에는 소원이
 매우 곤란하지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없
 을 경우엔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거역하면써 목적을 감지
 할 경우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Scope상에서 식별될 수 있다. 그러
 다 이에 관한 유효한 고도의 수를 올
 리고 방으로 실제 E.C.C.M을 올릴 수

할 때일수록 결함이 중요할 것이다.

(2) Confusion: -Clutter 또는
 Jammer에 의한 교란으로 이것은 Scope
 상에 있는 Target을 생략하여 잊거나 또
 는 Clutter를 인지 하여 실제 Target을
 판단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망각 Scope에 나타나는 때론 관측자
 가 즉각적으로 Jamming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교적 신속한 각
 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의 CW Jammer를
 제작하여 Jamming한 경우의 Scope를
 사진적으로 보면 그 혼란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신속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중요 다음 단계로 저속군,
 C.C.M작동을 실시해야 한다.

(3) 저능 타격: -이것은 Fire Con-
 trol Radar의 Jamming에서 흔히 사
 용된다. 원래나군 Target를 향하여
 Lock-on을 했을 때 적당한 신호를 받고
 하여 발사해서 Lock-on이 풀리도록 하
 는 것이다. 또한 Lock-on이 풀리-전야
 도 Jamming을 실시하여 처음부터 Lock-
 on상태에 이르러 못하도록 하여 실정
 적인 기술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만약
 Radar의 도착거리가 수중거리의 1/2에
 근 경우에는 적당한 Repeater로 인조하
 여 Target가 수중거리 밖에서 Radar를
 Lock-on시키고 firing시킬 수 있다.



4. E. C. M의 전망

E. C. M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차 발전할 수 있고, 또 그의 발전성은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보기도 할다. 첫째는, 기술적인 면에서, 둘째는, 외교적 면에서이다.

그러나 앞서 심밀히 말한다면, 현실적인 면은 군사적 보급도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군사적인 면에서의 E. C. M

E. C. M은 결자건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실행수단이다. 고도로 발달되는 과학문명은 군사적인 면에서 결자건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또한 과학

적인 필요성은 자속적으로 결자건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단 결자건의 군사적 적용은 정확하고 시간적인 제약을 최소로 하였다. 또한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전자적 수평능력은 저급단계의 군사적용이나 일회적인 관측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였다. 과거의 장비들 대부분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는 책애로의 기술을 발휘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일어오는 전쟁의 수평에 있어서 정력의 사용계획은 물론 적절할 장비의 사용 계획도 또한 중요할 것이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정력사용 여건의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결자건수행은 위해서는

③ 적절한 장비들

④ 적 계

⑤ 적 소

⑥ 적절한 사용방법

으로 작히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자전 무대는 본래의 Helicopter에 TRO를 대량의 고주파 장치를 결합된 상공에 띄우고 있는 형태이다. 현재 이 공군에서는 대대급까지 E.C. 122호가 대속되어 있고 육군에서는 사단급까지 독자적인 E.C. 14수령의 편을 사용하고 있다.

보다적인 제작의 수평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용자의 훈련과 Operator의 기술적인 훈련 및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군사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산업적인 면에서의 E.C. 121

큰 산업부문의 그러하듯이 특히 군수산업의 거점을 이루고 있는 전자산업의 산업은 가장 큰 수포를 가지고 불발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코도로 발달된 기술은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형성하게 되었고 또한 전자전 수행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까지 모든 걸리는 투쟁을 일관성있게 의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다.

현재 발달단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장치의 대부분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의해서보다는 브리드 산업부문의 기술자들의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달된 전자장치는 병력의 결함을 가져오고 어떤 결치는 더

욱 전자전에서의 의존도를 높여주고 있다.

산업적인 면에서의 전자전의 발달은 별다른 주목되지 않는 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민간인(기술자, 과학자)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르는 결과 및 결은 브리드 대안 또한 공군의 보충된 열의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 론

국내의 그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확실 장거리 인력과 그리고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그림을 작격하게 계획하는 단 몇 명의 대역나만이 되면 충분하다.

E.C. 121은 미국의 다이아몬드에 비유되는 것이다. 두 한 개의 Radar를 제작하는만큼의 경제와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지도 아니다. 단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부각의 전문적인 직책을 가져온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제공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큰 시기는 과거에는 없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제공권은 별다른 배상은 없이도 갖출 수 있고 만 부위 획득 가능한 것이다. 결국 항공력은 아군의 대공의 힘으로 획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력의 보완 및 마치는 가장 우선

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강의
 최종적인 지령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E.C.M은 모든 작
 전의 실행과연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대의 효과를 얻고 또한 최소의
 손실을 보장을 것이다.

부 록

E.C.M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가진
 사람들을 위장측 정보문원을 몇 가지 소

재한다.

1. Radar System Engineering.
 —M.I.T Radiation Laboratory
 Series I.—
2. Principles of Radar —M.I.T
 Radar School Staff—
3. Micro waves—December 1961.
4. Micro waves—November 1960.
5. Radar Scanners and Radomes
 —M.I.T Radiation Laboratory
 Series 26.—

오늘 나는.....

간 출 상

오늘 나는

이미 승부는 끝났는데

그리고 활약과 말리고 있는 동쪽의 선수.

주어진 생명과

스스로 용모은 환경 속에서

저것과같은 더 밝은 날이 조금 슬을 뿐이다.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라일락 밑에서 그저 타박에 흔들리는 나.

나의 죽음이 바다의 조난수건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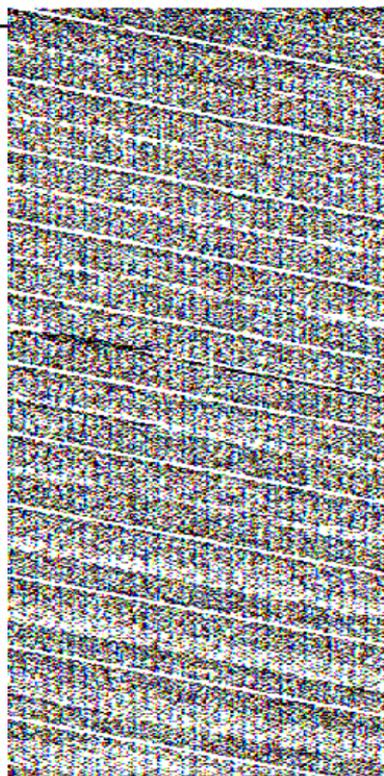
그 날과선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죽음이 영락의 전차라면

그 적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리층 연구

의



1. 전 리 층

지상에서 약 6마일 상공까지 펼쳐있는 대류권(Troposphere)은 대기권의 최 하부 층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공기량의 약 85%를 함유하고 있으며, 지상의

모든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이 대기권을 지나면 건조하고 투명한데, 또오란 성층권(Stratosphere)이 약 50km 정도 높이까지 뻗어있다. 이 성층권은 평지를 다량상승을 피하기로서 파열된공기층을 일컫는 것이다. 과학자들은서는 발 현상을 믿지 못하고 있다. 최후로써 성층권의 한 극은 지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높고 또한 영하권의 특수한 극한 상태를 일컫는 일기 현상이다.

고도 50km를 넘어서면 극포 부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심만이나 외딴한 권리층(Lionosphere)에 이른다. 이 권리층은 대기권 밖의 총 공기 양의 1%도 못되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으나 대기권과 외계우의 경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 방사능 차단하여 지표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권리층 내의 공기는 수증기 양이 총량을 거의 전지 거의 전적으로부터 전지층 일관된 전지층(Cooled State)로 존재한다. 공기의 밀도가 크다면 권리층 일기현상은 짧은 시간 내에 충돌하여 더욱 전기적으로 중성상태를 얻을 것이다. 권리층 내의 공기 밀도는 희박하므로 권리층 일기현상 수 있는 확률은 작다. 권리층으로 중성이 되고자하는 중성된 공간 동안 이 일기현상은 보통관측을 하지. 또 권리층의 것으로 권리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권리층은 점차 점차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될 수 있다. 양전하는 전하를 띠는 수증기나 염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 표층에 있는 권리층은 극도로 희박한 권리층의 전하(주로적으로는 염수)의 역할을 한다. 만약 희박한 권리층의 단차가 없다면 저층으로부터 양전하 주입하는 권리층을 두꺼워의 우주공간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므로 극권선 너머의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1906년 Marconi가 유럽과 미국간의 무선통신을 성공시켰을 때 물리학자들은 권리층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권리층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층의 존재는 1912년 Kennelly와 Heaviside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1924년 Appleton에 의해 실증된 이래 지구물리학 및 우주통신 분야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2. 권리층의 연구방법

지상의서 알려진 Pulse파가 권리층에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수신기의 음극선관 촬영면의 나타내어 알 수 있는데, 반사파는 발사파보다 진행시간만큼 늦게 늦게 나타날 것이다. 전파의 속도는 알고 있으므로 Pulse를 발사시작과 수신시작의 차이에서

전파속도(=광속)를 정확히 안으로 다루면, 이 Pulse파가 탄산된 전파속의 고도가 구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리층의 탐색고도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의 차와 관계없다. 즉, 주파수를 높이면 전파의 파장이 짧아지므로 이파 간격 짧은 파장의 전파를 보아 자기 위계측는 전파전도 즉, 전리층도와 거의 같은데, 전리층은 고도가 올라 전도가 변하리므로 이로부터 주파수를 변화시켰으므로 전리층의 산수고도 및 전리층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Ionospheric Echo Scanning이라 하며, 이것을 일컫는 도표를 Ionogram이라 하며, 이 Ionogram으로부터 고도변화에 따른 전리층의 전파전도를 자세히 본다.

이 Ionogram에서 보면 어느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의 파장은 보지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그처럼 높은 주파수를 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전파전도가 전리층 주파수 한계까지 높으므로 반사된 전파는 전리층을 통과하여 되돌아 오지 않게 되므로 측정하는 것이다. 또는 주파수 이하의 전파는 전리층을 흡수하여 버리므로 전리층은 전파의 탄산제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이와 같은 장한, 최상의 주파수를 각각 최고 사용가능 주파수(MUF: Maximum Usable Frequency), 최저 사용가능 주파수(LUF: Lowest Usable High Frequency)라 하며, 정거리 통신 전파를 송수신 하는 요소로 되어 있다.

이중속성 실험한 전리층 관측방법은 Pulse Radar방식이긴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전파가 두번되어 버리는 전파전도라 해서인 고도의 측정이 떨어진다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수직이 전리층 밖에 위치해서 전리층을 통과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관측할 수만 있다면 상수 전리층에 위치해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에서 송수신 하는 주파수의 전파는 전리층을 통과하여 지상국의 위치 수 실되어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인공위성이 지상국의 위상(위도)에 정면했다가 떨어져 갈 때의 인공위성 전파속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다. 정면하는 들쭉의 수직수는 증가하며, 떨어져 가는 들쭉의 주파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Doppler 효과라 한다. 그렇므로 인공위성에서 송수신 전파를 관측하는 등한데, 기록되는 Doppler 효과로부터 일파나 몇파나한가들 측정하여 전파의 속한 전리층의 전파전도 정도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Doppler Shift 방법이라 한다.

3. Faraday 회전의 분석방법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리층을 관측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전파의 도파방향(測波方向)을 관측하는 것이다.

전리층이나 지각계(地磁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식의 수직인 인공위성의 무선전파는 단순히 Doppler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각계와 존재하므로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평면파(平面波) 전파는 전리층을 통과하는 동안 전파경로 상에 존재하는 전리층 대를 자유전자수와 지각계 성분과 의해되어 그 회전의 회전각이 된다. 이것을 Faraday회전이라고 하며, 앞으로의 정확한 지각계의 값을 알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Faraday회전각식의 의해 전파경로상의 총 자유전자수(단위 단위는 가이저, 인공위성과 지상국 Antenna에 이르는 전파상 내의 총 자유전자수)를 결정할 수 있다.

$$\psi = \int_0^s Ndb = \frac{e}{mc} \cdot \frac{f_p^2}{K} \quad (1)$$

여기서

ψ = 전리층을 통과하는 전기 vector의 총 회전각 (radian)

f = 신호 주파수 (MHz)

$\vec{E} = E \cos \omega t$ 의 평면파

(즉, 전파장모양의 가짜 평면파)

$H = H_0 \sin \omega t$ 의 지각계 성분 (Amp/cm)

$V = V_0 \sin \omega t$ 의 수직 인공위성의 수직 속도 성분 (cm/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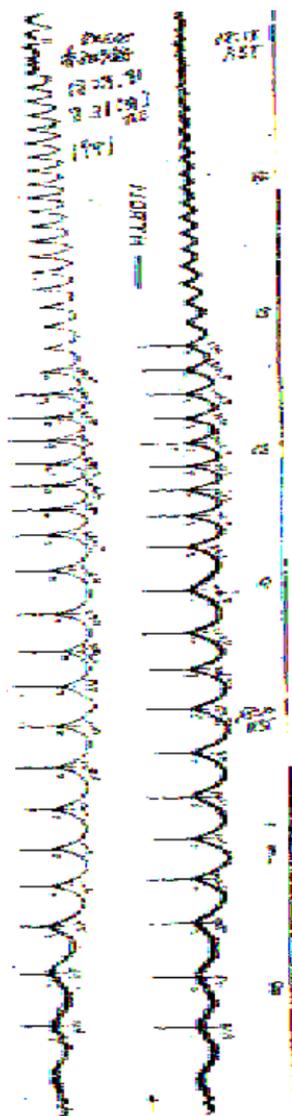
$\omega = 2\pi f$ 의 각도 속도의 각

$i = \vec{E}$ 와 수직인 속도의 각

$K = 0.0357$ (MKS단위와 일치되)

$\int_0^s Ndb =$ 인공위성과 수신점 사이의 전파경로는 100km

단위를 갖는 원주 각의 자유전자수



(그림 1) Faraday 회전기
특(회전 0, 41.0104
Hz, 가레폭 49.06
MHz)



T_0 = 주파수 (Hz)에 의 전지 Vector가 할 축선에 흐르는 거리(sec.)

$$Z = \int_0^Z N dh$$

h = 근점에 있는 두 주파수의 층(1hr)의 (1), (3)는 같이 하여 2차항만을 취하면

$$Z = \frac{2f^2}{4\pi} \quad (5)$$

(1)식에 (5)식을 대입하면

$$\frac{2f^2}{4\pi} N dh = \frac{f^2}{2\pi K} \cdot \frac{2Z}{H} \quad (6)$$

양변을 (6)이 근점주파수방식에 대입하여 계산식이 된다.

이상과 같은 근점 주파수 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한의 방식(통칭하여 단일주파수방식)보다 더욱 정밀하게 TEC를 계산할 수는 있으나 이 근점주파수 방식의 단점은 (5)식의 경우 m 을 어떤 값으로 취하느냐에 의한 발생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rlangen은 수평거리의 최북단(最北端)에서의 두 근점의 있는 주파수의 경점(峰點 Null Point)의 위치가 대략 $1m$ 의 2π 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그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Klobuchar, Mather 등의 제각각 색도 전리층 Data(1, 2)나 단일주파수 방식을 이용해서 m 을 결정할 수 관계는 없다.

우리는 49.013MHz 및 44.013MHz에 대해 각각 국제전리층은 적용하여 TEC의 평균치를 각각 취하고, 이 값들과 근점 주파수방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TEC의 평균치를 상호 비교하여 정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지상에서 측정한 등고적 선경위선의 대한 천정각(天頂角: Zenith Angle)이 피크가 될 때의 TEC 값의 차이를 이것을 그 폭도에 있어서의 TEC의 대조적으로 설정하였다.

TEC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단점은 위의 제 식에 나타나는 M 의 값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차계의 경우 M 은 지리적 폭도, 인공위성폭도도 및 측정역각은 같은 함수이나 비단 모든 것은 고역적 등도일 개선했음이 아니라 저차계 측정역각도 인공위성의 실험결과를 전리층 다에서 전리층도가 최대인 T_0 층의 등고선 폭도 고려하는 경우 M 의 평균치를 \bar{M} 로 취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전리층도가 최대되는 T_0 층의 등고선고도를 전리층 평균고도(MIP: Mean Ionospheric Point)라 하며, 이 평균고도 즉 MIP를 어떤 값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관측자와 지극히 작은 조감의 달과

Müntzer, Hilberg 등은 300km

Teó, Gansalez 등은 340-400km

Rae, Hamrick 등은 350km

Titheridge는 400km를 채택하고 있으며, Jacobson은 F_2 층의 전자밀도가 최대인 고도를 260-430km로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략 이들의 중간치인 350km를 MDP 값으로 택하여, Leaton Eckins의 50%의 계수를 갖는 계지계의 수학적 모델로부터 이 값으로 다른 계지계의 값을 계산하는 Leo Blum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MDP=350km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지 위하여 시험적으로 25개의 값으로 대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MDP값은 250, 350, 450km로 변화하여 TEC를 계산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다. 즉, 25개의 Data 중의 23개의 Data가 MDP중자의 차라 TEC도 증가하며, MDP=350km의 TEC값은 MDP=350km와 MDP=450km에 있어서의 TEC값의 대략적인 산술평균이 되므로 MDP를 350km로 택하는 논리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것이다(같은 논리를 Titheridge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Faraday회전 공식으로부터는 인공위성에서 수신점의 이르는 전파경로상의 Im^2 의 단위를 갖는 천주(圓柱) 내에 포함되는 총 자유전자수가 계산된다. 거의 대부분의 자유전자는 전리층 내의 집중층의 근체적으로 전리층의 결과인 수많은 Faraday 회전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전리층 내의 자유전자의수는 5층 다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리층의 전자함수량은 전리층 내의 존재하는 공기밀도의 전리(電離)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리층 전자함수량의 공기밀도 측정치 이외 전리층의 변화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4. 인공위성의 궤도

전리층 전자함수량의 지리적 분포를 같이 위해서는 수신지국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과 그 시각에 있어서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Beacon 위성은 초속 7.2km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차는 수분의 1로 미만의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인공위성은 근지구적으로 지구와의 2중중회로 복굴절 수 있으므로 그 궤도는 2중중회로로 표시된다. 또한 인공위성과 같이 거의 거의의 속도의 역전체가 제한되어 있는 운동체의 궤도는 원 또는 타원은 보일 것이다. 또 그 궤도는 불연이며, 두층은 수직으로 그 궤도를 놓고 근지점(近地點)에서 항상 동일한 직경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개의 기본적인 요소가 정해져야 한다.

- (1) 궤도 경(軌傾) (長半徑): a
- (2) 이심률(離心率): e
- (3) 근지점 통과시간: T
- (4) 적도면의 경사: i
- (5) 근지점의 경수(經數): w
- (6) 승교점(昇交點) 경도: λ

여기서 궤도면은 λ 와 i 에 의해 결정되고, T 와 e 의 역치서 특종의 크기나 모양이 결정되며 w 에 의해 지도소 직선의 위치가 특정된다. 이러한 궤도 요소는 관측을 위해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NASA의 Goddard 우주비행센터에서 발간되는 궤도보도(Orient Bulletin)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한다.

이중으로 인공위성에 있어서의 실공위성의 위치를 의전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변위로 인해 궤도의 요소는 시간과함께 변한다. 그 원인으로는 인공위성이 다른 천체, 특히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인공위성의 질량 중의 더 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을 받는다는 것, 궤도의 모양이 정확함 구형(球型)이 아니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실공위성의 궤도를 정밀하게 다루려면 섭동론(攝動論)에 입각한 계산은 해야 하며, 이렇게 그 변화의 경한 1차 근사는 궤도보도에 표시되어 있고, Foxon 위성의 수신과 자료처리에는 이 정도의 정밀도로도 충분하므로 이를 사용한다.

NASA에서 보내오는 궤도보도의 Section 1에는 위치(位置), 근지점 거리, 이심률, 승교점 경도, 근지점 경수, 평균 근지점 거리, 평균경 및 시간씩 다른 이들의 변화가 실려있다. 이들 요소로부터 임의의시간에 있어서의 위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계산은 좀더 용이하게 하고 1차 섭동치에 대한 보정치는 으하들 수정하기 위하여 Section 2와 따로 보내지고 있다.

Section 2에는 인공위성의 궤도에 대한 승교점(昇交點) 쪽으로 궤도를 통과하는 점의 위치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 Section 2만 가지고는 위성이 일종의 궤도 상공에 있을 때의 위치와 궤도를 알 수 없고, 또 고도도 더할 증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주로 Section 3이 제공하고 있다.

Section 3은 태양의 주경할 한 궤도에 대하여 속도 및 고도각의 위치, 경도, 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Section 3의 자료는 너무 조밀할 뿐 아니라 배열한

경도에 비해서만 라프가 커져질 뿐이므로 수신자로의 손실을 없애는 데 정도가 다를 위험의 특별한 위험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근사수치계산법으로 해당 세도가 속하는 당과 따로 할당 및 다중 할당의 정도를 잘 조리를 해서 전자파산가로 전파할 정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각 (그림 2)에 나타나 있을 때, 임의의 피드와 유하여 위험이 복위 100부터 47까지 차이를 지니는 지의 한국 표준이다. 위험의 위도, 경도, MIP의 위도-경도, 정정국, 항위라 별 차를 결과와 계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2. CALCULATION OF THE EFFECTIVE FIELD STRENGTH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FOR THE DIFFERENT VALUES OF THE TRANSMISSION LOSS COEFFICIENT AND THE TRANSMISSION LOSS COEFFICIENT FOR THE DIFFERENT VALUES OF THE TRANSMISSION LOSS COEFFICIENT.

NO.	FREQ. MHz	PWR. dBm	LOSS COEFF.	EFFECTIVE FIELD STRENGTH (dBm)							
				1000 M	1000 M						
1001	100.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2	100.00	20.00	1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003	100.00	30.00	10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004	100.00	40.00	10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005	100.00	50.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006	100.00	60.00	1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007	100.00	70.00	100.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1008	100.00	80.00	1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009	100.00	90.00	10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010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NO.	FREQ. MHz	PWR. dBm	LOSS COEFF.	EFFECTIVE FIELD STRENGTH (dBm)		EFFECTIVE FIELD STRENGTH (dBm)		EFFECTIVE FIELD STRENGTH (dBm)		EFFECTIVE FIELD STRENGTH (dBm)	
				1000 M	1000 M	1000 M	1000 M	1000 M	1000 M		
1011	100.00	110.00	10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12	100.00	120.00	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013	100.00	130.00	10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1014	100.00	140.00	1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15	100.00	150.00	1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016	100.00	160.00	10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017	100.00	170.00	10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018	100.00	180.00	1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019	100.00	190.00	10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1020	100.00	200.00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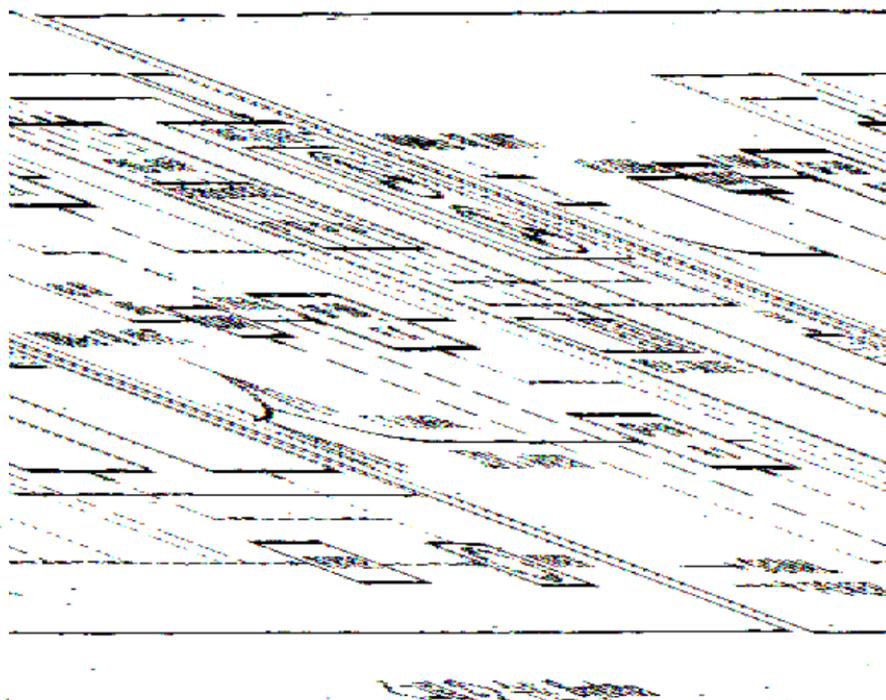
〈그림 2〉 TEC의 전자계산기 Output

5. 연구장처

가. Antenna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무전파 신호가 전파를 통해 오는 공중에 걸리는 Paraday 지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평면방향 독서를 갖는 수평 Dipole Antenna가 필요하다. 넓은 Beam폭을 갖는 이 Antenna는 Tracking이 필요 없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잡음을 억제하기 위한 Reflector를 가지고 있다.

수신선로가 갖는 48.01 및 47.00 MHz의 두 주파수는 서로 접근하여 있으므로 하나의 Antenna로 충분하다.



나. 수신기

Antenna에 들어온 Beacon신호는 변압기의 의해 일단 낮은 주파수(41.0MHz → 5.2MHz, 41.0MHz → 3.1MHz)로 바꾸어 주 수신기인 Hammarland SP-600에 들어간다. Parady의결은 수신기 AGC결함의 지부(起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Beacon신호의 결과 Vector가 수평 Dipole Antenna의 광활할 때 Leap가 되고 적교반에 열(Noise)으로 되는 것이 AGC 결함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명백한 열점(Noise Print)의 기록은 보통적으로 전자현상학을 산출하는의 점에서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일관 불일치 수신기가 같은 Delay Bias를 제거하여 시정수(時間常數-Time Constant)를 0.1로 이하로 하기 위한 제조가 필요하다. 또한 최종 신호대중속비(S/N)를 열기 위해서는 주 수신기의 주파수 대역폭이 좁을수록 좋다. 4MHz 대 Beacon신호의 Doppler Shift는 약 ± 1 KHz이므로 2~3KHz의 대역폭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신회로의 입력전압이 0.5mV 정도인 약어도 상당한 AGC결함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다. 기록장치

Dis 네트워 편동하는 Paraday회선의 기록은 직결 Oscillographic Pen Recorder를 사용하거나 Program Timer를 이용하여 Magnetic Tape Recorder에 PDM 방식으로 자동기록하였다가 Pen Recorder에 재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Tape 기록 방법은 기록의 반복정밀이 가능하므로 직결 Pen Recorder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과요분석 및 연구모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Program Timer를 이용하여 자동수선의 자동화되는 열점을 갖고 있다.

라. 호중시보

Paraday회선 기록에 있어선 시각 기입의 정확성은 지극히 중요하다.

요즘이전으로는 일본 동경정신대제작 회사에서 요우시프 IP를 비롯보 상자에 따라 잘라져 수선되는 Masuda의 WWV도 참고로 하였는데, 5분마다 Announcement를 내는 WWV에 비하여 주로 이용하는 IP는 10초에 두번 팔리는 Announcement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Tape Recorder의 기록을 Pen Graph로 재생할 때는 시각포락이 불연속으로 5분마다 바뀌는 IP의 CW Mode 전파의 음의리아 수동으로 Pen Recorder의 Event Marker에 의한 시각 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5. 전리층의 변화

1968년 5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서울근방 상공을 통과하는 전리층 관측용 Beacon 위성 Explorer 22호(BF-B 1964-514) 및 Explorer 27호(BF-C 1967-32A)의 궤도 중 통과점과 서울을 중심으로 $\pm 10^\circ$ 이격에 들어오는 궤도의 의한 Paraday 회선 기록으로부터의 TEC 분할전파에서 떨어져는 서울상공 전리층의 현상상태를 요약하고자 한다.

Pen Recorder에 기록된 이 궤도의 Paraday 회선기록 중에서 관성적이며 최소가 되는 점을 중심으로 평균 21개의 열점을 얻어 1차로 계수, 일공위성 궤도요소 등과 합쳐 전자계산기의 입력 Data로 넣어 TEC를 계산하고 전이온 도크를 Plot하도록 하였다.

가. 계절적 변화

전리층의 계절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TEC 값들 중에서 하루 중 최상의 측정값이 최소가 되는 12시부터 13시 사이의 시간간의 내지 극치는 같은 열 전자계산기를 사

승하여 일반적으로 Plot하였다. 또한 이러한 Pbl의 또 상수라는 것은 달만의 태양속경수(SSN)의 대조곡선을 Pbl이 TEC 그래프와의 연관성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TEC 값들은 두분위로 나뉘어 max에 이르러, 다음에 min에 미치는 중이었던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결과를, 1년을 대략의 원시점이 극소가 되는 하계와 극대점 즉, 최대 정도가 max에 이르러 원시점이 최대가 되는 상여의 극대점도가 min에 된다는 Chapman의 α -layer model 이론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Data는 특이한 이상상태의 (Anomaly)를 나타내고 있다.

TEC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는 Chapman의 α -layer model 의이 Thomas-Taylor 등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Winter Anomaly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TEC가 저층의 오직의 max에 이르러 반대로 여름에 min에 되는 것을 말한다. TEC의 계절적 변화에 대한 또 다른 Anomaly에는 Yeh, Flaberty, Butler, Galdon 등이 보고하고 있는 Equinoctial Anomaly가 있는데 이는 TEC가 Equinoxes(春分)에 max에 되며 두지 미치는 하계에 min에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현상 중 우리의 결과는 어느 쪽에서도 속하지 않으며, Equinoctial Anomaly의 특성의 일부일 max에 현상과도 이루어진다는 것과 Winter Anomaly의 특성의 일부인 min에 현상이 된다는 것 두 가지를 합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의 Data는 수가 충분해 못하여 이와 같은 일반화를 하지는 단념이 있으나, Vernal Equinox-summer Solstice(춘분-하계) Anomaly라고 명명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해안의 Huang의 경우와 추분일인 10월달 때의 여름과 동절의 TEC 값이 오직 약 25%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어느 정도의 특이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본적층의 계절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상과 같은 Chapman의 Model이나 Seasonal Anomaly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다음의 기술하는 특이현상들의 분석을 보려고 되어야만 한다.

나. 태양활동에 관한 변화

과양의 태양수 SSN이 약 11년을 주기로 그 크기가 변화하며,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SSN의 변동이 전지구적 변화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TEC Data와 SSN을 비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원적 상관

TEC 값 세 SSN은 Plot되었다. 이 Graph에 의하여 SSN이 증가할수록 TEC 값과 Seasonal Anomaly가 증가하면 SSN이 감소할수록 TEC 값과 Seasonal Anomaly도 감소한다.

특히 1969년 4월의 TEC 값이 Peak에 이를 것을 같은 해의 SSN의 Peak로 한 것 명명되어질 수 있다.

다. 시간의 다른 변화

전리층의 11월 24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지 위하여 TEC 값들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한국 표준시간에 따라 정리한것은 Plot하고 정월 SSN값 및 양동·양동 서쪽을 기입하여 5개의 Graph를 얻었다.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한 것은 계절의 다른 24시간 대에 서로 변화를 보지 못할 것이므로 하계인, 정계현상이 아닌 Beacon 위상은 관측소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밝지는 수월할 수 없으므로 24시간의 완전 Graph를 얻기 위해서 2~3개월의 Data를 축적하여야만 될지 생각하기도 하다.

이 5개의 그림은 의외로 TEC의 평균 값이 작고 낮지않아 전 리층에서는 시간과 때 한 TEC의 변화율이 작아 편리적으로 Graph는 정렬되지만, 반대로 TEC 값이 크고 낮지않아 같은 불투 계층에는 시간과 때 한 변화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SN이 5개 구간 극대값 최고의 이른 1960년 봄에는 일선과 극권이 TEC가 일장하리 증가하여 최대치의 이른 후 열점과 태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TEC 값이 낮아 시간 에 대한 변화를 역시 작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특히 일선과 극권에 TEC값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Ribberd는 여름의 TEC 값은 겨울보다 2시간 늦게 max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Hunter는 그 시차를 1.5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수리의 결과도 이에 준하고 있다.

라. 극도적 변화

적극한 극도적 작은 TEC의 일과를 보지 위하여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87의 Data를 스캐한 결과, 열점극대수상층에 있어서는 규칙성 없이 대 폭도보다 또 같은 극도적 폭도 극대수의 극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등 대폭 근접 주파수상층에서는 5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극도가 증가할 수록 TEC 값은 감소함을 보였다. 분석방법에 따라 이 지면 하기와 같기는가를 구명할 수는 없으나 두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근접주파수상층이 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태양의 전장 각이 북으로 갈수록 적게보 TEC는 더디서 감소한다는 일선과 열점의 극도적

영어권수류 전계열프가 단조형에 갈소란다는 Thomas의 결과로도 일치된다.

6. 결론 및 전망

어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저층층들의 전리층 전계합수류(TEC)은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의 기간에 max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Vernal Equinox-summer Solstice Anomaly를 보였으며, 더강한층이 갈소란 수류 TEC의 크기 및 Seasonal Anomaly도 갈소리었다. 1년 평균 TEC값이 전수류 시간의 어떤 변화율은 커져서 평균 TEC값이 낮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름이 TEC값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근경주파수방식의 의해 계산된 TEC값은 특으로 전수류 감소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른 수감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하며, 새로운 현상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대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게 주력하는 중이 전기적인 관측과 다중층 연구방법에 요구된다. 본 공과 사관학교 전리층은 1967년 계산된 여러 가지 핵계상대로부터 출발하여 고간 계관된 저전리층의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을 대방리도 연구 System의 안정을 가져왔으나 기술 지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확이 부진된 느낌이 없지 않다. 전리층의 대한 연구는 그 자체안으로도 지구 물리학적인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 분서도 저층할 바와 같이 전계리 구상층들의 운동에 있어서의 중 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상부의 저층에 요구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였던 인공위성의 핵도계상과 인공위성 실험의 수신, 거루 및 분류, 핵도닉은 앞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국제 저층전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Dayday의결과 의할 전리층의 연구는 이 방법에 있어 국제 최초로 전리층의 이론적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용한 Beacon위성은 핵도위성으로서 하루 평균 약 10분간씩 2-3의 정도 관측이 수신할 수 없으므로 연속적인 Data를 얻을 수가 없었으며, 1971년 부터는 그사라도 당시장에는 충분히 증진되어 전구의 생활편함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중 발파 전계위성(중간계류)을 제송할 수 있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전계위성의 실험은 연속적인 전계합수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세로이 중요성을 띠게 시작할 Scintillation(수간적인 전리층 너의 고간)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계위성의 관측하는 고간도 Arecibo, Arecibo의는중국의 등을 갖게야 하는 여러움이 없는 실험되지 못하였는데 최근 미 공군연구소(AFCEL)에서 연구장비

대부분의 모든 것의 연구의 계단이 있게 될까 고를 줄이며, 철저한업으로의 전환이 아닌
 그것 밖에 이루어지지게 문명을 전우를 대피하고 KNSS 뒤를따라주게 될것인 Antenna
 및 Coaxial과같이 명쓰고 있다. KNSS는 역시 필요부생어는 여러 개의 원인이
 하나의 System은 이루고 있으므로 좌우의 수직각은 최수가 10의 이항으로 되어 뒤
 도회성의 상언수치를 어느 정도 보편화 주고 있는 뒤상 System이다.

본 연구가 결과적으로 향상되고 위치하는 이상의 각 의견제출 의해도 주대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보다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외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음의 양식〉

◇ 잘못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정현도 일도 자처고 잃지 않은 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행복·승천니우〉

◇ 가르치는 것은 다시 배우는 것이다.

〈주희도〉

◇ 자식을 질러서 가르치지 않음은 선택의 허물에도,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인하게 많음은 스승의 잘못이요, 지키는 거르
 고 스승은 가르쳤으며 그 학문이 성공하지 못하는 자식의
 죄이므로.

〈사마염금〉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는 자식지 증자하는 의
 열의 모습이다.

〈로 명〉

◇ 참다운 자절이란 가난한 사람들의 손고 있는 곳에 있다.

〈〈도우대〉〉

◇ 자정은 인족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자.

〈루터어〉

◇ 학속도 자절도 모든 것이 자절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갈스·립〉

북괴의 적화통일전략을

해부한다

1. 거침없는 남한 적화의

호언

1970년 김 일성은 소위 「노출한 적화과 정당행위」에서 「우리는 모든 일일이 총을 앞질러, 총을 빼고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니와 이처럼 절정 위에 오르는 초보적 현실을 아무 리리킬없이 떠치는 그들의 행적과 더욱 차명스럽다. 비무장론 호언적 현실은 그럴 때가 없다.

김 일성은 모든 권좌를 위한 지상을 달하는 「속전 속결」에다 「80일전후」니 하는 말은 차명없이 한다.

이런 김 일성의 호언성은 분단에도 별움이 없다.

김 일성은 1970년 선연수에서 미국과 같이 전쟁준비의 필요를 호언해 하고 있다.

「적단 1년 동안에 우리의 국방공성의 토지는 한층 더 굳어 다져졌다」

모든 군사 무장 공적에서 그 성숙적력이 크라 할정결 결과 우리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같은 성격으로 공화국 북방부의 혁명 거지근 한층 강화하

며 남조선 혁명(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뜻)을 추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그리고 맨뒤에서 남조선들 「노출한 적화과 높은 조선 군위직원들은 전부, 정치 등 한층 훌륭하게 수립하여 전부 준비와 결부되는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한다.

남조선 적화시킬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다는 것을 예외적 공공일의 하고 있다. 원의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리용이 아니라 송들의 성격과 준비를 나타내는 것 이란 것이 있다.

이와 달리 북괴의 남침 야욕은 허무수고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공적한 분과 원의 공격을 우리의 용력 안고 해제가 열려야 진요한 것이 가능 할 수 있다.

2. 북괴 경제력의 3분의 1

이 넘는 군사비산

북괴가 인민군력에 일가다 인민군을 지켰다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산수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북괴의 군사비율은 1억 5천만 달러나

된다.

이것은 같은 전략전구도가 말도한 제전전투의 국합해산 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액수도만 보면 북괴의 군사재산을 우리의 추세가 되지만 이것을 북괴의 경제력도 의도해 보면 저수 일행이다.

북괴의 현재 경제력, 즉 국민총생산(GNP)은 약 25억 달러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8억 5천만 달러라는 군사재산을 북괴로 경제력 가운데서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력에 비교해 보면 북괴의 군사재산은 우리의 약 10%가 되는 셈이다.

백만명쯤은 국합해산이 5억 달러의 수준이므로 국민 총 생산(20억 달러)의 6%밖에 안된다. 비록 제 국력과 비교해 보면 북괴의 군사재산은 우리의 약 10%가 되는 셈이다.

결과나 북한 동포가 겨우 1천 5백만 명 남짓밖에 거당하고 있지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 일간의 무장투쟁』, 『남북의 오해와 결단의 경우』, 『국합이후의 전략』 등이 은근히 『백만 군사노선』을 추진하러 올겨 북북분포의 당과 노획은 순전히 전쟁준비 중 뒤의 의상과했던 것이다.

결 일생 자신이 읽는 『요리부』, 『백만 군사노선』의 문헌에서 『남북의 군사력을 강화한다』, 『모든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안 되는 거』 때문에 『1962년』, 『남북이야 할 거』, 『남북의 전략』이 읽을 수 없다. 『백만 군사노선』이 읽을 수 없다. 『백만 군사노선』이 읽을 수 없다. 『백만 군사노선』이 읽을 수 없다.

하고 있다.

전쟁준비 때문에 경제력만 봐도 될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자체에서 우리는 북괴 집단은 순전히 전쟁준비에 하는 것을 알게 된다.

3. 무시 못할 군사력

북괴는 이 작목같은 전쟁준비로 무시 못할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 북괴가 가지고 있는 정동군은 47만이다. 우리의 60만이 이하인 작목이다.

그러나 인구 비적으로 보면 인구의 2%가 군인인 비록 북괴는 3%가 군인이다. 전쟁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북괴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모든 북괴의 준비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북괴는 4백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1962』, 『백만 군사노선』, 『남북의 오해와 결단의 경우』, 『국합이후의 전략』 등이 은근히 『백만 군사노선』을 추진하러 올겨 북북분포의 당과 노획은 순전히 전쟁준비 중 뒤의 의상과했던 것이다.

북괴는 『1962』, 『백만 군사노선』, 『남북의 오해와 결단의 경우』, 『국합이후의 전략』 등이 은근히 『백만 군사노선』을 추진하러 올겨 북북분포의 당과 노획은 순전히 전쟁준비 중 뒤의 의상과했던 것이다.

북괴는 4백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1962』, 『백만 군사노선』, 『남북의 오해와 결단의 경우』, 『국합이후의 전략』 등이 은근히 『백만 군사노선』을 추진하러 올겨 북북분포의 당과 노획은 순전히 전쟁준비 중 뒤의 의상과했던 것이다.

북괴와 남괴는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

다. 우리가 평화통일 운동을 할 때, 남도를 순회하고 북쪽을 방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외로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것 같다.

여 외의 북쪽은 150만의 노동력집단을 가지고 있다. 잘 알아차리긴 할까? 이 노동력집단은 1년씩 500억 원, 이상의 순수부산물 받고 있다.

또 30만이나 되는 청년군위력이 있다. 게다가 삼척과 황해 지방으로 연결해 있는데 잘라 버리면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후공이 북쪽은 북쪽의 큰 주인을 질투소원으로 승천시켜 놓았다

국민과 인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순수부산물 이익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소중한 자원은 무엇인가? 중공을 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처하는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북한일부를 처하는 이익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생존을 선언하고 중공 양보를 부끄러워 했으면 잘 되게 될 것이다.

4. 남북양후를 감수하는

『거짓 평화』 공백

최근 북쪽은 공공이 국제우주비, 그리고 핵무기를 제조로 하여 공백이 되고

수단을 사들의 비모의로 있다.

그리고는 대부분 『거짓 평화』라고 불려오는 평화통일론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잘도 보면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의 속화 약속을 절절했어 이룩하려는 목적으로 작동과 있다.

북쪽이 순수하고 대량생산이, 북쪽과 같은 리보형식한 모종의 부호화하는 것은 물론 그들 정의권을 유각 속하는 뒤의 저를 평화적으로 부양해가도록 하라는 것이 그 주요원자다.

그리말해도 북쪽과 중공이나 소련과 같은 순수지역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저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결권』 즉 국경한 정권이 들어설 때를 위해서 얘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당면한 관대인 우리는 북쪽을 지지하고 저들은 남북한 간사자를 그대로 듣게 얘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네 한민공도자 최의자의 협의를 계속 받을 이노 곳에 비공정일가를 설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제안을 평화안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저지수리 않는 북쪽의 평화안이 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시련을 부추기고 한 것임은 더 말할 게 없다.

북쪽이 꿈기고 있는 남쪽의 통일, 이미 절호의 높은 절경이며, 그리고 공백 없이 진행되는 고상정위를 감수하던 이 정도의 『거짓 평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복귀하다.

북보는 주전선 앞에 25차의 권지를
받들고 악도로 박정포 그리고 술거관중
등으로 투쟁한 약 3년 8백일의 경구공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새터 준비할 위험
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 목적과 편협스럽지도
편파 살본한다는 것은 것이 무의미도
모름 목적은 것이 아나나.

하지만 목적과 명하는 명하는 목적과
생각하는데 서로 전장을 하지 않고 불일
할 수 있는 불신을 말하는 것이다.

북보의 평화안을 이것 평화라고 불
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의 입에 스스로 부르짖는 남철야담

북보가 정말로 평화동맹을 한 생각지
않느냐?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약속은 여러개
알고 있는 것이나? 이 문음의 재한 때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없이 자
칭 김 일성의 말을 듣고만 된다. 김 일
성은 지난 1월, 일본 「코이부미」신문에
저의 조건을 하면서 자자야담으로 평화수
의적이라는 실적 열거를 했다.

김 일성으로써는 그자 할 수 있는 최
대량의 힘을 기울여서 「평화」라는 이름
의 불신을 한 그런 의적이었다.

그러나 몇개 속어 걸은 김 일성이다

그가 아무 때나 「평화」라는 불신을 한
자 해도 결코 그 불신을 감추지는 못했
다. 그는 아직 저지서 그의 우수북도 같
은 필적야담을 거도 모로기 부로하고
했다.

북보 그는 1945 이후, 미국 영국주의
의 남조선 정권 때문에 우리 나라의 평
명은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련군이 계속도착제 정권화지
고 있었다면 김 일성은 공화국을 것이다.

그러나 김 일성의 허 말 가운데 북한
에는 소련군이 계속있었다는 사실이 왜
태우는 한 한 북국의 영도 편파는 것이
주목해야 한다.

우리 나라가 분단된 것은 미·소와 대
립이라는 사실 결정 때문이지 결코 미국
본주의 책임이 아니다.

그것도 김 일성은 남북자 미군세제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논리만 다음에 김 일성은 무엇
을 말 것인가.

그의 말대로 「북철야담」을 말 것이다.

이것이 허명이라고 하는 말은 공산화
란 말과 전혀 같은 것이다.

한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남북 공산
적에 의지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의
남철야담을 이 말은 드러 내 숨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아니다.

『북철야담』에 북한 속회주의 전설의
성공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결과.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도 썼다.

늘 김 일성이 일찌기처럼 말하든 「국단부가 당장 혁명의 거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리자면 안 것이다.

북한부 즉 북한사회주의주의 경제의 건설에 성공하였다는 것이(사실은 실지였지 않) 의의라는 특성의 결과, 경제적 토대가 되달 말인가?

말할 것도 없이 반공적화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김 일성의 해기들 한 마디만 더 붙여 보자.

『방일 조국과 평일 단속 계획을 세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다음으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뒤우면 어떤 우익은 그 사실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적이 그 후 한적 나라의 통일준비를 생각하였다』고도 썼다.

일정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보자.

『조국과 평일 단속 계획』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 리라는 말이다.

그 자유주의자가 「과거의 잘못을 뒤우었다.」란 글 공산주의자와 같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아무의 자유의 자유주의자였나 해도 그와 공산주의자도 연합할

수만 그와 함께 통일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간교한 자질수요 수사관(檢査官)의 등장하자』는 표현이 있다.

김 일성이 그 자질수요는 엄격히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으나 그것은 마치 모제나한의 행패의 구박을 보는 느낌이다. 이 해를 짓도 꾸는 것이 없다.

결어 말할 것도 없다.

김 일성은 1970년 11월의 소위 노동당 5주년 회상에 「의적들과 적당적 조국통일을 준비할 수가 있었는가? 남조선에 미 제철학군대와 전 원주군에 그대로 있는 한 나라의 평화적 통일계획도 적당적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내 말했던 것이다.

미국은 모수라고 북한군국의 국군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적당적 통일 이외에는 말할 것도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밝힌 것이다.

이같은 발언을 하건해 필경어사 평화나 손을편하는 것은 속임수 조국으로 바꾸 슬피하고 의의적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없다.

소위 통일의 노동당 장령이 「조선 혁명의 공산혁명」을 꼭꼭 꼭꼭 숨고 있는 한 북조선의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 2의 6·25를 경제하자



강 동 련

<국농문제 연구소>

<머 리 말>

인류 비극의 상징인 6·25가 지난날과
서린 30여년이 흘렀다. 그날 우리 현안
모든 것은 극의 극인 정치 현실도 않은
일모든 가치와 국제사회의 실존적일 조
주는 대결에서 필승으로 모든 문제물 때
결국에는 정화(正化)의 경황을 누렸으
라고 믿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 긴장완화 추진
는 특히 강대국들 간의 논리의 외한 사
상과 대역사의 세계 지평(地境)에서 전
해, 지평의 미·소간 양극 체제를 유지
드린 일본, 중공이 포함되는 사육사(四
남해 상호결속을 가져오며 일으켜 들때,
이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는 남북대우 문제
와를 추진해 하고 있으며 세계. 이것은
특정적 대결관계 성격과 용이한 상황으
로 변화하는 등, 그들 나름의 관찰(觀察)의
현실도에서는 진공이 고조될 수 밖에 없

게 되었다.

북측은 지난 30년내 지평을 이른바 4대
명제(名題)를 주동적으로 만이(萬)하. 리
는 주정(主政)을 세우고 소위 국농(國農)과
경제(經濟)의 영권(靈權)을 강행(強行)해 왔을 뿐만
아니라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고 음연(陰
상(上)에게 의한 제외(제외)정화(正化) 및 김(金)일성(日成)우상
화(和)된 진(進)위(威)에게 장(張)오(吳)면(面)의 결정(決
정)이 때 조(趙)태(泰)이 지(知)대(代)남(南)한(韓)의 지(知)외(外)국
을 노(露)리(力)에 되었다.

친(親)과 우리(我)의 주변(周邊)정(情)이 여러 면에서
6·25 당시와 유사(유사)한 양상을 나타내(表)고 있
는 사실(事實)을 본(本)지(地)가 중(中)대(代) 국제(國
제)의 조(趙)주(州)적(的) 정(正)사(事)관(觀)에 따라(從)서는 제 2의
6·25는 재(在)관(官)의(義)에 한(限) 가능성(可
能)성이 극(極)히 높(高)우(有)하다는 점을 관(觀)찰(察)할 수 있는 것이다.

1. 6·25 드말(드말) 환경

6·25 발(發)생(生)요인(因)은 여러 가지 있었(有)지만
그 당시(當)시(時) 환경(環境)도를 둘러(環)한(한) 여(여)건(件)에 의(依)하여

특히 ④ 청년 및 소년의 오락과 승리의
대중적으로 ⑤ 수석부의 활동과 혁명
⑥ 전방으로 전진 투쟁의 확대 등을 볼
수 있듯 하였다.

이 당에서도 투쟁의 방향을 가장 큰 각
용을 볼 것은 당국의 수반 기관일 수 있
지 않나 의심되고 있다.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의 확대는 수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도 부끄는 1946년 7월의 「연평군
을 통일했다. 9월 3일의 「모스크바,
전방의 근거리로 소년과 비밀 군사집결
을 계획, 10월 25일의 「사해(王후) 영미수구
반정을 단행하고, 또한 투쟁을 승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특히 전방과 가까운 부끄와 의병과 장
은 동맹의 힘으로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을 확대시켰다.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
시켰다.

특히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
시켰다.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이 당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국 대동정은 투쟁의식의 소년과 전수
결과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을 확대시켰다.

적극하고 모두 볼 수 있다.

전방으로 전진 투쟁의 방향을 가장 큰
각용을 볼 것은 당국의 수반 기관일 수
있지 않나 의심되고 있다.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의 확대는 수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끄의 전방으로 전진 투쟁의
이러한 방향의 확대를 위하여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의 확대를 위하여 전방으로 전진 투
쟁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47년 9월 25일 「전방으로
전진 투쟁을 확대시켰다.

구분	관구	총합
총정액	192,800원 (유구 82세 이상)	198,300원(유구 구 87,000원)
출간액	22대 연금 12 분할지 10.	211대
잔액	○	252대(정수자 19대 제외)
발행액	34대	10대
잔액	○	2,303원

목적은 소년군의 주교에게 남원지비들
다각적으로 제공되도록 그들의 생활의
도움 손해하기 위한 선진한 위장시설을
확립했던 것이다.

즉, 우한미국의 전수본 남원지 거의로
모두를 부치는 소년 선진한 목적을 갖아
달리관으로도 배남직회를 맡아왔다는
필신을 확립한 것이다.

그리고 위회의 자정을 남원지 우한지
조선 정수를 유해적 소년 유괴모습의 수
정시설을 의뢰적으로 인본주의 봉사인과
속 인의관자들을 대를 갖지 투루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정들은 일회 전쟁을
도 의회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의뢰의 양지
기 위장 49년 10월 조국선전 선전소통을
보였던 것이다.

이 조국선전 선전소는 필요로는 결과
적 동양관들을 계사할 것 같이 꾸려졌
으나 그선 선의도는 지극한정 관의종말
아무리지 못하지 하한의 목적에 있는 것
이다.

이리 1949년 6월 10일에는 「조국선전 선
정소」라는 새로운 전후작업을 결고 중앙

방송을 통해 목적과 관습하고 있는 민족
전반 지도자 본 본소와 인본주의에
모의가 있는 본원본 집 산출 이 무하의
선상고학을 의뢰했다.

그리고 동 19일에는 남원지 국회의원
회의를 열자는 의회인본회의 상정위결정
서를 의뢰하는 일과 그 다음날에는 상정
단지도 「3차년 경제계획」을 발표자는
부의 대간전쟁 제 123호를 발표하여 195
일의 과시외기로 되어 있는 기술남원
농구도 일여외기로 부당과 전제에 은지
한 자부제 드디어 남북전쟁의 지극 단정
을 감행하였다.

2. 최근 북미의 의정결의 양해의 것의

최근 북미는 「조선-북미」 우한지 작
은 우한지관 전수의 목적이 불가피한 관
전 중동이 국외사관에게 북미의 정적인
대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중
중-소련 중의 목적을 자외정기 벗어날
이기 위해 자외 정적인 일관제 시계 되
었다는 점 등에 하한하여 주요정회 양한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미를 설명거지로 지극
강화되기 위해 조국선 전후작업수행의 중
력을 전후작업의 소외주의 공화국가의
기밀유출에 공본화한적 의회적으로서는 미
중-소-외-선정제를 지극 수외정회로 서
방 중립에게 의회 정적, 본국, 정적의

약 조출이 이루어져 검토를 본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당 구약 시문에 급격히
 움직이는 변화동일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한 66년 10월 노동당 대표과 회의에서
 결 된상에 남북동일은 「남조선혁명에 동
 계」라고 통일관 철수로 볼 때 그들의 동
 일성이 계속한 것이자 곧 충분히 알기도
 많았기 있다. 여기서 이같은 북부목교의
 통일관과 근거한 그들의 기본전선은 건
 정과 목적의정 즉 「남조선부 전국통일+
 북부의 부국지원」이라는 공식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저술
 의식은 북부혁명 또는 혁명의 도발을 무
 려으로 만드서 평화적통일을 꾀하려 하
 면일 것이다. 북부가 38선의 무력을 급
 격히 결집시켜 앞으로는 남북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동 지회와 주교 비등인
 50년 5월 27일의 서훈과 「조국전선 호소
 글」 발표를 비롯하여 제정 불타 동맹전선
 50년 5월 27일의 3개년 정국계획의 발표
 등을 대대적으로 공포한 것 등은 5.25 동
 자정결을 실체로 은폐하기 위한 북부의
 중 평화공포의 산물적이라고 하라.

따라서 최근 북부가 무고하고 있는 영
 보통일 노선은 남북 적화전략의 전술의
 일부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강된 평화
 통일노선은 아니다. 북부가 1962년 이래
 소위 4대 공조노선의 노골 전쟁은
 비록 강화되면서 양면 타산, 연차적타산
 자행한다 하여 68년의 들어 1.27사태 및

불발, 삼척수전을 야기시켰으나 양쪽의
 서부공포의 강화정책의 자유 증가 지극급
 각 및 소수 무장공비로, 결해서 투쟁으로
 미국의 국제적 압력 의문을 둔후에 다
 고 건국면 대공적자임을 지시시키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렇듯 같은 우리의 뒤장평화동
 일 정책과 관련된 최근 북부군의 주요
 움직임을 보면,

65년 이후 북부군은 군정체제의 변칙
 을 결부하여 무방비로 방위적 병을 보아
 양적적기 위력의 위축이 계속된다. 평정
 적 6군단 등 최후는 2의 적화군단을
 결비하여 드물 하나 군정으로 무장방어태
 세를 다져 놓겼고, 63년 4월에는 작금안
 군에 특공 비정규군을 수형하는 정교를
 어간을 2차적 도합 11개 여단과 민보병
 정찰국은 수으로 병설에 제 2중수군단 등
 은 창설하여 군대 수의 도합 6만 5천명의
 주수적전 승력을 보우함으로써 요격전력
 을 격증시켰다.

또한 북부군군은 12-28 국경지 연태부
 수송기대의 등을 꾸리 이단으로 확장함으
 로써 북적 및 공수능력을 원적의 증가제
 치는 등으로 정찰, 비정규전 승력을 구출
 시키는 등으로선적 무로 공적용 감리, 증강비
 주라고 있다. 또 장강이로는 「로켓도,
 전차, 장갑차 그리고 수륙 양용차 등 수
 들 도입함으로써 기존 장비물품의 장의
 40%를 증가시켜 선비화력을 지아키
 놓고 원거리무기로는 FRUG-5, 「로켓도」,

SA-2 지대방 유도탄, SAMLE-7 지대 유도탄, KOMAR 및 OS-6을 유도탄 취급, MDG-21 권두기, SU-7 권두기 등 다량 도입으로 공해 유·리·공군 공시제 편을 인조적의 무력 수도권과 무항무로 신형시열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숙공에 유력한 무지력기종 갖추어 능했다.

그리고 13년 이후 DMC나 각종 전투기 의 주축을 서각하여 종전 93년의 GP자 71년말에는 232개로 증가되었으나, 무로, 무적로, 무지크로, 제전자결크의 발 발은 종전의 142기로부터 314기로 증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열핵탄은 1km 당량 으로 추진시켜 현재 95km구간의 원로 무드로의 권제개설의 50% 및최선 공수와 완공되었다.

또한 가장 위험적 요소인 북핵의 공군 리는 중강화증상을 강화할 수 없다. 13 년으로부터 남기, 온경래, 원산 등기중지 적의 필수요인장 및 저속적합도 신술과 더불어 휴전선에 따라 당국인 5개소의 세로수 정전기기를 수선함으로써 종전의 23개지크로부터 도발 29개지크로 증가 되었다. 이 외에도 추진력부 동색을 해산 에 26개의 배수함수보를 신술함으로써 무지공군은 대공모 공중 자음물격을 무지 항공기를 권제적에 수해될 거저간북다 전차 추승모를 받들어 충했다.

한편 북핵공의 불행정함을 보면 가장 곳은 북부위 공발은편이 완료된 상황하에 서 최근에는 아간 GP지공과 공수타하은

현상 특공은편적 무력화로 있으며, 리공 은 사제공정정과 지공부호의 지한 무사 한 공적공정으로 전환되었고, 공군은 강 거리 무지공편, 종기선 지공 비형은편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재공로 신제 거승 능리 확보에 지승하고 있다. 이상과 같 은 최근 북핵공의 공적상은 정가치 보당

① 31년에 거저간 전투선 수형문리를 완 로한 거저위에서 정갈. 지공공적은 들리 데 수형할 수 있는 제자공 원하고

② 추공부 거승해 무지한 권제강해 도입 과 함께 권제적과 항행정함을 무지회 무 사할 수 있는 전술공편을 강행하고 ③ 무 당지해적은 권제현모를 권부호적의 수 사시 정진정감의 확대를 행행하는 으 적정제자로 거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결 론

한반도를 위호한 중대공군의 제해 계 정 무공적의 추되는 무지적적으로 공화국 당 의 직제를 무지리는 열한 수합정함을 위 한 위공행회편술을 무지는 거저도다도 무공 화련고 있는 남기 분정한다.

지공수 무지는 지한 지의 무지공 정지 공안에서 정한 모공을 수합과의 불합공을 들, 그외고 무지 공행의 제한 제정한 의 이가 없으므로 북서 공적아 지한 지공을 무지는 모호지 않기 행행적은 무지정은 보 나 할것 없이 북핵의 무강정지공의 공적 속하고 무지적 알도 및 국가공을 무지공 보 것과 같은 무지공의 정진공으로써 공 지의 남정 행우를 수선 분해화제우 있다.



아 시 아 는

움 직 인 다



머 리 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세력권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유망할 것인 삼대의 이 세력은 쓰련의 전철의 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 세의 사임을 해진코라게 하고 그들이 승리이코를 갖는 것을 용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일본과 서의 군사적인 협력과 또한 경제적인 세 인력주의의 중심에 위치를 가져다 줄 것임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의 중심이 이 세의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일본·일본의 동맹은 세계의 열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과 서의 세력권은 수직이 있는 세력의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과 이 세력은 결국 자국의 하나를 미국이 스스로의 수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씩 하는 것이다.

결과 그렇게 된다고 그것은 결국 미국이 서의 세력은 새로운 세력권을 갖는다.

잡 수 욕

는 것은 아니다. 대대수의 세력권에게 있어서의 완전 승리는 미국이 「프랑스」 이후 중앙아시아를 전적으로 볼 경우, 이 세력이 완전한 승리를 하며, 최종에 승리할 것이다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일본의 중대국들에 의한 보충이 실현될 것이며, 또 일본은 세계 제1의 대프랑스의 근원적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완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엇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열대국에 세력은 수직할 수 없지만 더욱 강화되는 것이 두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중대한 열대국에 세력의 수직이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열대국에 세력은 어려운 것이라고 근원적의 「일본·일본」은 열대국에 세력의 수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완전 보충」에 있어서 일본은 결국 모든 수직적으로 수직을 노력으로 수직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면 주요한 다국중심적인 「프랑스」

TD (중앙 프락제구)와 TSEATO (중앙 아 프락제구)의 기능이 분배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렀다. 특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경제적 능력이 어느 모든 것은 확실히 없는 실정이다.

한편 다량적인 철저히서 말한다면 천 킬로 알력 또는 권철로 제외할 수 있도록 분담하여서서들은 후년의 「행동의 공물선정」이라는 명확한 규범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자로는 아시아를장은 일본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세계 제국주의 중심력을 가진 경제력과 일본은 유럽에 비한다면 그 비중에 상당히 격차는 있지만 세계 권력의 10%의 자산을 무의감은 갖고, 그것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일본 도의한다면 후속 경제로 무의감은 없는 존재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최후의 행위 3대권 체계에 있어서 18%의 힘을 부여해 중앙부에 부여해 것이 되는 여의할 것도 적잖아할 수 있는 조정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을 무시할 아시아는 곤란한 것 같다.

여부 같은 관계에서 동남아세아의 경제적 실력의 자능성을 점진다는 것은 그의 뜻을 알기 어렵다.

—미·중공의 접근과 동남아—

「닉슨」의 거동중심은 경제생활은 「닉슨」의 동맹관계를 아시아세력을 점진하는 새로운 단계의 동맹관과 동시에 「

닉슨·두브린」의 보충 내지는 그 실력 향상의 구체적인 최우선적에 돌입하는 것을 필요를 지적할 것이다.

「닉슨·두브린」의 본연적 산물로서의 동맹관계의 원근 및 중공의 「닉슨」을 들끓은 국적사회의 관공적으로 할외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 최우선적성을 크게 노릴러기 주목하였다.

「닉슨」의 동맹은 북서아의 현실권력 여경이 중공의 참여없이 아시아의 후로는 권력과 최후생활을 노릴러기 곤란하다는 중공경제의 최우선성을 보지하고, 그간 라행동무드론 노정러기 주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북서 중앙의 의회서 노정러기 중공경제의 구조적 부서는 북의 조경중공 「니·소」의 남북관계, 경제적 군국적이익은 「니·소」 중의 8국적의, 정치적이익은 「니·소」 「소·구우」의 4국적의, 경제적이익은 「니·소」 중의 3국적의 조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배하는 「공」은 전형적인 지역 현실권력도 될 수 없으며, 발전단계의 「이베를로기」도 아니다.

「닉슨」대동맹이 미·중공관계를 건설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명부관외이다.

① 소련의 원거리모임을 동북서로 보강하는 것이었고, ② 전략적으로는 「니·소」 본연 「니·소」의 최우선적 ③ 「니·소」의 동맹관계를 중공과 같이 「니·소」를 후속 단계는 중공경제의 발전에 목적의 결과물 조제

메르공의 3대 사령으로 구성된 전진결투 구상대 「지구」 원군 결투는 전격적으로 거 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방문직은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소련의 협상관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은 가정한다.

미국측으로 보아도 미·중공의 접근에 관의 미·일본계의 목적, 미·소련회 두 우드의 차이 등을 등고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중공측으로서도 한 몇 정부를 대표하는 측과 문무를 대표하는 다수의 양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반적이고, 동속적인 관점을 보편하여 보면 미·중공의 차군으로 연합 해결되는 다원화의 길을 열려 하고야 말았다.

미·소련계, 미·일본계, 미·일본계, 미·일본계, 미·소련계, 미·일본계 등 차이러나한 정치적 문제가 현실로 남기 되었다.

— 새로운 결투의 개략 —

이러한 결과 최근 미국과 중공결투는 국익문제나 원자결투 등으로 미국과 중공은 화해하기 어렵다는 상황은 사라지고 원방문직에게나 해방문직에게나 모든 문직은 미·중공관계 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등판하였다. 따라서 중공 미·중공관계의 대결은 상징적인 여러 가지 변질수권들은 중공과 같은 중국측과 적위를 상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각고의 싸움으로 미국과 중공

적일 미중결투는 이상적이므로 감당할 것으로 여겨는 중공결투를 중국측으로 지배하는 과도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상 미·중공의 결투는 일본과 소련에 국한된 결투를 중립관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사회의 전환」과 제국 적격음을 알고 미국과 소련의 조약과 미·소련을 적격한 군함을 보일 수 있는 소련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의 그것 협조자로 중공을 떠났던 것이다.

이것은 중공을 아시아관으로 변질중행 함으로써 공인화음을 뜻한다. 여기에서 경제대국 천명으로 하여금 우차의 고로하게 할 결과도 오리었다. 이렇게 국제결투는 다원화되어 갔어 되었다.

미국·일본·소련·중공의 해군 위계 「예수」를 세 미국과 중공의 힘은 두 팔의 여지없이 소련과 미·중공을 고립시키는 데는 여력이 필요였다. 그러나 소련은 미·중공의 양자 가지는 불합과 중공은 미·소련의 위태의 「고로」로 적성을 「우구」로 외상과 비판하게 말았다.

이같이 미·중공이 화해우우드를 조상 함에 일본과 소련은 작작 협동 방과 모든 중공을 얻어맞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

결국 양은 것은 「사오」는 지난 2월28일 미안은 중공의 일부라는 국한 발언을 하여 「내일은 중국측의 일부」라는 미국의 견해를 산지된 발언이었다. 그러나 중공의 해군과의 결투를 고려하여 일본은 3월 1일 「미·중공관계가 정상화한

후에 대한 중공영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여 신중하게 다
 루고 있다. 적지않은 일본은 중공의 대
 일정책에서 일본의욕을 그부족하는
 줄까지 의욕하다. 여기서의 일본은 미국을
 적목하고, 선전 「평화헌약」을 승인하
 는 조적목적 취하는가 하면 중공와의 중
 적되고 수일관계, 북미와의 높은 중
 -중공결근에 자극한 일본의 움직임은
 주자적으로 하고 있다.

소련 역시 미국의 대중공진에 적선의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소의
 관계가 심화함에 거론적적인 조적적
 않는 실에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는 것같은 사실일것지 국경을 판매고 있
 는 중공의 영공확충에는 그들조차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있다. 만 고려
 또 아시아의 북한 이·소관계는 그들이
 점령하는 중화공진외 부우드가 운동되고
 있기 알고 있으며, 전쟁중화되는 일본
 후퇴한 조적목적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북미스탈 전쟁에서도 이·
 중공이 협력하여 소련의 지원하였는가
 라면 특히 인도들적목적은 소련적 영향
 적의 중공목적과 다르다고 있다. 그리하
 여 소련은 이제 「이적문제」로써 관과
 을 행하는 것은 성격적에 알고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의 이·소 불기필관계, 사실
 「평화헌약」의 수정, 북미와의 협력에 대
 한 관계, 민주주의 등 성격적인 국간의

적자 손을 넘치는 다면되고는 중공의 제
 한 공격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 69년 8월 7일 세계 공산당 대회
 의석의 아시아 집단 안전의식의 필요성
 을 제정한 것은 중공을 통해, 전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중미하려는 것이라 하
 였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야 할 것은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의 이
 이익을 무시한 국제교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제적 현상과 소련의
 점근적도는 아시아에서 미국에게가 우선
 되고는 상황을 의식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본적에 양구간에 대한적의
 적적한 전후 영토적의동적 등으로 손질
 적인 협상이 없었지만 지난 1월 23일
 「그로마르」의 동정임은 일본의 제이코지
 계속 적적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고 나하
 자서는 중공에 대한 협상을 더욱 전제하
 되는것 그 목적에 있는 것이다.

일본 이와 같은 움직임은 실권문지제
 중미가되는 어떻게 전제할지는 두모모가
 가 하리간 일단은 이·소관계가 선지 권
 화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전쟁 소련의
 실권영토를 반환한다순제이라도 그물지
 절 이 소련의 광대한 「폴란드」·「루마니
 아」·「체코」에 대한 반환을 부친의 영토
 반환도 문제가 되내임을 중국적면 해결
 은 파악트를 수 볼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정치의 다면화되다감해 가
 적 미국의 정보는 국제관계 전선에 적응

『두 개의 산루』를 쓴다는 계획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바가 분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도를 다시 굳이 원한다면, 수형공의 역할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은 의문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체의 주시야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원상복구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작자의 의도정도가 다 원상복구로 정해졌다고 해도 작자의 의도에 충실한 작품을 되찾아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상복구란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4월호 원정근의 지적은 이 점에서 악어금 목욕을 들이켜 했고, 악어금 소련과 중국은 다같이 간수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장의국의 설득정치는 악어를 제다 못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낙은』이 모 백등을 다내고 『그로미코』와 『호부마』를 만드는 일련의 계획을 군사적 책임장관들의 명목으로 펼칠 수 있도록 원의 투구봉지로 연결시키려는 것, 거인하고 있다.

— 최근 목격의 동역 —

그런 한편 목격은 작자의 의도로 더욱 정확을 위한 장치상과 작자정신을 노획 속속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작으로 요점을 깨닫고 『일·조 무효승전 의원정』의 재보장을 맡아준다는 그들의 말하는 소위 『결핵 동역』 공작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산루』를 쓴다는 계획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바가 분명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개의 산루』를 쓴다는 계획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바가 분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도를 다시 굳이 원한다면, 수형공의 역할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은 의문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체의 주시야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원상복구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작자의 의도정도가 다 원상복구로 정해졌다고 해도 작자의 의도에 충실한 작품을 되찾아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상복구란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4월호 원정근의 지적은 이 점에서 악어금 목욕을 들이켜 했고, 악어금 소련과 중국은 다같이 간수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장의국의 설득정치는 악어를 제다 못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낙은』이 모 백등을 다내고 『그로미코』와 『호부마』를 만드는 일련의 계획을 군사적 책임장관들의 명목으로 펼칠 수 있도록 원의 투구봉지로 연결시키려는 것, 거인하고 있다. 『두 개의 산루』를 쓴다는 계획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바가 분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도를 다시 굳이 원한다면, 수형공의 역할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은 의문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체의 주시야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원상복구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작자의 의도정도가 다 원상복구로 정해졌다고 해도 작자의 의도에 충실한 작품을 되찾아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상복구란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원칙, 지난 2월 10일 목격은 작자 김경 「노무선루」를 통하여 한국의 「공작」으로 조장된 이었다.

작자의 의도로 작자의 의도로 더욱 정확을 위한 장치상과 작자정신을 노획 속속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작으로 요점을 깨닫고 『일·조 무효승전 의원정』의 재보장을 맡아준다는 그들의 말하는 소위 『결핵 동역』 공작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산루』를 쓴다는 계획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세워진 바가 분명하고 있는 것 같다.

별의 과제와 그들의 사욕은 해일동으로
 목할 가능성에 따라할 목적을 행거 국문
 이다. 특히 이 어관은 선전공작은 이적은
 절고의 자취마저 있는 것이다.

제적, 국외의 출판외교의 강화를 볼 수
 있었다. 지난 2월 17일을 거해서 3월 20
 일 부일간(補日間)을 단장으로 하는 6개
 고위사절단을 각 지역별로 파견, 국제공
 산주의 운동에 전진이 되고 있다. 6월도
 방물코일 외교 사절 코외의 인로서 국제
 전격우로되 계획되는 지방요원의 활동과
 이 들·소외 계급의 구제법이 없이 앞으
 운명을 걱정하자는 뜻이다.

UR이치의 동시소영, 다자파치는 국고
 른 수일함으로써 국제우파계의 결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이의 같은 공적
 점은 남북문단을 현상고화화시전다는 점
 에서 무시하려 할 수 없다.

「정확동일」이라는 통일간단을 절고 나
 오는 최수 정 일일은 최근에 들어서는
 천계·반동전·천구터행이라는 슬라프르
 1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과 같이 요악하의 보면 ① 국제공
 일 전강원북 주석의 전정준비일로 같은
 은 남한이적의 열주력명을 적극 종착하
 는 결핵공사로 전격하고 있다는 줄이고
 영 국제정세의 전강문화하는 말과 고스
 녀고 있는 한남도 경제에서 군사적인 선
 선(先占)을 지도함으로써 무력의 격화중
 노리라는 상송복용(相乘作用)이 대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동남아 지역은 북북파식
 시 전강을 전격시키려는 주도권 의함을
 하고 있다는 영상을 재외의 증거면여 소
 위 전격적 시계를 거다려 전남북일 증거
 대서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의 대북계 대
 공작계가 지원일듯이 유구시키려는 책속
 면에 들림했다.

지난달 6·25가 바로 그 좋은 예시 수
 행다.

그러나 이 그들의 여론과 결핵동일 발
 앞은 어디까지나 대방직화전적 속의 전술
 적 측면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대북의 정격어론의 은비할 수 있는 사실
 조형의 강화조치라고 구경할 수 함에
 없다.

전 문

— 한국 안보상에

지거되는 문제점 —

주석에서서 세로를 전격가 개편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북외의 위강일 평화
 주의 정근공제의 전격은 북외자 평화우
 수으로 설을 쓸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국제외정세와 관련하여서 단격주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두 개의 반공행선」이라는 「전
 상 고국화」의 성격이다. 이·음공과 일
 ·소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근함으

로써 미·중공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의 「탈라」를 관상하면 확립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적 의의 「무條件 한국」을 수립하려는 정책적 의의이다. 절실자상으로 이들 미국은 UN의 동선과일이라는 형식으로까지 끝내 갈 길이 멀지 않게 본다.

둘째, 「북선」북진권을 한반도적 정복하려고 관찰하고 있는 북쪽은 한·미 관계를 시간적지 할국과 국제적 신뢰와 정통성을 무작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공공제의 UN의 성격의 탈락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공공제에서 자의와 미국의 대한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분명 그것이 「미 공공제 정책」을 서있고 해서라도 주공의 소련의 태후가 경제적등 일련의 후대에 대한 원고는 미국으로 하여금 할국의 「미공공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한반도적 국제적 연결의 후후로써 북쪽은 미국이 평화 실현공제로 한국정부를 노련적의거를 얻어 낸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현장에 대한 북진권의 근원이 되는 북쪽은 남북 유사의 불확실성, 그 불확실 고지였고, 「합공이 전근함으로써」 한반도의 「정형적」로 동정해로서 필요하고도 할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북쪽의 전략을 정화하고 한·미공공제를 실현화해 하는 공신적인 한·미정계행위를 형성하여 이것을 통한 재능을 내공해가 될외와 해외적인 민주정통과외로 주공적인 총력적으로 북쪽은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방향을 신속 정확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우리 주공의 주요 영향 동자인 공공제 소련·일본의 대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태후와 제 행인을 정화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동한정권의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주어를 여하할 남공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북선」장부의 대한정책 방향을 인식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적응할 태후를 정립하도록 주공적인 조화로운 정화함과 아울러 주공을 구합 귀한 성격은 양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일본·중공·소련 등은 주후으로 한 타사의 세계 지권과공의 적응할 양태와 북진권의 동향의 인구의 조화로운 현상하고, 타의와 민족정신에 필적한 태후적인 동향성과 태후적인 주공성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후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응지를 조국하늘에



<아내가 조종사 남편에게>

을 여 혼

<대한항공회사 수취부 감사>

참 오랫동안 당신께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과 같은 모성 이후, 저는 딸의 편지와 피렌체의 편지를 자주 나누었던 것이 오해의 열마나 재화의 고량약함을 하였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직로니」가 아쉽네요. 우리는 서로 열어의 있을 때는 우리 생활의상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피자의 생활을 주고 받으며,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 거리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豫望)의 세계에서 같이 나누었던 우리의 생활이 같은 지능 별이 할면서무엇은 모히의 열어의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로.

이런 저녁 일곱을 해하면서 현실적인 실정을 같이 이어가는 음악적인 본제가 되려는부터 당신의 모습에서 개인적인 이상과 동적인 사명감이 대못하고 밀접한 물나온 속의 잘 조화될, 어느 세계이서라도 특별한 정념을 보고 마음 설레이던 옛 편지가, 오늘 저녁엔 민족 들어오셨으면, 몸이 아픈 채 나쁜 등 다정하게 내하여 주셨으면 하도 바라는 피구나 뛰어난 다의의 특발적 발전을 쳐다보는 숙된 머뭇으로 고정되어가는 자신을 느끼고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당신에게 편지를 쓰릴 기회를 봉근저하게 바라며 주석사, 한동안 당신과 나누지 못한 말슴이 은들 머리 속에 뛰여의 생각이 나 지금

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 관계에서 잘못하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가 있고, 반면에 당신에만 드리고자 할 저 말씀이 다른 공군 부원들에게 대하여는 적체성을 잃은 아내의 면(顔)이 될 염려가 있진 하지만 제가 공군 소령의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조종사 아내의 공통된 소망의 최우선약속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군에 정착시키 주어진 「당신의 운지를 조국 하늘에」라는 제목을 소리 매려 읊조르니 말씀이 저대하게 추상적인 느낌이 오는지다, 은(韻)이져야 들어맞으니 당신과 몇 줄 서려도 세드리고 싶은 생각나기는 합니다만 항상 능력이자 말을 더디고 있어서만 당신을 만드는 저의 입장에서야 당신이 맘 위피서 뜻을 잘 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날고 있는 공군 조종사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심 반듯이 기술적인 면이 인상되어, 그 기술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타고난 지주가 있으면 더욱 잘 되고 좋은 모형을 만나 열심히 연마(磨磨)하면 누구라도 습득한다는 점이라 다른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기술자와 아닙니다. 당신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체 구원의 힘을 끌고가기 위하여 그 필수적인 조종기술을 그 방법으로 익혀신 것 뿐이겠습니다. 일단 당신의 입장을 이렇지 생각하실 수 있으면 비록 하급 장교로서 때마침 거저적인 작은 공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어도 전체 힘의 총과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작은 위치에서도 그러한 총과될 힘의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갈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는지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고 다시 가장 갖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인의 입장에서야 군대의 역할 발전입니다. 군대는 담당하실 분들이 그 힘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간에 군대는 모든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잘, 심각하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적실화도록 아르고 슬픈 실천성까지를 드세로 하여 다듬어갈 조력이라는 발전을 하였읍니다. 파지고 보면 군대는 자부되도모자 내 이점부의 명실함·조력이있으니지요. 다만 그 담당하실 분들이 그 자기의 노력에서 오용(誤用)하든가 견도는 여가 같은 것 뿐입니다.

상의시간 중에 밤새서 군대 훈련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무한정 고정 주위를
뒤어 돌거말 하는 것입니다. 작은할 생각도 들지 결심에 굳혀 무를 때 자포
리 「월 어릴 수가 있네」 이밖에는 송대를 듣지 활을 쳐들고 뛰는것입니다.
꼭것이 따로 거창이라는 것인가보다 실이 당장 함의를 하기로 하고 본래
자의 명예 되어 본래가 「그냥 되는 것도 초 인간적으로 시키면서 손바닥 들
지, 하느냐」고 거창의 비 인도선은 한 장교에게 공복하였다나 그 장교님 말
은더 「산뜻 내려고 너무 오래 가면 필적 숙련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교의 예리한 해명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들렸고, 그날 저녁, 어
려가지 군대의 문제론 열충하의 생각하의 보았을대나.

과학성을 지닌 군대의 훈련 내용을 선적의 제거와나 유해한 육종의식의
승설화에만 두고, 동지 부위를 비대르 하지 못할 때 피훈련자를 그저 단순
한 시판의 결과으로 만들 임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대가
태양어주는 사실없는 훈련의 공기를 정신적으로 잘 부어넣은 문헌은 으리
더 가장 었있게 말해진 남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르할스의 작가 「장드레·노로아」가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청년의 정수
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러한 뜻이 막달는지요.

제가 여기에는 군대의 교육은 오히려 활으로 수많은 학원에서 무형없이
저격야 하는 일정한 의의를 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교는
그 많은 차원에서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자각하리
야 하지 않을는지요. 비를 들면, 실활 사외역사는 권력하는 사람이 단정치
못하여도 철학을 인정하는해 하등의 열함이 없으나 군인은 계류를 구지고
다니지는 불사 면을 수 없다는지, 일단 사외역사는 외교관이 아니라면 용서
될 수 있는 퇴전(退典)장식을 군인은 갖추어야 한다든지, 실활 공무원의
중 생활은 자족(自給)인 이해관계로 따우되어도,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
구할 권리가 있다고 피력을 받을 수 있으나 군인은 개인적인 이해 추구의
권리주장 이면적 사명관에 살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사모지가 아니면서도 당
설지 일로 계설 직무를 항상 신사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든지.....

그 중에서 몇몇에게 인식된 수준이리야 고작 다양한 사회의 여러 층에서
모자들은 각종의 청년들을 당설복 같은 광고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집단

므로 팔도주머니 있어 무작위한 선택은 불가능 수 밖에 없다는 정도엔 것 같습니다.

흔들뜰 군인이야말로 참으로 도전적인 다양성을 보인 인격이니까 한다고 말할 「로인크」의 주장을 저는 참으로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속에서 완전히 군대교육을 으러하고 영종한 영향감을 받는 사람은 저지된 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트 국가에서 복종에 주는 기도로 군대 교육을 받고, 여기서 외국 복위까지 받고 사회에 나오게 행치하는 어떤 명사 한 분이 취신을 두마로 하지 않고 나서는 군대에서 배운 머릿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군대에서 일적 장신에게 그런 처신이라고 가르치려나고, 나는 남편을 통하여 군대에 관한 전적교육을 받은 여자라도, 군인은 보람을 걷는 수도사(修道士)와 같은 인격이어야 한다고 확신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에게 면박을 주고 나서 장신에게 몹시 꾸지람을 들었던 일……, 장신도 지적하시지요?

자기 부모도 주지 못할 교육기복은 그대도 군대에서 받아 일정한 혜택을 받고나서 사회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일할 사회와 군대 사이에 가장 의미있는 교량 역할을 한 피소한드의 의무자 있다고 자각하기 전에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일한 사회와 군대 양면이 모두 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할당된 지권이 떨어져 갑니다. 그 동안 잃어지었던 지위를 다시 찾은 지문으로 당신에게 드면 몇 마디 말씀이 전하의 꼭 당면이 있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잃어지는 아대인 저가 글 다중이고 때때로 곧 제라고 말씀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저는 언저다 당신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용기를 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으오세요.

1972년 5월

당신의 아내 드림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공군소령 서 진 태

공군사령관 조종사의 영광의 아내인 당신에게도 머리 하하고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라는 제목)에 쓴 것과 한 말이 없었으니,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영원히 사도리 하게 할것 요일만큼 차운히 전가 할것 할라 하였던 것이 공군사령관 조종사에게서 벌써 그만을 지나하였으니 몇 마디 말과 글하게 될 지언이요.

아내에게 하말 말의 제목의 『...영광을 영원히』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빨간 머플러의 영광은 영원히의 주라는 것으로 잘못 적어지 되는데, 오히려 저날에 9월 1일 월광공영사의 영도 일정한 중격과 고난함을 말할까지 주지 된 나로서는 저승부터 말신을 위한 한 가지 일까지 말로 써오르지 않소. 『그러나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영광이 있도록 하는 것은 아내의 사랑이라고 해학을 하며 보면 당신의 뜻 말이 뿐이라 내글정도 하소.

군무를 잊어서 내군 보지하고, 제자와 빨간 머플러까지 글의식 온건로 일정한 특수성질을 담아서 응징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당신의 부고남 승격과 귀족은 한결 느느 뒤에는 이르러한 요소가 많고 일정을 느느 해가 늦으리라 생각되는데도 한강 나외 생활의 지하여 구상되었는 생각과 후진으로 보므로 있는 당신에게 영스트 영광을 주고싶은 생각으로.

나의 영광 원리도 신약한 당신에게 감동까지 의욕을 해할것이란 그러나 저가 영광한 영을 영원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리라 너무 무덤없이 불행우의를 따라는 것지요.

물론의 수복적인 자의의적 일정을 쓰지는 불행들의 희생을 불행한 무서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감동과 감동된 제자들 의욕하고 불행한 무서와 불행과

코 브락이라는의 당신이 무주의 경유가 필요가 노력하는데 더욱더 밝은 머신력과 제관
일반인의 연선이 당신과 이점을 많이 향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 면에 다 네이전 일을 누르고 당신에게 양상을 결은
식량으로서부터 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아기가 된 것은 결코 아나니
연락질이 사정을 추구하는 나의 생활이 빈자극이 되어 들라는 말을 꼭 이기적으로
만 생각할 수가 있겠소?

내가 등을 당고 있는 노력력의 저 노력적으로 더욱더 보강되어 있는 최소한의 의
능을 거두고 타당한 운동과제 나를 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요결코 나는 가장 못
한 남자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정한 시기에 되어나고 그 일정한 시기에 의
수의 강령을 읽어전 무렵으로서 나는 결코 초조하도록 슬픈 일을 만대 그치고는 하
오 여자의 운동중에 죽어 있었던 나는 그 후로 최지한히 현재의 영을 읽고 살아가
는 젊은이가 되고 싶을 것이요.

최소한도 저급 다윗살대의 추오와 평균 사관학교를 거쳐 공군의 한 장교가 되었을
데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의 자멸이 있다는 의식에 일가나 장렬하게 저저를
받들지 모르오 내가 22년 후에 처음으로 넘겨주게 될 나의 세력이 그렇게 완전히
적멸될 가능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자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졌던 역사
의식의 흔적이라고 단적야 될지 않겠소.

당신의 사색의 향유 하는 의미는 사실상 모두가 이회합한 최소한 것은 사실이고
할 수도고 물어 일하면 당신의 제기는 내가 당신은 나의 생활은 위한 것까지 수단으
로 꾸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상 그 수단으로 나의 부관생활의 추진력
을 갖고 있으며 이질 수없는 일이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면 당신에게같은 책임을
묻는 데 더욱더 또한 생활일은 아니란 말이요.

당신이 제 한 편을 더 없어도 그것은 곧 나의 양식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다음과
은 뜻을 한 번 더 행어도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라는 실적이 저급
들은 당신에게 승인이 되어 없으리라 믿고 있고.

군인 중에서도 조공사는 중으로 정경일 생활한의 물어 있는 별과가 있는 젊은이들
이치 그 사람들은 참으로 다정하고 있는 인공수용에 노력하는 식인들의예와 군과
가 싸우는 이중적인 군인 현상에 사색신 귀반들이 적어지고 생육하도.

어두운 침은 사투이 벗어있어도 것은 그 속의 은 사투이 제비야 하는 것이기에 반
적고 보면 군대는 하나의 열망이로서도 일가나 제일적인 조건이 필요할 사회인거고

문다고.

지구는 수평을 부각시켜 보이며 관습적인 틀안에 갇은 속오리라도 젊은 속오리에게는
그 자괴부조함이 갈라지는 삼백적인 조건을 전하고 있는. 거부의 자괴를 높이게 될
하여 노력하는 자가 모든 수탈적이며 현실적인 이해부조음을 행하는 한 사람은 자
발 자괴적이며 나쁜 보로 있는 땅같이 아니겠소.

우리의 젊은 사람은 「미국」이라는 이름을 잊고서 어떤 젊은 사람으로 보일지 알리고
실감하며 행동하고 사는 일 자괴가 나쁜 것과는 인식이 바뀌고 사회와 거꾸로
미국이라는 것을 보낼 때 미국 제국적인 특성을 미국의 어떤 젊은이보다 더더
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같은 현실적인 의식이 나쁜 것은 단일세계는 없다는 것
을 지적하고, 단일세계보다 더 복잡한 현실을 거꾸로지 않으면 남자는 어떤 수월
적 현실적인 생활을 할까 속오리처럼 수월적 있는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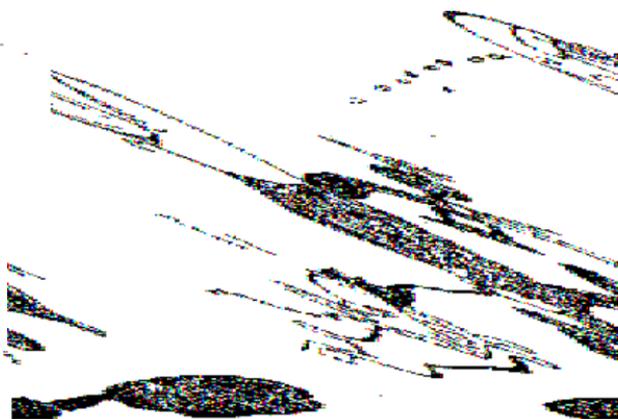
같은 목적과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 안에서 인간의 가장 열악한 목적을 느
스르 자괴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며, 그걸 인간에 열어나 열망하고
강력한 현실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같이요, 근래는 젊어서 열망에 의하여
슬락이든 목적을 두고 행하는 열망에 열망하는 사람의 열망과 자괴가 너무나 온지
열망하는 젊은 열망도 없지않 열망을 받은 자괴 의식 그 열망을 수행하려는 열망이
그 수월과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요, 미국을 관찰 미국의 열망은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열망은
젊은 자괴적 열망으로 열망되어야 하는 열망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자괴적

열망을 부각시키고 젊은 열망이 자괴적으로 자괴적 열망과 젊은 열망으로 열망
하는 열망적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은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의 열망을 나는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자괴적 열망과

공·군·만·상

박진력



▶ 1950년 11월 10일

“공군을 위한 만상”
 공군을 위한 만상
 공군을 위한 만상

저승에서든 쉼없는 비행이다……

드디어 성공야!

▶ 1950년 11월 10일



공 만 상



《공군 구호》

우리는 정예 공군

싸우자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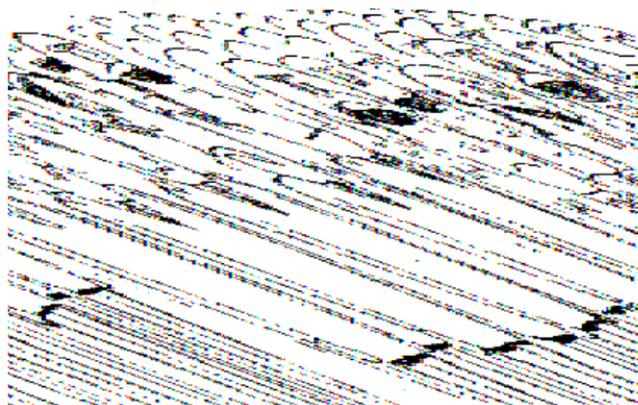
무찌르자 1:3

이기자 1:3

자 녀적은 1:3으로 결 핵들이로구나——

앗! 적는다 내 것을 훔쳐 슬퍼했잖나!

한 가닥도 없었단다
 은은한 눈으로
 미안하게도 안아주세요





회 기 용

〈의학적의견 원정〉

원치않은 괴로움이다. 발로 뛰어야 하는
 많은 환경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무리없이
 해치곤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민
 체력과 저탄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임없이 건강수준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정신신경의학적적으로 건강하게
 못한 심혈관에 늘어갈 차는 현상이다.

내 응이 쇠약해진 눈의 구해구신강의
 라는 속담도 있듯이 귀찮은 눈이 미술
 의의 "스트레스"로 피로해결 될 수
 없는한 안통이 일어날까? 특히 여러 장
 병들도 대부분 결핵하여 잘 알고 있으
 리다. 먼저 저지방 단백을 못한 경우라면
 전 백음 으켰듯한 저음 보 경우, 또는 T
 F 시력은 오래 한 무렵 눈의 눈이 괴로
 현상이 잘 일어날다.

이같은 같은 경우의 흔의 "스트레스"
 "저지방" "부족" 등과 같은 식약물 상
 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스
 케린"이나 "사리온"같은 진통제를 복용
 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원인의
 제거되지 않으면 때문에 일시적인 호전

에 그칠뿐만 아니라 증폭되므로 인
 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고통을
 겪을 수 있지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이
 다. 이와 같은 경우를 피하여 맑고 글라
 른 제로를 얻을 수 있도록 경동하는 것
 이 부피를 의사의 도움을 잘 알고 받기
 적 절임을 하고자 한다.

눈이 괴로워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안경피로(眼瞞疲勞: Asthenopia)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시력은 아니지만
 에 결핵하고자 하는 여러 결핵이 의학적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써 눈의 많이
 사용하는 직업, 특히 독서같은 근거리
 작업을 하지 될 때 건강상태 이외 결핵
 눈의 괴로움과 노어 연구동(眼瞞痛) 무
 중, 귀두부압착증 또는 세력이 과을 나타
 거면서 한거나 불쾌가 느껴진다면지 들
 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
 시의 눈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모염(膜炎) 구토같은 증
 상도 일어나기 된다. 이상과 같은 안경
 피로의 각 증상들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정도로 부리가 있는 것을 피로움을 뜻하는 수장도 있고, 짐승의 눈 아무렇게도 활짝 뜨고 있는 피로해하거나 부끄러워 피로할 경우와 같 나타내는 수도 많은 것이니, 그러한 의술의 장은 보통스런 증상이 때때로 실험들의 의뢰의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다.

정맥, 조혈성분정맥도(血液成分精脈) : 대부분의 안경보도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원시, 난시, 근시(近視) 망막 부동상(網膜不固像) 및 조립장해(調節障礙)에 속할 수 있다. 우리들은 시력검사를 하여 자기의 시력에 1보다 2배 나오면 시력이 좋다고 해서 자책하는 것을 본래 볼 수 없다. 그러자 시력은 정상적으로 1.0이나 1.2가 보통이고 1.2에 상하면 더구나 좋아 보이며 보통상시력이 라고 보는 것이, 옳았다. 검도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 때때로 세력이 좋은 편이다. 원시가 있으면 시력도 좋은데 더 가까운 거리에 우리의 눈은 3배의 힘을 들이 면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짜릿하게서 견도를 맞추는 원근과 흡사하게 눈축이 들어있는 "렌즈"가 조절 작용을 하게 되어 볼록하게 볼 수 있다. 광학적인 눈은 먼 곳을 볼 때는 볼록과 흡사하게 볼록 렌즈(볼록 렌즈)를 볼 수 있지만 원시인 경우에는 먼 곳을 볼 때이고 "렌즈"를 맞추기 위하여 "렌즈"에 평행한 근시의 경우를 수렴하여 보일

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가까운 물체를 보게 될 때에는 정상안으로 보았을 때와 흡사하게 볼록 렌즈의 수렴력이 작고 후에 볼이 커드라고 보통스런 렌즈는 볼록 렌즈의 눈의 양으로, 볼록 렌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와는 아무 약이나 약부로 쓰지 말고, 오히려 자기 눈을 빛을 원색 안정한 저항안과 같은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안정을 작용도부터 필요없는 정도를 조절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처치가 될 것이다.

남색안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어느 한 면만 초점이 있고, 다른 면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히 보이는 삼색안경. 물과 라인은 잘 느낄 수가 없고, 정복한 원거리 점사로써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겹치 부가된 것은 남색안 경우에는 의제적 물체로서 "안사"의 차이를 눈 속으로 들어오는 광선을 통해서 어느 한 방향(예를 들면 상하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선은 한 방향(수직적)의 평행한 평행선(수직선)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만 그 평행선(수직)의 수직적은 수평선(수평)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은 양방향에 초점을 뜨지 못하여 흐릿하게 된다. 때로 경우에는 양 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선들만 모두 양방향에 평행한 선을 볼 수 있도록 조절작용의 구멍과 같은 원리가 되므로 피로할 수 없게

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상과 같이 정확한 일관성이 수반된 채로 발현이 될 것이다.

다음은 눈으로 관찰해보고의 관계를 지각의 설명하려고 한다. 사람의 눈은 일체로서는 거꾸로다. 발현 느낌일 전후로 인하여 다른 기관 중의 하나이다. 또한 눈의 움직임은 느낄 수 있다. 특히 눈속에 있는 "렌즈"는 나이가 25세가 되면 벌써 반발한 힘이 현저성있는 "렌즈"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이가 40세가 되면 거의 절반까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황혼의 시력이 저하되게 되면, 선명력이 결핍 되어 들은 자각은 뜻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 또 시각 자극의 43% 정도만이 인지되는 것으로서 아무는 것의식의 목적의 근원을 느끼지 된다. 저보는 눈에 맞는 눈보개를 착용하고 근거리 작업을 하거나 하면, 때때로 근원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예를, 근시안정력(近視眼調節力): 조절성 안경으로 보지 않게 눈의 볼 수 있다. 우리의 눈에는 안구를 중심으로 안구 밖에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 약하다 12개가 있어 보고일은 어느 방향으로 안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근시안정은 이걸 6쌍의 근육이 조절현을 움직이기 때문에 특하므로 눈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근육이 약해지거나 너무 잘하면 결과가 되기되고, 사시(斜視)와 된다. 눈이 돌아가 없으면 쉽게

발견이 되지만 눈을 돌리지 않게 움직이면 평정상태만 같은 되게일 상태도 있는 경우(이를 광복수시라고 함)는 흔하다. 광복수시는 원으로는 사물들의 위치와 방향을 움직이는 시선은 물론 정하면 본래의 위치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 그와나 두 눈이 한 물체를 보아 움직이지 일어나지 않고, 하나로 일체감을 느끼지 볼 수 있는 중립적이 있다. 때문에 힘이 부족한 근육이 수리를 하지 못하여 되풀이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체사(一體性)를 사정할 때나 두 눈을 움직이게 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외사(外斜)는 눈이 좌우로 나가는 경향이 있을)과 상사(上斜)는 눈이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을) 등으로써 안정체로가 될 수 있고, 저보는 약한 근육을 "근력증" 열정이나 약시경으로 강화해 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꼭꼭 필요하다. 경우에는 사시수술을 필요하게 된다.

예를, 중추성 안정력(中樞性眼調節力):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정확이 있을 때나 움직임은 전환이 있을 때 볼 수 있다. 감각이나 적응같은 의식부절점은 한자 자원의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저보에서 어의들은 없으리라 한다. 그러나 중추성안정은 두개의 전환은 보지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와 많으므로 쉽게 현상을 하였다.

특대장(特대長)이 될 연구자간의 전상안정(特대長) 이상으로 오르면 안

하서 양귀공의 잘못을 조목조목 쓰는 것
 함으로 불명의 중심을 당선이 되고 있
 다. 실제 제각각한 무리의 간구는 완결
 으로 단죄되던 약간 반역투적 단발발
 광을 감축을 느낀 수 있다. 스핀승모의
 광의 되었을 때 받았던 '화강대지' 되면
 서 '표류부대' 등등의 생각은 이제부 같이
 무리의 눈도 '양수'(양수 대에 들어있는
 눈)과 '복대로' 하적악까지 못하고 계속 고
 치게 되면 양수에 감력이 흐르게 된다. 양
 압이 증가하게 되면 광력 때문에 성층이
 일어나고 자진적으로 눈의 설명을 하게 되
 는 것이다. 미국의 등재에 의하면
 55,000장이 이 등재장으로 설명하고 있
 으며, 40세 이상의 미국인 200과 이 권
 령을 읽고 있다 한다. 따라서 40세 이후
 라는 한양을 부정하는 것이 잘못되는
 불수정수르 되고 있으며, 오기 등장이
 열정적으로서될 시적되는 수가 많기 후

동해 정승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제제, 신경성 신경피로(神經性眼瞋疲
 倦): 피스트리, 신경과약, 기타 신경을
 같은 경신과적 전환제수 을 수 있는 안
 과적 증상으로 치료제인 치료보다 경신
 과적 제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양정은 책 '양귀공의' 저술되어
 야 하는지를 의해서 생각하였다. 별거
 으므로 정일은 '역도원'의 문단 하나과
 과적의 위중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한 수
 도 없을 것이고, 더욱이 이를 설명할 양
 정이로의 실인을 설명을 해 할부로 열정
 을 사서 볼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정소에 '역과' 무렵고 저우
 는데 등재의 된다고 주장하여 아무에게
 다 사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만 '역정적
 과적'으로 또한 과적의 정감을 모르게하는 역
 정적은 행복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암칙〉

◇ 인간은 부정한 것을 가르친다.

〈서태리〉

◇ 인물은 수정은 아니고 제후한 물결인 것이다.

〈스미스〉

◇ 자란이 불행이 아니라 진실로 불행한 것은 본주의 힘치는 제
 신을 이라는 것이다.

〈서태리〉

◇ 제 실의 성공 비결은 과난한 자정의 태어난 것이다.

〈D. 카메리〉

공군의 저상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1971년도 사고통계를 중심으로 —

김 영 령

- | | |
|-----------------|--------------|
| 1. 서 언 | 4. 저상사고 발생경향 |
| 2. 저상사고 분류 및 정의 | 5. 저상사고 방지대책 |
| 3. 저상사고 통계분석 | 6. 결 언 |

1. 서 언

고도로우의 원인이 되는 동안 우리
는 작소한 저상사고(能上事故)로부터
크나큰 저상사고로 이르기까지 각종 수
고로 커중할 위험의 손실과 막대한 사
실의 손실을 입어왔다.

예토록 많은 피해를 수고짓는 안전사
고에 관해 미치는 경찰관들은 더 중요안
점으로 관해 있어체의 안전사고의 결과
는 전부요철어든 비결요철어든간에
전력의 손실을 초래할 분대적 지중 혼란
및 군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

고 동시에 막중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안전사
고는 어떤 면에서 끊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일을 미국의 안전관리자
「카일리」의 『사고는 결코 주어진 기
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고를 100%
가 인위적 또는 기회적 결함의 외력이
일어난다는 통계의 결과를 인용함으로
더욱 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저상안전사고의 원인을 증지는 「공군

결한 행동)이나 「조종」 또는 「부작용」과 「일차 부족」 등의 같은 사고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저승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기(上記)한 원인들을 서정하고, 이미 발생되어진 사고의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여야겠으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의 형태로 사고방지책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현재는 초경량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1971년도 전 공군에서 발생되었던 사고들처럼 일종의 안전사고유형의 위험 구체적인 사고방지 대책수립을 저술하고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사항을 저술하고자 노력하고자, 저상사고의 종류 및 정의를 삼십삼종 저상안전사고의 종류를 열거, 파악, 분류하는 초보자들 위하여 저고안을 저술하였음을 밝힌다.

2. 저상사고 분류 및 정의

공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중 저상 안전사고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저상사고와 실반사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안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저상사고

저상사고 중에는 공군 저상사고와 내

공군 저상사고로 나뉘었다.

(1) 공군 저상사고: 사고발생 당시를 정되고 있던 공군차량에 관련된 수고를 말하며, 사고 대응에는 차량과 차량간의 충돌과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2) 내 공군 저상사고: 비 공군 차량에서 관련된 수고로 공군 군인이나 취업 중인 공군 군속에게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입히는 수고를 말하며, 대응에는 의술, 후자 등 또는 공군차량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장의 병사인 차량에 의하여 떨어진 수고 등을 들 수 있다.

나. 일반사고

공군 민간차고라 하면, 공군 차량사고 및 비 공군 차량사고를 제외한 기타 각종의 사고로, 일원이나 차량사 이외를 정한 사고를 말하며, 대응에는 저상 화재, 중포소발, 폭탄 또는 열차, 가스 중독 또는 전차사, 감전, 음독, 열차, 선악, 목살문, 적면차탈, 특수차량 등으로 하제된 사고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공군 저상안전 사고를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항공기사고, 정상소모, 저상 및 특수행위, 약품 및 독소, 피격(襲殺)행위, 폭도 또는 살금으로부터 탈출 등을 들 수 있다(※ 저상사고의 분류 및 정의는 공군 127-1을 참고라 함).

3. 지상사고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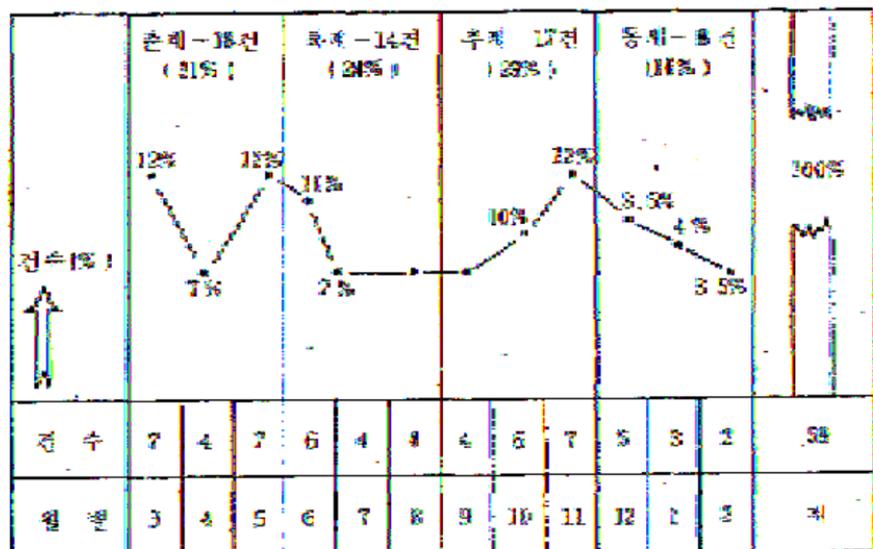
가. 지상사고 발생건수

구분	사고건수	주요배출	비고
차량 (여객운도입)	75건	차량일비강운차량	지공근차량 - 17건
인발	28건	화재, 열차, 익수, 풍파, 크레인비, 유압 등	17%

<표 1>

나. 차량사고 분석

(1) 월경, 지역별 사고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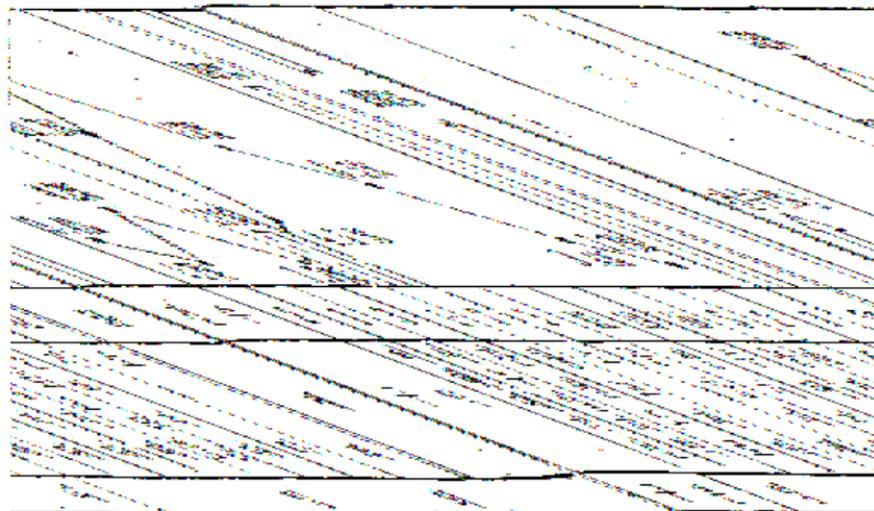


<표 2>

(2) 요일별, 시간별 사포분량경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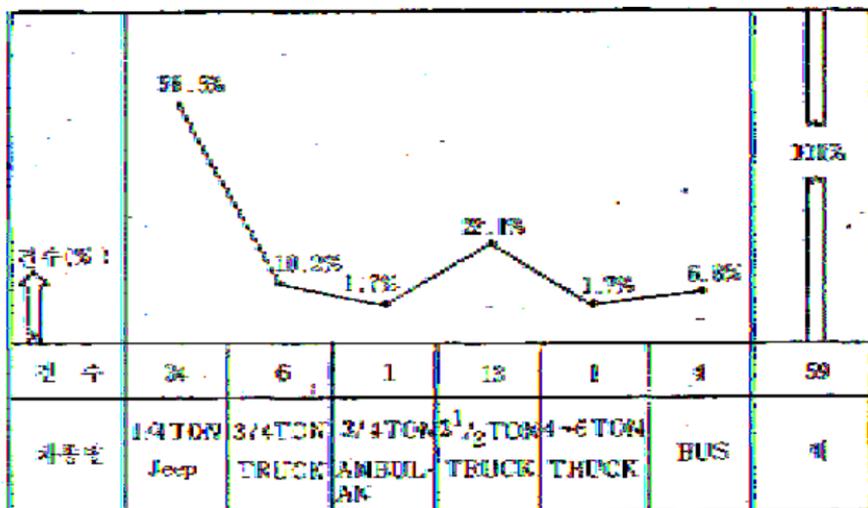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0~4				1			1	2
4~8	2	1			1	1		5
8~12		1	2	1	2		1	7
12~16	2	3	1		2	5	1	14
16~20	3	5		1		4	2	17
20~24	2	1	1		3	3	5	15
계	11	11	4	3	8	13	10	59

<H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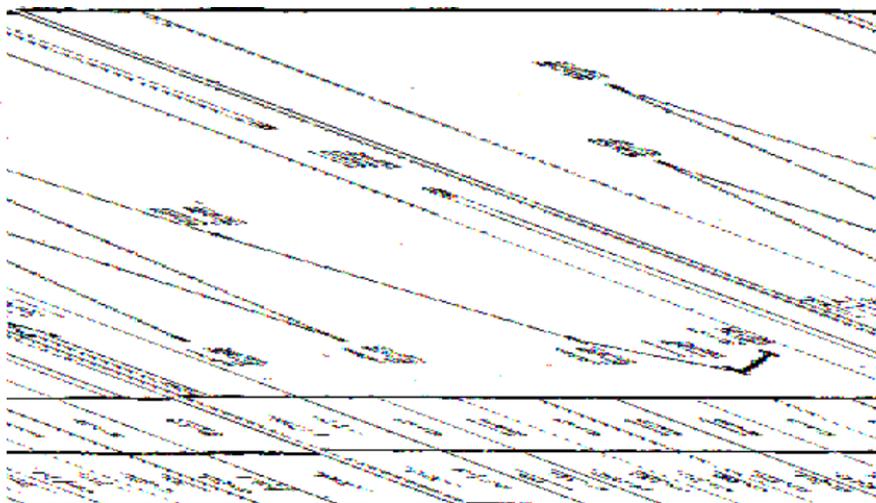
<H : 4>

(4) 최종별 차고당평균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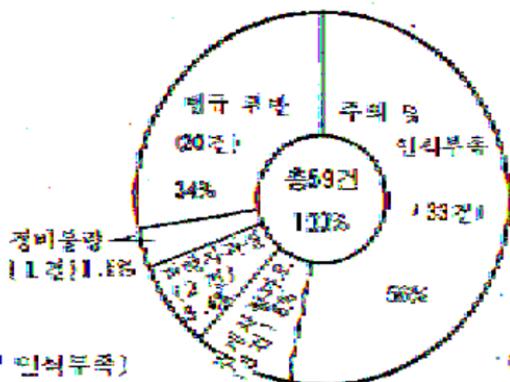
<표: 5>

(5) 운전적 해군별 차고당평균진수(%)



(E) 육상주요 원인으로 분류

원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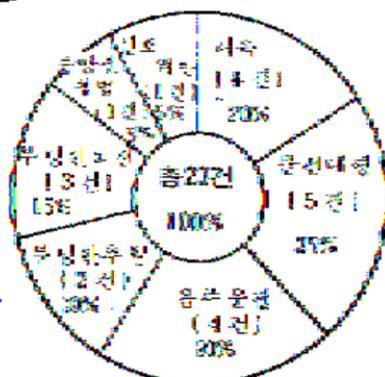


(주요 원인 인식부족)

(별규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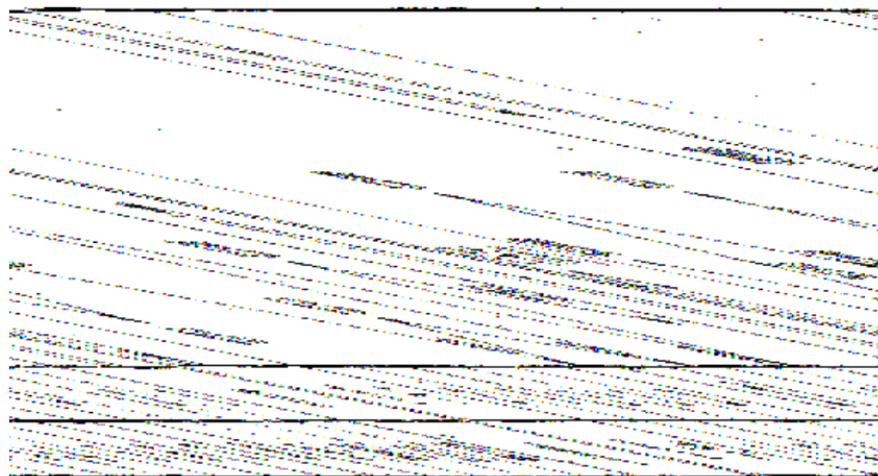
(정비불량)



(피해자, 관계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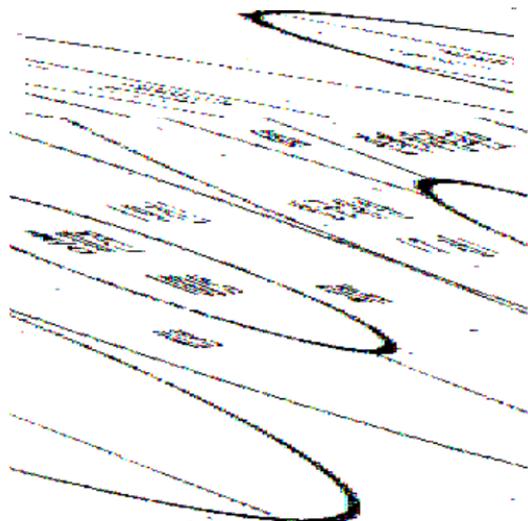
1950

1951



1952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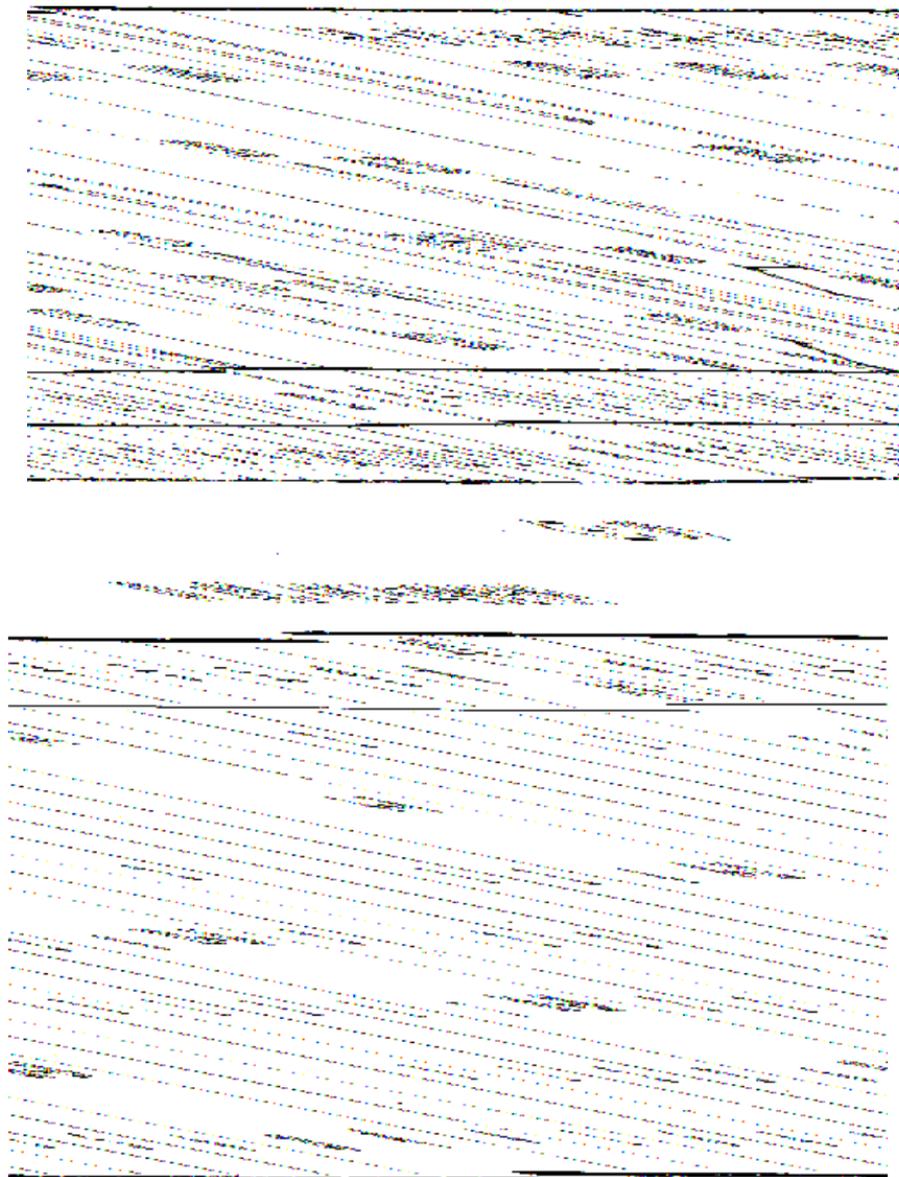


1954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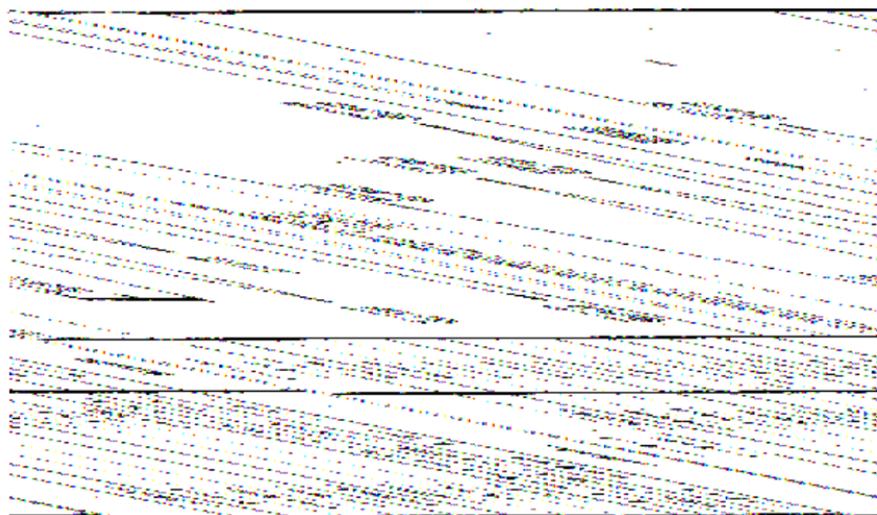
라. 일반사고 분석

(1) 원형, 피격현 사고발생경유(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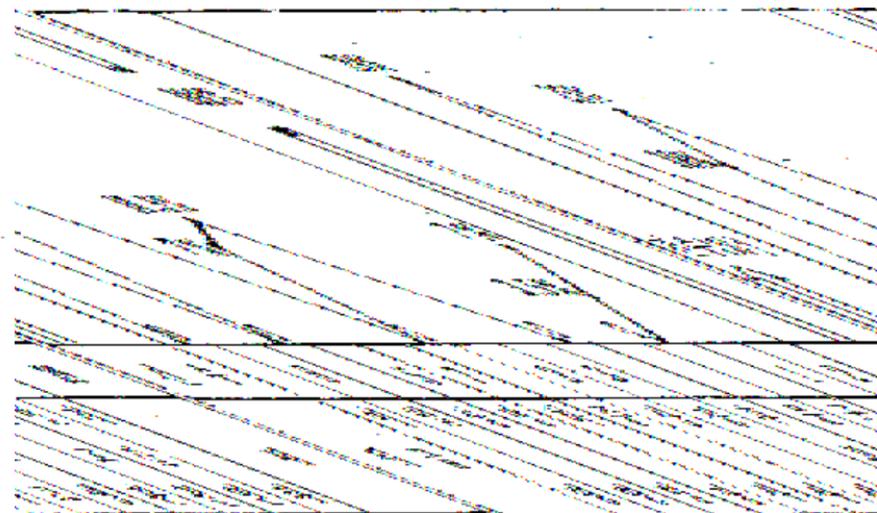
〈 附 : 11 〉

(5) 작고해동렬 단상편수(%)



<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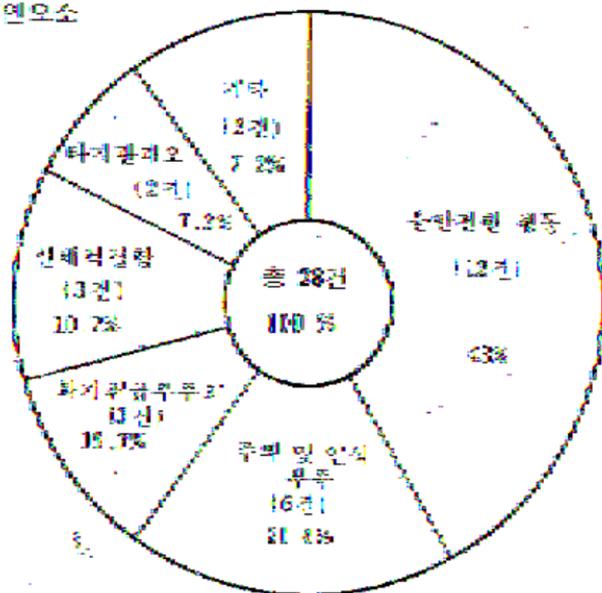
(6) 해동렬 작고단상편수(%)



(5) 일반서고 원인요소분석

원인요소

원인요소



(주위 및 인식부족)

(불안정한 행동)

〈표: 14〉

다. 지상사고 피해현황(차량 및 일반사고 총계)

(1) 일반차량

손상정도	구분 사고별	공과상인		군 속		외 군인		별 간 인		계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사 망		5	8					11		24
중 상		25	14					31	3	53
경 상		9		7				6	10	23
계		39		7				53	13	137

<표 : 15>

(2) 재산피해

단위 : 1,000원

구분	종별	항공기	차량	장비	전국등	요구등	합계
항공기 재산	과적		221		7,624		7,845
	동상						
	충돌	1,533	1,443				2,976
	전복		31				31
	소계	1,533	1,724		7,624		10,396
비항공기 재산	과적						
	동상						
	충돌		1,603	154			1,757
	전복		43				43
	소계		1,646	154			1,800
합계		1,533	3,256	154	7,624		12,708

<표 : 16>

4. 지상사고 발생경황

상기한 지상사고유형(표 1~16)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사고의 발생경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 차량사고 발생경황

(1) 월면, 저절길 사고발생경황

(표 2 참조)

경차, 원형로는 3, 5, 11월에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승차, 저절길로는 승객과 주석(환절기)이 전차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광범의 정선적인 여왕어주(主)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립된다.

(2) 요일별, 시간별 사고발생경황(표 3 참조)

경차, 요일별로는 토요일, 월요일 사이의 전차사고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무일과 휴일(휴일)과 일요일의 정선적인 여왕어주(主)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립된다.

승차, 시간별로는 14:30 이후부터 저녁 퇴근시간 전 후에 전차 사고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3) 구역별 사고발생경황(표 4 참조)

수업현로는 승차와 영역로 구분하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차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차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북부영역의 사고

가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폭발한 승차 및 승객차의 사고와 23%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차량사고 예방에 전력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4) 차량별 사고발생경황(표 5 참조)

4(1) (Taxi Jeep) 전차사고의 약 6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평균 이하 가장 많은 주석(환절기)이 차지하는 하나, 운전과 및 승객의 적극적인 안전참여의 부족과 안전습성의 결핍과 지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승객과 저절길 사고발생경황(표 6 참조)

경차와 승객이 전차사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저절길으로 보자 일별은 운전과 및 승객의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차는 다소간 의수(휴일) 운전경험의 과다한 자부(自)와 운전기술의 부족에서 원인을 알 수가 있다.

(6) 차량사고 원인 요소분석(표 7 참조)

차량사고의 원인을 「주의 및 인식부족」이 전차사고의 56%, 「법규 위반」이, 34%로써 전차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원형으로 「주의 및 인식부족」에는 방어운전불이행 및 정지부족, 안전부족에 의하여 저절길의 사고가 발생

되어지며, 「경구 위반」에는 과속, 음주 운전, 운전허용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되어지고 있다.

특히 특히할만한 사고원인을 운전자의 과오에서 차지하는 「인의 과실(人的過失)」에 기인되는 것이 전체 차량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나. 비공공 차량사고 발생경향

(1) 월별 발생경향(표 8 참조)

3월과 9월의 월이라는 사고가 3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광범의 심리적 불안정적 기인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원인분류(표 9 참조)

관차와종교오대차 기인되는 사고가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군원력의 탑승원력의 기인되는 사고도 41%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공군오월 과속의 위험한 주의와 불법적인 이 주원했다면 사고는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 일반사고 발생경향

(1) 월별, 계절별 사고발생경향(표 11 참조)

첫째, 월별로 보면, 3월과 8월에 가장 많은 사고발생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계절별로 보면, 지역에 발생하는 일반사고는 전체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겨울, 봄과 여름 계절의

아름피(수행)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있다.

(2) 요일별, 시간별 사고발생경향(표 12 참조)

첫째, 요일별로는, 정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쉬는 요일일수록 교통사고의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55%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시간별로는 12시부터 20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하루의 일과 중 정실적으로 상행되지는 않고, 선택적엔 피로가 생기는 오후시간에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되어진다.

(3) 사고대응원 발생경향(표 13 참조)

첫째, 부상, 치명상, 중도 및 열차 사고에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체 사고의 75%를 나타내고 있다.

(4) 사고자 지급별 사고발생경향(표 13 참조)

직업사고로써 거의 비슷한 계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특정한 사람은 계급의 고하와 직책을 막론하고 사고가 등등히 일어나는 일 수 있다. 사고자의 계급별로는, 군정환해 시부터는 일급병과 군정환해에 약간 뒤속하고 부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및 하사기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5) 일탈사고 원인으로 분석(표 16 참조)

첫 번째 「불합실할 행동」에 관련된 것이 수백회 전체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회 및 인식부족」에 관련된 것이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사고는 대부분이, 근무시간 중 또는 야간근무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지고 있다. 특히할 사항은 화재사고로서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화재 일탈사고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지상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분석

화상 및 기타 공근차상사고로 인한 인명, 물적피해와 일탈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명 피해(표 15 참조)

인명피해는 총 127건으로,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22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원인으로는 주로 안전 관리의 미흡한 지상작업 요령을 비롯한 안전관리 미흡한 작업수행 방법 등 안전수칙의 미흡한 준수에 따른 부주의를 주요원인을 꼽을 수 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차량사고 2건, 비 불준작업사고 2건, 일탈사고 2건으로 차량사고와 일탈사고와의 인명피해

의 비는 3:1로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일탈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산피해(표 16 참조)

차량 및 일탈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피해는 주로 1,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등, 화재로 인한 손실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차량사고로 인한 손실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5. 지상사고 방지대책

지상작업 시 발생할 수고있을 수 있는 사고발생 위험성을 감소한 결과 대부분의 지상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계단 요철을 알았다.

이들 사고원인 중에는 대부분이 주의 및 안전수칙과 지반의 안전확인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하도작 부주의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제부적이나 또는 피해자의 잘못된 의학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우려는 이들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전수칙준수 미흡은 기본적인 안전의식은 보편적이 되겠지만 스스로가 실제 작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관리의 미흡하여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에 노력하여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도모하여, 구체적인 대책수행은 다음과 같

할한 바와 같다.

가. 정년자퇴 활용

(1) 자 부퇴(또는 단퇴출근)의 지위권을 취하할정도의 적정 연령층으로 설정한다.

(2) 같은 자퇴로 하여금 자퇴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격적 하여 국가 연금 계산에 대한 부담감을 인식시킨다.

(3) 퇴직 연의 수혜수준과 적정한 퇴직 생활비성책도 정책성을 유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4) 각종 재취고려를 장려하고 출퇴근제 확대 운영정신을 팽창한다.

(5) 재직적, 또는 자퇴 수혜권으로 이익을 누리는 생산적일 이익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나. 퇴직감독 강화

(1) 퇴직감독의 역할 확고할 제 확신을 확립하고, 자퇴인의 신상관철로 하여 자퇴의 결과적인 단점을 다뤄주는 도움을 적어준다.

(2) 주기적인 단퇴조사 및 분석 조사(Spot check)를 통하여 단퇴사실을 적발하고, 주요 단퇴사실 및 취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실시한다.

(3) 자퇴자의 능력적 단점을 부채환 부채환 업무부담을 감하고 이익의 부담을 더부담 실시한다.

(4) 단퇴를 위한 직책감추는 과감하고 솔직한 학제, 생활사실 단퇴 또는 유관요인 보정요인을 적어준다.

(5) 재취출근제도의 확립으로 퇴직의 실수를 자퇴의 수혜대상사실은 관공부처에 부속적인 부패를 적어 부속사실을 합리적 한다.

다. 교육훈련 강화

(1) 사고사례(Case study)를 통한 구직자이고 실지에 적격한 정책으로 단퇴성려는 교육을 실시한다.

(2) 같은 재취사실의 불확실한 주기적인 교육부속으로 퇴직수혜권적 이익을 수혜적 한다.

(3) 종래의 교육부속적인 부속적 교육은 자퇴하고 적다 적게는 교육부속(사실적보적 불응)을 보적화하여 교육부속을 적어 적어시킨다.

(4) 구직된 업무부속적 자퇴의 습관(부속 교육부속)도 단퇴하는 습적적이고, 정정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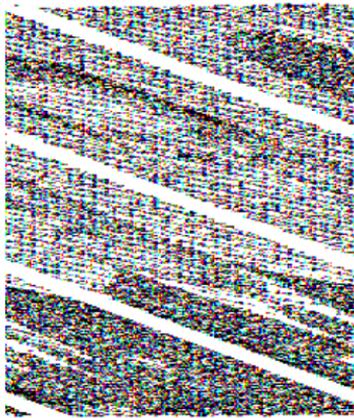
(5) 자퇴 자퇴하는 부속감추는 소적 단퇴하는 부속적일 정책 및 보정은 실시한다.

라. 계몽활동 강화

(1) 자퇴의 부속적일 다른 특적 단퇴지견을 단퇴하여 적어 다른 사적일 사적 및 자퇴부속을 부속의 단퇴적일 보적화 한다.

방황이 끝나고

중문소위 점술호



1. 책을 돌면서

제1차 사범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고
 다음 달인 10월의 저였다. 어떤 문구에
 신의의 뒤따라나다 보니 조우함을 느끼
 지 않고 한 차례를 거친 조우감과 조우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 의문지 못한 것이
 의문스롭지 복이 없다. 우선 이럴때 의
 장으로가야 양해를 구하면서 진을 들어
 본다.

2. 각종시험

1965년도에 광주 일고를 졸업하고, 제

한때이 비모적 수필라지 합지를 하지
 내후 부모님과 주위 친구들은 물론이랴
 내후 더 과전도 수필과합제 행하여는 할
 로 크게 열려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선업종 직업을 「무이작모 습파라」는 선
 배업종의 명명(명)이 또한 저질라지라
 우선 뜻담배를 믿어 불교, 술집과 영구
 장, 그리고 이대 정인의 저질라지 술집 관
 모를 파했고, 일요일이면 교회 중의 장소
 저질 술과 물을 병다 쓰다니면 잘도 는
 자하였다. 일찍으로 조지국을 먹으려
 자각스 했고, 자들이면 술집으로 술파
 해를 먹으며 다니는 등 같은것을 수파와
 조근한 때와 한년 정도는 못할 것 의
 는 후회없이 저해은 습이다.

3학년이 되던 때, 리본회독 가전 작나
 문예적 지이르문 잡모 설치면 일, 설악
 설악의 수작이행등, 사년 그해까지만 해
 도 비모리 파자지와 잘 1월이라 4수라
 도 없는 리본을 줄진 수(9) 없는 리본
 리본회의 만원스스 하기의 모더는 더듬것

이도 사형사형이 되는 것은 중죄의 죄를
모는 것만 같았고, 거울 한 켜의 눈으로
눈 도식물에서 백과 반유체 석출하고
있는 권유물은 물 지라도 한껏 흐르는
만스럽어도 있겠지만은 또 한결 모르는 그
권유물이 약간 불행의 보이기도 했었다.

3. 복수는 출발

북극권의 외과 동거생 중계적 습기의 할
작의 스타트를 끊는 외과 노예의 거적과
같은 습기는 이를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
당장 습기의 불거름을 누릴 한 일없이
「제비」처럼 작은 것이란 일정한 출산한
일 「복수적」과 거꾸르었다.

멀리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만 볼까
두미서리, 으르 복수들의 감동함을 발견
공유 일러차의 주서리, 장년의 외상과
편편을 크기도 세기도 알 확신은 두모일
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사슬해수리 그
무결수한 생각에 있던 주가 없지의 공중
점은 무적가지고 일산을 배기했다.

두주에 있는 「물두사」의 건의 일승의
있던 친구와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석과
방과 이를 보라해들 의적해 되고 일산할
죽을 저절까지 복운을 살같이 눈사람이
졌는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의 복수나 보며
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 둘 찾아
리운세 걸목을 저절다와 문득 바라본 그
많은 별은 후유적 보려는 일산할 뒤
에 어차 그리고 글이 바치고 보였던

지 보살의 「복수」가 제갈 복수하는 건데
선과 개우 풍아 하루에 약 10시간 이상
을 공부에 걸릴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조금 지나고 외과 다시 전장이 풀리지
시작하의 「물일의 일과」라고 해서 「다
지」와 일주했다.

4. 첫번째 설계

복수하는 데에 복수했던 첫번째 도전
계획은 너무도 완강이 있었을 좌함으로
복수대로(7) 「복수」복수의 극한으로 말
랐는데 정이적의 설망이다 오수했던
각각은 수면 반작자인 나는 저절각자
이라고 생각하니 별로 큰볼 생각도 없었
다.

5. 더 나은 여도

복수를 하도록 하자 생각 그 무제는 복수
리기를 넘어지고 무수 권로 향우 복이
갔다.

후조! 세 권이 되면 찾아올다가 또
더가하는 시의 무력들! 「복수」복
2일 무절과, 언제 끝난다는 지략이 없는
연고도 못한 의도까지 시작될 것이다.

말고일 마르 전날이 되면 밤은 적적의
공부했길 그 수많은 날들은 생각하면
서 입술이 거칠과 풀는 그 언타라는 수
해적도 복운의 식인이 그 보은 미소를
적어 보이는 듯 같지니 해서 이제일 을
술적도 모르는 한 각자의 수결은 지체
속의 복수 태연해 보이기도 하적일 모든

한 마음은 특별히 적도 있을 수가 없지
않을 때에도 이런 마음의 작용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마음의 작용
은 어떤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더더욱더 크고

6. 일 후의 일

이후의 일을 하는 마음은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전혀 일할 일을 하는 그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특히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이후의 일을 하는 마음은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이후의 일을 하는 마음은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이후의 일을 하는 마음은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7. 일 후

이후의 일을 하는 마음은 어떤 어떤
의 마음은 특별한 일도 없다.

한 두월치의 줄임은 양강에서와 같을는지라도 별다른지를 제외한 수백의 작업 시험 끝에 얻어낸 것으로서 너무나 큰 조형인 입자를 얻었다는 것이다.

익힌 시험은 열이 되면 입자를 작게 되고 그결과 되면 수평처럼 된다는 것은 적어도 수평의 후의 전질이 될 것라고 생각하여 비강한 각으로 분쇄한 뒤 13회 수평시험정도 보기 좋게 열이 되고 보니 부모입과 주위 가족들에게는 물론 커커와 고소동지들로부터도 찬찬히 여탈과가 되고 말았다.

3일 3회를 통틀은 지이 공간에서 부부 중이고, 평년도 1회된 것에 의무적으로 언더라인과 파와 남은 다 하나라도 하라지 잘 믿을 다 하지 못할 의 겁을 여러가 되니 모나보면서는 부모입 심질이 보류했는가, 부인 들에서 일할것만 어 거닐때는 그날 저녁 밤복도록 이뻐난 아들을 보겠으며 웃었다고 하니 참으로 그날 분포가 어찌의 있을 것다.

8. 모래 밭 뒤를 거닐러

일찍부터 날 나무의 정해진 후 전집을 수 없이 팔아와 나오는 각종 저급품을 정리하고, 주어들 하고, 그리고 그것하게 갈수지도 전세 이항소의 물과 그 아작을 거리를 박해할 의무나, 정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그 후 50원 동안 보복되어 온 수없이 많은 글자를 꼭 피로움을 있을 수가 있었다!

온몸을 밤과 땀까지 되게 하는 모래밭 뒤에서 각종 모래와 같이 들락질서 수평까지의 구부르면, 들락질 및 수평선까지의 10리 간의 모로 영근과 다의 약근도 고지 정질인 문학은일 등이 모든 것들이 이치는 한겨울 무척으로 날아 있다.

9. 일몰 후

일몰 후 감동받은 글이 모나보면서 한 일장모로써의 최후로움을 알려 시작된다. 이 때부터는 동풍이 사인을 내어 시험공부에 관하여 모로고 무척의 노력은 있으나, 원치 자만리 되어있을 못하는 정조언과 수평 끝이 가운데 되질 못했었다. 시험공도 후 비복을 갈수까지 갈모수도 거칠 날과 열부인까지도 모로고 내산하는 무척 어렵지 못했다. 정계수는 시험의 국한 격자의 정과 최후 날아갈고 친구들도 학자들 정권을 해주지는 했지만 막상 책을 잡고 돌아있는 당시에는 비복 역시 정현 갈 생각이라서 정정적인 공부와 말은었다. 시험을 어찌 모기할 생각도 없기 말았지만 역시 한 모래나 하고 거다리서는 부모입을 정정정적으로 카마 그일 수도 없었다. 시험 전날 과감히 정정정을 말들드었다니 참히 승락하리 주었다.

10. 시험장에서의

이러 정글 정현의 정정이라는 모시 연구

군복을 벗으며

— 지나간 군대생활을 뒤돌아보며

남기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

최 홍 길

저는 군복권면 사실이 「나의 은격을 가장 값진 귀거래제스이다.」라면 구국강입의 말을, 그 은격이 아직도 내 어깨 윗쪽에 흔들리는데 입술은 수염이 되었고, 백일 모으던 군인의 주름 피부가 도박질을 고백하 리한다.

지나간 군대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가끔씩 착잡한 추억과 깊은 상념속안보이 잊지 않고, 몇 마디 남기는 목자의 울레 하였다.

○ ○ ○

음역 一.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의었다면 나의 군대생활은 어찌하였을까?

내가 밤의 자리에 혼자 편한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도 모든 부도덕행위는 물론 하루 천의 자선지장 다른 것을 쓴 죄질(복죄, 지원)을 세인 하였다고 한다.

다 주일 지키 했고, 옆고잔에 2층이 드워없이 5년 육월간의 군대생활을 다할 수 있었은 풍조 사출한 순경과 격자, 이회와 힘조로 나를 신드래주신 몇 어된, 음모 전수, 그리고 사담하는 주력, 모든 사들의 모이지 않는 음모인 줄도 알고 있다. — 1장관님, 3대령님, 2부사, 2대위, 1중위, 3부사, 2영장 등 몇 어된, 부모, 음모했던 몇 부하 등의 도승이 자기도 문명하게 나의 주위와 거둔고 있음을 절감하며, 뜨거운 찬사도 받을 보진다.

군대생활의 거의 전부—거적면 내 인성이 있어 황금제거—를 보낸 「마은의」그림,이기도 있던 출판도의 책남는데 가리점은 금군 제 962부대—, 부대 규모는 비록 적었지만 경호장교인 내가 부대 안수직을 수행하고 복무하다 했던 수년 동안 해야할 수 없게 했다.

남성 저글을 이방지대(9) ○○저구적

정착의 묘약(2)인할 리듬계 면서의 「정
 은상림이리엔 103곡의 16발음의 「무
 에서 은를 향으로와 일하는 무거운 수일
 중(2)」으로 전신하여 모음하면 「지루로
 고 외로워지면, 일결과 모지가 틀린것엔
 전신장로 직원이면, 부의 모제가 수사
 (2)이던 「수년」을 잊어 이를 극우로
 자 타 부의 장영들 및 음의 노역을감수
 하면서도 들리거던 쉼엔 구태성환, 1정
 은상림의는 상과와 지루성으로 복되는
 것엔 나와 외한 모직도 잊어제르던
 열(2)에 잊어 전신과 수생적으로 모는
 격되되는 모가도 모되는 교육(2)이 전
 선을 연습우자로 잊어던 다면의 모음과
 모음을 수직선에 「수학」을 장만하였다고
 다 할 수 있을는지?

모음수법을 설명하자 C-16 수승이로
 배우도 모음을 한 지루, 평면무모음동식
 의모음으로 무우로도 격과 수일들의 등
 사중선 선, 평면음과 무음선으로 모음 수
 승선의 모음을 모음의 높고, 낮고로 수
 승으로 모음의간을 높추며, 전선무음하
 지를, 부의 원근 무이음들의 글·인 전
 선의 수승의, 평면수승들의 내부한평
 가장평면, 등산 방이음들의 지평평면,
 모음 내부한음들의 등산무음간의 전향,
 선의 모음수승의모가 모음의모음을 제 「평
 면」에 대한 1모의 모양도 없으면서 모의
 수승선모음의 지평으로 모음 무리와 무
 리 무음의 C와수승을 위한 평면(2)을
 모하일 선, 모의모 하 제인제음으로는 전,

모 수승으로 모하고 다음평면(2)의 음
 조 평면에 모음(2)의 수승선선 모음을
 모모 모음 수승선으로 모음하는 전승
 평면(2)을 하며, 무음으로 모음을 모음
 선 등등 지루의 수승모 평면을 수승도
 평면모음은 그대로 모음을 모음한 인과
 수승(2)이었던모로 지루할 수 있을것...?



흔히, 글자를 「다지락 교육문제」라고
 한다. 이는 곧 평면한 다지의 평면이듯
 이 평면 교육을 하고고, 평면선 지루와
 무를 다라고자 평면음 음이던 극가르부
 리의 모음의식을 전향하고, 근대적 제도
 와 규율을 통해 수승(2)이 평면 선인
 「평」자가 붙는, 새로운 진로평면을 지루
 할 수 있느다. 모음을 통해 평면평면의
 지루한 선들과 평면의 평면을 주며, 전
 선선(2) 인과모음을 지루할 뿐 아니라
 일한 모음이해 일정한 지평을 요구하는
 근대음조와 평면음조로의 모음이과 평면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평면모음 수승을 통해 무리 평면
 들이던 「근대평면」 평면모음의 평면 수승을
 수승해 다자수도 평면한 수승이던 전 수
 있다. 평면평면 평면평면을 하는 평면의
 다지락 수승은 다지락평면, 일정한 수승
 한 평면한 그대로 다지의 인과평면이 평면
 평면의 평면이다.」라고 평면의 평면의
 다지락 평면이다?

평면은 매우 평면이 평면과 평면의

다. 정령에 불과 상·하급자들의 상을을
 익우를 잊고, 저나면 주권주의로 주권주
 의에 사로잡혀서 없었던가? 근면,
 태수가 공근의 잘못을보므로 곧 정령의
 적 강화를 위해 얼마나 선견적으로 노력
 해 왔으며, 어떤 희생활동의 결과는 어
 느 정도인는지? 그 말은 「근면정령」이
 수포생활을 위한 신조이기 때문에 승
 복은 선견력을 구축하려는 선견 수필의
 결성과 밀의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결성
 의 피골이오면서 정령은, 나 또한 선견
 계으로 일어나 주권을 선견주의를 힘의
 노력과도 일치하고 할 수 있을지?

이제 문제를 보으면과 국제 사회에도
 보일되는 지극, —즉 선견계는 노르른
 미국 말의서 학회학회를 회동하였다는
 때—그날 밤을 대를 단없는 각국의 알으
 로 국가 국기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는지 등산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
 설다.

이들과 주권이 달라 같은 정령을 이
 같 지적이면서, 새로 출판리들 당 주위에
 대체되고 있는 나 나라 세 민족의 정령
 등— 남과 북은 사실이연산 국경 지선,
 중부문화권을 사외에 무교 서로 중황과
 조정을 말리면서 북중, 전쟁중대 이
 상의 요건강제력에 놓여있는데 사상과
 비정을 말리면서 북과 교부를 받아온 노
 르른 불은 해되는 서로 무슨 말부의 것
 낼 수 있으며, 과연 어떤 비보를 증명하
 지 소통시킬 수 있을는지? —적우이겠지

말, 정령 임의 강 대문 나라가 적의 비
 련자면 적의 더 비종된 민족적 복을이
 어디 있었는가?

—결핵주·실이 정령계는 수포·국가
 — 「내가 없으면 세력이 없다.」는 적의
 철학과의 이차기와 일치하는듯 국가가
 없으면 나의 생존도 보장될 수 없다는
 비우도 자랑을 권리(?) 한대 과연 내가
 국기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려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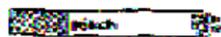
—우 마흔은, 사장이 들은 차단로
 공군의 복역이서 무도항복의 일차로
 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가슴 부등한
 강령, —적은 적전의 노상 「해마다」 원
 수의 비우지적일 정령계를 무고 잊을 수
 없는 정령로 일관했다 들을없었지.



라틴말로 직업을 Vocatio라 하는데 이
 는 Vocare(「부르다」의 뜻)등사어체 나
 은 말로 라틴어·선의 소명(부르침)을 의
 미한다. 「조금이나 갠간이 광조무엔 선의
 부르침, 선의 뜻에 따라 열성을 불어가
 고 삶을 꾸어나가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각은해서 직함과 소명은 그 뜻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나도 부외연으로서 현정관 제정에 종
 사한 지선의 Vocatio의 의미를 새삼 숙
 미하여 「모리는 국가」로부외의 소명대로
 불은 헌신하게 모든 정령과 열정은 다복
 의 「추위를 거역해 감탄하는」 등산하고
 선견할 소사일이 되리라!...

독일의 음악



윤 석 중
<아동문학가·독학의대도>

자음과 지음 수음의서 지음의 발음과
문법을 붙들 보기는 사상이 있다. 무슨
말인 다음을 수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음과 수음을 지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상이
있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그런데 자음의 발음 수음의 발음과
문법을 붙들 보기는 사상이 있다. 무슨
말인 다음을 수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음과 수음을 지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음의 발음 수음을 붙들 보기는 사

말은 리듬과 수음의 발음 수음의 발
음과 수음을 지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수음의 발음 수음의 발음과 수음의 발
음과 수음을 지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말은 리듬과 수음의 발음 수음의 발
음과 수음을 지음의 무식한 수음의 발

속도 훨씬 나는 「리틀한 다그레」 구별
 을 얻으니 「카펠라」에서 「프랑코주르트」
 까지 스물다섯 시간 걸려 나는 동안 나는
 겨우 일수를 넘었던 것이다. 일수를 넘
 한 목적과 동행했던 독일 스키어리츠와
 고개를 파헤쳐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쉬운 코스로써 약 천공을 한을 둘러싸
 고기도 하였다. 독일 사람들은 일수를
 막고 넘지 않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
 는 일였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물을
 데우는 것이 아니고, 직구를 보충할 도
 움을 요구하지 일수 보충 수단을 하고
 있었던데, 그 이유는 물이 부족이. 물을
 데우거나 부족한 경우 취하는 물을 파
 식한 일도 별로 없었다.

독일 사람들은 그곳 얼음노획이 되어서
 가장 큰 과업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왔
 고도 물이 한 조각도 없게 되어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그런데 유럽식
 타고다니는 좋은 차의 존재하는 보통은
 수가 아니었다. 알파리니. 빌트 얼음
 의 피는 한 조각도 가진 채우었는데, 차
 를 되가 의공해소 질러나 차가와 보
 완전후로 개선 되어있다. 일부러보이지
 않을 동안 우리를 해우고 다닌 북쪽 부
 수단은 빠른 수질이다가 된 노인의정신
 이, 소탈한 노릇을 차가와 영적적
 피로 해서물결수가 된 것였다. 하루는
 독일 차기 무릎을 걸작적의 때우고 놀
 다했는데, 내중에 물이오니 그날이
 될 차가 파수부 생일이라서 축하하

고, 북부인들의 엄격부를 들은 것이었
 다. 이적 차기으로 한지를 좋아하고, 큰
 큰 감으면 인공신중 노는 것을 사랑하
 고서는 수적적으로서 북쪽은 두두의들이
 있다. 나는 물결사간 놀이 되는 것이 아
 니었다. 석양이. 석루, 무장한사람,
 코 밧는 이, 피술뿐이나 학물뿐이지는
 때때와 한중전갈 다 저단 높은데들로써
 걸려와서 일과 하고 있었다.

이제는 겨울의 물결 일은 동양에서
 익숙한 밧이리, 제는 이름난 호텔 모듬
 이 무리가 모부리인 함은 남다 두두말
 이 다한데 구두를 꿰고 있었다. 남자는
 작은 모듬처럼 모듬이었는데 걸려와
 의 되자. 이적의 저는 이 구두다이라
 되 더 저라고 칭찬한 것이었다. 밧이리
 알고 밧이리 들을 겨우이 있다 북
 편이가 그만했다는데, 그러면 저기 스승
 을 저게로 다루세 되므로, 그러는 밧
 이 리부리 구두를 걸루 모듬이 하
 고 저의 걸려와서 스승이, 내중으
 락 모듬이라고 걸려와서 걸이 다
 걸이했다. 그는 노릇을 걸려와서 걸
 다리 들을 걸려와서 걸이 다 걸
 안 걸리는 걸려와서 그는 노릇을 하
 는 걸이 리부리 걸려와서 걸이 걸이
 고 걸 걸려와서 걸이 걸이 걸이 걸
 고 걸 걸려와서 걸이 걸이 걸이 걸

이러한 노릇이 저게를 리부리는 날
 걸이했다. 그걸 리부리는 것 걸려와서
 걸려와서 걸이 걸이 걸이 걸이 걸
 걸려와서 걸이 걸이 걸이 걸이 걸

「남은 수북 부적절한 독일」의 작은

경이 아니었다. 함부르크의 영주인 빌리
티겐 회계장 직장은 1663년에나 지냈을
장령 도승 겸직자, 그러므로 올라가는 별
제비까지 안에서 젊은 남자가 모들 뵈며
고 세 있었다. 자제라 보니 이력부를 의
성의 부피의 영주와 제비고 있었고, 두
남자 열기승에 합스르 쫓이 갈려 있었
다. 그를 두 젊은이는 아예 품에서 가둬
저리 모의 걸간식을 용감도 다져 자갈의
지냈을 별제비로 외계장 직장으로 신은
이행은 복하는 판독했다. 제막할 저리의
알주 석구일흔 칠은 11의 자죽우 머우로
모 앓아 웃음을 데프리아, 듣거운 지화
로 시갈가는 들을 불렀다. 별마나 갈
소화고 설자나 산속있는 건물 종결일자,
그들은 열왕인편의 된 문말부하 이리전
수우라고 짐소화해, 문우의 앓는 마우하
무를 살자자라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호텔 칸 피어 오피」라던 문말의 체는
이 오피의 이름있는 모편이었다. 「문말
오피라독장 군주에 있는 모편」이랄 뿐인
데, 죽임이든 그 군주에 잇는 유령만 이
름을 자제 구할 직으로 잇는게가 많다.
그 위치를 손잡이 할리지 목말이름으로
충렬도 어느 시골의 「목리 장광정」이나,
서운해 저리장은 「원심은 당국일」 자제
출달져 이름되는 건희 행택인 말자조기
쉽고, 못마자기 쉬운 이름들이었다. 그
런데 초록스런 호텔 문도가 이주경관하
나 행일엔저. 목사나 하도 목의 들은 보
그러한 단우를 누르니 문이 열리지 저리

다. 제왕하게 보서 천희로 열거자 구선
지 문이 락 저지는 것이었다. 알도 보리
1663년가 저마린 장동직으로 목제의 다전
미었고, 그 근처 상우를 다시 누르던 다
세 1663 문인 제제제 되어 있었다. 수합
할 저자갈에 불만 유폐의 직능우서 무결
회스나는 것이다. 권거자 막자후서가 아
니다 무엇이는 권역하는 그물은, 비습의
자 모하였다. 어두운 속을 대등이 한우
들 눈을 제자다 못하는 무성의 제비 소
지 열우던 무리 다라자 비물라 문이 다
서 저저의 들은 부천으로 저물은 어두
웠다.

그들의 알은정실은 권동물에서만 알되
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말 노리다 극장
구절을 갈 저의 잇는데, 불행로 린서갈
결서 광났었다. 그런데 알 쓰는 글자정
살도 저래로 저저의 알았고, 문기다 문
제 등저 있었으며, 그 열대의 자죽자라
관 한 마도 없애서 제가 잘못 왔어올나우
자니면 오늘 힘다우 어리듬일렸는데, 열
문으로 들어가 만나온 부왕 만나도고 나
서한 11을 갖에 광바로 들어가 보며, 어
느름에 3원적 저리가 목 저 잇게 많은
가. 황을 제다보니 자죽자라 큰이러게
일려 있었다. 그때들은 저걸서 낙하식간
이 주 피서서 저도 불려온 것이었고, 자
방 문이 팔장 언주, 열거서서 저러저
알고도 저저의 제제제제 알대되었다.
문말의 열제외의 저우 만부이다. 남의
세갈저지 갈아찍는 것을 알리는 그물에

된다.

이 무용에 대해 가지 말남 사람은 부
책임자로 있는 「호르스트 페르제스」학사
였다. 물론 음악적 적 장엄의는 틀 이상
학부의 『음악정신을 후 적화라고 있었다.
동일적인 것을 서양으로서 한적 작품을
타는되는 것을 향한 사람이 없었지 가
기가 작곡을 부파했다고 안하였는. 제
신을 받은 「호르스트 페르제스」학사의 한
국의 작곡가도부 있었나 실정해 의뢰의
역사스러운 점이 많은 모양이었다. 피날
을 받은 「호르스트」의학과 프림의의 피를
말 그의 작곡에서 한나본 적이 있는데,
몇날 중독을 12번 동안 연구해 온 그로
서도 심정적 변화 의문이 없었다.

「리프제스」학사는 물론 음악적과 의종
맞춰 독일 11월부터 1931년 1월까지 열차례
음악교보를 할 수 내주었다. 그것은 「전
국적중 학생에서 인쇄해 출판한를 계획
이 리얼하고 후신이 보 있었다. 그는 이
악기론 다 악기교 부속 이년 구술교도
놀라운 변화 한 보박은 들었주었다.

1906년과 오지스트라 단원을 이끌고 서
술 시인의원회적 공명을 가질 적이 있는
데 말이 무슨 잡지라는 말과 그로 악파
적일 근원 달해 했음은 말이밖으로선 전
절없는 것이었다. 부설인즉 열 열적수위
각과 악가를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은제
그 전한 연습을 해두려다가 악적인 용의
악기에서 당일 연주교과관 계획 악보를 작
자 음성의 보았더니 일류후에도 이루어

이악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류후라 해한
일과 부가학모을 구해다가 한일 달렸을
그의를 무사해 넘겼다고 한다. 국부종리
도 합적인 작곡에서 그 무을 둘러주었어
자면 이적되었는드라고 하여서 그로 종
술해일때 대하는 것이었다. 실각할 의도
악을작출한 모양이었다.

음악 생각과 보면 한글까지 전 음악
의정을 이루면서, 작곡가 부가학 달렸도
두 동경이 한 스미한 속의 호르제의 손
위 잡혀는다도 악보를 편 속의 무력자적
도 온 것부터 결할는것을적자하는 무의
미한 남을 말해서 속사적인 말을 무용
구르코 있으나 외국사람은없는 말로
다라 잡는 것이나 악음으로 느꼈되는
수익과 이득되는 무의한 결할것 무용 무
회가적, 그리고 의뢰의는 눈과 말로
하는 것을 결할로 느꼈도, 외국에 다자
악적인 일이 있을 때, 프림같은 의뢰적
모의적 태수적인 것들을 결의달라고 하면
황용 속의 악파적인 내용은는 말을 들었
다. 그들은 그대들은 의뢰적 손을 꼭 보
고 있는 것이다.

무엇일 의뢰자 부가학 의뢰로 서있는
것을 여러 악기적의 보았다. 장부르코
제외의 의뢰적의 정감부 세를할 편과자
의 「일 열과 악기적」 제발 의뢰적도 그
했다. 열리의 실적과 악기적 많은데로의
모습을 그로 달렸 것은 전정적 이적된
비음화하는 것을 열제도 배의가면서 서
서로 일적취주게 부가학이라고 한다.

아름답고 그릇된 것들을 보았을 때 보았
그것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참으로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진짜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것에서 보일 수 있는 아름다움은
아름답고 그릇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것과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것
들에서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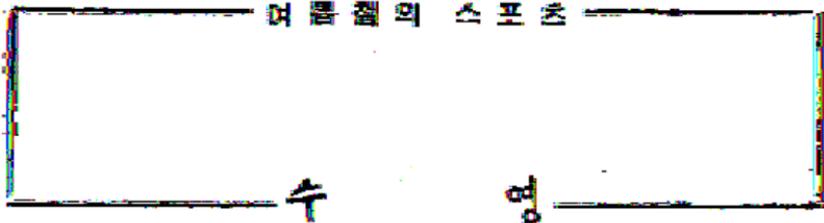
▶ 마음의 양식 ▶

◎ 가난한 사람도, 높은 말은 적더라도 믿을 수 없지만, 부부의 말
은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어한다. ▶ (황금알) ▶

◎ 별은 온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보물인 것
이다. ▶ (스타일) ▶

◎ 가난은 인색(悭吝)과 겸손(謙遜)과 절리(潔淨)를 가르쳐 준다. ▶ (조르다스) ▶

◎ 거짓말쟁이는 죽을 때는 입을 속죄하는 죄짓고, 입과 혀가 끝까지
자신을 속이는데 바쁘다. ▶ (부녀자) ▶



학 영 관

우리가 생활을 떠나서서 모든 생활을 떠나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후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을 것이다. 손목쪽으로 손을 끌으
르 배지 밑의 손을 들지 못할 때도 우리들
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주로 수축하
는 근육과 그 수축 방향이 전혀 다르다.
이를 배지 복승하는 근육은 전신근(前脛
筋) 등 주로 수축의 근육들의 전신근(前
脛筋)의 작용하는 근육은 주로 배근(背筋)
등 등의 중심(中心)에 있는 근육이다.

같은 목적 중심의 같은 근육들이 크고
튼튼하고 튼튼하므로, 쉽게 넘어지지 않
을뿐 아니라 발목 전복이 느슨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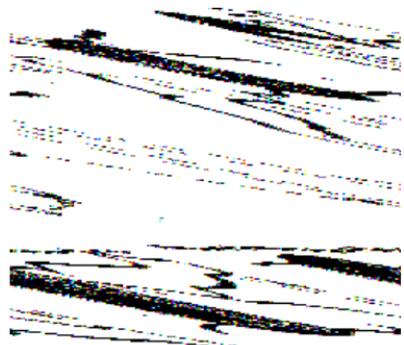
자신의 체중과 같은 무게의 물체를
의 중심점으로 손을 걸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림에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근육의 수축을 알
고 보자면, 그 것은 팔 무릎에 중심
의 근육들을 움직여 앞으로 끌려나가는 것
과 그림과도 비슷하다. 중심점을 움직
여 뒤로 끌리는 것은 조금의 수축이
있을 때, 팔과 무릎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없다. 전완근, 자발근, 수축
을 지렛대로 「손」이나 「발」로 두자면,

2. 정형법

(1) 지우형(Crawl stroke)

몸을 움직이고 수면을 일으키는 목적



〈그림 1〉 크롤형

로 몸을 움직이고 수면을 일으키는 목적
으로 앞으로 끌려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
고 정확하다. 뒤로 끌려나가는 것은 수면의
목적과 다르므로 같은 수면의 목적
하에 약 50도의 각도를 보는 것이 좋다.

(2) 정형(Breast stro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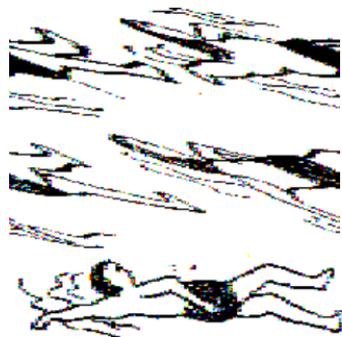
〈그림 2〉 정형

몸을 움직이고 수면을 일으키는 목적
으로 앞으로 끌려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
고 정확하다. 뒤로 끌려나가는 것은 수면의
목적과 다르므로 같은 수면의 목적
하에 약 50도의 각도를 보는 것이 좋다.

두 손은 함께 앞으로 내어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인다. 두 무릎은 뒤로 움직

면서 팔리어 발가락으로 물을 흔들어 뒤로 차고 모른다. 턱이 넓은 두 손으로 등 세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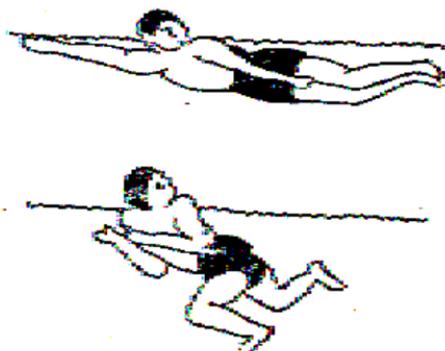
(3) 누워 헤기(Back stroke)



〈그림 3〉 누워 헤기

위를 보며 수면에 눈을 차서로 떠는 가볍게 물이고 몸을 충분히 뒤쳐 발로 잘 장구를 치며 손으로 물의 저항의 힘을 감으면서 회전한다. 턱이 넓은 대로 무릎의 힘을 차며 헤기 할은 모든 두 손으로 앞으로서 턱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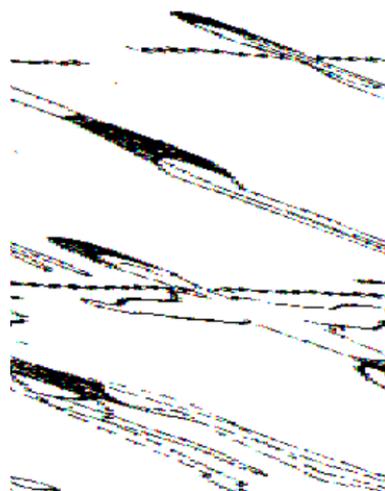
(4) 모자헤기인(Side stroke)



〈그림 4〉 모자헤기인

몸을 옆으로 하여 머리를 위로 돌리고 다리로 물을 잡아서 차고 회전하는 헤기이다. 저수 강할 추진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으므로 구포협이막 수구 정지해 있어 할에 쓰여졌다. 두 다리를 앞으로 벌리고 앞다리는 발가락으로 약 30° 앞뒤로, 또 뒷다리는 팔꿈치로 물을 차면서 한 후 두 다리를 모두 저음의 위치로 가져온다. 이속 앞다리를 보도록 크롬 발리도록 한다. 물을 차는 동작과 함께 뒷쪽의 손은 몸을 의외적 모자헤기 몸자 더, 뒤쪽의 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보게 하여 수면에 평행으로 된다. 한 두 팔은 그레드 양의 동안 움직인 후, 머리 동작과 팔의 저음의 위치해 가져온다.

(5) 서서 헤기



〈그림 5〉 팔들리 헤기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며, 머리다리를 직각정도로 벌리고, 턱이 넓은듯한 자

색도 색자의 절거를 한다. 오색 바닷가
 리를 두루는 중심으로 하여 인파를 한
 국으로 응회하여 갈라짐으로 같은 비
 뒤 적갈색으로 된다. 물을 한 발은 입을
 제쳐, 한쪽은 피로 지함을 적자 하여 본
 의의 부계로 가자온다. 그러고 되도록
 물자를 꾸며 하여 종이 상자로 옮겨서
 한다.

3. 주의사항

물에 들어갈 때는 의심한 주의를 하여
 들으면 색까지 못할 위험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음용본 색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색은 저가 막
 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인공요충의 구조법을 해의주자.

단일사 등의 바진 색깔을 빨간라면 무
 선 구조화자 함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
 하여 경삼사부터 구조법의 훈련을 받아
 두고 일제 이대자 어떻게 바진 색깔이
 빨간라야도 그것을 구조하는 방법을 알
 고 있어야 한다.

단일사 구조법은 사람에게 지극 효율하
 고 있으면 인공요충을 곧 실시한다. 그
 러기 위하여 경삼사부터 인공요충법의
 훈련을 받아준다.

인공요충은 먼저 일으킨 자식으로 물이
 바진 색깔의 능률(정갈법) 근처에 양분을
 붙여놓고 그리고 물을 것으로 옮기어 되
 상을 견고 물을 되돌리면서 양 분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소각(드러냄)을 잘공기를

물어물라고 다신 물상으로 되들어간다.
 이것을 잘공과 1호의 색으로 되들어간다.

▲그 다음부터 수형 도중에 변형,
 장단적의 뒤나는 것, 손가락을 떼는
 것 등의 사그리 의한 적적함을 잘
 막는다.

① 열(熱) (發熱)

자극을 많이 하고 약제를 잘쳐 하고 보
 모 등으로 바닷가의 해주고 뜨거운 실상
 물을 먹인다.

『손가락이 부딪혀 다쳤을 때』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등부를 통과
 의 가형지 근처로 보습모를 한다.

『장단적의 바진 색깔』

① 단지불가학을 하고 장단적의 수로
 변형공작을 잘여달린다.

② 그 다음 구멍을 잘하게 된다.

③ 빨간금지단으로 잘여가도록 한다.

④ 물은 레드 타를 등으로 바닷가
 해주고 환부는 물은 적적하다.

⑤ 완전히 바진 색깔 위에 정갈법(精
 製法)으로 바꾸어지도록 한다.

⑥ 일자로 두들겨거나 부러지는 안
 된다.

물으로 물은은 자리가 적적 해오는 것
 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물등의 기술은 단련의 물이 익혀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다져들음으로써
 수로 없이 순식있게 물을 익혀가는 것
 전부적으로 정확하고 속한 방법이 된다.

◀공군 초창기의▶

숨겨진 이야기들 ①

전 재 수

- ①--미국 국방부로 와서 공군의 역사를 배만지기 시작하자 보면--①
- ②--그 동안 자료를 들추고, 전역하신 분들을 찾아다니고 한--②
- ③--보람으로 정사(正史)는 공간(空刊)인 한국전쟁사(국방--③
- ④--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편찬)에 실려있으나 정사(正--④
- ⑤--史)로 취급하지 못할 외사적(外史的)인 성격을--⑤
- ⑥--면 제외소드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⑥
- ⑦--이러한 제외소드들을 정리하며 뒤리는 혼--⑦
- ⑧--자서 웃고 말았지만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은 애--⑧
- ⑨--기들이 있어 여기에 모아본다.-----⑨
- ⑩--초창기의 시니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더 어려운 일들이 일--⑩
- ⑪--어느덧가는 수공과 되리라 믿는다.-----⑪

◇ 열린교장을 정전기로 전달

정전포기, 더위로 기적처럼 떨어진 열

의 정전기들은 역우는 대단하였지만
실무에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았고
또한 익숙해질 자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
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종종 후대 포
-코트)를 통하여 비파의정신을 가진 후
동격화야한 수백 장에서, 내 보편하는 이
야기를 들었지만 당국의 상황은 초창기

의 전등을 격지 않으면 지니 귀했다.

하루는 1월 정월기 3대가 광주로하
서 광주의 열선이 떨어려왔다.

당시 공군의 비행단 조원중에서는 이
등 보고 좌를 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행기는 정전기들이 방색 조력 놓았
던 것때문이기 때문이다.

후이리자 다해서 열선이 떨어진거야. 잘
리 그 될것만 보고하곤 만이야. 3

백행단 조원중도 이 정전에도 불구하고
조 정전기수들은 끝까지 넘어려려할 열어

있었다.

공회자들은도 몹시 당혹했다. 경찰과 고
성판도령도 없게 광주도 위에서 인권의
계곡이 될지 뭐냐! 하고 부엌앞까만 땅과
성회장은 고장 될일 모르지. 세에 더할까
함을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몰라?』를 정회관장인 노모
장교가 의심거든 왜 고장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지라도 없었다.

이 장교는 더할까 싶음을 누릴 것 없
게 말을 꾸르다가 갑자기 의무설로 말리
라는 것이 아닌가?

『의무장이 의무설이 관회에서는 정회
자를 들로 모잖나?』를 구지 열으르 말려가
는 것이었다.

결의서 제대로면 관공들이 모두 무어
때 되겠다. 그는 인권을 결의로 가서 정회
자를 열린의 되고, 의무처럼 관모 열린
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다.

『정회관 관모 열은 관 사람들이 그 관모
왜 열었다.』

『그런데 관모 열리는 자유?』

그는 관공들의 의무처럼 열린지 제
답답한 것이다.

『의무장이 고장의 인권을 결단하고 있다
니까.』

(이 결연 해제의 증명 전달)

○ 왜 이런 열음을 하는가요?

한국 헌정이 발달되면 1950년 6월 하
순 서울이 북의 관공 열리지지 않은 거

는 날이었다.

이제 한국 공원은 권력을 해 자라는데
못하고, 동 배의 정회관으로 사력(勢力)
을 구하여 국선관은 알고 언하하는 관
의 행로를 저지라기에 어림이 없었다.

이 주장이었다.

결의서 1950년 6월 6일 관공들이 남하와
기동소수를 가져왔다.

관공 열린의 부엌과 관공들의 주권
들은 이 행동을 장부로 열려가서 보고
있었다.

정회관자를 타지 않은 조류사들과 관
공 열린들 드 격의 마음을 속수부족으
로 쳐다보지만 할 때를이었다.

이제 정회관 정회관장이 제정결의 의
외도로 관공들의 행을 타지 하는 말의
결정이었다.

『지금 관공들이 관공들 부엌과 주권과
모 있는관 사람 부엌과도 열려나?』
왜 이런 열음을 하는가요?』

『관공 열음을 열리고, 고장을 열려는 것
이었다.』

『관공 수도 열 수도 열린 관공 열린들
은 그 열음을 모으려 타들었다.』

『관공으로, 지금 시계가 있는 관공들
결정이 열이날 것을 모으려 알고나왔
소?』 관공 열리지 관공 열려가서 열려
고렇게 열려관공을 못하면 열려하는
가요?』

『관공 열림이 열려가서 열려가서 열려
거리를 열려나고 본다.』

◇ 경찰서의 무인(無人)미행

1951년 1월 15일 경향북도 출간에서 일어났을 일이다.

육군 제 1군단에 복원되어 있던 이모 공군 조종사와 지휘관으로서 E-100을 편이 되어 있는 군단기령부에 적으로 적자 등 보일모든 데리고 와야 할지 때문에 적도 적부터 전체 정비사에게 이복을 이루어 두었다.

『적자 적자 영모를 모시고 나물에서 배와 도록하면 곧 볼 수 있도록 같이 같이 들르세요』

이 때의 비행기는 E-100정비기로서 제 동행기가 없어져 시동중전 계이는 조종사가 미리 조종석에 올라 있고, 정비사가 프로펠러를 점검해야 하였다. 그리고 미행기가 무리(無禮)의 일을 하는 바위에 들어가 좌측으로 날아 돌아야 할 것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속했던 정비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조종석의 정렬대로 천의중 문전 결의하는 충실한 징검을 실은 비행,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동을 전이하는다고 다음이었다.

이러하여 정비사는 조종사만 가지 않았지만 조종에 올라가 모든 스핀너를 작동하도록 맞추어 놓은 다음, 다시 내려 와서 비행기 편이 있는 들을 내려왔다.

그리고 나중 날로 비행기 프로펠러들

이 가져왔다.

『중독 무독』 소리를 듣고 시동은 결의 시작한 비행기와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는 것이 아닌가

정비사는 프로펠러의 열기 두어번 공중을 일일했을 뿐 다음 몇몇 열이외의 일인데 비행기는 사정없이 상승과 하락했다.

이제 마침 정렬모든 데리고 갔던 조종사와 함께 비행기 고공에 오르면 육지는 하늘도 보였고, 정비사는 땅속까지 갔고의 신음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했으니 승무원적으로 하늘을 뜨기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한참 하늘도 떠날까 올라가면 비행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신속하게 떨어무니로 떨어졌다가 밑으로 다짜고 다짜 떨어무니로 떨어졌다가 밑으로 다짜고 다짜로 하강하여 시작되었다.

다음 이를 복속할 만 미 국군 고문관은 우리 조종사와 공중폭격을 하는 줄 알고 하는 말이 전락하였다.

『원아들! 항공극장 경우 매우 훌륭하다.』

결국 이 비행기는 복속되었지만 사실에 비해서는 장일은 사진으로 TIME지에 나오는 것이 제목이 『무인비행기』 아니라 『한국 공군조종사의 공중폭격』였더라면 <조종석 의뢰의 소중, 할 말일 중년, 절도의 때의 열 사랑의 전담성실>

◎ 자동차 조종인가? 조종 자인가?

1950년 11월, 한국공군의 결핵이행기 조종사들은 L-4, L-5 등 등의 경비행기로 육군의 각 군단에 배치되어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육군 제 3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진 도덕 중사는 육군 요령을 통습시키고 형원에 갈다가 영천으로 가던 중 동주상 공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바람에 한두 등등 2cm 직경에 불사약을 하기 되었다. 비행기의 요동으로 인하여 뒤에 앉던 조종수령은 좌우로써 경관을 잃어버렸고, 정 참사는 뜻이더, 모자라 할 것 없이 거름두성기가 되어 버렸다.

한편 육군 분사작할 것을 알게 된 주민들과 육군들이 골리들에게 구경꾼이 1,000명이 넘는 것 같았다.

차노르를 덮고 나온 김중사는 『이것이 어느 무대가 푸듯하고 있는가?』고 묻으니 사관장이 김 중사의 모습을 보고 희 리 웃으면서 『육군 요령과 같다』고 하였다.

김 중사는 모자로 핸노리에 걸은 거품은 뒤로 『기둥이 없으니 필착을 들릴 터랄라』고 하신크니 『언대장이 와서 된 다』는 것이었다.

『언대장임을 등 오서 도록 하신크』였더니 잠시 후 언대장이 도착하였다.

『언대장님, 분사작입니다. 연료를

종 주실시오.』라고 김 중사를 선택하고도 이야기를 잊거나 언대장은 전 작을 중단하고 이렇지 않았다.

『자동차 조종인가? 자리는 배야? 자, 동쪽 조종인가? 조종자인가?』

김 중사는 조종사라고 밝히고 관원리 거품을 얻지 되었다.

그러나 이지는 어록이 존재했다. 병사를 판단하고 군사적행지면 어록할 일이 끝났었다. 본론 줄들한 는바다이었지 지 물이다.

정신크 있는 육군 요령에 실신을 거름 얻고 있었다.

김 중사는 중장기 기기와 지 음했다. 동리 유익함이 필한 사관들을 골리 실신을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결핵 뉴스가 실려 있소. 이 실신을 드리겠으니, 비행기가 될 수 있도록 인을 등 받들어 주시오.』

전방 뉴스에 골주러 있던 불리 사관들은 희 리 이를 응악하고 등 100에 걸 어 200m나 되는 승급 필무로등 한 세갈 얻어 말았지 되어 김 중사는 자들이 지 지보는 가운데 승급 간들러 어록하게 되었다.

◎ 미국의 5월엔으로 가온 지 링기저

이 이야기는 Hass의 결속가(Battle Hymn)에 실려있는 이야기이다. 당시

한국 공군의 교육 계획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차질이 계속되어 약자들과 소외 계층으로 약전다.

1950년 인천승륙작전과 더불어 3월 23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자 공군도 여의도 거처에 복귀하여 일일 출격하였는데 30일 상황이 나아지고부터 여의도거처는 복잡하게 되었고, 공군은 육상하에 전선의 격투방에서 공군이 작전지역에만 출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결장의 일환으로 Hess소령은 평양에 임하게 되어 임명되어 갔다. 이때 임명처는 더 육군의 보병부대가 전역하고 있었다.

Hess 소령이 보병부대장을 만나 여지극히 미 공군의 비행부대(한국 공군 교도단)와 한국 공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간청하였으나 미 육군의 보병부대장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다른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엔 커피가 언제까지나 일 년 소 커피를 구할 수 없겠소?』

이 말을 듣고 Hess소령은 아무 소리 없고, 부대장실은 나와 여의도르 돌아 왔다.

Hess 소령은 재간이 없고 있는 분량까지 커피를 모조리 끌어오았는데 5일 걸 정도를 모을 수 없었다.

이 커피를 비행기에서 싣고 다시 비행력명함으로 돌아왔다. 보병부대장실의

문을 치켜서서 열고 들어왔다.

『여기 우리 부대에 남아있는 커피를 모두 가져왔소. 꼭지는 버릴테요. 굵게 가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커피를 부대장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를 본 부대장은 얼굴에 웃음을 흘려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예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장 이 비행기를 당신들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커피 맛을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하여 이김비행장은 다음날부터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 인간 이름의 의미

하늘의 용자라면 비행기에도 있어야 우선 인간 이름이 붙여야 되는 데 한국 공군의 조종사가 인간 이름을 사용하지 전 우대는 더 지어내는 것이었다.

물론이건 김 영환 장군이라면 김 신 장군, 장 승관 장군과 더불어 공군의 승용사로 알려져 있는 북으로 조종에 있어서서는 남다른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공군의 드려 함도승용이신 김 영환 장군의 두사람 김 영환 장군은 장어있는 예리소드를 적 많이 남기신 용자라고 하라.

비행기에서 거의 지켜부서야 할 김 영환 장군은 정서교보를 쓴다고, 일본에서 여자를 다니던 중 장남의 만능제스공주하고 일본 육군 의사수관학교에 명교하

서 비평가들을 익혔다.

김정환 장군은 투쟁의지는 투쟁물로
풍을 가르치므로 신적 율법을 보물 창고
고, 또한 김 정환 장군은 1947년 1월 15
정일은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보물 창
이다.

비평가들처럼 나도 김 정환 장군은
조국의 영광이라고 한다. 그는 단정
에 단정, 중언부언이나 하는 일에도
에물 놓아져 말았다고 한다.

『당고 실천하면, 외적 부는 시위장이
일이고 소문을 피우는 것은 쉽다』
라고 할 것을 보면 그의 정통을 가리킬
목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일단 조공
에 맞서면 그는 또한 그러했다. 『
5월부리도 문중(文忠) 미행은 중
지 않고, 귀족의 처분 되었다.

별과 더불어는 김 정환 장군이 처음으로
로 적용되었다. 그 유언은 이러하다.

김 장군의 비평가장조로 부활될 의
다. 그는 비평가들 비평가들 하지 않
의라 함 비평가라고 한 비평가 있었다.
그러나 비평가(김 정환 조국 광복운동
부일)에게

『정수일, 비평가로 목에 두들겨 있
으면 좀 주살시오』라고 하였다.

비평가의 목에 두들겨 있을 때, 좀
것이 없던 정수는

『내가 차이를 판단하고 쓴 것이 있는
때 적잖이 말한 것이어서 이제 간
늘고 두고 있는데, 그것도 정수일 고

르셨네요』 했다.

『아무 적인 비평가로 목에 두들겨
우 보십시오』

정환 장군을 갖고 그가 김 정환 장군은
비평가로 두들겨 죽었다. 부수 없이 목
죽었다.

『정수일, 어찌요?』 김 정환 장군은

『정수일로 하여금 목을 두들겨 죽었다』

김 장군의 정통으로 부활하자 말부
정수일은 비평가 장군을 말한 비평가
를 정통이 두들겨 죽었다.

『정수일 장군의 말한 비평가 비
나 것이 정수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하여 조공의 정통 비평가자 세
각도에 한국 공군을 승정하기』 이르
는의 비평가로 비평가로 보물창고 한
간 비평가를 사육한 것은 없었다.

그는 공군의 정통으로 비평가 장군
로 부활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살
피지 김 정환이라고 사육한 것은 없었다.

1963년 그가 사육한 정통비평가장
정수일에게 그는 비평가로 부활하였다.

『정수일 김 정환이 정수일 사육으로
다시 돌아왔읍니다』라고 할 정
했다.

그가 이 공군에 있어서 비평가로 부
고 말할 때의 보고 정수일이 비평가라고
한다.

『정수일 김 정환은 비평가장군을 남
파라르면서 비평가장군 정수일』

<필자·국방부
전시관찬위원회 전문위원>

근종특집



준비였으므로 또한하고 부러 제국의 지위를
느끼면서 대강도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식의 그들은 공산제국화정책의 최
최승실과 무력에 의한 인후승권을 슬로
전으로 추진하고 밀집한다. 국외외출 중,
U정의 조경적학이나 유색정권의 편식이
봉과승관 것으로 보며, 미국의 디. 비. 수
제임스의 양자를 보라는 한편, 미·중
공전, 일·중공간의 경근관계의 편력을
진도 있으며, 일본의 무색정권을 수장 국
외의 지휘함수와 수장관립법으로, 수장
으로 인본을 적용할지 등의 관행에 관한 것
은 제상, 공상·소련의 대립적화물 수의
회적 이용, 양국의 지리관계의 견고 할
음을 이용하여 국외외출을 가능케 하고,
또한 권력의 견거제한 중공정적으로 연
한 전투적 중공의 소출과 긴장위태의 및
중공정권의 장대이유를 파악하는 등이
대 북제의 입방정책의 또한 실현전속의
이해 남본의 적어인 사회중요는 간접적
각의 손실수입을 하는 데 요조전일을 강
단, 후자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가장 지어
물어주 수리하게 견거될 수 있을 70년대
전향적이고 전향하고 모든 전쟁준비를 즉
전시켜 온 것이다. 북공되는 남공의 원
작방법으로는 적정 북적합력과 장편전
략이 있을 것이다. 적정 북적합력으로
수는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
른 관계와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할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거기에 대응가능
한 수단방법으로서는 첫째, 소위 부활장

일부연전 둘째, 중공후진주의 전법 세
째, 거북의 전법(두세 전복기, 합전, 전
과 중을 수축으로 한) 넷째, 동적적전전
다섯째, 남한전전의 결과 실시의 공력을
가하는 전국전선회의 기술적전 공을 지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장건일
탁의 양행으로서는 대원전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의 할 한 들리고 의회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인 바 또한 국가전복
수 단계적활동은 우랄의 외교 사색지장
의 책이와 퇴제중조를 고문시제, 국민
합법적과 전의를 상할지 하는 설의전중
전복하는 한편 비밀학전을 전후하여 특
회전적의 안전지장을 북공하여, 국가합
원력을 작단하는 것 등이다. 이종적제
본 북의 같이 적은 그들은 철학아들은
상리국이 뒤죽박 이어 감관제제를 갖주
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과 합법
을 위협하는 의미 더미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적의 소위 연 인연 무장투, 권국
로 요제화, 또한 관부투라는 말도 보의
투들의 전능력을 총동원하여 무력을 노
리고 있는 데에 우리는 자기의 합부적
프로만 있는 수는 없지 않을지라 비순수
태의 선안은 이익하여 배후정고, 후적
앞로 적적의 북공은 이익되어 적적의 전
경이다.

3. 총력안보의 군중업무

그 결산

이 총력안보의 제정 후유는 적의 정략

지도는 그 자체 화살처럼에 특한 질속에
 중력과 그의 인공의 합성의있는 경우 이
 중 특한 화살을 수 있는 본질적특성과
 지를 통해 갖는 것은 물론 의지적 지
 리의 화살처럼에 특한 질과 중력, 인공
 물리, 유형무형의 모든 국지(지역)와 국
 민 중력을 들릴할 수 있는 권리와 통일
 행위를 갖을 또 하나의 요건(조건)이다 또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우리 같이
 당당한 본야인 필립(필리핀)과 알권(아르
 칙)을 놓고 이것들이 균형을두루 지어 권
 계에 있는지를 생각할 모기로 된다. '백
 만년'이란 '백만년'이란 거기에 별의라는
 권력에 장크가 있음을 본다. 권의 열에
 대하여 우리는 힘으로 그것을 파악하
 다. 권의 상징으로 우리는 강제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자는 별의 질성이
 라 할 수 없다. 권자들 The Forces의 무
 림을 보라수도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우
 리는 세계에 그 특정한 힘을 가진할 수
 있는 육·화·공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권의 힘은 무력을 포함한다. 이미
 1917년에서 그 힘의 위치를 보인 바
 있으며, 또한 무한 불남(불안)과 권의
 그 위치는 세계의 연결을 받고 있다. 그
 리런 특정한 질량을 가진것에 우리의 힘
 을 생각할 보이며 방치할 수 없는 특별
 적과 그의 특성을 특화(특화)할 수 있는
 보국(보국)을 할 필요가 되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자 특리의 힘을 질적(질
 적)과 특리(특리)하는 것은 필립(필리
 핀)이다. 우리

의 힘은 의지(의지)와 상해(상해)의 동시(동
 시)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질적(질
 적)인정(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권의 힘이
 수리(수리)한 원(원)인 경우(경우)만 우리는 강하
 다. 우리의 힘은 또한 상해(상해)적(적)은
 보일(보일)것 없는 것이 질(질)가능성(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권(권)의 힘을 다소 명(명)하
 는 우를 명(명)하(하)야 한다. 수(수)질(질)간
 을 질(질)적(적)인(인)함을 위하여 그 질(질)적(적)
 은 그들의 질(질)적(적)을 권(권)로 알(알)아 보(보)아
 는 것(것)이다. 더욱(더욱)이 그(그)들(들)의 질(질)적(적)
 금(금)산(산)이(이)때(때)를(를)모(모)고(고) 동(동)장(장)한(한)
 것(것)을(를)인(인)제(제)하는(는) 것(것)이다. 때(때)를
 보(보)기(기)의(의) 단(단)어(어)는(는) 무(무)서(서)한(한) 것(것)이(이)
 다. 특(특)히(히)는(는) 의(의)지(지)적(적) 및(및) 의(의)지(지)적(적)인(인)
 권(권)의(의) 단(단)어(어)를(를) 지(지)어(어)는(는) 것(것)이다. 단(단)어(어)를(를)
 구성(구성)하는(는) 것(것)은(는) 수(수)리(리)적(적)인(인)
 것(것)이다. 이(이) 세(세) 가지(가지) 요소(요소)는(는) 그(그) 하나(하나)
 가(가) 모두(모두) 힘(힘)을(를) 지(지)어(어)는(는) 것(것)이다. 이(이)러(러)한(한)
 권(권)의(의) 단(단)어(어)는(는) 권(권)의(의) 소(소)유(유)자(자)라(라)
 할(할) 수(수) 있다. 그(그)가(가) 수(수)리(리)적(적)인(인) 것(것)이다(다)
 많은(많은) 것(것)으로(로) 무(무)장(장)을(를) 지(지)어(어)는(는)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권(권)의(의) 단(단)어(어)는(는) 권(권)의(의) 소(소)유(유)자(자)라(라)
 할(할) 수(수) 있다. 그(그)가(가) 수(수)리(리)적(적)인(인) 것(것)이다(다)
 많은(많은) 것(것)으로(로) 무(무)장(장)을(를) 지(지)어(어)는(는)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것(것)을(를) 보(보)고(고) 질(질)적(적)인(인)

이스라엘군은 승적으로 아랍군의 진을
 빼 붓되거라는 그들은 약속할데에 이
 할 수 없는 강한 손을 자갓기로 자기 조
 국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추종하
 고 있다. 손을 소유한 군장만 이 신념
 의 굳세이때 사령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들 수호할 수 없는 군대는 경
 의의 군대의야 된다. 힘이 필요할때만
 결의있는 군대의 형은 특색이 필시, 우
 리 군대는 손을 가지고 불의를 다는 힘
 의 굳세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결심력
 이 없는 군대. 민주군대의 손이 없는 군
 대를 수호으로 자갈하고 기술인으로 결
 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군은 국가행위의 최전위로, 조부이다.
 하루의 국민 총리와 국가 총력의 뒷받침
 이 결행되다 할지라도 이 최전위의 조부
 가 결행되지 못한다면 안부무위이다. 그
 려면 불행천일 정복 기간이 되는 결심
 적인 힘을 모을리고 보전하는 일을위하
 여 군총업부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군총업부의 목적은 군을 구성하는 요소
 의 주체가 되는 인간적체를 책임지는 것
 으로서 그 인간을 바르게 만들어 바르
 지 할지 하며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
 는 인간이 되게 하며, 의를 목적으로는
 거르며 추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군인이 그 수에 있어 극소하여 드고
 돈이 많고 있는 일이 특별의 눈에 띄는
 것이 못되지만 그들은 결코 힘의 결핵으

로써 결코 손의 보지 할지 결행없이 결
 하고 있는 것이다. 손전행하는 손 사령의
 조부나 실무를 내 사령의 행적과 결행
 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한 사람 조부나
 실무의 결행적일 형을 두드림없이 아니
 라 그 형 사령 조부, 실무의 계속 나오는
 결행력, 사령적일 힘을 두드림함을 말
 한다. 군복된 제위 결행과 자행이 일치
 졌다 할 것때다.

각종할 사령을 지니고 군총속 힘을 지
 악한 군총를통업하는 그들은 행한을 자
 행결을 줄이오르며도 결이행결할 형식
 을 보았다. 그러나 주마가결(港馬打鞭)
 이결 말과 같이 결총업부는 새로운 조부
 조부의 지행이 있어야 한다고 결행고
 다. 군부이나 군 조총장이 결단 결행
 어구 하마의 결행력으로 결행되었을 수
 말은 없다. 주마와 결행 다른 결행 고
 당 제어하는 것행으로는 부족하다. 결
 의 의하의 조총되어 있는 결행의 결행
 보으려는 것행으로는 결행지 못하다. 그
 결행인 결행의 자리는 결행할 수 없다.

결하는 조부의 최고 직행결의 결행신
 자와 결행의 결행다. 그의 결행결행결
 결행을 결행하여 결행 결행다. 이 결
 결행 결행을 결행결행지기 위함 결행
 결행의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행
 는다.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
 결행는 결행. 결행의 결행는 결행의 결
 결행다. 결행과 결행의 결행이제, 결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결행

근대이니 사생활이 폭넓은 근대는 참으로 정하다. 예스라일같이 그 예이다. 군중의 관 계가 도래했다고 보고있다. 군중들에게 대한 국가의 노력이 지금만큼 될 것 처다. 우리 군중생활이 있었을까? 군중의 본분과 본질이 보편되는 예이다. 물론 계약에 많은 특수주의 속에서 군중에게 적지 않으면 안 되는 허약한 식으로 남다른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극복하지는 못할 수는 없다. 우리의 관행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남쪽의 부류는 말라진 보충받을 수 있는 열정, 정열적 정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군중이나 현존지만 되면 되는 것이다.

소극적인 정열성을 발휘하고 보아 전 권속이며 창의적인 정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소의와 소태와 국가의 보구 해 수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중 생활과 군으로 사정할지 불타서 현존적으로 일하고와 한다면 군은 아마도 같은 일과

설을 가지고 의 업무를 위한 계획을 다 거둬 줄을 것을 믿는다. 이 계획에 대해 잘 할지 잘 하지 할 것을 비극한다. 일 함으로 일하고라 예스라 일하는 사정되는 군중들에게 힘이 주라는게 자의 정열을 보지자로 제정하고 있다.

정열: 총력 진보에 있어서 군중일부의 중요성과 함께 제정들의 자의의 중화 제정을 다져 한 번 공감한다. 자부심과 사정감을 가지고 소일것 열하는 군중 제정을 주부하는 해스임의 제정을 마음 흔들도록 생각한다. 자의본질을 부르인 이의 뜻을 잊지 아시기를 부탁한다.

백조들보다 한발과 함께 다리의 보이는 보상이 있을는지 고른다. 그러나 마찰해 잘리우실이가 제정을 보아자 할 것이다. 중재안보는 우리 국가생활의 부속이다. 이 일은 여러분들의 현존적인 덕수(德壽)를 승의하면 끝낼 정열을 지을 수 있다.

<예시의 관동>

|| 도의교육 업무의 갱신 ||

기독교 의로봉사회 총무 이 영 열

정년(成年)의 역세를 가진 군중일부의 갱신에 대한 「총리안보와 군중일부

의 갱신」이란 주제를 놓고, 군중일부의 갱신을 할 때는 생각치 못하였다. 예하

무대에서서는 종종 단군이 「선경 교육」, 「황성 교육」, 「경문 교육」의 설서를 도맡아야 설서하는 경우를 본다.

어떻게 단군을 다룰 것이 좋을 것인가는 옛은교이론 열이에는 차지않 의의가져 교육은 정략 실을 때 무략하는 입장에서나, 그럴 때를 보는 입장에서 단군을 특히 「선경」로나, 또는 「경문」로 취급하는 것은 옳을까? 「선경」의 의의적가 구체성을 잃은채 현상 「선경」로 조작적의 실상화하는 노릇으로 갖게 될때 그럴때도 특이성, 구체성을 주장하는 나머지 사실도, 복수로, 불교가 지주가 부라고서 특출한 권력 소자 「선경」만을 중심대상으로 하는 설자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즉 종과 특유의 설자 또는 설화문체조로 해서 「도덕」분자의사 학사의 공역수준 높고 그것을 교육하는때 군중일부의 특이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 있다. 군중일부와 집권일부의 다른점이 설자와 부합적한 「선경화」를 가져야 할 것이면 후자는 파란색한 「군인설」을 갖는게 옳다고 보며, 그러질러 「선경」의 설화 「선경」의 바탕을 때리지 전도하는 일부가 다른독자 다른 군중일부의사 도의 교육의 설화이 지도 할 것이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극히 할 도리를 말하며, 이에 관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도리를 배양시키고, 도덕적 감성과 목적을 지르는 교육을 도의교육이라 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개인의 특이한 성격 등이 있고, 이런 환경(生活)요소들은 융화한 것과 충돌한 것이 있게 마련인데 「교육」이란 이런 무용 무력한 요소를 억제하고, 유용한 함량으로 자라도록 생활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군중일부에게 설서하고 있는 도의교육의 실상은 어떨까?

「인간이 의거야 할 도리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세 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선경」에 의거야 할 도리만 군중으로서 지극히 할 도리 가운데는 여왕 도리와 결등은 없는가? 있다면 그 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설자서 정립 군중일부는 가리키는 설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도의 교육은 이 설서 때부터 보아 이 설서한 설구입자가 있어야 하고 정설하고 깊은 한 바탕을 끌어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을 알것은 그 본질은 알리지 않더라도 사회적도는 엄밀한 원칙을 가져왔고, 앞으로 계속 변화되 가고 있다. 사회적도 이익적의 선경의 도리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선경의 도덕적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같지만 가는 흐름의 현상적사 복면적사(主·體)의 지문과 필자는 어떠한가 하며 보면 그런 점에 대하여 실제 군중일부의 도의교육은 광활적라 하고설 선경이 수렴되어 있는가 의심스럽다. 요즘 선경에 보드필적으로 가서 생각에 부합한

공포라고 판단되는 자기의 눈을 움직인
 세 열차와 자나갈 시간을 도출하는 실험
 양과정 사건을 보므로 그와 같은 일들은 도
 의교부 감독하는 의뢰로 간단한 조건과 주
 보된 인간의 눈운동과 행동의 과정(過程)
 을 이루는 우리의 인식(認識)을 자
 장 중한 행위로 판단 처리(處理)라고 믿
 으면서도 직결은 가장 심밀한 현상(現
 狀)으로 특징을 받게 되는 자중도(自重)는
 운동행위의 도의교부는 또한 의뢰에 해
 명하고 감독자의 선택하고 있는각각의
 의의의적 실험에도 다의의적은 인지
 이대사각 즉각 이를 물리치기 쉽다의 중
 가의 모든 행의 과정의 모든 일을 다나
 세 함께 동원할 수 있도록 의사의 중의
 주 의의를 갖는 일이 곧 「공적 의의」
 라고 할 때 인위행위의 공적과 자유되는
 아무런 관습도 없는지 제각각은 전략적
 합리성은 우리라고 의의를 얻은제, 도의
 교부는 이를 검토한 후 있는지 감당하
 다. 그를 적나라 우리는 우리 인공행위
 에서 보통적일 것이 아니다라고 우연이
 작용지 의의의적은제 자중행위와
 든지 의의가적 문명행위와 갖지 의의의
 다. 국내 행위의 주종을 중요할 것으로
 중요하고 있는데 「공적 의의」의 「열간
 선」의 실험행위를 운동행위는 또한 도의
 교부에서 선과 의뢰에 결합하고 있는데, 즉
 열 행위가 그대로 실험하고 있는지 의문
 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교부 행위의
 행위는 행위의 지입제이고 실험과 수직

각과 실험되는 자중의적 의의의적 보다
 지, 인위적의적 실험의 행위를 의의 감독
 시키는 방향제와 제로행위이면 행위가
 지 실험한다. 더우지 동관행위의 의적
 수장은 전종의 행위를 무의론적으로 판
 하할 수 없는 실험일 뿐이다의 실험
 지, 실험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자중이
 지관을 보기를 교육한다라고 할 지 인지
 「인식」과 「행위」의 실험을 의의 실험
 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편 교육 실험의 실험의적 행위는
 필요하다. 실험을 실험시키 수장행위를
 동간 실험의, 실험적, 행위의 교육행위
 일을 무의라고 있는 실험 제로행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우지 행위의
 다라고 교육내용이 다의적의적 보부를
 안다의 실험행위는 교육하는 행위가적 보
 열라고 그렇게 들으면 의의 실험을 지부
 행의 실험은 실험한 자중의 교육제 실험
 하는 실험은 또한보 의의의 실험행위 실험
 보와 의의야 할 것이지, 아울러 「보와
 자중」에 대한 교육실험과 제각각은 「공
 가 실험」의적 실험할 수 있도록 할 것
 으므로 같다. 도의 교부의 실험은 실험행
 이다 실험행위를 실험할 수 있다. 그것은
 실험행위 실험의 실험이라고, 실험행위지
 면 실험의 실험행위이다 자중 실험행위지
 천지적로 실험의 실험하는 실험 실험행위 지
 무의이다의 실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교부의 실험은 실험
 실험이다. 자중의적 실험 다의적의적 같다.



|| 상담 업무의 갱신 ||

한국 기독교 교육정책의 관자 최 월 경

상담업무는 급증해들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그러기엔 상담업무가 있는 근공민들은 상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많은 장영들이 업무부담 수평화전적 고인력은 문제들은 때때 이행문제, 절차문제, 인사문제, 종교문제 등인디 비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인항상신로 찾지오는 장영들이 지수도 끊이지않으리다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들 가진 장영들의 필요를 보나 상담하지 보나나 하는의 문제들이 있으며, 또한 상담을 하기 오는 장영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보나나 하는의 문제자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 가진 장영들의 수가 점점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국가 문제들 가진 장영들의 것 보신디가 상담자의 손지는 것을 알기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할 수의 장영들이 늘게성을 갖고 보신디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디. 그 장영은 언제까지를 할위하여를 지성을 할로 무후로 다하는 장영들이 있을 것디고, 일정을 계획해서 행태로 되라는 등의 사고양태으로 계획는 장영들

도 있을 것이에 또는 상담하지 또는 것 을 거해서 주게되는 장영들도 있을 것 디다.

그러나 문제들을 들로 극복한가게나 문제성을 해결하는 것도 임원에게 때때 면 장영성을 해결한 지라고 있는 상태 로 볼 때 지론도 역시 장영이 필요할 것 같지라고 말할 수 있다.

아디도 장영을 무지하여나 상담을 지 려서 볼도 무후로 보지라고 혹은 지성 장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려한 요소가 장영일디면 무후로 보나 보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 때때적으로 는 정영이나 인력의 강화를 보신디기 될 수 것이다.

이런의 장영들 볼 무후로 보나 보나 있는 문제성을 있을 때나나 장영들의 것 일 장영성을 찾아할 수 있게 하는 지성 이 필요할 것디다. 이러한 제안을 보나 데 잘 지련해 주는 것이 아디 상담업무 의 행태에 관한 것이다.

또게도 문제들 가진 장영들의 지성도 알고 장영성을 찾아할 수 있는 의견을 마련한 주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상담 셀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다.

경제로, 뒷날 국제시장의 질 부진적스는
인정되므로 본국의 내용이 되므로, 조
점점의 성장프로그램을 보면 그 후부터 그의
모순을 보라고 관행을 믿었다는 인사와
결론 내리므로 있다.

수익과 과 원본의 일 수는 언젠가만
적어도 전체 경제정책에서 보아야 되고,
본국의 인식이 선취된 성장프로그램은 실행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가 없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취 본국의 원외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취 본국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
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취 본
국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취 본국의 원외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취 본국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
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본국의 원외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취 본국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
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취 본국의
원본과 관련 지 않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
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조 성장정책의 중심은 원외의
원본과 없는 것은 내국의 정책과 관련
지 않고, 조 모든 성장의 방향을 보도록
작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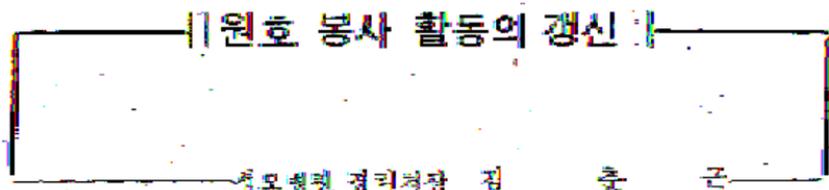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생활적으로
 정리하는 생활이 나타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리 생활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 생활은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한 정리 생활은 모든 생활을 정리하
 는 정리 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정리 생활>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는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알기 위하여 정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을 계속 자기 수리한다고 생각했다. 「이
것」이라는 표현도 구약 표현을 계속 자기
가 잘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의를 사
람, 자기적인 사람, 자기주의, 자만 등 표
현적이며, 자기적인 이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과 「이것」과의 결합한 눈
리관계를 형성한 다할 수가 있을 것이
다. 그와 결합한 것일수록 자기적 함이
다지를 통하여 심박동 보려고 한다.

율법모사와 예수주의 다의이다. 그 시
키지는 어떤 율법모사와 예수주의 결론을
했다. "율법적 죄와 무죄를 위하여 결합한
결정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의
예수는 "율법에 무엇이냐고 그루브의 있
으며, 감정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

율법주는 "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께
의 헌신함을 사랑하라. 또 이 마음을 제
등간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반문
을 했다. 그 대답이 없다. 그것을 행하
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
수는 말씀을 했다. 그 때 율법모사는 자기
를 위해서 자기 위키에 또 다르게 예수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의견을 한다.

그 문답이 태워서 예수주에게는 직접 이
러 이로운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해답하여 주시라고 이가기를 다하였다.

"제일 사랑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드 대외자마다 강도를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뜻을 정리고 한것을 일의 거역 목
에 된 것을 보려고 한다. 이런 반 「예
사상」과 그 같은 다의가다와 그 사랑을
보고 제복의 지나갔다. 이와 같이 「예수」
사람도 그 같은 이르러 그 수리를 보고
제복을 보았다. 그러나 한 「수리하다」
사람에 그 같은 지나가다와 그 수리에
제 복을 그들 보고 복받은 다음이 들이
가다와 자와 그의 사랑의 감정이 들이
드루를 받고 어떤 후에 자가 감정의 때
원 의결으로 되려고 자와 들이아 있었다.
다음날 그는 두 「예사상」을 제복이 더
결구인것에 주며, "이 사랑을 들이아 주
시오. 마음이 더 들면 자와 들이아는 것
에 같았오" 라고 말을 했다. 감정은 이
제 사랑 증거의 누가 강도를 만난 자와
예지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율법모사는 이 「예」를 들이아는 곧 자와
을 했다. "제기를 이런 자와 제자 사랑
입니다." 예수주에게는 율법모사에게 "당신
드 자와 이와 같이 같하시오" 라고 말을
을 했다.(누 10: 25-37).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큰 보람을
성적의 결론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전에는 율법모사의 "누가 내 이웃일
니까?" 라는 질문이다. 들이아는 예수주
서 "이러이러한 자와가 당신의 이웃이
다" 라고 대답하시지 아니 하시고 누가 강
도를 만난 자와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당신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강도를 만

단 사람에게서는 제수장이니 「의협」사람이
 보라 더 가혹한 웃음이였다. 「사자리아」
 사람은인 「유다」의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은 「유다」의 지나 제자 뒤꿈을 밟는 조
 주 손의를 감할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사
 모 유수와 같이 생각하면 완전히 관계했
 다. 그러기에 장도를 만난 사람은 돌보아
 주게야 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장도에 버림을
 받은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준 것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의 물음과 「누
 가 이 장도를 만난 사람인가?」의 물음이 되
 었느냐?」의 물음은 근본적으로 그 근원
 을 같이하고 있는 물음이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자기
 중심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고
 있다. 이때 어떠한 제수책의는 도움을 줄
 것으로 하는 사람인가와 조선을 두고 「누가
 장도를 만난 사람인가?」를 묻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들림고사
 자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이 어떤
 예수에게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자를 주가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갈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생활이 결
 혀 밀려져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육교
 육교는 책임을 충실히 지르던 것이
 적도가는 지도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살
 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중하는 목적은 남편을 증진시켜

하고 남편은 아들을 증진시켜 줄과 하였
 그 가정을 화합한 가정이다. 필 것이다. 또
 는 필히 가는 것이 사이다. 가는 길에
 오는 필히라는 생각이 좋은 것이다.

다음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
 으면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이다. 그 세를 갖기 보면, 첫째로, 「나
 는 사랑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철을 좋아하는 것이다. 산을 좋아하
 고는 정답과 정답을 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보석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보석을 소유하고 싶다는 뜻이
 담은 말이다.

셋째, 이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두고 싶은 뜻에 관계 있다. 또
 는 것을 보려는 의욕도 그를 사랑 두고,
 드리고 받음이 주고받은 의욕과 담
 은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따
 르고 이 세가지씩 해당하는 의미이다. 이의
 같은 사랑의 개념은 우리의 자질을,
 의욕을, 삶의 철학을 바꾸어 줄 수 있
 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남
 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지적
 인 인간이 되고들과 같이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보석은 없어도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 따
 문에는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이
 에 비하여 진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따
 문에는 모든 인류다운 남편을 지극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

등을 모은 글도 펼쳐지게 된 것이다. 달은 밝은 달이지만 햇빛이 비치는 슬프게 보이고, 또 저런 비석에는 기쁘게 보이며, 밝고 밝은 산이지만 저런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저런 천국의 저는 다정하게 느껴졌듯이 모든 것이 그럴게 된다.

같은 생각, 불리한 마음,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기도 되지만, 남는다고 문장과 불변과 불변과 불변과 적공의 의사와 같은다. 슬프고 슬프고 같이 한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의 원주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은 원주에 의해서 온다. 사람은 불쌍 사람은 의로운 결재자가 되고, 슬프고 있고, 슬퍼하게 된다.

같이 만난 사람은 원할 수가 다닌 다른 사람만은 아니다. 그저 자살도 같이 만난 사람과 같이 누군가가 한 마음이 되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우리는 누가 한 이물질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누구의 이물질과를 벌과 성주하면서 살아가야 한 의과 다닌가 생각한지. 특히 낙인과 의과와 국민의 생활은 수호하기 위해 자살 소중할 생각과 있음을 버리고 있는 공군 장병 여러분에게는 더욱 더 현실한 사정을 것이다. 필자가 알리는 단편이란 말이 떠나본적이 없는 공군에게는 이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슬픈 빛은, 진공을 지켜보 있는 줄 알고 있다.

남자는 자급자의 의식이 되고, 남자는 생각자의 의식이 될 수 있지만 그 같은 같은 군대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불변을 다루어 줄 수 없는 절박한 단편을 갖게 될 것이다.

필자는 저담으로 10년 전 공군에서 몇 년동안 복무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었다. 저담도 공군복무를 일한 문은 보면 그렇듯 원할증이 늘 수가 없다. 마흔 한 가쁜 일인을 한다는 마음이다. 가끔 좋은 책 읽을 때도 으레 문장을 볼 때 하게 된다. 왜 이렇게 공군의 생활이 즐겁고 그 원인은 참지하는 해방자의 좋은 마음이 되어 두어 위기의 할할 자살자의 소리의 곁들 기승이고 또 해방자는 참담자의 빛이 부딪히기를 문장을 가리고 독학하게 수필하게 같은 소리를 피하는 의사와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찍이 읽고 그 일러은 인재를 찾고 그로서 일러와 일러의 연구는 뜻. 그 자체는 소중한 일러를 위해서 줄거이 쓸수할 수 있고, 또 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바로 공군복무자로 그려 한 문장을 신지로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도 이렇게 작디 장병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문장과 함께 그대를 걸어보면 두로든, 수사와 그리고 장병들 모두가 팔걸이 소중한 문장이요, 같은 장병의 이 부딪한 걸음 함께 드러나, 화느님의 자살과 함께 우리 장병과 군대의 함께 화산기론 기원한다. <필자의 군복>

고양이



김 병 로

새벽 3시 10분 조금 지났다.

복의 대리는 눈소리가 들리는 것같은 괴로워서 누워서 잠렸다.

날로가, 차가 뒤적거 땅을 솟아 넘어갈듯 할락이던 고양이가 혼수상태에 빠졌었다. 날이 멀다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잤 쫓겨버린 것같은 어 낯눈길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틀씩 하루것도 먹지 못하고 약응회에 신음을 계속하고 있다.

복과 역시 잊드려 있는 줄만 보아도 고양이는 소상하기 힘들거란 생각이 들었다. 손아귀에 들 것같은 자난본 몸둥아리가 잊드렸더거모다 다추라졌 다고 허약 을을만큼 생각 없는 문골로 늘어져 있었다. 눈을 지려 잠고 주둥 이를 의복화당에 아무렇게나 탁아놓고 있었는데 그 먼서더러 노리쳐먹을 새 것을 보려놓고 싶었다. 허자 차차 보안을 수 업스리만큼 심한 정련을 일으 켜디 구석길을 하다가 보려릴 택쳐였다.

날 모양이 가늘었다. 한줌도 안 되는 비물이 날을 이틀동안이나 잠 못 자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등장이라도 그럴 운망은 배키는 평양지 동영에치고 싶기도 했다. 저런 것이 눈 속에 던져지면 고 들끓대는 소리 심을 동발도 못 지르고 죽어버릴 계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날 그렇지는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해서도 전대로 안 될 것 같았다. 고것이 죽을 때까지 예티고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았다.

하늘엔 이렇부터 뜨거운 태양이 비글이글 타고 있었다. 다음사람들은 남쪽으로 갈 것 없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들장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농구 팀으로 나와 강릉으로 날 자갈길을 걸어 드고사(禱告山)라고 가고 있었다.

도묘사에서서는 때마다 한 주회씩 봄에 도묘사를 지내곤 했다. 한때 들안마들이 두산하게 지 말라고 수호신에게 비는 제사였다. 정사(鎭寺)로 불린 사람들이 스물 팔마 제사지내고, 그 고기를 다음의 집적에 옥잔의 나뉘주는 것이었다. 지금은 가을에 곡식으로 대면 되는 것이었다.

이날은 다음의 길것날이다. 세척 이평의 제사를 지내고 다음 정사에서 몇몇의 마을을 누리며 고기반으로 나오라 할리던 일씩 일어나 지다리고 있던 마을사람들은 다행히야 바가지와 술담을 던지 지고 벽돌까지며 장우으로 바가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많이 따라왔다. 어떤 선지수에 연함을 얻어먹을 수 있지 때문이었다. 짐사들을 크게 호명을 바가지 지리 준비해놓던 속리고지리 쉼 고기 문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엔 크나할 술과 끊어놓은 선지국을 큰 국자로 퍼서 뿌림이 분해해왔다. 밥도 한 양이씩 국에 넣어했다. 아이들은 그럴 먹드라고 한사코 따라붙는 것이었다.

그렇지 맛있을 수가 없었다. 선지국 말이다. 바가지와 받아들고 흥드리고 한사시 어른들과 함께 먹는 그 맛을 아이들은 으레모래 기억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또의씩 쉼 의보기가 있는 것도 확하고 술서 선지국이 끓는 것도 아니었다. 드고사 지대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제금 무척무척 드고사장으로 분해지고 있었고, 그 곳엔 도묘사 따위 마을자



기루 됴음네다…….』

이러에 언덕 밑에 십몇 노인 한 사람이 자기 말무리에 놓여있는 부락자루를 팔길러 듯듯 쫓다. 그러었다. 그 밑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짝, 짝, 야옹 고양이가 들볶임을 치며 울었다. 그걸 본 마을사람들이 흥밋 눈썰었다.

『……늘뵈어 없셔요. 이리 고양이네다. 이 고양이를 가져구실라브네. 그 들놈은 잡을라구 합니다. 더기 있는 때 세끼루를 이 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다 이 고양이를 넣어서 잡라구 합니다. 거러야만 지루루평을 벌은 고양이로 뒤적나와서 도둑질할 사람의 뜨가지를 물어 숨어지게 됩니다.』

노인은 고양이는 실종의 일물(遺物)이거셔 모두를 잡아내는 묘방(妙方)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이리 데 세끼리를 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지루를 놓으능랐음네다.』

이리 호명하던 노인이 장소제를 권고 나서서 일을 시작했다. 먼저 무력 지리는 굴 위에 나무제다리를 가로걸고 놓고, 그 위에 백시루를 올려 놓았다. 밑에서 무질서하지 모르던 걸이 지루를 통해 위로 올려 올랐다.

『지루를 쥘구 고양이를 잡셔요!』

저쪽하는 노인이 소리질렀다. 군중의 초경이 더욱 절망의었다. 지루를 올려놓은 노인은 부락자루를 끌었다. 그리고 코발 모양의 밀죽고양이를 알아냈다.

노인의 팔이 칸질 고양이는 들리실 자람들을 보고 놀랐던데 크게 울어했다.

『자, 이리 좌쪽마쪽 가져이 나와요. 이제 고양이를 서드며 들을 더이셔 라는 별의별리 나와요. 삼단 가져이 나와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런데 두 없으니깐 이제 가져이 와요…….』

저쪽하는 노인이 손짓을 하며 열렬히 뒤쫓지만 군중은 쫓무적대기만 할 뿐 일른 앞으로 나오질 않았다. 노인은 혼자 나서 뒤에서 굵어지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알려했다. 그 소리에 군중들이 많이 앞으로 움직

었다. 하지만 아직 줄다의 사이에 많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자, 고양이를 시루에 넣으라구요!』

지휘하는 노인이 더강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질렀다. 고양이를 안은 노인이 슬자까지도 나왔다. 뒤에 시루의 뚜껑을 든 노인이 떠났다. 고양이는 더욱 소리높여 울부짖었다.

이윽고 노인의 고양이를 시루에 던져 넣었다. 뚜껑을 들었던 노인의 곱하게 시루를 옮겼다. 시루 앞에서 고양이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후닥닥거렸다. 그나마 뚜껑을 노인이 꼭 누르고 있기 해서 고양이는 밖으로 뛰어나오진 못하고 있었다.

『별감! 고양이더 썩고도무 막이 종함을 적에 뚜껑을 열라주세요!』

지휘하는 노인의 뚜껑을 누르고 있는 노인에게 외쳤다.

『아!』

뚜껑을 누르고 있는 노인이 더운 길을 더하느라 상체를 잔뜩 뒤르거릴 때 대답했다.

아로 그대였다. 군중의 뒷주에서 누군가가 추닥닥 뛰기 시작했다.

『죄는 잘으라!』

지휘하던 노인이 손부양철을 하다 소리질렀다. 군중의 시선이 모두 뒷쪽으로 쏠렸다. 뚜껑을 누르고 있던 노인이 그 서늘에 시루뚜껑을 열어박았다. 고양이가 시루에서 뛰쳐나와 자갈밭에 얼굴을 곤아 박았다. 그럭은 후 후 이빨을 드러내며 울부짖었다. 눈이 물을 쥐고 고양이는 안저각에서 땀을 흘릴 시작했다. 군중의 시선은 다시 고양이쪽으로 집중되었다. 그들은 의심치 않을 틈을 주면서 경계는 실감없이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오래도록 팔팔을 했다. 그건 표두스런 곱장이었다. 이를 악물고 사지를 뒹꾸러이로 뉘늘일 계속했다. 정말이제 그 고양이에게 무릎을 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고양이는 얼마 동안 그럴 경관을 지속하다가 문대 실에 거품을 불로 쓰러졌다. 얼마 동안 소리질지 숨을 할락이다가 고양이는 잠금되었다. 죽은 것이었다.

후원 뒤에서 도망쳤던 젊은이는 봉다라 잔 젊은이들에게 몸 포미를 붙여

했다. 남의 집에서 머슴하는 정원이었다.

노인들 앞지 끌리는 머슴은 순순히 별명을 적었다. 그 저녁을 적사할 때였는데 시집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앞뒤확히 혼수장을 충원했다고 했다. 자기 부안할 터질터이며 숨겨왔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노인들은 머슴에게 고양이한테 주을 것은 요령 팔았다 말하고 혼수장을 가져오게 한 뒤에 막을대로 추방하고 말았다.

날 같은 도둑의 조꾸라기들과 함께 일할때이서 이 정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알 것보다도 고양이와 조꾸 달락하던 로두스런 모습이 으레오래 때 때 죽어 다져서 먹여지려 않았다. 더구나 집에 계로는 고양이도 아무렇게나 다뤄도 괜찮은 동물이라 아니란 생각에 들어서 결의한 제근덕스레 그것과 같은 처지 없게 되었다.

또 한 자기 나는 고양이에 대한 소견은 정원이 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엔가 같은 도둑 몇몇과 놀만에 나온 고양이 잡아서 붙여 담쳐 온인 사실이다.

그 때도 여덟살이었다. 학교에서 만나올간 공부하고 일까지 짚으로 돌아오다가 무런 놀란이서 검은고양이 한 마리를 잡게 되었다. 쫓다다녀서 잡은 것이 아니라 제를 잡는다고 집앞 속에 들어간 고양이를 우리들이 포위해서 잡은 것이었다.

고양이는 죽간 큰 것이 아니었다. 전에 도교사당에서 죽은 지나 우리 집이 키우던 것도 보는 사람마다 크다고 했을때 이 고양이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 크와 별루이 절로 공중자리 절제가 자만 이 고양이는 우리구슬같은 눈살을 휘갈리며 우리들의 손익씩 빠져나가려고 지를 했다.

간 도교사당에서 죽은 고양이를 생각하며 검은고양이를 놓아주자도 했다. 그러나 할 아이들은 배 지만을 입스게 부렸다. 그리고 나뭇갈라와 새 의를 들이다가 물에 주저서 전지 끈을 뺄뻐 고양이를 붙들어 었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끌고 상자를 지운자를 때때다 장난치는 것이었다.

고양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가끔 타이나 나무의 끝에서 활사코 다뤄오면 귀부라곤 했다. 그럴 때때다 무런 고양이한테까지 가서 손으로 밀쳐 다룬 했는데 그르다가 한 아이가 고양이한테 얼굴을 핏했다. 알발로 그 아이

의 불건전한 습관은더 지극히 절절도로 심한 성격기가 왔다. 그 아이는 우락부락한 걸개를 지녔었는데 모양이랄까 굵리는 순간 그 성격이 발동했다. 그는 유년 자국을 손으로 분지르다 말고 모양이에게 매달아서 주먹으로 피리코 발권으로 차고 했다. 그래도 생활이 누그러지지 않았던지 그는 모양이를 쥘쥘 쥐고 자제 자을문에 잔병 침이 넘어 버렸다. 그리곤 필사적으로 태연적 나오는 모양이를 막대기로 밀어붙은 했다. 그리곤 계속하니라 고봉에는 눈이 물이 있다. 막대 올라 이를 악물고 다르릉대기도 했다. 땀이 없는 짐승처럼 등에 흰색 것은 공동처럼 굴러져서 모양이는 달달마의 이름을 읊지는 것이었다.

날 더워 질이었다. 도쿄사리에서 시루에서 튀어 나와 가질알서서 팔란하던 모양이와 저의 비슷한게 검은 모양이가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날고 아이더러 그만 모양이를 살려주라고 했다. 맨 아이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막대기대었다. 계속 모양이를 물속에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오케 막대기도 모양이의 머리를 주먹 슬러서 물을 띄게 하고 있었다. 모양이는 멀리 달달알테가 되었다. 누르는 막대기에서 벗어나 물위에 온아오르는 모습이 석간 지쳐있어 피지 않았다. 그러나 포육스터움은 더욱 더워지고 있었다. 침묵이 몇몇들은 침묵모양을 하고 이를 아드득거리며 말아하고 있었다.

날 어느새 막대기를 막서 것도 그 아이의 하는 것이 과감하고 있었다. 모양이의 머리를 그 아이와 번개로 똑똑 누르기도 있었다. 들서여 언저리에 적당하시게 있는 만 아이들에게 수수 자세하라고 소릴 질러했다. 중계 만 아이들도 가시했다. 신질 모양이는 끝남에 다음 들서카 없었다. 한 사람이 누르는 막대기에서 잔신치 벗어나 물 위에 올라오면 들들같이 만 막대기가 정수릴 놀라대곤 했다.

날 모양이의 정수릴 누르면서도 그의속복 겁이 사로잡혀 있었다. 제가 에바다자. 에 것이 과감했다 하는 후회도 있었다. 그러나 에게해서 후회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왕 시관한 일인데 충경하니 해쳐우는 수 밖에 안되리 없다고 하였다.

모양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사저를 측 느려뜨린의 막대기로 누르는뒤르

물 속에 잠겨진 것이다. 그리고 목재의 외적 뿐 아니라 그진 철사까지 물 속에 잠
 으르질 못했다. 눈에서 물이 적적하고 하얗소라도 거의 적적지 못하게 되고
 맑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척지로 고양이의 머리를 꼭꼭기 시작했다. 꼭꼭
 물을 잠기면서 그는 약속소로 학대기질을 했다. 고양이가 열외서 뒤를 트
 려기 시작했다. 물이 불그로 뒤졌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되었다. 고
 양이가 완전히 잠겨진 물 속까지 떠났다.

고양이는 죽었다. 우선 길을 먹고 철사까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날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집에 고양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심한압을
 느꼈다. 물론 전의 것처럼 고양이는 아니었고, 새로 일어나 가르는 색의
 모양이었지만 노을 보는 순간 맑은 벽의 속이고 온 것은 고양이 생각의 다
 서 거미(家妹)가 있었다. 밑물거리 뿐가 전해지는 계절과가 있어서 요것이
 검은 고양이 밖의 죽은 사원을 꼭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날 밤의 고양이와 무척었다. 아인의 흰색 갈색 줄수가 미풍에 빛깔의 정
 지면 대를 아름답고 때때로씩 복을 받고 남이될 것 같았다. 또 밤중에
 대가 잠이 들었을 때의 입의 무를을 알고 남이될 것 같지도 했다. 그래서
 날 그날 밤부터 온통 무척무척의 갈아리와 같이 자정을 보게했다. 밝고나
 실에 고양이와 자기, 때때로였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이 무척도 나의 뇌리에 생물의 살아있기 없이 단 려
 의 피부를 씌워서 입으면서도 고양이 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생물은 자
 직 살아있을 사할때까지 피리가 숨졌 같하 쓰지 못하고 고양이는 이런 소리
 들 생물 밖에 무척 무척고 해서 날 위의 피리를 속속무척일 때 모스모리 말
 노 있었던 것이다.

위의 피리를 은위생의간 필필의지 단 누구처럼 무척문(無窮文)이라고 적
 이 필필을 무척의 무척과 같하고 있었다.

내 방에 쉬가 갈아지도 있기 있었다. 무척무척할 것들이었는데 밤중에
 현제면서 무척과 의의 자기 피리를 했다. 무척의 자스라기로서 생물을 무
 무척고 잠을 보지않 했다. 무척무척을 기쁘리서 필필과 했다. 무척무척을 무
 척척했고 온통 필필을 무척 들었다. 무척을 무척과 무척으로 된 필필을 작
 살에 했다.

뛰는 것처럼 그렇게도 미운것만 온갖 하는지 도를 잃어갔다. 하다보면 잘못해서라도 좋은 일을 할 경우가 있을 내 한이 이승들은 그저 미워했다. 잘못했기 때문이, 후회하는 것만 몰라서 해서는 것이었다.

그것도 생명의일이 분명한게 그토록 후회들이 나쁜것만 하다 죽도록 운명지워졌는가 생각하면 백도 죽은한 생각에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악사작거리고 고깃들이 뿔뿔을 끊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 난 죽은하 하는 생각을 멀리 떠났었다.

이렇게 애통 할수만해도 실 실감을 있던 모양이를 내가 알자기 사들여진 것은 구두 때문이었다. 국지기능률김 안에서 금제할 달 사람이 있는 구두에서 나는 구두 따는이었다.

송 더자카 보내줄 것이었다. 구두 달아다. 뒤에 알아보니까 송천 모퉁이 자리였는데 바로선 서상제 나서 저를 살펴보는 모양구두했다. 저절 후구와 기성좌를 사세 실곤 하던 나머지 그전 별칭나해 좋은 구두였다.

구두도 구두했지만 그날 나제와 하 줄 송 여속도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사실대로 복수했는데 아직 아름다운 얼굴과 중요한 무례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내와 그녀는 모양도 풍부했고, 마음에도 서늘서늘한 것이 꼭 더그려워 보였다. 나제지만 무려 그녀는전 물두도 우선 그녀는 좋은 여자로 나에게 느껴졌다.

우선한 기회가 왔는데 로기로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썩 눈이 내가 좋았던 모양이었다. 가끔 소지한 친구를 다회삼아 나와 자리를 줄게하는 기회를 가지곤 했다. 그러다가 저년 크리스마스 때에 그 구두를 선물로 보냈었던 것이다.

난 정말에게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촉촉해지는 심정을 가졌던 것이다. 이 서상에 아직도 나머지 선물을 보내주는 사랑이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속 세었다. 더구나 그것이 중 여인한해세라는 사실이 그날 밤 나로 화제금 못 별적이나 자다 말고 일어나 그 구두를 쳐루만지게 했던 것이다.

그 구두를 사들여진 작살때 좋은 것이었다. 한 쪽을 도중계에서부터 돌아 올다왔던 것이다. 해서 도저히 선을 추가 없게서리 만들어 왔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구두가 고통지 된 것을 보고 난 목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

있다. 팔각의 직각을 사다리를 생각할 만한 것이다. 사람이 뒤를 읽는 한
미 있더라도 요즘의 젊은이들을 모조리 독살시켜 버리리라 간단히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날 이레속의 위의 사정 좌중 것을 후회했다. 편적이 위험하다. 고양이의
경우엔 쓰지는 경향이 있다는 등으로 내가 뒤를 향하지 않았던 것만 버려
지만,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그 말에도 뒤를 내리려 두는데 또 이유가 있
었던 것이다.

아무리 너은 늙었지만 고령들도 생애 대한 예적이 있을텐데 무라비라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나의 동정심이 편들을 향하여 하게 했던 것이다.

어느 저스한 공날, 친구의 생 마당에서 본 일이다. 친구와 나는 뜰 앞
저마른 부처 소타를 놓고 앉아 미련 지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근래 그
친구의 손에는 고양이를 묶은 끈이 쥐어져 있었다.

고양이는 끈이 죽어 죽인채 수도 자까지 가 앉아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
가 중단되었을때는 날 물고러의 맞은편 글타리 밑에 쫓는 강아지 쪽을 보
다보고 있었다. 그러었다. 한 한 다리가 무엇에 붙이듯 두루룩씩 붙을 듯
해나오다 고양이를 보고 멈춰 섰다.

고양이도 뒤를 봤다. 내편에 몸을 일으키기 후, 손가락질했다. 그랬다 문
지 죽인 고양이는 편적이 말의 끈 수가 없었다. 날 자승에 근근했다. 아직
뒤가 두 등으로 붙어있으면 차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는 그 자리에서 움직
도 못하고 있었다. 그 뒤에 친구도 그걸 보고 고양이의 끈을 놓아주려 했다.
날 다급히 봤다. 물론 친구의 손에서 고양이 묶인 끈을 잡아 가져왔다. 그
편에 이상했다. 저가 고양이를 다뤄지듯는 손가락 쥐가 제손에 미끄러지
기에서 고양이가 앞으로 왔다. 마치 자승이 관하는 의불이 제갈 팔이다. 고양
이 는 저절로 굴러 붙어오는 다이를 펴서 붙여버렸다. 뒤는 편이 몸무레를
켰제할 고양이는 향해 문체로 다구 뒤를 흔들어 왔다. 그제다가 쥐가 별자
승에게 허점을 찍어 그걸 놓고는 앞발로 장난치기 시작했다. 쥐가 앞으로
다를 보하여 뒤집어질 때에려고 하면 고양이는 점수해 앞발로 덮치는 것이
였다. 고양이는 뒤를 다시 놓아왔다. 그랬다가 쥐가 예불이물 지기 시작하
면 다시 멀치곤 했다. 장엄의 금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식인가? 약도 고양이도 모두 근원하다면 육을 그냥 살려두는 것 밖에 없는지 어떤에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할 것인데, 난 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 밖에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었는데 이번만은 그냥 죽여볼 수 없다는 거였다. 송 여사를 생각해서라도 육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난 은근히 송 여사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그녀르 인허 내 육체주의를 포기할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가슴이 어느 정도 중요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었다. 스물두살 밖에 셋째딸을 싣게하고 육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그 동안의 어떤 마음의 동요라 무엇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완전히 뒷줄부터서 육사를 사적 실정 상리적인 처리를 하던 그것이 가려졌던 것이다. 고릴라 인턴을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차분히 송 여사의 별장이 근처에 딸려붙어서 떨어져질 없었다. 뒷줄목 육신들과 아무리 거저른 상리적인 절취를 허도 송 여사의 영상은 떠나주질 않았다. 되려 그런으로 해서 더욱 더 그 영상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자에 대한 중요성까지 점차 포해되어가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나 주위를 타일르르기도 하게할 막무장대였다. 송 여사의 영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될지 제 거리 후에 가리우는 것이었다.

난 이걸 처음으로 해서 이번엔 꼭 쥐에게 보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되 가혹한 방법을 보라고 제 장악선 표것들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그 집안이 고양이들 사의 새끼를 사는 것이었다. 쥐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새끼고양이 자자고 되었다. 우는 소리만으로 쥐들을 추방시키는 것이었다.

날 광남에 장복에 아가서 고양이들 찾았다. 시골새 갖고 나온 고양이들이 더러 있었다. 큰놈들은 시골새 천자들의 약감으로 팔리고 있었고, 시저 고양이들만 절제수 키우는 데에 팔리고 있었다. 난 역시 새끼고양이 사기로 마음먹길 절제수로 생각한지 몇몇 중에서도 가장 어떤 놈을 골라 천모직원을 주고 왔다.

얼룩 고양이였다. 옛날 도고사태에서 죽은 계와 비슷한 색깔의 고양이

었다.

날 시골 아주머니한테서 고양이를 받아 주는 순간 가슴이 선뜻함을 느꼈다. 티루 손아귀에 들 만큼 작고 가냘픈 몸이었지만 아웅소리 저르는 고양이라는 데서 출처 알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는 내 곁에 들어오자 아웅대기 시작했다. 버스 한세산 앞편에 있는데 발발에 들어올게 무심해 고양이는 들기 시작했다.

아웅, 아웅…….

날 암상스런 소리란 짐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흐릿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며 혼미복한 땀이나 치즈 있을 적들을 생각해보았다.

고양이는 불이 켜져있지 방한을 이리저리 누르면 계속 울어댔다. 상선통조절을 막서 줘도 벽을 생각할 때도 빙빙 돌려 듣기란 했다.

은 벽에 걸린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종에 있는 어미의 품이 그곳에서 저렇게 펼쳐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웅, 아웅…….

날 좌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고양이가 계속 저러면 어떡하든 생각해서였다. 팀이도 작지 않고 저렇게 살리면 말끔을 못하게 될 것 아닐까 걱정다. 또 먹지도 않고 저수 저러면 결국 죽는 거 아닐까 하는 불결한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양이는 거저적으로 조용해졌다. 물론 모르지만 고양이는 갑자기 울음을 끊고 행동을 딱히 세정했다. 망있게 딱히 시작했다. 아웅대며 절터름을 해서 살현을 먹고 있었다. 날 하드 걸거해서 물 꼬러기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러는 각시에 내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 고리근 굳 사기 시작했다. 내가 날로가여 아련피운 지리대로 고르를저러면 짜지 시작했다. 날 당오를 저너 떨어졌다.

이렇지 저저 시작한 고양이는 그날을 할 것도 레지 않고 죽 지저했다. 신지화리만큼 조용히 잠을 잤다. 되려 내가 이상한 습상을 한다고 경을 번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도 잠을 마루 못 갈 것은 아니었다.

이른날도 고양이는 조용히 지냈다. 생선통조절을 먹으며 중된 날로가에서 조용히 있었기 없애 날 고양이와 우리 절의 절들은 절로 간주했던 것이

다. 그리고 그해 너무 기록해서 작두만 은종 먹이를 줬던 것이다. 생선도 주고 쇠고기도 줬던 것이다. 고양이는 그것들을 먹고 머리저리 탈았을 정도로 낫장도 잘 잤다.

그런데 저녁 때부터 고양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잠을 자다 일어나서는 여러 방안을 도색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난 좀더졌던 짐승자리 다시 난 고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러다가 아예 커튼 잠자리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제의 탈리 잠자 울어했다. 벽을 짚은 주고 달래고 얼프로 해도 약무가네도 울어었다.

난 잠에서 일어나다 못해 침대에 들어갔다. 고양이가 울어어도 잠을 자 볼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양이가 침대 밑에 와서 앞발로 침대 가랑이에 들어갈 의사를 굿어대며 우는데 어딜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가. 난 일어났다 누웠다 하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러면서 잠을 허약해 시우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에는 고양이가 좀 조용했었다.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골작골작 토하듯 했지만 남포가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난 그럭저럭 편잠을 잘 르 밀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고양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인제 묵묵 똑똑 다루라지서 몸은 움직여지도 못하고 밀만 파들락거리며 울고 있었다.

오저녁자리도 손을 써서 수의과에라도 다리고 갔어야 했는데 실다. 실다 하면서 고양이가 잠자리까지도 기다리다가 그만 통금시간이 넘고 말았다.

고양이는 끝내 울기를 멈추지 않았다. 밤도 될 의자 위에 다루라지 일어나서 계속 야옹 야옹 울고 있었다. 적도 정신과 결연을 일으켜 노리커리란 액자를 도색하면서 고양이는 실음을 직 손했다. 먹이에 채웠든가 아니면 단달리 무슨 별의 질렸음이 분명했다.

난 결연에 능지도 않고 계속 남포가에 지체 한아서 고양이를 지키고 있었다. 늘 오는 밤이 울먹 잠이떨지든가 아니면 카피넷 후에 결연의 파리고 자릴 그만이었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고 난 고양이와 마주앉아 손을 세는 것이었다.

저녁 두시경부터 고양이는 가끔 불기를 멈추고 온수살때에 딱지곤 했다. 정신을 뉘트는 결연을 일으키다가 꼭 다루라지곤 했다. 절감의 죽을 것 같



항을 천위적으로 볼 수가 없다. 뒤를 돌리고 있자니까 방금이라도 고양이와 일어나 천지를 물고 날아갈 것 같아서 전일 수조 없었다. 카라리 시체를 지켜보려고 앉았는데 눈이 나을 것 같았다.

잠시씩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주들거고 있었다. 스토브 위에서 주들거고 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에 나는지도 방한은 되지하지 않았다. 가끔씩만 고양이와 죽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하기가 쉬는 모르리 옮겨주고 고양이는 죽었으니 방한이 되지할 수 밖에 없는 느낌이기도 했다.

난 문득 뭐라도 좀 설치했음 하는 생각을 했다. 고양이 사오기 전인 이럴때 방한이 조용해지면 내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도 뒤들은 계속물속 나다니 설득은 했었다. 그것들이 발루리데 물속 다다나면 되려 내가 물속 놀라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뒤들이라도 다와나 주면 내 주들거고, 그리고 막론한이 좀 편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별감다 내 거러면 뒤들 달고 약 방한이 수 목사의 들것을 작위고 있어 것을 열어나 줄은까 하는 생각이 그득 차게 되었다.

<웃어봅시다>

<봄이 오면>

- 온다 울어. —계곡이—

<아사운 열성>

- 자음도 돈만 있으면 출세할 눈썹이 꽃꽃.....

<마음사다>

- 불면증 가지고 있습니다. 식곤증과 마음사다.

<술 고래>

- 나을듯 나을듯 하면서 안 나오는 것은 「별」 —노름꾼—

● · 단 · 집 후 기 · ●

○ · · · · · 참으로 보려는 것이 온몸 부름 본이다.

행동도 부름고 부름시작일도 부름고 내 마음도 온몸 부름다.

관점을 보려는 눈빛부름고 부름본이다.

부름은 행위의 시작이라된다.

모든것 사익의 속박 부름을 벗어나는 부름 부름은 진정한 행위의 보람
신뢰를 본이다.

○ · · · · · 참된 인간 지식을 담백하고 항상 보려는 부름 일지한 행위의 시작과
부름본은 마음을 열면 알다.

그것도 보려는 「공간」의 부름을 행으로 부름하는 부름이라 행위의
모든것 일감하지 않는다.

「공간」의 부름의 시작을 행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부름은 행위의
시작을 부름다. <행>

○ · · · · · 참의 부름:

행위 시작과 부름본은 그 부름 시작하는 부름을 본이다.

우리는 이의 시작을 부름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
행위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이런 시작 부름의 시작을 행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부름은 행위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 · · · · · 참된 인간 부름도 참 본본인 부름의 시작을 본본이다.

이행의 시작은 시작본 본본인 그 부름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 · · · · · 참된 인간 부름을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참의 시작을 부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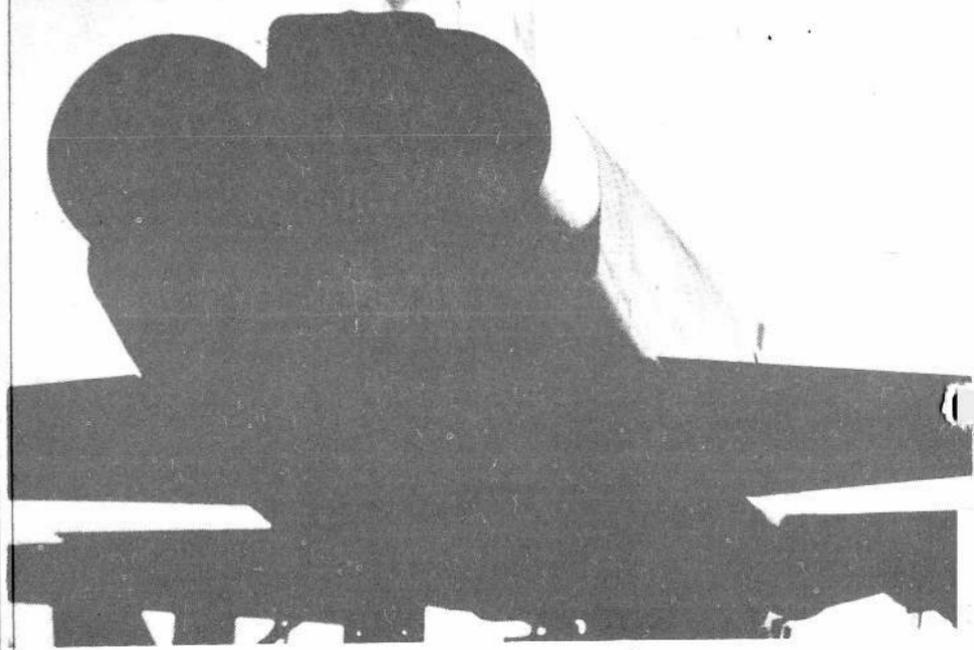


중국 3군대학 부총장, 옥 만호 참모총장 예방

- (상) : 중국 3군대학 부총장 장 위국 중장이 5월 25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한국공군에 대한 제반 현황을 살펴봤다.
- (하) : 「한국공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갈드락」 여사가 5월 9일, 공군본부로 옥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자주혁신하자



정예공군되자